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EBS

수능특강

&

수능완성

현대시, 고전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더 나은 국어전문학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EBS

수능특강

&

수능완성

현대시, 고전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더 나은 국어전문학원

1	백석, <여승>	04	25	정호승,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31
2	한하운, <보리파리>	05	26	이한직, <낙타>	32
3	한용운, <거짓이별>	06	27	이수익, <방울소리>	33
4	조지훈, <맹세>	07	28	김춘수, <능금>	34
5	김소월, <접동새>	08	29	이가림, <석류>	36
6	김광균, <수철리>	09	30	박재삼, <흥부 부부상>	37
7	박용철, <짜늘한 이마>	10	31	김사인, <지상의 빵 한 칸>	38
8	박용래, <월훈>	11	32	김광규, <상행>	39
9	정지용, <그의 반>	12	33	문정희, <성애꽃>	41
10	강은교, <사랑법>	13	34	김남조, <생명>	42
11	유치환, <학>	15	35	함민복, <오래된 잠버릇>	43
12	김용택, <저 새>	16	36	김기택, <어둠도 자세히 보면 환하다>	44
13	윤동주, <참회록>	17	37	오규원, <문>	45
14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18	38	김기택, <쥐>	47
15	박목월, <층층계>	20	39	윤동주, <길>	48
16	이대흠, <동그라미>	22	40	나태주, <사는 일>	49
17	구상, <초토의 시>	23	41	신경림, <특급열차를 타고 가다가>	50
18	곽재구, <새벽편지>	24	42	한용운, <사랑의 측량>	51
19	신경림, <폐촌행>	25	43	정희성, <지문 강에 삼을 찢고>	52
20	고재종, <세한도>	26	44	고재종, <면면함에 대하여>	53
21	장석남, <궁금한 일-박수근 그림에서>	27	45	정지용, <인동차>	54
22	김명인,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28	46	이성부, <봄>	55
23	송수권, <나팔꽃>	29	47	김지하, <무화과>	56
24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30	48	서정주, <귀촉도>	57

고전시

1	〈갯벌 지자〉 / 〈시비에 개〉 / 〈논밭 갈아〉	60	20	윤선도, 〈견회요〉	102
2	총담사, 〈안민가〉	61	21	변계량, 〈내가 좋다하고〉	103
3	정인지, 〈용비어천가〉	62	22	작자미상, 〈상사별곡〉	104
4	〈공무도하가〉 / 〈헌화가〉 / 〈여수장우중문시〉	63	23	신사임당, 〈사친〉	106
5	작자미상, 〈동동〉	64	24	이담영, 〈사노친곡〉	107
6	작자미상, 〈황계사〉	67	25	이건창, 〈전가추석〉	110
7	〈이화에〉 / 〈가마귀비〉 / 〈이별하던〉 / 〈농부의〉	68	26	권호문, 〈한거십팔곡〉	113
8	〈말은 가자〉 / 〈임 이별〉 / 〈뒤뜰에〉 / 〈청천에〉	70	27	이이, 〈고산구곡가〉	117
9	박인로, 〈조흥시가〉	71	28	작자미상, 〈기음노래〉	122
10	조위, 〈만분가〉	72	29	작자미상, 〈영산가〉	125
11	작자미상, 〈복선화음가〉	81	30	김창업, 〈벼슬을〉 / 작자미상, 〈술 먹고〉	127
12	김인겸, 〈일동장유가〉	84	31	신계영, 〈전원사시가〉	128
13	허난설헌, 〈견흥〉	87	32	안동 권 씨, 〈반조화전가〉	132
14	작자미상, 〈방물가〉	89	33	작자미상, 〈정석가〉	138
15	작자미상, 〈어사옹〉 / 작자미상, 〈떼들노래〉	91			
16	김삿갓, 〈영립〉	93			
17	김삿갓, 〈원생원〉 / 황진이, 〈청산리〉	94			
18	설장수, 〈어옹〉	95			
19	정철, 〈성산별곡〉	96			

1	김정환, 〈사하촌〉	146	25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간접)	170
2	이태준, 〈복덕방〉	147	26	이청준, 〈줄〉 (간접)	171
3	김동리, 〈역마〉	148	27	이청준, 〈건방진 신문팔이〉 (간접)	172
4	염상섭, 〈두 파산〉	149	28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간접)	173
5	오상원, 〈유예〉	150	29	김정환, 〈산거족〉 (간접)	174
6	이호철, 〈큰 산〉	151	30	이태준, 〈때강랭〉 (간접)	175
7	이문구, 〈우리 동네 김 씨〉	152	31	이태준, 〈달밤〉 (간접)	176
8	이청준, 〈소리의 빛〉	153	32	채만식, 〈태평천하〉 (간접)	177
9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54	33	채만식, 〈치숙〉 (간접)	178
10	전광용, 〈꺼삐딴 리〉	155	34	채만식, 〈논 이야기〉 (간접)	179
11	이순원, 〈말을 찾아서〉	156	35	채만식, 〈탁류〉 (간접)	180
12	이범선, 〈오발탄〉	157	36	김승옥, 〈무진기행〉 (간접)	181
13	문순태, 〈말하는 돌〉	158	37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간접)	182
14	양귀자, 〈월미동 시인〉	159	38	김승옥,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간접)	183
15	전상국, 〈우상의 눈물〉	160	39	조세희, 〈뫼비우스의 띠〉 (간접)	184
16	김승옥, 〈역사〉	161			
17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162			
18	최명익, 〈비 오는 길〉	163			
19	최일남, 〈노새 두 마리〉	164			
20	이무영, 〈제과 제장〉	165			
21	이동하, 〈장난감 도시〉	166			
22	염상섭, 〈삼대〉 (간접)	167			
23	염상섭, 〈만세전〉 (간접)	168			
24	염상섭, 〈임종〉 (간접)	169			

고전소설

 더 나은 국어

1	작자미상, 〈상사동기〉	188	19	작자미상, 〈박씨전〉 (간접)	207
2	작자미상, 〈숙향전〉	189	20	작자미상, 〈홍계월전〉 (간접)	208
3	작자미상, 〈방한림전〉	190	21	작자미상, 〈금방울전〉 (간접)	209
4	조성기, 〈창선감의록〉	191	22	김만중, 〈사씨남정기〉 (간접)	210
5	홍세태, 〈김영철전〉	192	23	작자미상, 〈소현성록〉 (간접)	211
6	박지원, 〈광문자전〉	193	24	작자미상, 〈장화홍련전〉 (간접)	212
7	작자미상, 〈토끼전〉	194	25	작자미상, 〈채봉감별곡〉 (간접)	213
8	작자미상, 〈심청가〉	195	26	작자미상, 〈옥단춘전〉 (간접)	214
9	허균, 〈홍길동전〉	196	27	작자미상, 〈춘향전〉 (간접)	215
10	작자미상, 〈운영전〉	197	28	작자미상, 〈적벽가〉 (간접)	216
11	작자미상, 〈임진록〉	198	29	김만중, 〈구운몽〉 (간접)	217
12	작자미상, 〈백학선전〉	199	30	남영로, 〈옥루몽〉 (간접)	218
13	박지원, 〈허생전〉	200	31	심익, 〈대관재몽유록〉 (간접)	219
14	작자미상, 〈김원전〉	201			
15	임제, 〈원생몽유록〉	202			
16	권필, 〈주생전〉	203			
17	작자미상, 〈까치전〉	204			
18	작자미상, 〈적성의전〉	206			



01

현대시

작품 분석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두 손을 합하여 마음이 한결같음을 나타내는 예법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숙세의 단정, 탈속적인 모습, 후각적

쓸쓸한 낮이 옛날같이 늡었다
여승이 되었어도 고통스럽고 시러운 숙세의 흔적이 느껴짐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숙세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여인에 대한 슬픔

평안도의 어너 산 깊은 금점판
수공업적 방식으로 작업하던 금광의 열터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몸이 마르고 열굴빛이나 살색이 빛기 없다

여인은 나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나어린 나이 어린 힘겹고 고달픈 삶, 공감각적 상상(정각의 촉각화)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이 갔다
일별 남편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어린 딸의 죽음을 절제된 감정으로 표현 →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심화시킴, 죽음의 미화적 표현

산평도 썩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감정이입 현(恨), 정각적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현실의 고통을 초탈하기 위한 세계 현(恨), 시각적

있었다]

[] 여인이 여승이 되는 장면을 묘사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여승이 된 한 여인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가족을 잃고 끝내 여승이 된 여인의 신산한 삶은 시적 화자로 하여금 동정과 연민을 느끼게 한다. 시적 화자는 단순히 타인의 삶을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 체험을 통한 내면의 울림과 공감을 전달하고 있다.

핵심 정리

- 성격: 시사적, 애상적
- 주제: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
- 표현상 특징
 -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함.
 - 시상의 압축과 절제가 나타남
 - 화자를 관찰자로 설정하여 여인의 삶을 사실적으로 전달함.

현재

과거①

과거②

과거③

작품 분석

보리피리 불며

보리 줄기를 잘라서 만든 피리, 고향&어린시절&인간사에 대한 그리움의 매개체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피-리 날니리.

비애, 한이 사라진 애절한 피리 소리, 의성어, 청각적, 운율감

보리피리 불며

꽃 청산(靑山)

어린 때 그리워

나병으로 인해 떠돌이 생활을 하기 이전

피-리 날니리.

보리피리 불며

인환(人寰)의 거리

인간 세계, 평범함 삶의 세계, 그리움의 대상

인간사(人間事) 그리워

인간 세계, 평범함 삶의 세계, 그리움의 대상

피-리 날니리

보리피리 불며

산하(山峯)는 그 뜻인가?, 많은 자연을 떠돌며 살았음

방랑의 기산하(幾山河)

나병 원자로서의 떠도는 삶

눈물의 언덕을 지나

화자의 비애, 한

피-리 날니리.

이해와 감상

한하운은 천형이라 일컫는 나병(일병 문동병) 환자였다. 작가의 극한적 체험이 우리에게 비운의 감동을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의 시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인이 나병을 앓다가 죽어 간 사람이러는 사실을 모른다 해도, 이 시에는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고독한 병방의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시적 화자의 고통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 시의 1연과 2연에서는 태어나 살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보리피리를 불어 보니 티 없이 순수하던 어린 시절 고향의 봄 언덕에서 아무 걱정 없이 새파란 보릿대를 꺾어 만든 보리피리를 불며 재미있게 놀던 추억이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적 화자의 그리움은 단순히 지나간 시절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3연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몸 성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마음, 성한 몸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시를 읽는 사람은 시인과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 세계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소망을 순한 세월 속에 묻어 두고 보리피리 소리에 한을 담아내고 있는 것일까? 천형을 받아 정착할 수 없어 떠도는 자의 한, 성한 사람이 되고 싶은 비극적 소망, 고향과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 이 모든 것이 병방하는 자가 걷게 되는 언덕마다 눈물의 언덕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핵심 정리

- 성격: 서정적, 회상적
- 주제: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와 병방하는 삶의 한
- 표현상 특징
 -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한 운율의 형성
 - 피리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를 통해 화자의 한을 청각적으로 형성화함.

작품 분석

당신과 나와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연인, 조국, 부처, 절대, 진리

경어체, 여성적 어조 → 경건한 분위기

가령 우리가 좋을테로 말하는 것과 같이, 거짓 이별이라 할 지라도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흔히 말하는 듯이, 이른바

객관적 상황(이별)을 주관적으로 부정함

← 잠시 이별한 상태이지만,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얼마 아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들어가는 두 불의 도화(桃花)가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낙화가 될까요.]

화자의 절음

절음을 잃은 화자 ↔ 두 불의 도화

[] 높음에 대한 안타까움

회색이 되어가는 두 귀 밑의 푸른 구름이, 쪼이는 가을 별에 얼마나 아래

검은 머리, 화자의 절음

서 백설이 될까요.

흰 머리, 절음을 잃은 화자 ↔ 두 불의 도화, 푸른 구름

머리는 희어가도 마음은 붉어갑니다.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
대구, 통사구조 반복

피는 식어가도 눈물은 더워갑니다.

열정

임을 기다리는 마음

사랑의 언덕엔 사태가 나도 희망의 언덕엔 물결이 뛰놀아요.

만남에 대한 희망, 기대

이른바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날 줄만은 알아요.

만남에 대한 확신

그러나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은 또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지고 이별을 거부하겠다는 화자의 강한 의지

와요.

이해와 감상

임과 이별한 객관적 상황을 거짓 이별로 표현함으로써 주관적 의지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전반부에서는 이별의 안타까움과 세월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임과의 재회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핵심 정리

- 성격: 애상적, 의지적, 신문적
- 주제: 이별의 극복의지와 재회에 대한 소망
- 표현상 특징
 - 경어체를 통한 경건한 분위기 조성
 -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상황, 정서를 드러냄
 -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작품 분석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임에 대한 열정 ↔ 싸늘한 바위 의문형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부정적 상황에 처한 힘없는 존재들

깨물어 피터진 입을 맞추어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고

희생적 태도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리야.

임에 대한 절절한 마음, 죽음까지 각오하는 절절함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흰 뼈가 되는 몇 훗날까지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

거룩한 일월의 눈부신 모습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

입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임에 대한 절절한 마음, 뻣친 감정

마음 가난하거니 입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라.

입을 위해 할 수 있는 별로 없다는 한탄, 의문형

의로운 사람들이 피흘린 곳에

숫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뿐

지조, 절개

이해와 감상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화자의 사랑을 '맹세'를 노래하는 작품으로, 화자에게 '임'은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이다.

핵심 정리

- 성격: 의지적
- 주제: 임에 대한 절대적 사랑
- 표현상 특징
 -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함
 - 동일한 구문을 변형, 반복함으로써 주제를 강조함

작품 분석

접동

접동새 울음소리, 의성어, 정각적

접동

아우래비 접동

㉠아홉 병의 남동생 ㉡아홉 오라비의 울음소리(듣기 좋은 음정을 활용한 접동새 울음소리)

'접동'을 행을 바꾸어 가며 반복함
→ ① 소리가 공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효과
② 시 전체에 비극적인 분위기가 형성에 기여

진두강(津頭江)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사북 지평 강, 지평 강가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울니다.

경아씨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 설화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함, 누나의 비극적 죽음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의붓어머니, 아버지의 후살, 개모

누나라고 불러 보라

[] 주관적 감정 표출

[오오 불설위]

영탄법 몹시 서러워, 평안도 병인

[시새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정서의 일반화, 죽어서 접동새가 된 누나의 한을 감정이입을 통해

자신의 것 또는 우리 민족의 것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라고 말함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죽은 누이의 화신, 한(恨)의 상징

[] 원한이 많은 낮은 지층에 가지 못하고 이승에 남아 방황한다는 우리의 민족 신앙과
최남권의 평재(靈臺, 죽은 임금이 죽어서 새가 되었다는 중국 고사와 관련된 표현

[아홉이나 남아 되던 오랩동생]을

그 정도 되던 남동생

[] 죽어서도 원한이 남을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이유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동생들을 향한 그리움, 안타까움, 혈육의 정

[야삼경(夜三更)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깊은 밤, 밤(시)~새벽(시)

[] 죽어서도 개모의 눈을 피해 다녀야 하는 누나의 한(恨)

이 산 저산 옮겨가며 슬피 읊니다.]

이해와 감상

의붓말에 대한 개모의 학대, 한을 지니고 죽은 혼의 접동새로의 환생 등 우리 민족의 가장 보편적이며 전형적이라 할 수 있는 한(恨)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고전 설화에 서 모티프를 차용한 소재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소재와 정서 면에서 우리 문학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핵심 정리

- 성격: 전통적, 애상적, 민요적, 향토적
- 주제: 죽어서도 잊지 못하는 혈육의 정
- 표현상 특징
 - 7·5조, 3음보를 바탕으로 운율을 드러냄.
 - 율음조 현상을 통해 새로운 시어를 창조함.
 - 설화를 차용하여 시적 모티프로 삼음.
 - 의성어를 통해 혈육의 정을 표현함.
 -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작품 분석

산비탈엔 들국화가 환-하고 누이동생의 무덤 옆엔 밤나무 하나가 오흘 서
 자연의 회색한 모습 ↔ 무덤의 어두운 분위기 누이의 모습

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윈 가지를 내어 저었다. 갈
 누이의 죽음에 대한 회자의 안타까움 활용법

길을 못 찾는 영혼같애 절로 눈이 감긴다.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은실을 굶
 밤나무 여윈 가지를 누이의 영혼으로 이김 시냇물이 은실처럼 흐르고

고 등 뒤에 서격이는 떡갈나무 수풀 앞에 차단-한 비석(碑石)이 하나 노을
 차가운

에 젖어 있었다. 흰나비처럼 여윈 모습 아울러 어느 무형한 공중에 그 체운
 시간적 배경 비석의 차고 초라함 → 연약하고 마른 누이의 모습 형체가 없는

이 꺼져 버린 후 밤낮으로 찾아 주는 건 비인 묘지(墓地)의 물소리와 바람소
 누이가 죽은 후 시적 허용 쓸쓸하고 삭막한 누이 무덤, 장가, 악연법

리뿐, 동생의 가슴 우연 비가 나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벌들은
 비석과 누이를 동일시, 시간의 흐름(황혼, 뱀)

이마 우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한 줌 흙을 헤치고 나직-히 부르면 함박꽃
 처럼 눈뜰 것만 같애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며들다.
 옷소매에 눈물을 댄음, 그리움 → 감정의 절제

이해와 감상

이 시의 회자는 누이동생이 묻혀 있는 공동묘지를 찾아 그리움과 추모의 마음을 담아 노래하고 있다. 동생이 잠든 묘지의 풍경을 한 폭의 수채화처럼 묘사함으로써 누이동생에 대한 회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누이동생의 무덤을 살아있는 회자와 죽은 누이동생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핵심 정리

- 성격: 애상적, 추모적
- 주제: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 그리움
- 표현상 특징
 - 감각적 이미지의 대비, 대조

작품 분석

[큰 어둠 가운데 홀로 밝은 불 켜고 앉아 있으면]

일제강점기 [] 병암 대비

외로움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

☞ 위로/위안의 대상, 화자의 소망이 투영된 대상

한 포기 산꽃이라도 있으면 얼마나한 위로이라

상황의 가정 ① 설이법

모두 빼앗기는 듯 눈뿔개 고이 나리면

눈을 감으면, 역설법

외로움의 심화

환한 온몸은 새파란 불 붙어 있는 인광

빛의 자극을 받아 빛을 내던 물질이 그 자극이 빛은 뒤에도 계속하여 내는 빛

☞ 위로/위안의 대상, 화자의 소망이 투영

까만 귀뚜라리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한 기쁨이라

상황의 가정 ②

2연의 '인광'

파란 불에 몸을 사르면

외로움의 극한

심화된 외로움의 상태

[짜늘한 이마 맑게 트이어 기어가는 신경의 간지러움]

☞ 위로/위안의 대상, 화자의 소망이 투영

[] 정신이 맑아지며 깨어나는 듯한 심정

길 잃은 별이라도 맘에 있다면 얼마나한 즐겁이라

상황의 가정 ③

시적 허용

이해와 감상

이 시는 박용철의 초기 시로서 '비애와 우울'을 잘 보여 주는 시이다. '단독자'로서 걸어가는 시적 화자의 외로운 길 옆에 어둠마저 다가올 때, 아득하기만 하더라도 한낱 촛불이라도 있어야 앞길을 걸어가갈 수 있을 터이다. 이처럼 어둠을 지양하고 밝은 빛을 지양하는 태도가 이 시에서는 '어둠/깜깜(블)', '눈/눈', '짜늘함/따뜻함'이라는 대위적 구도로 나뉘어 나타나고 있다. 시의 화자는 전적으로 후자(後者)의 가치들을 지양하고 있는데, 1연에서는 어두운 바깥 세계와 '홀로 밝은 불 켜고 앉아' 있는 안쪽 세계가 대비되고 있다. 비록 그 홀로 있음이 외로움일지라도 '한 포기 산꽃'이라도 있으면 위로가 된다며, '깜깜'의 세계를 긍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2연에서 '모두 빼앗기는 듯 눈뿔개 고이' 내려도 그 '환한' 온몸은 화자의 내면에서 긍정적으로 유지된다. 마찬가지로 3연에서도 화자는 지금은 비록 차가운 몸이지만 새파란 불 붙어 있는 인광(磷光)에 몸을 실러 차츰 온기를 회복하면서 즐거움을 얻고자 한다.

핵심 정리

- 성격: 명상적
- 주제: 고립된 자아의 외로움
- 표현상 특징
 - 시각적,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함.
 - 대립적 이미지, 가정을 통해 주제를 강조함.
 - 점층적 전개를 통해 외로움의 심화과정을 보여줌.
 -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작품 분석

첩첩 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잎진 사잇길, 저 모랫둑, 그 현대문명과 동떨어진 원시적&토속적 세계, 환상적 분위기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음성 상징 함정
 갯(坑) 속 같은 마을. 꼴깍,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
령물을 때기 위해 땅속을 파 들어간 굴 짧은 겨울 해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흠배덕

을 켜지요. 콩깍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 집, 외딴 집에도 불빛은 앓아 이
반복, 운율형성

속토록 창문은 모과(木瓜)빛입니다.

밤이 깊도록 노란빛, 은은함, 신비롭고 싱그러운 느낌의 불빛

기인 밤입니다. 외딴 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
고독의 시간, 시적허용 노인의 고독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행위

도 하고 고무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짚단,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후루룩 처마깃에
짚단이 풀리는 소리를 살피며 듣다. 누군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기대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溫氣)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
새들의 날개짓에서 사람들의 온기를 떠올림, 그리움, 음성 상징
 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밝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노인이 깊게 잠이 든 상황, 조용한 밤 안의 분위기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폐를 지어 읍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읍니다.

외로운 노인의 감정아픔 노인의 고독&슬픔의 고조, 점층법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산속의 적막함 고조

문살에 돋는 월훈(月暈)

그리움의 이미지, 명사형으로 종결하여 정서의 깊이를 더함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산골 마을의 외딴 집에서 홀로 지내는 한 노인의 외로움을 파스한 시선으로 포착하고 있다. 깊은 산골의 전경에서 노인이 살고 있는 외딴 집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노인의 외로움을 보여 주고 있으며, 다양한 비유와 의태어의 사용 등을 통해 표현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모습과 여운 있는 시상의 마무리가 잔잔한 감동을 전해 준다.

핵심 정리

- 성격: 애상적, 토속적
- 주제: 산촌의 적막함과 노인의 고독
- 표현상 특징
 - 경어체의 표현을 통해 정감의 깊이를 더해줌
 - 향토적 사정을 불러일으키는 토속어, 고유어 사용
 -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의 이동
 - : 마을→집→노인
 - 현재형 어미를 통해 극적 효과를 얻음
 - 시상이 집약된 시어로 사상을 마무리함

작품 분석

내 무엇이랴 이름하리 그를?

절대자에 대한 경외심, 도치법

[나의 영혼 안의 고운 불,

내면을 밝혀줌(불) → 나의 영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존재

공손한 이마에 비추는 달,

광명의 존재(달) → 절대적인 존재, 화자에게 공손한 태도를 갖게 하는 존재

나의 눈보다 값진 이,

화자 자신보다 더 소중한 여기저는 존재

바다에서 솟아 올라 나래 떠는 금성(金星),

신비롭고 고귀한 존재, 날개짓 하는 금성, 활유법

쭝뿔 하늘에 흰꽃을 달은 고산 식물(高山植物),

푸른색

신비롭고 고귀한 존재, 날개짓 하는 금성

[] 절대자의 고결함 강조, 절대자에 대한 외경심

[나의 가지에 머물지 않고,

[] 화자와 절대자의 거리감

나의 나라에서도 멀다.]

홀로 어여삐 스스로 한가로워 항상 머언 이,

나는 사랑을 모르노라. 오로지 수그릴 뿐.

절대자에 대한 경배, 도치법

[때없이 가슴에 두 손이 여미어지며

바로 합쳐 단정하게 만들어지며

[] 절대자에 대한 경외심으로 화자의 시음이 좋이는 상태

굽이굽이 돌아 나간 시름의 황혼(黃昏) 길 위]

화자의 갈등이 진정되고 있음

[나 바다 이편에 남긴

[] 화자의 인생이 절대자에게 속해 있음

그의 반임을 고이 지니고 걷노라.]

절대자

이해와 감상

이 시는 기동적 신자였던 정지용의 신앙이 기만이 된 작품으로 종교적 존재인 절대자를 향한 경외감이 드러나 있다. 위 시의 화자는 감히 이름 붙이기 힘든 '그'의 존재를 '불', '달', '금성', '고산식물' 이라하며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화자의 영혼을 밝혀 주는 존재이고, 화자에게 '눈' 보다 소중한 존재이고, '금성'과 '고산식물' 처럼 신비롭고 고귀한 존재이다. 그렇지만 화자는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그'가 항상 '나의 영혼 안의 고운 불'로 '나'의 안에 있다는 점에서 이 거리감은 크고 먼 존재를 향한 경외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는 이 절대적인 존재에게 순종하고 숭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인생이 절대자의 거대한 존재 속에 속해 있는 것을 인식하며 자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핵심 정리

- 성격: 독백적, 관념적
- 주제: 절대적인 존재인 '그'에 대한 존경
- 표현상 특징
 - 도치법을 통해 화자 자신을 낮추고 '그'에 대한 외경심을 강조함
 - 비유적 표현을 통해 절대적 존재를 형상화함

작품 분석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떠나는 이에게 짐착하지 않는 태도
대구법

그리고도 남는 시간은

침묵할 것.

내면 응시를 위한 자세

또는 꽃에 대하여

이름다음

또는 하늘에 대하여

높고 순수한 사랑

또는 무덤에 대하여

죽음의 순간까지 유지되는 사랑

사랑의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 변화
나열&열거법, 대구, 통사구보 반복

서둘지 말 것

침묵할 것.

자신에게 소중한 것일수록
쉽게 말하거나 단정짓지 말 것
대구

그대 살 속의

오래 전에 굳은 날개와

흐르지 않는 강물과

누워 있는 누워 있는 구름,

결코 잠깨지 않는 별을

'굳은 날개', '흐르지 않는 강물', '누워 있는 구름' '잠깨지 않는 별'
→ 화석화된 꿈&이상, 내면의 활력을 상실한 무기력, 이별로 인한 아픔
대구, 나열&열거법, 역설법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지나간 사랑에 대해 침묵하고 기다림으로써 보다 큰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작품이다. 시적 화자는 사랑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이에 대한 짐착을 버리고 '침묵'으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라고 한다. 화자는 이 침묵의 시간에 서두르지 말고 '살눈'을 뜬 채 홀로 떠나는 이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하며, 그때 '가장 큰 하늘'이 매우 가까이 있음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가장 큰 하늘'은 사랑의 초월적 경지로써 사랑법을 알게 된 이가 맞이하게 되는 새로운 삶의 차원을 의미한다.

핵심 정리

- 성격: 관조적, 상징적
- 주제: 인내와 침묵 속에서 발견하는 큰 사랑
- 표현상 특징
 - 간결하고 엄격한 절제의 어조
 - 체험의 모습 이면에 나타나는 희망과 의지
 - 단정적인 어조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냄

쉽게 꿈꾸지 말고

쉽게 흐르지 말고

쉽게 꽃피지 말고

침묵과 기다림의 태도를 버리지 말 것
대구, 나열&영거법

그러므로

실눈으로 볼 것

현실을 담담한 자세로 관조하라는 의미

떠나고 싶은 자

홀로 떠나는 모습을

잠들고 싶은 자

홀로 잠드는 모습을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깨달음,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

그대 등 뒤에 있다.

등 뒤는 가깝지만 보이지 않는 곳 → 새로운 인식의 지평도 만나기 어렵지만 집착에서 벗어나면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작품 분석

나는 학이로다

얽은 먹물색, 시간적 배경

[박모(薄暮)의 주목색 거리]를 가량이면

해가 진 뒤 어스레한 동안, 시간적 배경 [] 암울한 분위기, 시각적

슬픔은 명인 양 목줄기에 맺히어

학의 목 부분의 검은색 눈 명 → 슬픔

소리도 소리도 낼 수 없누나

타인 ↔ 학자

저마다 저마다 마음속 적은 고향을 안고

창창한 담채화(淡彩畵) 속으로 흘러가건만

푸른색이 은은히 채색된 그림, 생경감, 시각적

나는 향수(鄉愁)할 가나안의 복된 길도 모르고

기독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아름답고 평화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공간, 인식적

꿈 푸르른 솔바람 소리만

공정적, 희망적 이미지, 공감각적 상상, 청각의 시각화

아득한 풍랑인 양 머리에 설레노니

공정, 희망과 동떨어짐

깃은 남루하여 올빼미처럼 चु고

학자의 모습, 남루한 채 추운 겨울을 견뎌내는 존재, 직유법

자랑은 호올로 높이고 슬프기만 하여

소리 시적 허용

내 타고남이 차라리 욕되도다

부끄럽고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럽다

[어둑한 저갯가에 지향 없이 설 양이면] [] 희망, 목표 없는 학자의 처지, 암울함

저갯거리

우러러 밤서리와 별빛을 이고

나는 한 오래기 갈대인 양

학자의 모습, 마르고 연약한 존재, 직유법

- 마르는 학이로다

학자의 모습, 아쉬워 가는 존재, 은유법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학자가 자신의 모습을 '학'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학'은 고고하고 지조 높은 전통적 대상이 아니라, 슬픔과 향수에 젖어 남루하고 처량한 모습을 하고 있는 학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비참한 학자의 처지와 자기 인식은 '마르는 학'을 통해 집약되고 있다.

핵심 정리

- 성격: 사색적
- 주제: 슬픔과 향수에 젖어 있는 처량한 자기 인식
- 표현상 특징
 - 학자를 '학'에 빗대어 동일시함.
 -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함.

작품 분석

저 산 저 새 돌아와 우네

암울한 현실에 놓인 화자를 드러내기 위한 존재, '저 빈 산'에 속박된 존재

어둡고 캄캄한 저 빈 산에

부정적 상황, 시각적

저 새 돌아와 우네

부정적 상황, 정각적

가세

청유형 → 화자의 소망, 의지

우리 그리움

저 산에 갇혔네

저 어두운 들을 지나

부정적 현실

저 어두운 강 건너

부정적 현실

저 남산 꽃산에

부정적 현실이 종식된 새로운 세상 ↔ 어두운 들, 어두운 강

음성 상징어, 정각적,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자 하는 기대

우우우 꽃 피러 가세

희사하고 향기로운 이미지, 부정적 현실이 종식된 새로운 세상을 나타내는 시적 대상

산아 산아 산아

저 어둠 태우며

부정적 현실을 종식시키며, 상승적 이미지

타오를 산아

저 꽃산에 눈부시게 깃쳐 오를 새하얀 새여

새로운 세상 상승적 이미지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나타내는 시적 대상 ↔ 저 새

아아, 지금은 저 어두운 빈 산에 갇혀

영탄법

저 새 밤새워 울고

우리 어둠 속에

꽃같이 아픈 눈 뜨고 있네.

부정적 현실 인식
→ 슬픔, 아픔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드러내고, 이러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산속에 갇혀 우는 '저 새'를 통해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표현하고, '깃쳐 오를 새하얀 새'와 '어둠을 태우며 타오를' '산'을 부르는 행위를 통해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는 부정적 현실을 형상화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핵심 정리

- 성격: 의지적, 희망적
- 주제: 부정적 현실 인식과 현실 극복에 대한 소망
- 표현상 특징
 - 어둠과 밝음의 이미지의 대비
 - 청유형을 통해 화자의 소망과 의지를 드러냄

작품 분석

성찰의 매개체

파란 녹이 긴 구리 거울 속에

부정적 이미지, 역사의 쇠망, 흐려진 민족혼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부정적 자아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역사와 민족에 관련된 참화, 역사적 자아

이다지도 욕될까.

평국면으로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부끄러움, 익문형(자기반성적 질문)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변명없이 솔직하게, 청유형 → 의지

—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지나온 삶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현재, 지나온 삶에 대한 성찰, 익문형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미래, 조국 광복의 날 ↔ 밤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미래지점 → 현재 상황에 대한 성찰, 역사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것(소극적 저항)에 대한 성찰

— 그때 그 젊은 나이에

현재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현재에 대한 성찰, 익문형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성찰의 시간, 암울한 시대상황(어느 즐거운 날)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적극적 성찰의 행위, 시대적 양심의 실천의지, 현실을 극복하게 맞게 될 미래에 대한 준비, 청유형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죽음', '어두움', '외로운 자아'를 연상시키는 비극적 이미지, 하강적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화자의 비극적 삶 → 속죄양(자기희생) 이미지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현재의 거울에 비친 미래의 모습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암울한 시대 상황에 처한 시인의 자세가 잘 드러난 시로 평가받는다. 과거 자신의 삶을 욕된 것으로 인식하고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와 같은 탄식으로 참회를 감음하던 화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그 어느 즐거운 날'을 전망하면서 그때 자신이 '부끄러운 고백', 즉 현재의 참회를 다시 참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화자는 '밤이면 밤마다',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거울을 닦는 행위, 즉 치열하고 치절한 자아 성찰이 요구됨을 인식한다. 이러한 자아 성찰의 결과 자신이 '홀로', '슬픈' 학생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깨닫고도 이를 감내하겠다는 화자의 태도에서 숙연함을 느낄 수 있다.

핵심 정리

- 성격: 고백적, 자기성찰적, 상징적
- 주제: 자아 성찰을 통한 참회와 희생의 의지
- 표현상 특징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구리거울을 매개로 자아 성찰의 모습을 보임

작품 분석

[] 아무도 하늘을 보지 못했음, 설의법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자유, 평화를 누리며 인간 본연의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맑은 하늘을 볼 수 없게 하는 장애물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점층적 전개

불특정 다수의 민중, 청자, 말을 건네는 방식

네가 본 건, 먹구름

암담한 현실 ↔ 하늘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 잘못된 현실 인식에 기초한 삶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 행간 결심

쇠 항아리.]

자유,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 억압&구속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뒹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자유,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 억압&구속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 항아리.

명경형 표현, 도치법

→ 과거의 어리석었던 삶을 깨칠 것을 촉구

[아침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닦고

타원을 닦고 맑은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한 노력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지금까지 맑은 하늘 아래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 보지 못했던 이 땅의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을 바로잡자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라는 물음은 결국 제대로 된 하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즉 이 땅의 민중, 백성들은 지금까지 인간다운 세상을 살아오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자는 냉철한 자각을 통해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에서 반복되고 있는 '하늘'은 인간다운 삶이 펼쳐지는 곳, 자유와 평화가 있는 세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핵심 정리

- 성격: 비판적, 참여적, 남성적, 격정적
- 주제: 구속과 억압의 역사에 대한 비판과 밝은 미래에 대한 염원
- 표현상 특징
 - 대립적인 시어의 사용함.
 - 수미상관을 통한 구조적 안정감, 주제 강조함.
 - 행간결심을 통해 화자의 미세한 감정을 표현함.

외경(畏敬)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삶 속에서 알아야 할 가치 ① → 타인을 이기적인 마음으로 함부로 대하면 안됨

알리라

알 것이다

아침저녁

네 머리 위 쇠 항아릴 찢고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고 위한 노력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영원하고 무궁한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는

삶 속에서 알아야 할 가치 ② → 자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삶에 대한 연민

연민(憐憫)을

[]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벽구름을 뚫고, 쇠항아리를 찢어야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고, 삶의 외경과 연민을 알게 될 것이다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모아리며.]

[] 건강한 지체, 삶

서럽게

아 엄숙한 세상을

인간의 시간을 보내는 슬픈 현실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행간 결집

자유, 평화가 없는 세상에서 사려움을 당하면서
인고(忍苦)의 나날을 살 수밖에 없는 민족의 슬픔
→ 현실 극복 의지, 반야법

수미상관
→ 현실 극복 의지

작품 분석

적산(敵産)가옥(家屋) 구석에 짚막한 층층계...

평북 이전까지 한국에 있던 일본인들이 사용하던 집

그 이층에서

회지의 공간

나는 밤이 깊도록 글을 쓴다.

써도 써도 가랑잎처럼 쌓이는

가벼움, 허전함, 직유법

공허감.

내적 갈등, < 가정으로서의 책임감(생계유지) ↔ 시인으로 이상 추구

이것은 내일이면

지폐가 된다.

원교

어느 것은 어린것의 공납금.

수업료

어느 것은 가난한 시량대(柴糧代)

땀나무와 먹의 양식을 마련하는 비용

어느 것은 늘 가벼운 나의 용전(用錢)

용돈

나열, 열거
통사구조 반복

밤 한시, 혹은

두 시. 용변을 하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회지를 제외한 가족들의 공간 ↔ 이층, 공간의 대비

아래층은 단칸방.

박박하지 않은 삼림

온 가족은 잠이 깊다.

서글픈 것의

자식들

저 무심한 평안함.

걱정없이 잠들어 있는 아이들

아아 나는 다시

영탄법

층층계를 밟고

이층으로 올라간다.

(사닥다리를 밟고 원고지 위에서

꼭예사들은 지쳐 내려오는데...)

아슬아슬하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회지의 모습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시인이자 한 가족의 가정인 회지가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마음을 담은 시이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이 늦도록 글을 쓰던 회지는 화장실을 가려다 잠들어 있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리고 다시 이 층에 올라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마주하고 글을 쓰는 작가이면서 한 가정의 가장인 자기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며 팽팽한 긴장감과 중압감을 느낀다. 글은 써도 써도 가랑잎처럼 '공허감'으로 물려와 회지는 스스로를 '생활의 막대한 골목 끝'의 '꼭예사'와 같다고 느낀다.

핵심 정리

- 성격: 상징적, 독백적
- 주제: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
- 표현상 특징
 - 일상적, 평범한 시어를 사용함.

나는 날마다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에 놓인

이 짙막한 층층계를 올라와서

새까만 유리창에

범. 시간적 배경

수척한 얼굴을 만난다.

그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
→ 지괴감

어설픈 <아버지>라는 것이다.

나의 어린것들은

마루방에 끼는 알은식 돛자리 방

왜놈들이 남기고 간 다다미방에서

푸른색으로 여럿이 한줄이 이어지는 모양

날무처럼 포름쭈쭈 얼어 있구나.

가공하지 않은 생무. 자식들

작품 분석

어머니는 말을 등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오' 받침을 넣어 말하는 버릇

오느냐 가느냐라는 말이 어머니의 입을 거치면 옹가 강가가 되고 자느냐
일반적 말하기 어머니의 말버릇, 사투리

사느냐라는 말은 장가 상가가 된다 나무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은 아니어서
일반적 말하기 어머니의 말버릇, 사투리 일반적 말하기,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들도 존중하는 태도

밤나누 이른 푸르딩딩해지고 밭에서 일 하는 사람을 보면 일 항가 댕가 하기
어머니의 말버릇, 사투리 주변 사람들 어머니의 말버릇, 사투리

에 장가 가는가라는 말은 장가 강가가 되고 애기 낳는가라는 말은 아 낭가가
일반적 말하기 어머니의 말버릇, 사투리 일반적 말하기 어머니의 말버릇, 사투리
된다

장가 낭가 당가 랑가 망가가 수시로 사용되는 어머니의 말에는
모든 사람들을 떠나는 어머니의 태도

한사코 오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
어머니의 말버릇 → 어머니의 희생, 사랑

남한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았다는 어머니

일생을 흙 속에서 산,

늪

무장 허리가 굽어져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된 몸으로
갈수록 더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떠주신다
어머니의 사랑, 희생

머리가 밭에 닿아 등글어질 때까지

C자의 열린 구멍에서는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허리가 굽은 어머니 모습 어머니의 사랑, 희생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

어머니는 한사코

오손도순 살아라이 당부를 한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등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어머니의 말과 몸과 삶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사색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말할 때 '오' 받침을 많이 사용하시는 어머니의 버릇(사투리)에서 비롯된 시상은, 그 '오'를 뒹아 보부라진 늪은 어머니의 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받침'이라는 말의 의미에 주목하여, 자식들을 떠받드시는 어머니의 희생적인 삶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연결된다. 상투성에 힘들되기 쉬운 주제인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참신하게 형상화한 시적 상상력이 돋보인다.

핵심 정리

- 성격: 상징적, 의지적
- 주제: 어머니의 끝없는 희생과 사랑
- 표현상 특징
 - 어머니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형상화함.
 - 병언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함.

작품 분석

판잣집 유리 딱지에

조각조각 깨진 유리를 딱지딱지 이어서 붙여놓은 피란민 마음, 전쟁의 참혹함

아이들 얼굴이

전쟁 속에서 고통을 겪는 약한 존재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

아이들의 천진함 → 전쟁의 비극성 부각, 정적 이미지

내려 쪼이던 햇살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아이들의 천진한 모습에 햇빛마저 돌아서다/감각, 화자의 의식 투영, 의인법, 객관적 상관물

나도 돌아선다.

부끄러움, 자책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전쟁의 현실에서 느끼는 화자의 비애, 자괴감, 화자의 분신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인식 전환의 공간

젓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모습, 절망과 죽음의 이미지

개나리가 망울졌다.

미래에 대한 희망, 생명, 인식 전환의 계기 ↔ 젓더미 색채대비/대조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역동적 이미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미래에 대한 희망 ↔ 어른

죄 하나도 없다.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희망찬 미래를 확언 후, 마음에 여유, 흥겨움, 인식 변화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낙관적 태도 ↔ 3번 '울상이 된 그림자'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의 배경은 한국 전쟁 후 잿더미로 변해 버린 삶의 공간으로, 구체적으로는 피란민촌의 판잣집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물리적인 현실로는 명백하게 패하기가 시적 화자를 의미하는 '그림자'는 울상이고 소극적으로 나의 뒤를 따른다. 하지만 그곳에서 화자는 봄을 알려고 개화를 앞두고 있는 '개나리꽃'의 망울들과 밝고 해맑은 '소녀의 미소'를 만난다. 시적 화자의 울상이던 마음은 흥그러워진다. 울상이던 그림자도 웃으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앞장을 선다. 전쟁의 상처와 절망을 딛고 일어설 새로운 희망의 짙을 보았기 때문이다. 화자가 소녀의 미소에서 발견한 사실, 이를테면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는 표현은 중의적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소녀의 '앞니가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소녀는 '죄가 하나도 없다'로도 읽힐 수 있는 것이다. 전쟁과 그로 인한 참혹한 현실에 있어서 아이들은 '죄 하나도 없는' 순수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핵심 정리

- 성격: 상징적, 현실적, 희망적
- 주제: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자 하는 소망, 의지
- 표현상 특징
 -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의미를 형성화함
 - 시상전환(인식 전환)을 통해 주제를 부각함
 -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 태도를 부각함

작품 분석

새벽에 깨어나

희망을 기다리는 시간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희망, 이상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은

사랑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 대한 기대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 정령 : 죽은 사랑의 빛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혼들만 깜박이는

① 고통을 겪어 낸 순수한 영혼을 지닌 사람들 ② 소외된 아픔에 연민을 가진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각에

새벽

아름다움은 새벽의 창을 열고

우리들 가슴의 깊숙한 뜨거움과 만난다.

절실한 인간의 소망, 희망, 열정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애정, 고통을 통한 성숙의 의지

[이제 밝아올 아침의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기 위하여

이상세계 [] 고통을 이겨낸 삶의 아름다움 : 새소리, 햇살, 바람, 라일락 향기, 축삭, 후각, 대구

따스한 햇살과 바람과 라일락 꽃향기를 맡기 위하여]

도치법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반박을 통한 진실성 강조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하여

희망을 주는 세계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희망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회자가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

수미성관

이해와 감상

이 작품에서 화자는 새벽에 일어나 편지를 쓰려는 행위를 통해, 세상의 고통 등을 직시하는 가운데 사랑과 희망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화자의 이러한 의도는 험한 세상에서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는 시간으로서 '새벽'과, 화자가 지향하는 사랑과 희망이 실현되는 시간으로서의 '아침'으로 형성되어 있다.

핵심 정리

- 성격: 희망적, 의지적
- 주제: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시로를 위로하는 모습과 희망이 넘치는 세상에 대한 소망
- 표현상 특징
 - 고통스러운 현실과 대조적인 새벽의 이미지를 제시함.
 - 자연물을 통해 화자가 추구하는 세상을 표현함.
 - 수미성관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강조함.

작품 분석

떨어져 나간 대문짝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안마당에 복사꽃이 빨갳다.

생명력, 계절적 배경(봄), 시각적

가마솥이 그냥 걸려있다.

폐가의 황폐한 분위기, 시각적

별장계 녹이 슬었다

잡초가 우거진 부엌바닥

폐가의 황폐한 분위기, 시각적

아무렇게나 버려진 가계부엔

콩나물 값과 친정어미한테 쓰다 만

생활의 흔적

편지

빈집 서넛 더 더듬다가

폐광을 올라가는 길에서 한 늙은이 만나

폐촌이 된 이유

동무들 소식 물으니

추억의 대상

서울 내 사는 데서 멀지 않은

이촌향도, 도시 빈민으로 살고 있는 친구들

산동네 이름 두어 곳을 댄다.

이해와 감상

이 시는 폐광으로 인해 황폐화된 폐촌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여기저기 빈집들이 있는 쓸쓸한 마을을 둘러본 화자는 그 정경을 담담히 묘사한 뒤, 마을에 남아 있는 노인에게서 들은 옛 동무들의 근황을 제시하고 있다. 감정의 직접적 노출을 자제하고,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공간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환기했다는 특징이 있는 작품이다.

핵심 정리

- 성격: 사실적
- 주제: 퇴락한 폐촌의 쓸쓸한 모습
- 표현상 특징
 - 담담한 묘사로 감정을 절제함.
 - 색채어를 통해 공간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작품 분석

날로 기우듬해 가는 마을 회관 옆

산업화&도시화로 쇠락해가는 농촌의 모습

청솔 한 그루 곳곳이 서 있다.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 희망의 대상, **의인화** → 마을회관

[한때는 앰프 방송 하나로

[] 과거, 번성했던 농촌 → 현재

집집의 생쥐까지 깨우던 회관] 옆,

그 등치의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시련, 고통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

청솔의 의지적인 모습① **의인법**

그 회관 들창 거덜 내는 **댛바람** 때마다

아주 이른 시간, 시련

청솔은 또 한바탕 노엽게 운다.

청솔의 의지적인 모습② **의인법, 감정이입**

거기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과거, 농촌의 번영&활기 → 현재, 서러움을 표출하는 수단

천등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이장과 함께.

유행가 기사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 그러나

산업화&도시화로 쇠락해가는 농촌의 모습

시장 전환 한탄 → 희망

저기 난장 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

힘겨운 농촌 현실을 이겨 내려는 농민들이 노력, 난장난 비닐하우스=기우듬해 가는 마을회관

그 청솔 바라보는 몇몇들 보아라.

희망의 대상

희망을 잃지 않은 농민들

그때마다, **삭바람**마저 빗질하여

삭풍, 겨울철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 시련

서러움조차 잘 걸러 내어

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청솔 보아라.

청솔의 의지적인 모습② **의인법**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

희자가 꿈꾸는 희망이 근거 없는 공상이 아님, 희망에만 의지하는 존재가 아님

까막까치 일어 죽는 이 아침에도

시련, 고통의 시간 → 희망을 갖고 밝은 날을 기다리는 시간

저 동녘에선 **꼭두서니**빛 타고온다.

꼭두서니(쫄) 새로운 희망 = 청솔의 푸른빛

이해와 감상

이 시는 김정희의 '세한도' 그림을 차용하여 농촌의 힘겨운 현실과 극복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날로 퇴락해 가는 농촌 현실을 날로 기울어 가는 마을 회관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내면서, 그 곁에 못웃하게 서 있는 청솔과 그것을 바라보며 희망을 얻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표현적 측면에서는 색채감과 정감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핵심 정리

- 성격: 묘사적.
- 주제: 힘겨운 농촌의 현실과 극복하려는 희망
- 표현상 특징
 - 김정희의 '세한도'를 변용하여 농촌의 고달픈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 '푸른빛'과 '꼭두서니빛'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작품 분석

인쇄한 박수근 화백 그림을 하나 사다가 걸어놓고는 물끄러미 그걸 치어다
 상작의 계기
 보면서 나는 그 그림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보곤 하는데 원래 제목인
 <강변>도 좋지만 [<할머니>라든가 <손주>라는 제목을 붙여 보아도 가슴
 [] 박수근의 소박하고 소탈한 그림에 대한 화자의 정서
 이 알알한 것이 여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는 나도 모르게 한 가지
 상처 따위로 약간 아픈 느낌이 있다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가 술을 드시러 저녁 무렵 외출할 때에는 마당에 널린
 박수근에 대해 들었던 일화
 빨래를 걷어다 개어놓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 빨래를 개는 손이 참 커다랐
 소박하고 소탈한 일상, 다정하고 인간적인 모습
 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장엄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성자의 그것처럼 느껴지기
 전에 들은 이야기 박수근 화가에 대한 화자의 애착적 태도
 도 합니다. 그는 멋쟁이이긴 멋쟁이였던 모양입니다.

[] 박수근 화가는 죽고 없지만 그의 생전에 그와 함께 했던 것들은 남아 있음 → 유한한 생명에 대한 애상감

그러나 [또한 참으로 궁금한 것은 그 커다란 손등 위에서 같이 꿈지락거렸
 시상 전환 생전 박수근 화가를 떠올리게 하는 소재, 유한한 존재, 열유법 시각적
 을 햇빛들이며는 그가 죽은 후에 그를 쫓아갔는가 아니면 이승에 아직 남아
 서 어느 그러한, 장엄한 손길 위에 다시 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
 른 빨래를 개며 들었는지 모르는 빠국새 소리 같은 것들은 다 어떻게 되었
 생전 박수근 화가를 떠올리게 하는 소재, 유한한 존재, 열유법 시각적
 을까. 내가 궁금한 일들은 그러한 궁금한 일들입니다. 그가 가지고 갔을 가난
 이며 그리움 같은 것은 다 무엇이 되어 오는지..... 저녁이 되어 오는지.....
 결핍부재의 이미지, 유한한 존재 반복법, 열기법, 생략법
 가을이 되어 오는지..... 궁금한 일들은 다 슬픈 일들입니다.
 유한한 생명에 대한 근원적 애상감

이해와 감상

이 시는 박수근 화백의 그림과 그의 삶에 대한 화자의 감상을 드러낸 것이다. 화자는 '강변'이라는 그림에서 느낀 것이 '할머니', '손주'라고 제목을 바꿀 수도 있을 만큼 가족 간의 애잔한 정서임을 드러낸다. 결국 박수근 화백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강변의 풍경이 아니라 강변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화자는 읽어낸 것이다. 그러나 시의 후반부에서 화자는 '궁금한 일'에 시상을 집중시키는데, 이는 박수근 화백이 보여 준 '일상의 숭고함과 예술의 아름다움'을 이제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박수근 화백의 그림에서 드러나는 '햇빛, 빠국새 소리' 같은 그의 예술의 원천이 이제 그가 죽음으로써 더 이상 현실 세계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화자는 궁금한 것이다. 이는 곧 박수근 화백이 이루어 놓은 일상의 위대함과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일을 자신 또한 하고 싶었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예술가로서의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핵심 정리

- 성격: 산문적, 애상적, 애착적
- 주제: 일상적 삶과 예술의 조화, 생명의 존재론적 한계에 대한 애상감
- 표현상 특징
 - 박수근 화가의 그림을 소재로 하여 소박하면서도 정겨운 표현을 함.
 - '버니다'를 통해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친근감을 드러냄.
 - 산문에 가까운 긴 호흡의 시구를 구사하여 유장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줌.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자(김정호)가 떠돌아다니며(운명) 지도를 그리며(새상의 끝/경계) 마음의 안식처(바다)를 찾다

작품 분석

나를 쫓아온 눈발 어느 새 여기서 그쳐
시연 바다와 육지의 경계

어둠 덮인 이쪽 능선들과 헤어지면 바다 끝까지
육지, 현상세계 운명

길게 걸쳐진 검은 구름 떴
시연

헛디더 내 아득히 헤맨 날들 끝없이 퍼덕이던

바람은 다시 옷자락에 와 불고
활유법

스치는 소매 끝마다 톡톡 수평선 끊어져 사라진다
음성 상징어

실용적인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생각
사라진다 일념도 세상 흐린 웃음 소리에 감추며
지도를 완성하고자 하는 화자의 꿈을 비웃는 웃음

여기까지 끌고 왔던 사랑 [헤진 발바닥의
실용적인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생각

무슨 감발에 번진 피얼룩도 [] 길을 걸으며 열린 상처
양말&배신 대신 발에 감는 무명천

도치법

저렇게 저문 바다의 파도로서 풀어지느냐

폐선된 목선 하나 덩그러니 뜬 모래벌에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

무엇인가 좁고 있는

남루한 아이들 몇 명

굽은 갑(岬)에 부딪혀 꺾어지는 목소리가 들린다
바다쪽으로 뾰족하게 뻗은 육지

어둡고 외진 길목에 자식 두엇 던져 놓고도

평생의 마음 안팎으로 띄워 올린

별빛으로 환해지던 어느 밤도 있었다.

희미한 빛 속에서는 수없이 물살 흘러지면서

흘러 놓은 인광만큼이나 그리움 끝없고
연해적으로 행을 구성

마주서면 아직도

등불을 켜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뚝배 한 척이 보인다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의지와 희망을 지닌 화자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조선 후기 대동여지도를 만든 고산자 김정호의 삶을 상상하여 쓴 시이다. 김정호는 이전에 편찬된 지도들을 집대성하여 조선의 국토 정보를 사람들이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생에 걸쳐 노력을 기울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시인은 김정호가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일념으로 바다 끝까지 홀로 걸으며 느꼈을 고단함과 외로움, 두고 온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등을 상상하여 노래하고 있다.

핵심 정리

- 성격
- 주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느끼는 고독감과 그리움
- 표현상 특징
 - 연쇄법, 도치 등의 표현을 사용함

작품 분석

회자의 판단&예측, 나팔꽃이 더 뻗어갈 곳이 없음.

바지랑대 끝 더는 꼬일 것이 없어서 끝이다 끝 하고

뻗갠줄을 받치는 긴 맥대기, 한계

삶의 공간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나팔꽃 줄기]는 허공에 두 뺨은 더 자라서

시간의 흐름

회자의 예측이 어긋남, 한계에 맞서서 극복한 나팔꽃 상층적 이미지

꼬여 있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은 아침 구름 두어 점, 이슬 몇 방울

의도적 행간어, 행간 결심

나팔꽃이 자라는 원동력 열기

더 움직이는 바지랑대는 없을 것이었다.

나팔꽃이 의지하려는 대상

그런데도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덩굴손까지 흘러나와

회자의 예측이 빗나감 시간의 흐름

허공을 감아쥐고 바지랑대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젠 포기하고 되돌아올 때도 되었거니 하고

나팔꽃의 변화

: 나팔꽃 줄기 → 덩굴손 → 두세 개의 종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가냘픈 줄기에 두세 개의 종(鐘)까지 매어달고는

시간의 흐름

나팔꽃

아침 하늘에다 은은한 종소리를 퍼내고 있는 것이다.

이젠 더 꼬일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한계, 절망적 상황

우리의 아픔도 더 한 번 길게 꼬여서 푸른 종소리는 나는 법일까

아픔을 극복한 상태, 공감각적 상상, 청각의 시각화

이해와 감상

이제는 한계에 직면했을 것이라는 회자의 예상과 달리 끊임없이 뻗어가는 나팔꽃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성찰하는 작품이다. 회자는 바지랑대의 끝까지 뻗어 있는 나팔꽃을 보며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 그 자리에 멈추어 있을 것이라 짐작하지만, 회자의 예상과 달리 다음 날 아침 바지랑대를 넘어 허공으로 나아가는 나팔꽃을 보며 경탄을 한다. 그리고 그다음 날, 꽃봉오리마저 피워 내는 나팔꽃의 모습에서 회자는 다시 한 번 경탄한다. 한계에 직면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이를 이겨 내려는 나팔꽃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슬픔도 더 큰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으며 시상을 마무리짓고 있다.

핵심 정리

- 성격: 희망적, 의지적
- 주제: 한계를 극복하는 나팔꽃을 통해 본 인생의 의미
- 표현상 특징
 - 자연의 대상에서 깨달은 내용을 인간의 삶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행간 결심을 통해 대상에서 느낀 경이로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품 분석

이를테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유를 얻는 모습을 형상화함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님 '-르 것이다'의 반복하여 각운의 효과

얼굴 한 번 못 마주친 애면 뿌리와

수양 가지가 담을 넘게 하는 내적 요인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더는 꽃과 잎이

수양 가지가 담을 넘게 하는 내적 요인

혼연일체 믿어 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①자유를 얻는 과정의 시련 ②수양 가지가 담을 넘게 하는 외적 요인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①자유를 얻는 과정의 시련 ②수양 가지가 담을 넘게 하는 외적 요인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적절한 시련이 있어야 신명 날 수 있음. 시련을 긍정적으로 인식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뉘 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①시련 ②수양 가지가 담을 넘게 하는 외적 요인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자유를 얻다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 담을 넘어 자라는 식물들. 나열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새로 도와 주는 길을 가는 사람. 신명 나게 용기를 내어 담을 넘을 수 있게 한 존재

도박이자 도판이었을 것이다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일. 위험을 무릅쓰는 일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수양 가지가 담을 넘는 모습을 통해 협력함으로 써 얻어지는 성장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 위한 용기를 노래하고 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지은이는 가정적 표현을 통해 수양 가지가 담을 넘는 행위에 담긴 의미와 담을 넘는 것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시에서 지은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화자가 규정하는 '담'을 넘는 것의 의미에 압축되어 나타나는 데, 그것은 곧 '도박과 도판'이다. 즉 '담'을 넘는 것이 '도박'인 것은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일에 도전해야 하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전적 대상이 용기와 신명을 자극하여 함께 나아가게 하기에 '도판'인 것이다.

핵심 정리

- **성격:** 상징적, 의지적
- **주제:** 자유를 얻기 위한 용기와 협력
- **표현상 특징**
 - '-르 것이다'를 반복하여 각운의 효과를 살림
 - 자연물을 의인화 하여 담을 넘을 가지의 정서를 추축함.
 - 가정법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함.

작품 분석

나는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부정적으로 인식

희망에는 희망이 없다

부정적으로 인식, 분노, 절망이 없는 희망

희망은 기쁨보다 분노에 가깝다

희망을 위한 조건

나는 절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졌을 뿐

긍정적으로 인식

희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부정적으로 인식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다

희망만 있는 희망은 희망이 없다

희망은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

희망에는 절망이 있다

나는 희망의 절망을 먼저 원한다.

희망의 절망이 절망이 될 때보다

희망의 절망이 희망이 될 때

당신을 사랑한다.

이해와 감상

이

핵심 정리

- 성격:
- 주제:
- 표현상 특징

작품 분석

눈을 감으면

회상의 시작 현재 → 과거

어린 때 선생(先生)님이 걸어오신다.

회초리를 드시고

선생(先生)님은 낙타(駱駝)처럼 늙으셨다.

낙타를 닮았던 늙은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림

늦은 봄 햇살을 등에 지고

낙타(駱駝)는 항시(恒時) 추억(追憶)한다.

늙은 선생님

— 옛날에 옛날에 —

추억에 잠겨 있던 늙은 선생님의 모습

과거

낙타(駱駝)는 어린 때 선생(先生)님처럼 늙었다.

회상의 매개체, 시작 대상의 변화(선생님→낙타), 과거→현재

나도 따뜻한 봄볕을 등에 지고

따뜻한 추억을 떠올림 계절, 촉각적

금잔디 위에서 낙타(駱駝)를 본다.

옛날을 추억한다

현재

내가 여윈 동심(童心)의 옛 이야기가

동심을 잃어버린 현실의 삭막함, 아쉬움

여기저기

쓸쓸함과 그리움이 공존하는 공간

떨어져 있음직한 동물원(動物園)의 오후(午後).

공감각적 심상 : 청각(이야기) → 시각(떨어지다)

시간적 배경, 명시형 총결

현재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과거에 대한 회상이 주조를 이루고 있으며,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작품은 크게 1~3연, 4~5연으로 나눌 수 있는데, 1~3연은 화자가 눈을 감고 생각한 세계로 선생님이 등장하고, 4~5연은 현실로 되돌아와 눈앞에 본 세계로 낙타가 등장한다. 화자는 늙은 낙타를 보며 옛날을 그리워하시던 늙은 은사를 연상하고 그리움을 느낀다. 화자가 늙은 은사를 그리워하는 것은, 동심을 잃고 때마침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동심을 그리워하는 처지가 과거 늙은 은사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선생님과 낙타와 '나'는 동일화가 이루어진 존재라 할 수 있다.

핵심 정리

- 성격: 회상적, 시각적
- 주제: 선생님에 대한 회상과 동심에 대한 동경
- 표현상 특징
 - '현재→과거→현재'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 대상의 객관적 형상화를 통해 감정의 절제

작품 분석

청계천 7가 골동품 가게에서
 도시 문명의 공간 추억의 사물들과 교감하는 장소
 나는 어느 황소 목에 걸렸던 방울을
 회상의 매개체
 하나 샀다.

그 영롱한 소리의 방울을 딸랑거리던
 추억 속의 소리
 소는 이미 이승의 짐승이 아니지만,
 방울의 주인, 죽은 소
 [나는 소를 몰고 여름 해질녘 하산(下山)하던
 그날의 소년이 되어, 배고픈 저녁연기 피어오르는
 소를 몰고 하산하던 유년시절 회자 가난하고 소박한 시골 마을의 풍경
 마을로 터널터널 걸어 내려왔다.]
 [] 방울 소리를 계기로 소년 시절을 회상함

장사치들의 흥정이 떠들썩한 문명(文明)의
 청계천 가
 골목에선 지금, 삼륜차가 울려 대는 경적이
 도시 문명
 저자 바닥에 따라운데
 시장
 내가 몰고 가는 소의 딸랑이는 방울 소리
 기억 속의 존재를 현실 속에 재현시킴
 돌담 너머 옥분이네 안방에
 기억 속의 공간
 들릴까 말까,
 따뜻한 과거와 현재 사이의 넘나들
 사립문 밖에 나와 날 기다리면 셋을
 누나의 귀에는 들릴까 말까.
 유년 시절 추억 속의 인물과 관련된

방울소리를 매개로
 과거와 현재가 중첩
 → 그리움 강조

이해와 감상

청계천 골동품 가게에서 산 방울을 매개로 유년 시절의 고향을 떠올리고 시·공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물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먼 과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현재와 과거, 도심 한복판과 고향의 공간이라는 대립되는 시·공간이 중첩되어 표현되면서 회자의 정서가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핵심 정리

- 성격: 회상적
- 주제: 방울 소리를 통해 떠올린 아련한 과거에 대한 그리움
- 표현상 특징
 - 현재와 과거의 시간과 공간이 중첩되면서 그리움의 정소를 효과적으로 증폭시킴

작품 분석

1

능금의 본질 **현재형 종결 '이다'**
그는 그리움에 산다.
능금, 인격적 존재 가치를 지닌 대상 **의인법**

그리움은 익어서
능금

스스로도 견디기 어려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내적 성숙

빛깔이 되고 향기가 된다.
내면적 충실함, 아름다움의 외적 표출

그리움은 마침내

스스로의 무के로
내면적 충실함

떨어져 온다.

떨어져 와서 우리들 손바닥에

눈부신 축제의
성숙을 이룬 존재에 대한 경이감

비할 바 없이 그윽한
정신적 성숙을 이룬

여운을 새긴다.
존재에 대한 감동

2

이미 가 버린 그날과
과거

아직 오지 않은 그날에 머물른
미래

이 아쉬운 자리에는
현재

시시각각의 그의 충실만이
내적인 성숙

익어간다.

보라,

높고 맑은 곳에서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곳

가을이 그에게

한결같은 애무의
능금을 내려바추는 햇살, 자연의 섭리, 신의 은총

눈짓을 보낸다.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익어 가는 능금에 대한 경이감을 차분한 어조로 노래한 작품이다. 시적 화자는 능금이라는 존재를 밝히기 위하여 끊임없는 물음을 보내며 그 비밀을 알아낸다. 능금은 겉모습이 아닌 속 모습, 곧 실체를 드러내며 다가오기 시작한다. 존재의 비밀을 밝히는 주지시이면서도 '그리움', '축제', '애무의 눈짓', '채월', '감정의 바다'와 같이 함축적 의미가 풍부한 시어를 구사하여 열음 같은 지성을 녹여 포근하고 풍요로운 시정의 세계를 열어 보이고 있다. 현상적 세계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태도는 현대시의 새로운 경향을 이끈 것이다.

핵심 정리

- 생각: 상징적, 철학적
- 주제: 존재의 본질과 경이로움
- 표현상 특징
 - 대상에 대한 감정을 절제하고 간결&단백하게 표현함.
 - 구체적 사물의 이미지에서 존재의 본질을 찾아냄.

[농칠 듯 농칠 듯 숨 가쁘게

주제 : 우연, 회자

그의 꽃다운 미소를 따라가면은]

근원을 알 수 없는 신미한 아픔다음

[] 존재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

세월도 알 수 없는 거기

푸르게만 고인

깊고 넓은 감정의 바다가 있다.

능금의 내면에 펼쳐진 끝없이 넓고 시원한 감정의 세계, 신미한 존재의 본질

우리들 두 눈에

그득히 물결치는

시작도 끝도 없는

바다가 있다.

생명의 무한한 그리움, 충만의 세계, 능금을 통해 발견한 존재의 본질

작품 분석

언제부터

이 잉걸볼 같은 그리움이
다 타지 않은 장작불

텅 빈 가슴속에 이글거리기 시작했을까
설악법

[지난여름 내내 앓던 몸살

더 이상 견딜 수 없구나

영혼의 가마솥에 들끓던 사랑의 힘

캄캄한 골방 안에

가둘 수 없구나]
[] 고독한 공간에서 그리움&사랑이 짝툼

[나 혼자 부둥켜안고

뒹굴고 또 뒹굴어도

자꾸만 익어 가는 어둠을

이젠 알알이 쏟아 놓아야 하리]
[] 감당하기 힘든 그리움&사랑

무한히 새파란 심연의 하늘이 두려워
→ 어지러운 회자의 마음 색채대비/대조

나는 땅을 향해 고개 숙인다

[온몸을 휩싸고 도는

어지러운 충만 이기지 못해
사랑하는 마음의 극단적인 상태

나 스스로 껍질을 부순다]
[] 감당하기 힘든 그리움&사랑

아아, 사랑하는 이여
영단법

지구가 쪼개지는 소리보다
과장법

더 아프게

내가 깨뜨리는 이 홍보석의 슬픔을
석류

그대의 딸에
사랑의 슬픔이 깨지는 공간 역설적

받아 주소서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열병과 같이 떠오르는 사랑과 외롭고 애달픈 사랑의 속성을 석류알이 익어 타져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빗대어서 생생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석류'는 그리운 대상에 대한 지적 회자의 사랑을 상징한다. 석류가 껍질을 부수고 타져 나오는 모습은 사랑의 감정이 성숙하여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홍보석'은 영동한 석류알을 비유한 것이기도 하지 만, 홀로 사랑의 열병을 앓아, 사랑의 고독과 아픔이 내재된 것이기도 하다. 회자는 사랑의 열정과 홀로 하는 사랑의 애달픔, 고백에 대한 거절의 두려움과 슬픔 등 다양한 감정을 복합적으로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핵심 정리

- 성격: 애상적, 감각적, 사색적
- 주제: 고독과 사랑의 순환적 관계에 대한 깨달음
- 표현상 특징
 - 영단법, 과장법을 통해 회자의 격정적인 정서를 드러냄.
 - 회자의 내면의 사랑을 비유를 통해 형상화함.
 - 색채 중심의 시각적 심상을 활용함.

작품 분석

가난한 생활을 상징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상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웃음의 물질, 안분지족의 태도

[금이 문제리,

물질적 풍요 문제(중요)가 아니다 설이법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

물질적 풍요 [] 물질(재물)적 풍요는 중요한 것이 아님

웃음의 물질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물질적 빈곤을 이겨나가는 힘 말끔하고 깨끗하다.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가난하지만 욕심 없고 소박한 삶의 태도가 중요함. 단정적 이초

[없는 떡방아 소리도

물질적 풍요

있는 듯이 들어내고]

[] 흥부 부부의 낙천적 성격

손발 닳은 처지끼리

고달픈 처지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面)들아.

똑같이 웃는 모습이 마치 거울 같음. 서로에 대한 이해(사랑)

웃다가 서로 불쌍해

비참한 현실 상황 인식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서로에 대한 연민의 눈물

그러다 금시

절로 면(面)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현실에 슬퍼하는 모습을 상대에게 보인 것을 부끄러워 하고 피안에 함.

면 물질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깜짝 놀래 몸을 떠는 듯이 움직이다 → 갑자기 표출되는 웃음의 순간성

서로 소스라쳐

본(本)웃음 물질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눈물을 극복한 후의 진정한 웃음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가난을 사명으로 극복하려는 자세가 중요함.

이해와 감상

이 시는 고전 소설 <흥부전>의 흥부 부부를 소재로, 가난한 이들이 겪는 삶의 애환과 소박한 행복을 형상화하여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화자는 박을 가르기 전에 웃고 있는 흥부 부부를 떠올리고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흥부 부부가 말로 물질적 풍요보다는 사랑과 신뢰, 정신적 행복을 더 중시하는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이 시는 시련 속에서도 인간이 지켜야 할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핵심 정리

- 성격: 전통적, 고전적, 회상적
- 주제: 가난한 삶의 애환과 극복
- 표현상 특징
 - 고전 소설에서 제재를 끌어 옴
 - 1연과 3연이 형식 면에서 유사성을 보임.
 -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작품 분석

세상은 또 한 고비 넘고

잠이 오지 않는다

꿈결에도 식은 땀이 등을 적신다

삶의 어려움으로 인한 강박관념

몸부림치다 와 닿는

둘째놈 애린 손끝이 천 근으로 아프다

자식에 대한 사랑, 안타까움

세상 그만 내리고만 싶은 나를 애비라 믿어

이렇게 잠이 평화로운가

바로 뉘고 이불을 다독여 준다

이 나이토록 배운 것이라곤 원고지 메꾸 밥비는 재주뿐

가족의 생계도 책임질 수 없는 보잘 것 없는 수임

[쫓기듯 붙잡는 원고지 칸이

평생 생계를 위해 채워야 할 넓은 공간

마침내 못 건널 운명의 강처럼 넓기만 한데]

[] 글을 제대로 쓸 수 없을 정도로 근성에 힘겨움

[달아오른 불덩어리

초라한 몸 가릴 방 한 칸이

몸 하나 누일 적은 공간 ↔ 원고지 칸

망망천지에 없단 말이나]

넓은 세상

[] 가난한 처지에 대한 비애, 한탄

웅크리고 잠든 아내의 등에 얼굴을 대본다

힘겨운 삶

밖에는 바람소리 사정없고

더욱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미래)을 염치

머칠 후면 남이 누울 방바닥

다른 임주자를 위해 방을 비워야 함

잠이 오지 않는다

수배상관

이해와 감상

가난한 삶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시인의 삶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원고지 메꾸 밥비는 재주밖에 없는 시인이 처한 현실은 며칠 후 가족이 함께 누울 방마저 사라지게 될 암울한 상황이다. 가족에 대한 애정과 함께 경제적으로 무능한 자신에 대한 자조적 태도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마저 상실하게 된 상황에 대한 절망감이 드러나 있다.

핵심 정리

- 성격:
- 주제: 가난한 시인이 겪는 생활의 고통
- 표현상 특징
 - 자기 고백적임.
 - 대조적인 상황, 시어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함.

작품 분석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성찰과 사색이 가능한 배경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근대화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 무비판적인 태도로 침묵하는 소시민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현실에 대해 비판하려는 모습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 다오.

현실을 비판하려 하지 말라, 반어법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현실에 대해 무비판적, 안일하게 살아가는 소시민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소시민의 모습

[황혼 속에 고향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 겉모습만 근대화된 사회 현실, 대구

흥미 있는 주간지를 보며

현실 문제를 외면하는 이야기들

고개를 끄덕여 다오.

현실에 관심을 갖지 말아 다오, 반어법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근대화의 비명 아래 사라져 버린 것들, 근대화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심야 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 같은

은밀하게 전해지는 비판의 소리, 언론이 통제받는 현실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 다오.

이미 사라졌거나 통제되는 외면하라, 반어법

[확성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와

[] 근대화로 인해 그럴듯하게 포장된 모습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전시 행정적인 근대화에 대한 비판, 반어법

예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가볍게 즐기면서, 삶에 대한 진지함 없음

즐거운 여행을 해 다오.

부정적인 현실을 외면한 삶을 살아 다오, 반어법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 다오.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말아 다오, 반어법

놀라울 때는 다만 '아!'라고 말해 다오.

현실에 대한 가벼운 반응<짧은> 말을 해라, 반어법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상행선 열차 안팎의 풍경을 통해, 급속한 근대화의 과정에서 자연, 전통, 안정의 가치가 쉽사리 무시되고, 사람들이 사회 현실에 무감각해진 사회상을 비판하고 있다. 회자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혹은 하지 말라고 청자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왜곡된 근대화, 언론 통제, 우민화 정책, 자연 파괴, 황금만능주의의 만연과 같은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 의도를 반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 정리

- 성격: 비판적, 반어적
- 주제: 왜곡된 근대화의 현실과 소시민적 삶에 대한 비판
- 표현상 특징
 - 반어적 표현과 상징적 소재를 통해 근대화의 현실을 비판함.
 - '~다오'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 기차 안(소시민)과 밖(부정적 현실)의 공간을 대비하여 시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현대시 _ EBS 수능특강&수능완성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 다오.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말 → '아' 현실에 대한 비판의 말을 하지 말라. 언론이 통제되고 있는 현실. **반어법**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가문 낱씨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주고받는 이야기, 진지함 없이 겉도는 이야기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관하여

시대상황과 관계없는 이야기

[] 사회적 모순을 내재하지 않은 문제, 본질적이지 않은 눈 앞의 문제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 **대구, 나열&열거**

근대화된 삶의 현실, 세속적인 관심사

이야기해 다오.

시대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해 다오. **반어법**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 근대화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지내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
→ 소시민적 속성을 비판, 회사 자신에 대한 비판&반성

작품 분석

추위가 칼날처럼 다가든

새벽

무심히 커튼을 젖히다 보면

유리창에 피어난, 아니 이런 황홀한 꿈을 보았다.
성에꽃의 아름다움

세상과 나 사이에 밤새 누가

이런 투명한 꽃을 피워 놓으셨을까.
성에꽃, 순수함

[들녘의 꽃들조차 제 빛깔을 감추고

씨앗 속에 깊이 숨죽이고 있을 때] [] 모든 생명력과 빛깔을 잃어버린 황량한 겨울의 정경
차차 희미해지면서 없어지는

이내 스러지든 니르바나의 꽃을
일반, 곧 번외&고뇌가 사라지고 일체의 속박 속에서 해탈한 최고의 경지 → 시련을 겪고 최후의 순간에 피워낸 아름다움

저 얇고 날카로운 유리창에 누가 새겨 놓았을까.
위태로움, 불안정함, 각박하고 냉혹한 상황

허긴 사람도 그렇지.
시상전환, 인식의 확장 : 성에 → 인간

가장 가혹한 고통의 밤이 끝난 자리에
시련의 시간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일어서지.
고통을 이겨낸 후,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음

새하얀 신부 앞에 붉고 푸른 색깔들
성에꽃 들녘의 꽃들

입 다물듯이
활유법

[들녘의 꽃들 모두 제 향기를
[] 꽃이 피지 않는 시기
 씨앗 속에 깊이 감추고 있을 때]

어둠이 스며드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누가 저토록 슬픈 향기를 새기셨을까.
아름다움이 오래 지속되지 못함

한 방울 물로 스러지든
회자가 성에꽃에 대해 비애&슬픔을 느끼는 이유, 순간성&소멸

불가해한 비에의 꽃송이들을.
이해할 수 없는 한 방울의 물로 사자려 버림, 생명이 길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추운 겨울 새벽 유리창에 서린 '성에'를 보며, 이에 대한 감탄과 인간사의 진실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시적 화자는 혹독한 겨울의 추위 속에 핀 성에꽃을 보면서 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한다. 화자는 이러한 섭리를 인간의 삶에 적용하여 인간 또한 '성에'처럼 시련을 극복해 낸 후에야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혹독한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아름답고 희망찬 미래가 다가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비록 그 성에가 곧 한 방울 물로 스러질지라도 꽃으로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화자는 시련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가 갖는 삶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핵심 정리

- 성격: 애상적, 애천적
- 주제: 성에꽃에 대한 애찬과 아름다움
- 표현상 특징
 - 성에의 모습을 인간의 삶에 유추하여 적용함.
 - 비유, 상징을 통해 시적 대상의 속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작품 분석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고통을 거처서 탄생한다

별거벗고 언 땅에 꽂혀 자라는

힘겨운 상황, 고통

초록의 겨울 보리,

시련에서 비롯되는 참된 삶

생명의 어머니도 먼 곳

대자연

추운 몸으로 왔다

인식의 확대
: 생명 → 생명의 어머니

진실도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

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온다]

[] 삶의 진실도 생명처럼 고통을 거처야 얻을 수 있다. 통사 구조 반복

겨울 나무들을 보라

명령형 → 확인, 강조

추위의 면도날로 제 몸을 다듬는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면도에 비유함, 고통을 통해 성숙하는 생명

잎은 떨어져 먼날의 섭리에 불려 가고

자연의 섭리

즐기는 이렇듯이

충전(充電) 부싯돌임을 보라

다시 열을 내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기 위해 고통을 견뎌하며 힘을 모으고 있음, 강인한 줄기에 비유함, 강인한 생명력

금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고통을 알지 못하는 이

친구가 아니다

진실을 함께하는 사람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는

고통과 상처를 감싸 주지 못하는 이

친구가 아니다

통사구조의 반복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1연의 1~2행 반복

열두 대문 다 지나온 추위로

인갓 고반, 시련

하얗게 드러눕는

함박눈 눈송이로 온다

고통 끝에 얻는 생명의 결실

이해와 감상

이 시는 겨울을 배경으로 하여 생명체가 탄생하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겨울보리'와 '겨울나무'는 추운 몸으로 오는 생명체를 표상하고 있는데, 화자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존재도 '추운 몸'으로 오고 인간이 추구해야 할 진실도 피 흘리면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듯 화자는 겨울을 이겨 내는 자연물을 지켜 보며 인간이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핵심 정리

- 성격: 사색적, 교훈적
- 주제: 고통을 통해 완성되는 생명의 본질
- 표현상 특징
 -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 형성과 의미를 강조함.
 - 계절적 배경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 명령형을 통해 깨달음에 대한 확신을 표현함.

작품 분석

사내, 1연의 회자

파리는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잔다

1연의 시적대상 파리에게는 바닥, 사내에게는 천장

날개 휘젓던 공간밖에 믿을 게 없어

구더기였을 때 품었던 이상, 성취된 소망

날개의 길밖에 믿을 게 없어

천장에 매달려 잠자는 파리는 슬프다

추락에 대한 불안감, 감정이입

추락하다 잠이 깨면 곧 비행할 포즈

헬리콥터처럼 활주로 없이 이착륙하는 파리

구더기를 본 사람은 알리라

날개가 없는 구더기는 두려운 바닥을 기대다리며 살아감

왜 파리가 높은 곳에서 잠드는가를

구더기였던 시절에 형성된 높은 곳에 대한 동경

파리, 2연의 회자

저 사내는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잔다

2연의 시적대상 사내에게는 바닥, 파리에게는 천장

지구의 밑 부분에 집이 매달리는 시간

나는 바닥에 엎드려 자는데

사내의 천장

저 사내는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잔다

사내의 바닥

발 붙이고 사는 땅밖에 믿을 게 없다는 듯

중력밖에 믿을 게 없다는 듯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잠드는 저 사내는 슬프다

사내의 바닥

중력밖에 믿을 게 없음, 감정이입

어떤 날은 저 사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내의 외로운 모습

밤늦게 거꾸로 쭈그려 앉아 전화를 걸기도 한다

저 사내처럼 외로운 사람이 어디 또 있나보다

이해와 감상

이 시는 두 회자가 존재하는 독특한 구성으로, 회자와 시적 대상이 1연과 2연에서 그 역할을 바꾼다는 점에서 참신한 발상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1연에서는 사내가 파리가 잠자는 버릇을 관찰하며, 구더기였던 파리는 날개에 대한 이상을 품었기에 높은 곳에 매달려 잠을 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추락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에 사내에게 파리는 슬퍼 보인다. 2연의 파리는 자신이 매달린 천장을 바닥이라 생각한다. 그러기에 날개도 없이 중력만 믿고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자는 사내가 슬퍼 보인다. 게다가 쭈그려 앉아 전화를 가는 모습이 외로워 보이니까지 한다. 이렇듯 상대의 시선을 통해 밝혀지는 자신의 모습은 자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모습이기에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정리

- 성격: 대칭적, 자조적
- 주제: 상대의 입장을 통해 본 존재의 본질
- 표현상 특징
 - 두 개의 시선으로 시상을 전개함.
 - 두 연을 대칭적으로 구성함.

작품 분석

창문 하나 없던 낡은 월세 자취방.

열악한 공간, 어둠을 관찰하는 계기

한낮에도 어둠이 빠져나가지 못하던 방.

아침에 퇴근하여 햇빛을 받고 들어가면

아간에 열을 하는 힘겨운 삶

직사광선이 일제히 켜이어 흩어지던 방.

빛을 받았던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방

잠시 눈꺼풀에 낀 잔광도

작고 약한 빛

눈을 깜빡거리면 바로 어둠이 되던 방.

밝은 곳에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금방 어둠에 적응할 만큼 방이 어둠

퀴퀴하고 걸쭉한 어둠이 항상 고여 있던 방.

상하고 찌들어 바위에 거슬릴 정도로 냄새가 구럼, 후각적

방에 들어서면 눈알이 어둠속에 깊이 박혀

어둠이 눈에 들어오다 X, 눈이 어둠 속에 박히다 O ◀ 뒤집어 보기, 역설적 상상

이리저리 굴려도 잘 돌아가지 않던 방.

주위를 둘러보려고 해도 시물을 식별하기 어려움

어둠이 보일 때까지

시상 전환

어둠속의 무수한 빛과 색깔이 내 눈을 발견할 때까지

눈이 어둠 속 빛과 색깔을 발견하다 X, 어둠 속 빛, 색깔이 눈을 발견하다 O ◀ 뒤집어 보기, 역설적 상상, 주객전도

오래오래 어둠의 내부를 들여다보던 방.

어둠 속의 세계를 관찰하기 위한 노력

자세히 보면 어둠도 환하게 보이던 방.

방안의 온갖 잡동사니들이 큰 숨을 들이쉬며

보이지 않다 : 어둠이 시물을 덮다 X, 시물이 어둠을 빨아들이다 O ◀ 뒤집어 보기, 역설적 상상

느릿느릿 어둠을 빨아들였다가

제 속에 든 빛을 오래오래 발산해주던 방.

약자들이 지닌 힘, 희망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서로 비취주고 되비취주며

소외된 사람들 서로를 보살피 주고 의지함, 의인법

제 안에서 스스로 발광하는 낮은 빛을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는 존재들도 저마다 미약하지만 힘을 지니고 있음

조금씩 끊임없이 나누던 방.

타인에게 지속해서 도움을 줌

이해와 감상

이 시는 밝고 누추한 회자의 자취방에 드리운 어둠에 대한 관찰을 통해 어둠 속 세계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회자는 누추한 어둠의 세계를 오랜 시간 동안 면밀히 관찰하면서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의지하며 빛이 되어 주는 모습을 발견하고 어둠도 자세히 보면 환하다는 역설적 진리를 확인하고 있다.

핵심 정리

- 성격: 성찰적
- 주제: 어둠 속에서 발견한 상생과 공존의 의미
- 표현상 특징
 - 시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주제의식을 형성화함.
 - 음성 상징어를 통해 대상의 모습을 나타냄
 - 주객이 전도된 표현을 통해 회자의 태도를 드러냄.
 - 역설적 표현을 통해 현상의 이면에 대해 생각하게 함.

작품 분석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

단정적 어조 문에 대한 통념 → 통념의 파괴에 대한 흥미 유발

우리 집의 문 또한 그렇지만

인정 회자

어느 집의 문이나

우리 집 → 어느 집 / 일반화

문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잘 열리고 닫힌다는 보장이 없듯

문은 열려있다고 해서

언제나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다고 해서

언제나 닫혀 있지 않다

문의 열림과 닫힘에 대한 통념을 부정함
동사구조 반복, 대구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

어느 집의 문이나 그러나

시상 전환

문이라고 해서 모두 닫히고 열리라는

확증이 없듯

문의 열림과 닫힘에 대한 통념을 부정함

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열리기도 하고 또 닫히기도 하지 않고

문의 열림에 대한 통념을 부정함

또 두드린다고 해서 열리지 않는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일상에서 수없이 접하는 '문'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황이나 인식과는 달리 문이 열려 있지만 열려 있지 않다는 표현과 연결의 속성을 가진 문이 단절의 속성을 가진 담이나 벽이 된다는 표현을 통해 문이 지닌 일반적인 속성을 무너뜨림으로써 독자를 일상에서 벗어난 낯선 세계로 초대하고 있다.

핵심 정리

- 성격: 성찰적, 비판적, 단정적
- 주제: 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비틀기
- 표현상 특징
 - 일상적 소재를 통해 발상의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함
 - 단정적 어조로 일반적인 현상에 대한 명제적 지식을 표현함
 - 부정적 시술어를 통해, 사회적 통념에 대한 저항적 의지를 표현함.

어느 집에서나 문이 있다

어느 집이나 문은

담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

담이나 벽과는 다른 모양으로

자리잡는다

담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

단절

담이나 벽과 다른 모양으로

자리잡기는 잡았지만

담이나 벽이 되지 말라는 법이나

담이나 벽보다 더 든든한

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소통과 단절이라는 모순된 속성의 대립을 뛰어넘는 인식

작품 분석

구멍이 어둠 속에 정적의 숨죽임 뒤에

쥐가 숨어 있는 공간

불안은 두근거리고 있다

불안함(관념) → 촉각(감각)

사람이나 고양이의 잠을 깨울

쥐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

가볍고 요란한 소리들은 강통 속에

창각적, 쥐를 위협하는 대상들(사람, 고양이)을 깨우는 소리 → 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소리

양동이 속에 대야 속에 항상 숨어 있다

쥐의 속성

어둠은 편안하고 안전하지만 굶주림이 있는 곳

이질적 상황 → 쥐의 결핍된 욕망 /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것만으로는 식욕을 채울 수 없음

몽둥이와 텃이 있는 대낮을 지나

쥐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 위협의 시간

대구, 통사구조의 반복

번득이는 눈과 의심 많은 귀를 지나

주린 위장을 끌어당기는 냄새를 향하여

쥐의 결핍된 욕망 굶주린 쥐가 위험을 무릅쓰고 향하는 것

걸음은 공기를 밟듯 나아간다

꾸역꾸역 굶주림 속으로 들어오는 비누 조각

비닐 봉지 향기로운 쥐약이 붙어있는 밥알들

역설적 표현, 죽음을 불러오는 향기로운 욕망의 대상

거품을 물고 떨며 죽을 때까지 그칠 줄 모르는

아아 황홀하고 불안한 식욕

역설적 표현, 죽음을 불러오는 욕망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쥐의 시각을 빌려 현대 물질문명에 매몰된 인간을 비판하고 있는 시이다. 참을 수 없는 욕망에 이끌려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쥐를 통해 인간성을 상실한 채 황홀해 보이는 대상에 대한 욕망에 매몰된 현대인에 대한 통렬한 비판의식을 드러낸다.

핵심 정리

- 성격: 성찰적, 비판적, 역설적
- 주제: 욕망에 빠져 생명을 잃은 쥐와 같은 현대인
- 표현상 특징
 - 탐욕에 빠져 스스로 위험에 빠지는 현대인의 모순성을 비판함
 - 쥐가 처한 상황을 감각적, 사실적으로 묘사함.

작품 분석

잃어버렸습니다.

참된 자아(본질적)의 상실, 경이체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불확실한 상실의 대상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내면세계

길에 나아갑니다.

자아탐색의 여정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담'의 연속성을 형성화함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참된 자아에 대한 지향을 가로막는 장애물, 극복의 대상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 절망적 상황

경제, 동료의 차단, 자아의 단절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① 화자의 그림자 → 절망적 현실로 인해 고뇌하는 모습

② 쇠문의 그림자 → 이들과 임울한 상황의 도래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자아 탐색의 과정이 지속됨.
자아탐색의 길 = 삶의 여정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비애감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 자아정찰을 깨달은 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

자아정찰의 매개체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임담한 현실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화자의 지향점 참된 자아(본질적, 이상적), 상실의 대상

내가 사는 것은 다만,

현실적 자아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역사의 자아를 회복하려는 다짐

이해와 감상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잃어버린 참된 자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담 자쪽에 남아 있는 '나', 즉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서지만, 돌담과 쇠문으로 인해 참된 자아와의 만남이 가로막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그러나 화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을 성찰하고 절망적인 현실 상황 속에서도 참된 자아를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핵심 정리

- 성격: 고백적, 상징적, 의지적
- 주제: 길
- 주제: 참된 자아의 회복과 현실 극복에 대한 의지
- 특징
 -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서 내면세계를 형성화한다.
 - 소박하고 일상적인 시어를 구사하여 표현한다.
 - 고백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낸다.
 - '길'을 걷는 여정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작품 분석

오늘도 하루 잘 살았다

굽은 길은 굽게 가고
과단함, 힘겨움

곧은 길은 곧게 가고
편안함

삶에 적극적으로 맞서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순응하며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화자의 태도 대구법

막판에는 나를 싣고

일상을 마무리하는 시간

가기로 되어 있는 차가

제시간보다 일찍 떠나는 바람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 길을 걷게 된 계기

걷지 않아도 좋은 길을 두어 시간

땀 흘리며 걸기도 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수고로움

그러나 그것도 나쁘지 아니했다

긍정적 인식

걷지 않아도 좋은 길을 걸었으므로

만나지 못했을 뻔했던 싱그러운

바람도 만나고 수풀 사이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해준 자연

빨갭게 익은 멥석딸기도 만나고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해준 자연

해 저문 개울가 고기비를 찍으러 온 물총새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해준 자연

물총새, 쪽빛 날갯짓도 보았으므로

자연에 대한 감탄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이유

이제 날 저물려고 한다

시간의 흐름

길바닥을 떠들던 바람도 잠잠해지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새들도 머리를 숲으로 돌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오늘도 하루 나는 이렇게

잘 살았다.

삶에 대한 만족감의 지속, 긍정적 인식
변형된 수미상관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굽은 길은 굽게, 곧은 길은 곧게 순리대로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에서 여유 있는 삶의 행복감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불행에 얽매이지 않고 주어진 것들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화자의 긍정적 삶의 자세가 잘 드러나 있다.

핵심 정리

- 성격: 독백적, 긍정적, 반성적
- 제재: 길
- 주제: 순리를 따를 때 얻을 수 있는 삶의 만족과 즐거움
- 특징
 - 수미상관의 구성을 통해 시 전체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 길을 걷는 여정에 빗대어 삶의 모습과 성찰한 내용을 형상화하고 있다.
 - 일상생활에서 느낀 소박한 감동을 담백하게 표현하고 있다.

작품 분석

이렇게 서둘러 달려갈 일이 무언가

속도에 쫓기는 삶, 실의법

환한 봄 햇살 꽃그늘 속의 설렘도 보지 못하고

바쁜 삶 속에서 놓친 것, 소중한 가치

날아가듯 달려가 내가 할 일이 무언가

바쁜 일상의 모습

예순에 더 몇 해를 보아 온 같은 풍경과 말들

종착역에서도 그것들이 기다리겠지

특급열차의 목적지 같은 풍경과 말들 → 현대인의 획일화된 삶

들판이 내려다보이는 산역에서 차를 버리자

삶의 자체가 바뀌는 곳 ↔ 특급열차

그리고 걷자 발이 부르트릴 때까지

빠르고 바쁜 삶과 대비되는 모습

복사꽃 숲 나오면 들어가 낮잠도 자고

자유로운 삶의 모습

소매 잡는 이 있으면 하룻밤쯤 술로 지새면서

특급열차를 벗어난 자유로운 삶에 대한 지향
도치법, 청유형

종착역

[이르지 못한들 어찌라 이르고자 한 곳에]

목표만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회복, 실의법

[] 도치법

풀씨들 날아가다 떨어져 몸을 묻은

산은 파랗고 강물은 저리 반짝이는데

자유롭게 날아간 풀씨들과 같은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시각적

이해와 감상

특급열차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화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날아가듯 달려가'도 자신을 기다리는 것은 '같은 풍경과 말들' 밖에 없게 생각하며 목적 달성을 위한 삶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 이윽고 화자는 특급열차에서 내려 들판을 걷고, 복사꽃 숲에 들어가 낮잠을 자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 술로 밤을 지새우는 등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화자는, 정해진 목적지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무 곳이나 떨어져 생명을 말하는 풀씨들이 피란 산과 반짝이는 강물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표만을 위해 질주해 왔던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한다.

핵심 정리

- 성격: 비판적, 회의적
- 주제: 특급열차를 타고 가다가 느낀 삶에 대한 반성과 자유로운 삶의 회복
- 특징:
 - ①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드러냄.
 - ② 의문문의 형식을 이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함.
 - ③ 2, 3연에서 도치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함.
 - ④ 청유형 어미(-자)를 사용하여 의지적 태도와 함께하는 공감적 자세를 유도함.
 - ⑤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해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부각함.

작품 분석

즐겁고 아름다운 일은 양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각

그런데 당신의 사랑은 양이 적을수록 좋은가 봐요.

양이 적으면 거리가 가깝기 때문, **역설적 인식**

여성적 애초 경어체

당신의 사랑은 당신과 나와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양을 알려면 당신과 나의 거리를 측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양을 알기 위한 방법

그래서 당신과 나의 거리가 멀면 사랑의 양이 많고 거리가 가까우면 사랑

거리가 멀다 = 사랑의 양이 많다. 나를 울림 슬픔

거리가 가깝다 = 사랑의 양이 적다. 나를 웃김 기쁨

의 양이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사랑은 나를 웃기더니 많은 사랑은 나를 울립니다.

역설법

누라서 사랑이 멀어지면 사랑도 멀어진다고 하여요.

사랑에 대한 통념을 부정

당신이 가신 뒤로 사랑이 멀어졌으면 날마다 날마다 나를 울리는 것은 사

사랑의 통념(사랑이 멀어지면 사랑도 멀어진다)에 대한 부정, 이별의 상황에서 임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짐. 반복, 설의법

랑이 아니고 무엇이어요.

이해와 감상

‘사랑의 측량’은 사랑에 대한 독창적인 인식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흔히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가까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에서는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랑의 양이 많아진다고 말한다. 사랑이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그 사이에 사랑을 많이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사랑에 대한 화자 나름의 통찰이 자리 잡고 있다. 즉, 이별의 상황에서 오히려 상대를 소중히 여기며 그리워하는 마음은 더 깊어진다는 점을 화자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사랑에 대한 통찰을 ‘당신의 사랑은 양이 적을수록 좋은가 봐요.’ ‘적은 사랑은 나를 웃기더니 많은 사랑은 나를 울립니다.’와 같은 역설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점은 이 시의 특징이다.

핵심 정리

- 성격: 여성적, 연설적
-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순교한 사랑
- 특징:
 - ① 경어체를 통해 임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존경의 자세를 드러냄.
 - ② 추상적 개념인 사랑을 측정할 수 있는 거리로 나타내는 발상이 참신함.
 - ③ 역설적 표현을 통해 사랑에 대한 통념을 거부하고 새로운 인식을 드러냄.

작품 분석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노동자)도 물과 같음, 설악법 ← 강물 :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짙은 강물은 공명하고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을 표상한다.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공간적 배경 노동자의 표상, 생계의 수단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삽에 담긴 노동자의 고단한 삶, 삶을 이어가기 위한 어려움을 씻어내고 싶은 마음

일이 끝나 저물어

시간적 배경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노동자의 비애가 깊이감(심화)

쭈그러 앉아 담배나 피우고

삶에 대해 무기력하고 체념적이며 소극적인 화자의 태도
보조사 '이나' 의존명사 '뿐'을 통한 강조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말긴 한 생애가

중년 노동자로서의 삶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발전없이 반복되는 삶, 희망 없이 시드는 삶, 반복됨, 하강적 이미지

셋강바다 썩은 물에

①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 ②희망과 생명력이 없는 노동자의 삶

달이 뜨는구나

반복적인 삶, 주체적이지 않은 삶 / 희망X, 영탄법

우리가 저와 같아서

①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② 반복해서 뜨는 달과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공핍한 노동자의 삶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반복적인 삶 가난한 현실을 수용하는 태도, 체념적

이해와 감상

이 시는 1970년대 산업화로 인해 소외된 도시 노동자의 삶을 차분한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중년의 노동자인 화자가 하루 일을 끝내고 흐르는 강물에 삽을 씻으며, 인생의 의미를 성찰하는 내용인데, 1~4행에서 고단한 하루의 노동을 끝낸 화자는 강물을 보며 삶의 슬픔을 관조하고 있다. 그러나 힘든 노동의 대가는 언제나 보잘 것 없다. 육체적 노동은 항상 천시당하기만 하고 노동자에게 무력감과 실의뿐이다. 5~8행에서는 적극적인 현실 극복의 의지가 없이 체념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무력감과 실의에 빠진 화자의 모습이 '스스로 깊어 가는 강', '쭈그러 앉아 담배나 피우고', '돌아갈 뿐이다' 등의 시구에서 잘 나타난다.

9~12행은 젊어서부터 중년의 나이까지 그의 노동자 생활이 아무런 발전 없이 반복되어 왔음을 말해준다. '썩은 물'은 그 세월 동안 세상은 계속 썩어 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가 처한 암담한 현실을 보여 준다. 13~16행에서 화자는 그래도 시간이 되면 달은 어김없이 뜨고, 썩은 강 위에 뜨는 달과 같이 가난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다.

이 시는 감정의 절제와 체험적 이미지의 형상화를 통해 깊은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의 삶의 한 국면을 자연물인 '강'의 흐름이라는 심상과 결합시켜 형상화함으로써 민중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핵심 정리

- 성격: 성찰적, 회고적
- 주제: 가난한 노동자의 삶의 비애
- 특징
 - ① 연의 구분이 없는 단연시법
 - ②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자연물의 이미지와 결합시킴.
 - ③ 시간의 흐름과 화자의 내면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작품 분석

너 들어 보았니

저 동구 밖 느티나무의 / 푸르른 울음소리

동네 어귀

느티나무가 겨울 바람을 견디는 모습, 봄의 부활을 준비하는 과정, 공감각적 상상, 청각의 시각화, 시적 허용

날이면 날마다 삭풍 되게는 치고

겨울바람, 시련

[] 희망조차 품을 수 없는 절망적 현실

우듬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나무의 꼭대기 줄기, 희망

지난겨울 / 온몸 상처투성이인 저 나무

고통의 시간

제 상처마다에서 뽑아내던 / 푸르른 울음소리

너 들어 보았니

다 청산하고 떠나 버리는 마을에

도시화, 이농현상으로 피해받은 농촌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농촌 사람들의 고통, 희망을 위해 아픔을 감내하는 소리, 푸르른 울음소리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

시련을 견딘 이후의 시간, 시상전환

모두 이파리 이파리에 내주어

새잎이 돋는 봄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광휘를 / 저렇게 생생히 내뿜는데

무성하게 우기진 잎

겨울을 이겨 내고 무성하게 잎을 피워 낸, 시련과 고통을 견뎌 낸 결과물

앞들에서 모를 내다 / 허리 펴는 사람들

농촌에 남아 농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왜 저 나무 한참씩이나 쳐다보겠니

느티나무를 보며 위안(희망)을 얻는 사람들, 설악법

어디선가 북소리는

희망, 용기를 주는 소리

왜 둥둥둥둥 울려 나겠니

음성상징어, 청각적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추운 겨울을 이겨 내고 봄을 맞이한 느티나무처럼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어려운 현실도 미래에는 희망 차게 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시의 제목에 제시된 '면면함'은 시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상태를 뜻하는 '면면함'은 시련 속에서도 생을 계속 이어 나가고 언젠가는 시련을 극복하게 되는 삶의 본질을 보여 주고 있다. 즉, 화자는 이농 현상으로 피해화된 농촌 마을 사람들이 겨울을 이겨 낸 느티나무처럼 희망을 버리지 않고 면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의 가치를 보여 주고 있다.

핵심 정리

- 성격: 애잔적, 교훈적
- 주제: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의 면면함
- 특징
 - ① 특정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사용하여 친밀감을 줌.
 - ② 다양한 감각적 상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구체화함.
 - ③ 느티나무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삶의 참된 의미를 제시함.

작품 분석

노주인(老主人)의 장벽(腸壁)에

무시(無時)로 [인동(忍冬) 삼킨 물이 나른다.]

아무때나 인동차, 시건을 건다는 시간 내린다 [] ①인동차를 마신다 ② 겨울(사련)을 참고 견딘다 / 중의법

자작나무 덩그러려 불이

장작의 다 타지 않은 덩어리에 붙은 불, 생명력

도로 피어 붙고,

강인한 생명력 ①

구석에 그늘지어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강인한 생명력 ②

붉은색의 푸른색의 선명한 이미지
- 암울한 현실을 참고 견디려는 화자의 의지

↔ 비결상황 공간대배 [] 봄(광복)에 대한 희망, 기대

[흄냄새 훈훈히 김도 서리다가]

강인한 생명력 ③

[바깥 풍설(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눈바람, 외부, 시련, 일제강점기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쓰다

[] 감정이 절제된 표현, 노주인의 행동만 묘사 → 부정적 현실상황을 간접적으로 전달

산중(山中)에 책력(冊曆)도 없이

속세와 단절된 공간 시간의 흐름을 잊음(초월), 속세를 초월

삼동(三冬)이 하이얗다.

추운 겨울, 일제강점기 시적허용

시간의 흐름도 초월한 탈속의 경지
- 동양적 세계관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노주인이 '인동' 삶은 물을 마시며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 내리는 모습을 통해 건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현실을 묵묵히 이겨 내리는 의지를 감각적으로 보여 준 시이다. 생명력이 역눌려 있는 겨울과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라는 두 계절의 이미지를 적절히 드러내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의 자세를 보여 준 것이 특징이다.

핵심 정리

- 성격: 동양적, 관조적
- 주제: 시련을 묵묵히 건디는 인내
- 특징
 - ① 어백의 마와 절제미를 통해 동양적 세계관을 표현함.
 - ② 색채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인내와 의지의 태도를 표현함.
 - ③ 겨울 추위를 이겨 내기 위해 인동차를 마시는 노주인의 모습을 통해 어려운 현실을 견디려는 인내와 기다림을 형상화함.

작품 분석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자연의 섭리, 계절의 순환, 봄의 도래에 대한 당위성

단정적 어조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당연한 것까지 잃어버린 절망적 상황 봄, 자유, 민주

어디 뻗발 구석이거나

갯바닥, 늪 바닥에 있는 미끈미끈한 흙으로 이루어진 밭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시련

봄이 오기까지의 시련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봄의 행위, 의인법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부정적 현실의 심화, 봄이 와야만 하는 상황 소식 전달의 매개체, 의인법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의인법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타지만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봄을 맞이하는 화자의 감격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기다림의 완성에 대한 기쁨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시련을 이겨 낸 봄에 대한 예찬, 의인법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봄'을 기다리고 있는 화자를 통해 계절적 순환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올 봄을 '너'로 의인화하여 표현한 시이다. 시인은 '너는 온다'와 같은 화자의 단정적인 어조와 '마침내'와 같은 표현을 통해 반드시 찾아올 봄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독자에게 공감하도록 하고 있다. 반드시 찾아올 봄은 힘든 순간을 지나 찾아온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

핵심 정리

- 성격: 상징적, 현실 참여적, 희망적
- 주제: 언젠가는 올 봄(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
- 특징
 - ① 봄을 의인화하여 상징적 의미를 부여함.
 - ② 단정적 어조를 통해 봄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화자의 믿음을 강조함.

작품 분석

돌담 기대 친구 손 붙들고

토한 뒤 눈물 닦고 코 풀고 나서

회자가 속에 쉬함
→ 고통스럽고 암울한 현실의 상황

우러른 갯빛 하늘

부정적 현실, 화색, 시각적

무화과 한 그루가 그마저 가려 썼다

갯빛 하늘

이봐

내겐 꽃 시절이 없었어

아름답고 화려한 시절

꽃 없이 바로 열매 맺는 게
화려한 시절없이 암울하기만 한 삶. 무화과 = 회자

그게 무화과 아닌가

부정적 인식

어떤가

확신에 찬 물음

친구는 손 뽑아 등 다스려 주며

위로의 행동

이것 봐

열매 속에서 속 꽃 피는 게

밖으로 꽃피는 삶보다 더 아름답고 의미있는 삶

그게 무화과 아닌가

긍정적 인식

어떤가

회자의 말 : 자조적

친구의 말 : 위로

일어나 둘이서 검은 개굴창가 따라

검은 도랑, 시공상, 부정적 현실

비틀거리며 걷는다

부정적 현실을 힘겹고 위태롭게 살아가는 모습

검은 도둑팽이 하나가 날째게

부정적 현실을 활보하는 부정적 대상

개굴창을 가로지른다.

이해와 감상

이 시는 비록 화려하거나 남들의 눈에 띄게 요란하진 않아도 '열매' 속에서 '속 꽃'을 피우며 결실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아름답게 여기는 시인의 세계관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1연에서 회자는 구도를 한 후, '갯빛 하늘'을 올려다보려 하지만 그마저도 무화과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회자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그로 인해 고통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연에서 회자는 친구에게 자기에게는 화려하고 좋은 시절인 '꽃 시절'이 없었다고 한탄한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은 마치 꽃 없이 열매 맺는 '무화과'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회자의 친구는 '무화과'는 꽃이 없는 게 아니라 열매 속에서 '속 꽃'을 피우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것일 뿐, 오히려 회자는 성숙함 속에 화려하고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위로한다. 3연에서 회자와 친구는 다시 일어나 비틀거리며 걷지만, 그곳이 '검은 개굴창가'이고 그 옆으로 '검은 도둑팽이'가 지나가는 것으로 그려 내어, 여전히 현실 상황은 암울하고 힘들다는 것을 다시 환기시키며 시를 끝맺는다.

핵심 정리

- 성격: 비유적, 현실 비판적
- 주제: 무화과
- 주제: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추구하는 삶의 가치
- 특징
 - 시물의 속성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함.
 - 대화 형식을 통해 절망하는 이를 위로하는 구조를 보임.
 - 자연물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삶의 의미를 형상화함
 - '나'와 '친구'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보임.
 - 시대 현실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 2연에 유사한 문장의 반복이 사용됨.

작품 분석

눈물 아롱아롱

눈물이 떨어져 얼룩진 모양, 의태어, 음성상징어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났으신 길은

임이 떠난 죽음의 길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西域) 삼만 리.

한(恨)의 이미지 지승, 죽음의 세계 지승과 이승의 심리적 거리, 돌아올 수 없는 길

흰 옷깃 여며 여며 가읍신 님의

수(壽筭), 죽음의 이미지, 한(恨)의 이미지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巴蜀) 삼만 리.

지승, 죽음의 세계

신이나 삼아 즐길 슬픈 사연의

도치

← 슬픈 사연을 울음이 아로새긴 육날 베투리 신이나 삼아 즐길

울음이 아로새긴 육날 베투리.

정성을 들인 여인의 머리털로 만들어진 신,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

은장도 푸른 날로 이냥 베어서

임에 대한 사랑, 여성화자 이러한 모습으로 즐긴

도치

← 은장도 푸른 날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이냥 베어서 워어 드릴걸

부질없는 이 머리털 워어 드릴걸.

임이 없으면 의미없는 존재

감정이입

초롱에 불빛, 지친 밤하늘

늦은밤까지 이어지는 임에 대한 그리움

굽이굽이 은하물 목이 젖은 새.

단절의 이미지 귀축도, 한(恨)의 이미지

차마 아니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체 피에 취한 새가 귀축도 운다.

그리움, 슬픔 화자의 슬픔, 한, 감정이입

그대 하늘 끝 호을로 가신 님아.

지승 임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움 강조, 시적허용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전통적 소재를 빌려 떠나간 임에 대한 화자의 애절한 마음을 표현한 시이다. '귀축도'란 흔히 '소색채', '접동채'로 불리는 채로, 이 작품에서는 사랑하는 임의 죽음에 대한 한(恨)을 상징하고 있다. 화자가 사랑하는 임은 다시 오지 못하는 지승길, 즉 '서역 삼만 리', '파촉 삼만 리'로 떠나 버렸다. 화자와 사랑하는 임과의 거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퍼 눈물이 아롱아롱 맺힐 뿐이다. 차라리 사랑하는 임이 살아 계실 때 '머리털을 워어 신이나 삼아 즐길'이라며 지극한 정성을 쏟지 못한 아쉬움과 후회의 정서를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정서는 한(恨)으로 승화되어 '목이 젖은 새', '체 피에 취한 새'인 '귀축도'로 귀결된다. '하늘 끝 호을로 가신 암'이기에 화자의 그리움은 응어리져 따뜻한 눈물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핵심 정리

- 성격: 전통적, 동양적, 상징적
- 주제: 귀축도의 전설, 임과의 이별
- 주제: 죽음 임을 향한 그리움
- 특징
 - 도치법을 통해 임에 대한 사랑을 나타냄.
 - 시적 화자의 감정을 대상에 이입하여 드러냄.
 - 전통적 설화와의 접목을 통해 정서를 드러냄.



02

교전시



작품 분석

[] 시간의 흐름, 아침, 시각적, 정각적

[] 공간의 이동, 집 → 집 밖

[셋별 지자 종다리 뗏다] [호미 메고 사립 나니]

금성

사립문을 나시니

긴 수풀 찬 이슬에 베잠방이 다 젖는다

베로 만든 짧은 남자용 홀바지

아이야 시절이 좋은 손 옷이 젖다 관계하라

태평성대, 풍년

실의법

시비에 개 짓거늘 님만 여겨 나가보니

사립문

님은 아니 오고 잎 지는 소리로다

개가 짓은 대상

저 개야 추풍낙엽(秋風落葉)을 짓어 날 놀랄 줄 이시랴

[논발 갈아 김 매고 베잠방이 대님 쳐 신 들메고

논밭에 난 잡초

낫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를 버려 들러 메고 울창한 산속에 들어가서 삭정

공간의 이동

이 마른 싹을 베거나 자르거나 지계에 깊어져 지팡이에 받쳐 놓고] 쌈을 찾

[] 농민의 바쁜 일과, 사실적 묘사, 열거식 열거

아가서 점심도 다 비우고 곰방대를 툭툭 털어 있담배 피워 물고 콧노래 흥얼

대다가

[석양이 재 넘어갈 때 어깨를 추스르며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어이 같꼬

시간의 흐름

낙천적&풍류적 태도

하더라]

[] 농민의 한기롭고 여유있는 삶과 풍류, 사실적 묘사

현대어 풀이

셋별이 지자 날이 밝아 종다리가 뗏다. 호미를 메고 사립문을 나서니 길게 자란 수풀에 맺힌 찬이슬로 베잠방이가 다 젖는다. 아이야, 시절이 이처럼 태평하고 좋기만 한다면 옷이 젖는 것쯤이야 어떠하랴.

▪ 주제: 건강한 농촌 생활에 대한 동경

현대어 풀이

사립문에 개가 짓으니 임이 오는 것으로 여겨서 나가 보니 임은 안 오고 잎이 지는 소리구나 저 개야, 가을 바람에 낙엽이 지는 것을 보고 짓어 날 놀라게 할 줄 있으랴

▪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

현대어 풀이

논밭 갈아 김 매고 베잠방이(베로 만든 남자용 홀바지) 대님(바짓가랑이 끝을 접어서 발목을 졸라 매는 끈) 쳐 신 잡아매고 낫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 갈아 들러메고 울창한 산속에 들어가서 삭정(산 나무에 붙어 있는 죽은 가지) 마른 싹(뿔)감을 베거나 자르거나 지계에 깊어져 지팡이 받쳐 놓고 쌈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을 비우고 곰방대 툭툭 털어 있담배 물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다가 석양이 재를 넘어갈 때 어깨를 추스르며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어이 같고 하더라.

▪ 주제: 농촌의 바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여유

작품 분석

[군(君)은 아버지요 [] 임금, 신하, 백성 → 가족
은유법, 통사구조 반복, 가정법

신(臣)은 사랑하실 어머니요

가족주의

민(民)은 어린아이라고 하실지면]
가정법

민이 사랑을 알리이다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

꾸물거리며 살손 물생(物生)이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백성

이를 먹여 다스려져
이들, 백성

민본주의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려 할지면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 현실에 만족하는 백성의 말

나라 안이 유지될 줄 알리이다

10구체 향가 낙구 첫머리의 감탄사

아으 군답게 신답게 민답게 할지면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국태민안), 각자의 본분에 충실한 자세

국태민안의 방법

나라 안이 태평하리이다
공극적 지향점

현대어 풀이

임금은 아버지며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이며
백성은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백성이 사랑받음을 알 것입니다.
꾸물거리며(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이들을 먹여 다스리어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한다면
나라 안이 유지될 것을 알 것입니다.
아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 안이 태평할 것입니다.

▪ 주제: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자세

작품 분석

이 씨 왕조의 역대 조상.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해동 육룡(六龍)이 나시어 일마다 천복(天福)이시니
발해의 동쪽, 우리나라 천우신조(天佑神助), 조선 건국의 정당성

고성(古聖)이 동부(同符)하시니
중국 고대 왕조의 창업주 짝이 되어 똑같이 들어맞음

<제1장>

문외의 용성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떨새 꽃 좋고 열매 많나니
가치가 튼튼한 나라 시련, 내우외환(內憂外患, 나라 안팎의 어려움)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칠새 내가 일어 바다에 가나니
유서 깊은 나라 시련, 내우외환(內憂外患) 무궁한 발전

<제2장>

[] 주나라 시조 고공단보가 빈국에서 살 때, 북쪽 오랑캐의 침범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강을 건너 기산 밑으로 옮겨와 살았는데, 백성들이 그의 덕을 사모하여 모두 따르려 하였다.
→ 후손이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한 하늘의 뜻

[적인(狄人)의 사이에 가시어 적인이 침범하거늘 기산(岐山)으로 옮기심도
중국 북쪽 오랑캐, 이민족 중국 신시성에 있는 산, 주나라 시조 고공단보가 이곳의 남쪽으로 옮겨가 살았던 곳
하늘의 뜻이시니]

[야인(野人)의 사이에 가시어 야인이 침범하거늘 덕원(德源)으로 옮기심도
이민족 함경남도 문천군의 지명

하늘의 뜻이시니]

[] 목조가 오동에서 원의 배슬인 오천호 소장을 허였는데, 그 아들 익조가 계승하여 인심을 얻었는데, 이민족이 사기하여 죽이려고 하자 익조가 경흥부 동쪽에서 움(구덩이)을 파고 살았다. 그후, 덕원으로 돌아와 살게 되었는데, 경흥 백성들이 그를 따랐다.
→ 후손이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한 하늘의 뜻

<제4장>

[] 조선 왕조 건국의 정당성

[천세(千世)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녘에 누인개국(累仁開國)하시어 복
주체 : 하늘 여러 대에 걸쳐 인(仁)을 쌓아 나라를 열다

년(卜年)이 가없으시니

하늘이 정해준 운수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다

[성신(聖神)이 이으셔도 경천근민(敬天勤民)하셔야 더욱 굳으시리이다]
성스럽고 신령스런 임금, 훌륭한 후대의 임금

[] 아무리 훌륭한 임금이 나타나도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태도가 잘못되면 지금의 태평한 상황이 오래 갈 수 없음.
→ 강건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당부함.

임금하 아소서 낙수(洛水)에 사냥 가 있어 조상만 믿겠습니까
후대 임금 임금이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을 만한 고사의 인용

← **하나라의 시조, 우왕은 치수 시업 등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다.**
그의 손자인 태강왕은 할아버지의 공만 받고 정사를 게을리하다 왕위에서 쫓겨남

<제125장>

현대어 풀이

<제1장>

우리나라의 여섯 용(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이 나시어 하신 일(개국창업)마다 하늘이 내리신 복이시니
(그래서) 옛날 (중국의) 성인이 하신 일들과 부절을 합친 것처럼 꼭 맞으시니

<제2장>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도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 않고 솟아나므로 냇물이 되어 바다에 이르니

<제4장>

(주나라 고공단보께서) 북쪽 오랑캐들이 모여 사는 가운데에 가시어 (사실 때에), 오랑캐들이 침범하므로 기산으로 옮기신 것도 하늘의 뜻이시니,
(익조가) 여진족들이 모여 사는 가운데에 가시어 (사실 때에), 여진족들이 침범하므로 덕원으로 옮기신 것도 하늘의 뜻이시니

<제125장>

천 년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쪽 땅에 (여러 대에 걸쳐) 어진 일을 쌓고 나라를 여시며 점지받은 나라의 운수가 끝이 없으시니
(그렇지만) 성스럽고 신령스런 임금이 왕위를 이으셔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하여 힘쓰셔야 나라가 더욱 굳건할 것입니다.
임금시시여 아소서. (하나라 태강처럼) 낙수에 사냥 가서 할아버지(우왕)의 공덕만을 믿었던 것입니까?

▪ 주제: 새 왕조 창업의 정당성

4 <공무도하가> / <헌화가> / <여수장우중문시> _ 수능특강 44쪽

백수광부의 처, <공무도하가>

<p>임아, 물을 건너지 마오. 백수광부 사랑</p>	公無渡河
<p>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이별</p>	公竟渡河
<p>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죽음</p>	墮河而死
<p>가신 입을 어이 할꼬. 회자의 정서 집약, 슬픔, 탄식, 체념적 태도</p>	當奈公何

● 백수광부의 정체

신화적 존재	→ 신화적 질서가 흔들리고 새로운 질서가 나타남
무당	→ 무당이 의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 고조선이 국강거인 체제를 확립하면서 무당의 지위가 상실되자 좌절하여 죽음
백수광부=주신 아내=악신	→ 술병을 들고 강물로 뛰어든 백수광부는 주신(酒神), 공후를 들고 노래를 하는 행동으로 보아 아내를 악(樂神)

▪ 주제: 입을 여원 슬픔

견우노인, <헌화가>

<p>던배 바회 궤희 자줏빛 주제 : 수로부인 → 생업을 버릴 만큼 노인이 수로부인의 이름다음에 배로됨.</p>	紫布岩乎希
<p>자복 온손 암쇼 도희지고 ①생업 ②사회적 제약</p>	執音乎手母牛放教遣
<p>나홀 안디 붓흐리샤든</p>	吾兮不喻慙兮伊賜等
<p>꽃홀 것가 받즈보리이다. ①이름다음용 상징 ②수로부인에 대한 노인의 마음</p>	花兮折叱可獻乎理音如

현대어 풀이

자줏빛 바위 가에
잡고 있는 암소를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신다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 주제: 꽃을 바치며 사랑을 고백함

을지문덕, <여수장우중문시>

<p>귀신같은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다하였고, 기묘한 꾀는 땅의 이치를 통달하였도다.</p>	<p>표면적 : 칭찬 이면적 : 조롱 변어법, 대구법</p>	<p>神策究天文 妙算窮地理</p>
<p>싸움마다 이기어 공이 이미 높으니, 다는 이길 수 없다 → 우중문에게 패한 것이 적을 유인하기 위한 계략이었음</p>		<p>戰勝功既高</p>
<p>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위험, 전쟁을 그만두지 않으면 기만되지 않겠다.</p>		<p>知足願云止</p>

▪ 주제: 적장 우중문에 대한 조롱, 야유

작품 분석

덕(德)으란 곰빅에 받죽고 복(福)으란 림빅에 받죽고
뒤. 신령님 앞. 임금님

덕(德)이여 복(福)이라 호늘 나스라 오소이다
하는 것을 드리려 ~비니다. 경이제

아으 동동(動動)다리
후렴구. 의성어(동동-복소리, 다리-역기소리), 정각

<제1연>

정월 냇물이 열었다 녹았다함 → ①열어붙은 자신의 외로운 마음을 열에 의해 녹게 하고 싶다.

정월(正月)스 [나릿뜨른 아으 어저 녹저 흥논디] ②마음을 녹여 줄 사람 없이 홀로 살아간다.
냇물, 화자의 외로움 강조, 객관적 상관물, 대조

누릿 가운데 나곤 물하 흥올로 넬서
새삼 화자 ↔ 나릿물(냇물)

아으 동동(動動)다리

<제2연>

이월(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燈)스 블 다호라
보름에 높이 커 놓은 등불, 훌륭한 인격을 갖춘 임

만인(萬人)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제3연>

삼월(三月) 나며 개(開)흥 아으 만춘(滿春) 들 윗고지여
산달래꽃, 임의 아름다운 모습

늑딕 브롤 즈슬 디너 나샷다
부귀위열

아으 동동(動動)다리

<제4연>

사월(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서 곳고리 새여
피꼬리새, 화자의 외로움 강조, 객관적 상관물, 대조

므슴다 녹사(錄事)니몬 넛 나를 넛고 신더
고려시대 벼슬 이름, 임은 남성 ↔ 곳고리 새

아으 동동(動動)다리

<제5연>

현대어 풀이

<제1연>

덕은 뒤에(뒷잔에, 신령님께) 바치웁고, 복은 앞에(앞잔에, 임에게) 바치오니
덕이며 복이라 하는 것을 진상하러 오십시오.
(아으 동동다리)

<제2연>

정월 냇물은 아아, 열었다 녹았다 하는데,
세상 가운데에 태어난 이 몸이여, 홀로 살아가는구나
(아으 동동다리)

<제3연>

2월 보름에 아아, 높이 커 놓은 등불 같구나.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기도다.
(아으 동동다리)

<제4연>

3월 되며 핀 아아, 늦봄의 진달래꽃이여,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셨구나
(아으 동동다리)

<제5연>

4월을 잊지 않고 아아, 오는구나 피꼬리 새여,
무엇 때문에 (어찌하여) 녹사님은 옛 나를 잊고 계시는가
(아으 동동다리)

▪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 사랑

현대어 풀이

오월(五月) 오일(五日)에 아으 수릿날 아춤 약(藥)은
 단오, 음력5월5일 임에 대한 사랑&정성

즈믄 힐 장존(長存)하살 약(藥)이라 받즘노이다
 ~버니다. 경어체

아으 동동(動動)다리

<제6연>

<제6연>

5월 5일(단오)에 아아, 단옷날 아침 약은
 천 년을 사살 약이기에 바치옵니다.
 (아으 동동다리)

유월(六月)스 보로매 아으 별해 브론 빗 다호라
 유두 바람에 버려진 빗, 바람받은 회자, 회자의 분신

도라 보실 니를 적곰 좇니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제7연>

6월 보름(유두일)에 아아, 바람에 버린 빗 같구나.
 돌아보실 임을 잠시나마 따르겠습니다
 (아으 동동다리)

<제8연>

7월 보름(백중)에 아아, 여러 가지 제물을 차려 두고
 임과 함께 살고자 소원을 비옵니다.
 (아으 동동다리)

칠월(七月)스 보로매 아으 백중 배 하야 두고
 백중 온갖 음식, 재물 음식을 차려두고

니를 흔 디 녀가져 원(願)을 비습노이다
 임과 함께 살고자, 회자의 소망

아으 동동(動動)다리

<제7연>

<제9연>

8월 보름(한가위)은 아아, 한가윗날이지마는,
 임을 모시고 지내야만 오늘이 (뜻있는) 한가윗날입니
 다
 (아으 동동다리)

<제10연>

9월 9일(중양절)에 아아, 약이라고 먹는
 노란 국화꽃이 집 안에 피니 초가집이 고요하구나.
 (아으 동동다리)

<제8연>

<제11연>

10월에 아아, 잘게 자른 부룻(보리수나무 또는 고로쇠
 나무 또는 열매) 같구나.
 꺾어 버리신 후에 (이를) 지니실 한 분이 없으시도다.
 (아으 동동다리)

팔월(八月)스 보로매 아으 가배나리마룬
 한가위(추석) 한가위, 객관적 시간

니를 띄셔 녀곤 오늘날 가배샷다
 주관적 인식, 진정한 한가위 ↔ 임이 없는 한가위(이미 없음)

아으 동동(動動)다리

<제9연>

구월(九月) 구일(九日)에 아으 약(藥)이라 먹논
 중양절

황화(黃花)고지 안해 드니 새셔 가만하애라
 노란 국화꽃, 객관적 상권물, 유사성 초가기 조용하구나, 임이 없는 집, 묘사

아으 동동(動動)다리

<제10연>

시월(十月)에 아으 저미연 브룻 다호라
 잘게 썬 보리수 나무, 바람받은 회자, 회자의 분신

것거 버리신 후(後)에 디니실 흔 부니 업스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제11연>

십일월(十一月)스 봉당자리에 아으 한삼(汗衫) 두퍼 누워
안팎과 건넌병 사이의 흄바닥 흔적삼, 어름웃

슬홀스라운더 고우닐 스긱옴 녀셔
슬픈 일아구나, 영탄법

아으 동동(動動)다리

<제12연>

십이월(十二月)스 분디남으로 갓곤 아으 나솔 반(盤)잇 저다호라
분지 나무로 깎은 젓가락, 임과 사랑을 이루지 못한 화자, 화자의 분신

니의 알퓌 드러 열이노니 소니 가재다 므르습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제13연>

현대어 풀이

<제12연>

11월에 봉당 자리에 아아, 한삼을 덮고 누워 슬퍼할 일아구나. 고운 입을 여의고 제각기 홀로 살아가는구나.
(아으 동동다리)

<제13연>

12월에 분디나무로 깎은 아아, 차려 올리는 소반 위의 젓가락 같구나. 임의 앞에 들어 가지런히 놓으니 손님이 가져다가 몹니다.
(아으 동동다리)

작품 분석

현대어 풀이

일조(日朝)에 남군과 이별 후에 소식(消息)조차 돈절(頓絶)하야
 여자 남편, 연인을 부르는 말 → 회자 : 여성 편지, 소식 따위가 갑자기 끊어짐
 자네 꼭 못 오던가 무삼 일로 아니 오더냐
 임에 대한 원망

이 아해야 말 듣소
 후렴구, 내용과 관계없이 반복됨
 황혼 저문날에 개가 짚어 못 오던가
 회자와 임을 가로막는 장애물①

이 아해야 말 듣소
 회자와 임을 가로막는 장애물②
 춘수(春水)가 만사택(滿四澤)하니 물이 깊어 못 오던가
 임이 오지 못하게 하는 상황①, 봄바가 연못에 가득차 있음, 도연명의 시구에서 차용

이 이해야 말 듣소
 하운(夏雲)이 다기봉(多奇峰)하니 산(山)이 높아 못 오던가
 임이 오지 못하게 하는 상황②, 산에 구름이 가득차 있음 회자와 임을 가로막는 장애물③

이 아해야 말 듣소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 대사 성진이는
 석교상에서 팔선녀 다리고 희롱한다
 고전소설 <구운몽> 인용
 → 내용의 유기적 연결 <대중의 관심 유도>
 : 가사의 접가작 속성

지어자 좋을시고
 요즘, 가장 현장의 특성, 유흥성을 반영한 결과, 흥겹고 명랑한 분위기 ↔ 임이 오지 않는 상황, 원망, 그리움
 병풍에 그린 황계(黃鷄) 수탉이 두 나래 둥덩 치고
 달빛이 누런 달 의성어, 음성상징어, 청각적

찌른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에후리어
 새벽에 날 새라고 꼬피요 울거든 오라는가
 불가능한 상황 설정, 역설적 상상
 → 임에 대한 그리움, 슬픔, 원망

자네 어이 그리하야 아니 오던고
 [] 죽어서라도 재회하고 싶은 소망
 [너란 죽어서 황하수(黃河水) 되고 날란 죽어서 도대선(都大船)이 되어야]
 중국 황하강 큰 나룻배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밤이나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 대구, 형상, 압과 함께 있고 싶은 소망
 바람 불고 물결치는 대로 어하 동덩실 떠서 노자

저 달아 보느냐
 기원의 대상
 [임 겨신 데 명휘(明輝)를 빌리거든 나도 보자]
 밝게 빛나다 []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이 아해야 말 듣소
 추월(秋月)이 오래도록 밝으니 달이 밝아 못 오던가
 임이 오지 못하게 하는 상황③ 회자와 임을 가로막는 장애물④

어테를 가고서 네 아니 오더냐
 임에 대한 원망, 그리움
 지어자 좋을시고

하루아침에 남군과 이별한 후에 소식조차 끊어졌구나.
 자네 꼭 못 오던가 무슨 일로 아니 오던가,
 이 아해야 말을 듣소
 황혼 저물어 가는 날에 개가 짚어 못 오던가,
 이 아해야 말을 듣소
 봄에 물은 못마다 가득차 넘치니 물이 깊어 못 오던
 가,
 이 아해야 말을 듣소
 여름 구름이 수많은 기이한 봉우리와 같으니 산이 높
 아 못 오던가,
 이 아해야 말을 듣소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이는
 돌다리 위에서 팔선녀를 데리고 희롱하고 있구나.
 지화자 좋을시고,
 병풍에 그린 누런 수탉이 두 나래 둥덩치고
 짧은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에후리어
 새벽녘에 날 새라고 꼬피오 울거든 오라는가.
 자네 어떻게 그렇게도 아니 오던가.
 너는 죽어서 황하수 되고 나는 죽어서 나룻배 되어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밤이나
 바람불고 물결치는 대로 어하 동덩실 떠서 놀자구나.
 저 달아 보느냐,
 임 겨신 데 밝은 기운 빌리거든 나도 보자.
 이 아해야 말을 듣소,
 가을 달이 오래도록 밝으니 달이 밝아 못 오던가.
 어디를 가고서 네 아니 오느냐,
 지화자 좋을시고.

▪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

이조년, 〈이화에 월백하고~〉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하수 삼경(三更)인 때]
 배꽃, 흰색, 봄 흰달, 흰색 흰색 밤 11시~1시 [1] 애상적 분위기, 시각

일지 춘심(一枝春心)을 차규야 알라마는
 나뭇가지에 여러 있는 봄의 마음, 익인법 두견새(소뽕새), 애상감, 청각적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정이 많은 것 고뇌 직유법

박평년, 〈가마귀 눈비 마자~〉

가마귀 눈비 마자 희는 듯 검노미라
 간신배 혼란한 시대상황 설의법

야광명월(夜光明月)이 밝인들 어두우랴
 충신(희자, 사육신) ↔ 가마귀, 밤 시련, 아득 ↔ 야광명월, 밝음

넌 향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고칠 줄이 이시랴.
 단종 단종에 대한 충심 설의법

홍서봉, 〈이별하던 날에~〉

이별하던 날에 피눈물이 난지 만지
 과거, 병자호란 패배 후 소현세자, 봉림대군, 신하 등이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감

압록강 내린 물이 푸른 빛이 전혀 없네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간 사람들과 이별한 후 다시 가 보니, 씻을 수 없는 치욕, 슬픔, 분노, 과장법

배 위에 허여센 사공이 처음 보았다 하더라
 화자의 정서에 공감

현대어 풀이

〈이화에 월백하고~〉

하얀 배꽃에 달이 환하게 비치고 은하수는 자정을 알리는 때에
 배나무 한 가지에 여러 있는 봄날의 정서를 소쩍새가 알고서 우는 것이라마는
 정이 많은 것도 병인 듯싶어 잠을 이루지 못하노라.

▪ 주제: 봄날에 느끼는 애상적 정서

〈가마귀 눈비 마자~〉

가마귀가 눈비를 맞아서 흰 듯하면서도 검구나
 한밤중에도 빛나는 밝은 달이 밤이라고 해서 그 빛을 잃겠는가
 임금(단종)을 향한 굳은 충성심이야 변할 까닭이 있겠는가

▪ 주제: 단종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

〈이별하던 날에~〉

임금과 이별하던 날 피눈물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지만
 압록강에 흐르는 물이 (병자호란에서 패배한 우리처럼) 푸른 빛이 전혀 없네
 배를 짓는, 머리게 하얗게 쉰 사공도 평생에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하더라.

▪ 주제: 고국을 떠나는 슬픔

이덕무, <제전사(題田畝)> (농부의 집에 쓰다)

[콩깍지더미 곁으로 오솔길 나뉘어 있는데 [] 아침햇살 반으며 흩어지는 소떼. 묘사. 시각. 시선의 이동(콩깍지더미→오솔길→아침햇살→소떼)	荳穀堆邊細逕分	선경
붉은 아침 햇살 살짝 퍼지자 소떼들이 흩어지네.]	紅暎稍遍散牛群	
[푸른 하늘은 가을 든 산봉우리를 물들이려는 듯 [] 맑은 하늘과 가을 산. 대비(하늘, 산봉우리). 묘사. 시각. 시선의 이동(푸른하늘→산봉우리)	娟靑欲染秋來岵	
맑은 기운에 비 갠 뒤의 구름은 먹음직스럽네.]	秀潔堪餐霽後雲	
[갈대에 햇살이 반짝반짝, 기러기가 놀라서 일어나고 [] 햇살에 반짝이는 가을 풍경. 대비(시각. 청각). 묘사. 시선의 이동(갈대→기러기→비→붕어)	葦影幡幡奴雁駭	후경
벼 앞에 싸 하는 소리, 붕어가 야단스러운가 보다.]	禾聲瑟瑟婢魚紛	
[산 양지바른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으니 [] 전원생활에 대한 지향	山南欲遂誅茅計	후경
농부에게 반만이라도 빌려 달라 줄라 봐야지.]	願向田翁許半分	

작자미상, <말은 가자 올고~>

[말은 가자 올고 님은 잡고 아니 놓네]

이별을 재촉, 이별의 아쉬움 [] 대구, 대조, 정각적

석양은 재를 넘어가고 있고, 갈 길은 천 리구나.

이별을 재촉, 시각

저 님아 가는 날 잡지 말고 지는 해를 잡아라

화자도 이별하기 싫어하지만, 가야만 하는 상황(시한)이 있음 → 내적 갈등

안민영, <임 이별 하울 적에~>

임 이별 하울적거 저는 나귀 한치마소

시적 상황

가노라 돌쳐 설제 [저난 거름 안이런덜]

[] 나귀는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임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냄

꽃 아리 눈물 적신 얼굴을 엇지 자세이 보리요]

이별의 슬픔 설이법

작자미상, <뒤뜰에 봄이 깊으니~>

뒤뜰에 봄이 깊으니 그윽한 심회 둘 데 없어

봄날 아름다운 풍경 임에 대한 그리움 ↔ 봄날 풍경

바람결에 슬퍼하며 사방을 둘러보니 온갖 꽃 난만한데 버들 위 피꼬리는

객관적 상관을 ↔ 화자

쌍쌍이 비껴 날아 울음 울 제 어찌하여 내 귀에는 정이 있게 들리는고

화자가 자신을 세보다 못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이유

어찌타 가장 귀하다는 사람들이 저 새만도 못하느냐

부정적 상황 강조, 물음의 방식

작자미상, <청천에 떠서 올고 가는 외기러기~>

청천에 떠서 올고 가는 외기러기 날지 말고 내 말 들어.

임에 대한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 객관적 상관을, 청자, 말을 주고 받는 방식

한양 성내에 잠간 들러 부디 내 말 잊지 말고 웨워쳐 불러 이르기를, [‘월

임 개신 곳

[] 화자의 당부 내용

황혼(月黃昏) 겨위갈 제 적막(寂寞) 공궁(空宮)에 던진 듯 홀로 앉아 임 그

말이 뜬 황혼

텅 빈 방, 고독, 외로움

리워 차마 못 살레라’]하고 부디 한 말을 전하여 주렴.

우리도 임 보러 바삐 가옵는 길이노니 전할 동 말 동 하여라.

가리기, 화자의 교체, 말을 주고 받는 방식

현대어 풀이

<말은 가자 올고~>

말은 가자고 올면서 재촉하고, 님은 나를 잡고 놓지 않네
석양은 재를 넘어가고 있고, 갈 길은 천 리구나.
저 님아, 가는 나를 붙잡지 말고 지는 해를 잡아라.

▪ 주제: 이별의 아쉬움

<임 이별 하울 적에~>

임과 이별할 적에 발을 절기 때문에 빨리 못 가는 나귀를 한탄하지 마십시오.
가겠다고 임께서 돌아 서실 때 발을 저는 나귀가 아니라면
꽃나무 아래에서 눈물 젖은 얼굴로 떠나는 우리 임의 얼굴을 어찌 자세히 볼 수 있겠습니까?

▪ 주제: 이별의 아쉬움

<뒤뜰에 봄이 깊으니~>

뒤뜰에 봄이 깊으니 임에 대한 그리움을 둘 데 없어 바람결에 슬퍼하며 주변을 둘러보니 온갖 꽃이 아름답게 피었는데, 버드나무 위 피꼬리는 쌍쌍이 날면서 울 때, 어찌하여 내 귀에는 정이 있게 들리는가 어찌 가장 귀하다는 사람들이 저 새만도 못하느냐

▪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청천에 떠서 올고 가는~>

푸른 하늘에 떠서 올고 가는 외기러기야, 날지 말고 내 말을 듣거라.
서울 장안에 잠깐 들러 부디 내 말 잊지 말고 웨워쳐 불러 말하기를, ‘달 뜨는 저녁이 훨씬 지난 때에 임 없는 쓸쓸한 규방에 던져진 듯 홀로 앉아 임 그리워 차마 못 살겠구나’하고 부디 (내가 지금) 한 말을 전하려 주렴.
우리도 임 보러 바삐 가는 길이므로 전할 동 말 동 하여라.

▪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

작품 분석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와도 보인다

소반, 쟁반 일찍 익은 감 부모님을 떠올리게 되는 때게체

유자(柚子)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

중국 후한시대 육적의 화급고사 인용, 육적이 유자를 얻고는 어머니께 드리려고 품에 넣음

품어가 반길 이 없으므로 그로 설워하나이다

부모님 풍수지탄(風樹之嘆)

<제1수>

영어

왕상(王祥)의 리어(鯉魚) 잡고 맹종(孟宗)의 죽순(竹筍) 꺾어

겨울에 열음을 깨고 영어를 잡아 어머니께 대접함. 효성이 지극하여 겨울에 죽순을 구해 어머니께 대접함.

검던 머리 희도록 노래자(老萊子)의 옷을 입고

나이 말한에 어린아이 옷을 입고 여버이를 기쁘게 해드린 효자

일생(一生)에 양지성효(養志誠孝)를 증자(曾子) 같이 하리다

뜻을 같이 효성을 다하는 것 노나라 사람, 공자의 제자, 효자

<제2수>

[만균(萬鈞)을 늘려내어 길게길게 노를 꼬아

큰 쇳덩어리

구만리(九萬里) 장천(長天)에 가는 해를 잡아매어]

[] 불가능한 상황 설정, 추상적 개념(세월)의 형상화, 과장법

→ 회자의 소망 강조

북당(北堂)의 학발쌍친(鶴髮雙親)을 더디 늦게 하리다

안방 학이 깃털처럼 흰머리를 한 부모님

<제3수>

군봉(群鳳) 모이신데 외까마귀 들어오니

봉황의 무리, 어린 사람들 한 마리 까마귀, 회자 자신

백옥(白玉) 쌓인 곳에 돌 하나 갈다마는

느 군왕 느 외까마귀

[두어라 봉황(鳳凰)도 비조(飛鳥)와 유(類)이시니 모셔 논들 어떠하리]

남아다니는 새

[] 여러 것들과 교류하는 지극성

<제4수>

<제1수>

소반(자그마한 밥상) 위에 놓인 붉은 감이 곱게 보이느냐.

유자가 아니라도 품아 갈 만하지만

품어 가도 반가워하실 분(부모님)이 안 계시므로 그로 인해 서러워하노라.

<제2수>

왕상이 얼어 붙은 물 속에서 잉어를 잡아 병든 계모를 살려 냈듯이, 맹종이 겨울에 대숲에서 죽순을 꺾어다가 늙은 어머니의 입맛을 돋우었듯이

나이 칠십에 다다른 노래자(중국 춘추시대 초라나 사람)가 살아 계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자 때때옷을 입고 어리광을 피웠듯이

나도 한평생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저 효자로 이름난 증자처럼(중국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 공자의 제자) 정성껏 효도를 다 하겠나이다.

<제3수>

큰 쇳덩이를 늘리고 늘여서 길게길게 노를 꼬아 가지고

까마득하게 높고 먼 하늘을 지나가는 햇빛을 잡아매어 두고서

북당에서 계신 학처럼 머리가 흰 늙은 부모님을 되도록 하루라도 더디 늦으시게 하고 싶구나

<제4수>

여러 봉황새들이 모인 곳에 까마귀가 들어오니 마치 흰 옥이 쌓인 곳에 돌맹이 하나가 섞인 것 같지 마는

아, 봉황새도 나는 새와 같은 종류이니, 모시고 같이 놀아본들 상관없지 않겠는가.

▪ 주제: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효성

작품 분석

천상 백옥경 십이루 어디인가

옥황상제의 궁궐, 한양의 궁궐

오색운 깊은 곳에 자청전이 가렸으니

신선이 사는 집, 임금의 개인 곳

천문 구만리를 꿈에라도 갈동 말동

유배지에서 바라본 궁궐의 거리(멀디)

차라리 죽어져서 억만 번 변화하여

남산 늦은 봄에 두견새 녀이 되어

회자의 본산

이화 가지 위에 밤낮에 못 올면

삼청동 안에 저문 하늘 구름 되어

신선이 사는 곳, 임금의 개인 곳 회자의 본산

바람에 흩날려서 자미궁에 날아올라

북두칠성의 북쪽에 있는 별, 임금의 개인 곳

옥황 향안 전에 지척에 나가 앉아

향로나 향함을 올려 놓는 상

흥중에 쌓인 말썽 실컷 아뢰리라

역음함

아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나니

황하수 맑다마는 초객의 후신인가

초나라 때 굴원, 누명을 쓰고 귀향기시 맥라수에 투신함 = 회자(역음한 누명을 씌)

상심도 한이 없고 가태부의 녀이런가

한나라 때 가의, 벼슬에 있을 때 신하들의 시기를 받아 좌찬당함 = 회자(역음한 누명을 씌)

한숨은 웬일인가 [형강은 고향이라] [] 유배생활이 오래되어 고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짐(부정적)

중국의 강 → 유배지(순천)

십 년을 유락하니 백구와 벗이 되어

떠돌아다니다, 유배생활

함께 놀자 하였더니 어르는 듯 괴는 듯

이양을 부리는 듯 사랑하는 듯

남 다른 입을 만나 금화성 백옥당의 꿈조차도 향기롭다

임금, 성종 중국 저장성 금화현, 신선이 된 적송자가 득도한 곳

오색실 이음 짧아 임의 웃은 못 하여도

바다 같은 임의 은(恩)을 추호나 갚으리라

백옥 같은 이내 마음 임 위하여 지켰더니

임금을 향한 충성심, 일편단심, 결백을 통한 역음함 호소 ← 백옥 : 단단함, 희다, 지조, 결백

장안 어젯밤에 무서리 마구 내려

조정의 혼란, 무오사화(조선 연산군 때 훈구파가 사림파 물권을 죽이고 귀양을 보낸 사화)

임금에게 역음한 심정을 전하고 싶은 마음

현대어 풀이

천상 백옥경 십이루가 어디인가?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자청전이 가렸으니
 구만 리 먼 하늘을 꿈에라도 갈동말동하구나
 차라리 죽어서 억만 번 변화하여
 남산 늦은 봄에 두견새의 녀이 되어
 배꽃 가지 위에 밤낮으로 못 올거든
 삼청동 속에 저문 하늘 구름이 되어
 바람에 흩날려 날아 자미궁에 날아올라
 옥황상제의 향안 앞에 가까이 나가 앉아
 마음 속에 쌓인 말썽을 실컷 말하리라
 아아,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나니
 황하수가 맑다마는 굴원의 후신인가
 상한 마음도 끝이 없고 가태부의 녀이던가
 한숨은 무슨 일인가, 유배지가 고향 같구나
 십 년을 타향살이하니 흰 갈매기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이양 부리는 듯 사랑하는 듯하구나
 나
 남의 없는 입을 만나 금화성 백옥당의 꿈조차 향기롭다
 오색실 이음이 짧아 임의 웃을 짓지 못하여도
 바다 같은 임의 은혜를 아주 조금이나마 갚으리라
 백옥 같은 이내 마음, 임을 위해 지키고 있었더니
 장안 어젯밤에 무서리 섞여 치니

■ 주해: 역음한 심정을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과 연금지정

현대어 풀이

일모 수죽에 취수도 냉박구나

해장떡 긴 대나무에 기대 서 있음 푸른 옷소매도 찬 기운이 돌 만큼 옅음, 영탄법

유란을 꺾어 쥐고 입 계신 데 바라보니

난롯

장애물

약수 가려진 데 구름 길이 험하구나

건너지 못하는 강, 가려기의 것들로 가려왔다는 중국 전설의 강 → 단절, 장애물

(중략)

초수 남관이 고금에 한둘이며

죄인, 죄라 때 종의 남관(초나라의 관)을 쓰고 간힘, 벼슬아치가 죄수가 된 상황

백발 황상에 슬픈 일도 많고 많다

고위직의 늙은 신하, 북송 때 황성이 감옥에 간힘

건곤이 병이 들어 혼돈이 죽은 후에

하늘과 땅, 세상

하늘이 침울할 듯 관색성이 비치는 듯

천한 사람의 감옥, 관색구성(貫索九星)의 준말

고정 의국에 원망과 울분만 쌓였으니

유배지에서 나라만을 생각하는 마음, 우국충정

차라리 한 눈이 먼 말같이 눈감고 살고 싶다

회자의 처지

창창 막막하여 못 믿을 건 조화로다

끝없이 쓸쓸하다

이러나 저러나 하늘을 원망할까

원망할 수 없다

큰 도적도 성히 놀고 백이(伯夷)도 굶어 죽으니

중국의 큰 도적인 도적

중국 은나라 때 절의를 지키려다 수양산에서 굶어죽음

동릉이 높은 건가 수양산이 낮은 건가

도적(큰 도적)이 죽은 곳

백이가 죽은 곳

남화 삼십 편에 의론도 너무 많다

성자의 다른 병칭

남가의 지난 꿈을 생각하면 싫고 밋다

남가일몽(南柯一夢), 남가지몽(南柯之夢), 인생무상(人生無常)

고국 송추를 꿈에 가 만져 보고

고국에 있는 산소 주변에 삼은 나무들, 고향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선산의 무덤을 깬 후에 생각하니

↳ 고향을 그리워하는 꿈을 깬 후

구곡간성(九曲肝腸), 곱치진 속마음

구회 간장이 굵이굵이 끊어졌네

대낮

장해 음운에 백주에 흠어지니

독기가 서린 바다의 검은 구름, 병을 발생하게 하는 구름

호남 어느 곳이 귀역이 모여드는 곳인지

물레 님을 해치는 물건, 겉으로는 솔직한 척하지만 속은 음흉한 사람

도깨비와 두역시니가 싫도록 젖은 가에

사납고 악한 귀신

백옥은 무슨 일로 쉬파리의 소굴이 되고

북풍에 혼자 서서 끝없이 우는 뜻을

해 질 무렵 긴 대나무에 의지하여 서 있으니 푸른 옷 소매가 얇아 찬 기운이 스미는구나
난초를 꺾어 쥐고 입 계신데 바라보니
약수 가로 놓인 데 구름 길이 험하구나
<중략>

벼슬아치가 죄인이 되는 것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 둘이며
늙은 신하의 서러운 일도 많기도 많구나
하늘과 땅이 병이 들어 혼돈이 죽은 후에
하늘이 침울할 듯 천한 이의 감옥에 비치는 듯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 원망과 울분만 쌓였으니
차라리 한 눈이 먼 말같이 눈 감고 지내고자
한없이 쓸쓸하고 막막하여 못 믿을 조화구나
이러나저러나 하늘을 원망할까
큰 도적은 몸 성히 놀고, 백이는 굶어 죽으니
동릉이 높은 걸까, 수양산이 낮은 걸까
남화 삼십 편에 의논도 많기도 많구나
남가의 지난 꿈을 생각하면 싫고 미워라
고국 산소의 나무들을 꿈에 가 만져보고
선산의 무덤을 잠을 깬 후에 생각하니
깊은 속마음이 굵이굵이 끊어졌구나
독기가 서린 바다의 검은 구름이 대낮에 흠어지니
호남 어느 곳이 귀역이 모여드는 곳인지
온갖 도깨비들이 싫것 젖은 가에
백옥은 무슨 일로 파리의 집이 되고
북풍에 혼자 서서 끝없이 우는 뜻을

하늘 같은 우리 입이 전혀 아니 살피시니

임금에 대한 충정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살펴주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 안타까움

목란과 가을 국화가 향기로운 탓이던가

간신배

현대어 풀이

하늘 같은 우리 입이 전혀 아니 살피시니
목란과 가을 국화가 향기로운 탓이던가

전문

천상 백옥경 십이루 어디인가

옥황상제의 궁궐, 한양의 궁궐

오색운 깊은 곳에 자청전이 가렸으니

신선이 사는 집, 임금이 개신 곳

천문 구만리를 꿈에라도 같동 말동

유배지에서 바라본 궁궐의 거리(멀다)

차라리 죽어져서 억만 번 변화하여

남산 늦은 봄에 두견새 녀이 되어

화자의 본인

이화 가지 위에 밤낮에 못 올면

삼청동 안에 저문 하늘 구름 되어

신선이 사는 곳, 임금이 개신 곳

바람에 흩날려서 자미궁에 날아올라

북두칠성의 북쪽에 있는 별, 임금이 개신 곳

옥황 향안 전에 지척에 나가 앉아

향로나 향합을 올려 놓는 상

홍중에 쌓인 말씀 실컷 아뢰리라

억울함

아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나니

황하수 맑다마는 초객의 후신인가

초나라 때 공원, 누령을 쓰고 귀향가서 맥라수에 투신함 = 화자(억울한 누령을 씀)

상심도 한이 없고 가태부의 녀이런가

한나라 때 가의, 비술에 엮을 때 신하들의 시기를 받아 좌찬당함 = 화자(억울한 누령을 씀)

한숨은 웬일인가 [형강은 고향이라] [] 유배생활이 오래되어 고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짐(부정적)

중국의 강 → 유배지(순천)

십 년을 유락하니 백구와 벗이 되어

떠돌아다니다, 유배생활

함께 놀자 하였더니 이르는 듯 괴는 듯

아령을 부리는 듯 사랑하는 듯

남 다른 입을 만나 금화성 백옥당의 꿈조차도 향기롭다

임금, 성종 중국 저장성 금화현, 신선이 된 적송자가 득도한 곳

오색실 이음 짧아 임의 웃은 못 하여도

바다 같은 임의 은(恩)을 추호나 갚으리라

백옥 같은 이내 마음 임 위하여 지켰더니

임금을 향한 중성심, 일편단심, 결백을 통한 억울함 호소. ← 백옥: 단단함, 희다, 지조, 결백

장안 어젯밤에 무서리 마구 내려

조정의 혼란, 무오사화(조선 연산군 때, 훈구파가 사림파 문권을 죽이고 귀양을 보낸 사회)

일모 수죽에 취수도 냉박쿠나

해질녘 긴 대나무에 기대어 서 있음 푸른 옷소매도 찬 기운이 돌 만큼 옅음, 영탄법

유란을 꺾어 쥐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난봉

임금에게 억울한 심정을 전하고 싶은 마음

장애물

약수 가려진 데 구름 길이 험하구나

건너지 못하는 강, 가려기의 것들로 가려왔다는 중국 전설의 강 → 단절, 장애물

초췌한 이 얼굴이 님 그려 이리 되었구나

유배지의 화자

일백 자(약 33미터) 정도 되는 정대, 불길하고 위험한 상황, 백척간두(百尺竿頭)

천층랑 한가운데 백 척간에 올랐더니

천 층이나 되게 높이 솟아오르는 험한 물결

회오리바람, 무오사화

무단한 양각풍이 환해 중에 내리나니

끝없는, 깨닫없는

바다, 관료사회

억만장 못에 빠져 하늘 땅을 모르겠도다

유배

노나라 흐린 술에 한단이 무슨 죄며

무오사화의 희생양이 된 자신의 역울함 호소, 무관함

← 고사인용

①노나라의 흐른 술에 죄나라 수도인 한단은 무관함

②진나라 사람들의 취한 잔은 웰나라 사람들의 웃음과 무관함

진인이 취한 잔에 월인이 웃은 탓인가

성문 모진 불에 옥석이 함께 타니

무오사화

옥(충신)과 돌(간신)

뜰 앞에 심은 난이 반이나 이우레라

충신, 화자

시드누나, 영탄법

오동 저문 비에 외기러기 울며 갈 때

지물낙 오동앞에 내리는 비 감정이입

[관산 만릿길이 눈에 암암 밝히는 듯]

고향의 산

[] 고향에 대한 그리움

청련시 고쳐 읊고 팔도한을 스쳐 보니

이백의 시

감정이입

화산에 우는 재야 이별도 괴로워라

중국 섬서성 화음의 산

망부 산전에 석양이 거의로다

망부산 앞 → 연군지정

기다리고 바라다가 안력이 다했던가

시력

낙화 말이 없고 벽창이 어두우니

입 노란 새끼새들 어미도 그리는구나

임금을 그리워하는 화자

팔월 추풍이 띠집을 거두니

새집

풀로 지붕을 이은 집, 임금의 은총을 상실한 화자

빈 깃에 싸인 말이 수화를 못 면하도다

충신, 화자

물과 불, 시련, 무오사화

생리사별을 한 몸에 혼자 맡아

살아서 이별하고 죽어서 헤어짐

삼천장 백발이 일야에 길기도 길구나

근심, 고뇌

하룻밤

풍파에 현 배 타고 함께 놀던 저 무리들아

무오사화

과거에 함께 놀던 존재, 정치적 동료

강천 지는 해에 주춤이나 무양한가

배어 노, 정치생명

아무 탈이 없는가

떨거니 당기거니 엽여퇴를 겨우 지나
 중국 사천성에 있는 큰 압초 물길에 얽힌 곳

만 리 봉정을 멀리 견주더니
 봉새가 날영갈 수 있을 정도로 멀고 험한 길

바람에 다 부치어 흑룡 강에 떨어진 듯
 사이가 뜨지 않게 바짝 붙게 하디

천지 가이없고 어안이 무정하니
 물고기와 기러기

옥 같은 면목을 그리다가 말려는지고
 그리움의 대상, 임금

매화나 보내고자 역로를 바라보니
 지조, 절개, 회자의 분신 역마(역)를 바꿔 타는 곳과 통하는 길, 한양으로 가는 길

옥량명월을 옛 보던 낮빛인 듯
 옥으로 된 대들보에 걸린 밝은 달, 임금을 떠올리게 하는 배계체

양춘을 언제 볼까 눈비를 혼자 맞아
 봄 햇볕, 임금이 은총 시련

벽해 넓은 가에 넋조차 흩어지니
 푸른 바다

나의 긴 소매를 누굴 위하여 적시는고

태상 칠위 분이 옥진군자 명이시니
 선제의 임금 임금 신선

천상 남루에 생적을 올리시며
 생황, 띠리

지하 북풍의 사명을 벗기실까

죽기도 명ियो 살기도 하늘이니
 운명론적 세계관 공자

진채지액을 정인도 못 면하며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에서 당한 위태로운 상황

유예비죄를 군자인들 어이하리
 죄인처럼 뉘였지만 죄가 없음, 회자의 처지

오월 비상이 눈물로 어리는 듯
 오월에 내리는 시리, 아인의 원한

삼 년 대한도 원기로 되었도다
 삼 년간의 큰 기쁨 원한의 기운

초수 남관이 고금에 한둘이며
 지인, 초나라 때 종의가 남관(초나라의 관)을 쓰고 간힘, 비술이치가 좌수가 된 상황

백발 황상에 슬픈 일도 많고 많다
 고위직의 높은 신하, 북송 때 황상이 감옥에 간힘

건곤이 병이 들어 혼돈이 죽은 후에
 하늘과 땅, 세상

하늘이 침울할 듯 관색성이 비치는 듯
 천한 사람의 감옥, 관색구성(貫索九星)의 준말

고정 의국에 원망과 울분만 쌓였으니
 유배지에서 나라만을 생각하는 마음, 우국충정

차라리 한 눈이 먼 말같이 눈감고 살고 싶다
 회자의 처지

창창 막막하여 못 믿을 건 조화로다

끝없이 쓸쓸하다

이러나 저러나 하늘을 원망할까

원망할 수 없다

큰 도적도 성히 놓고 백이(伯夷)도 굶어 죽으니

중국의 큰 도적인 도적 중국 원나라 때 절의를 지키려다 수양신에서 굶어죽음

동릉이 높은 건가 수양산이 낮은 건가

도적(큰 도적)이 죽은 곳 백이가 죽은 곳

남화 삼십 편에 의론도 너무 많다

《성자》의 다른 명칭

남가의 지난 꿈을 생각하면 싫고 밉다

남가일몽(南柯一夢), 남가지몽(南柯之夢), 인생무상(人生無常)

고국 송추를 꿈에 가 만져 보고

고국에 있는 산소 주변에 심은 나무들, 고향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선산의 무덤을 켄 후에 생각하니

구곡간성(九曲肝腸), 겹쳐진 속마음 고향을 그리워하는 꿈을 켄 후

구회 간장이 굶이굽이 끊어졌네

대낮

장해 음운에 백주에 흠어지니

둑기가 서린 바다의 검은 구름, 병을 발생하게 하는 구름

호남 어느 곳이 귀역이 모여드는 곳인지

물과 남을 해치는 물간, 겉으로는 총직한 척하지만 속은 음흉한 사람

도깨비와 두역시니가 싫도록 젖은 가에

사담고 약한 귀신

백옥은 무슨 일로 쉬파리의 소굴이 되고

북풍에 혼자 서서 끝없이 우는 뜻을

하늘 같은 우리 입이 전혀 아니 살피시니

입금에 대한 충정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살피주지 않는 입에 대한 원망, 안타까움

목란과 가을 국화가 향기로운 탓이던가

간신배 왕소군, 한나라 원제 때의 궁녀

첩여 소군이 박명한 몸이런가

한나라 때 여자 비술의 이름, 한나라 성제 때의 변첩여

군은이 물이 되어 흘러가도 자취 없고

입금의 은혜

옥안이 꽃이로되 눈물 가려 못 보겠구나

입금의 열굴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해 낼 수 없는 외자의 처지.

이 몸이 죽어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입금에 대한 충성, 하소연

녹아지고 죽어지어 혼백조차 흠어지고

공산 촉루같이 입자 없이 굴러 다니다가

시립 없는 산중의 해골, 회자

곤륜산 제일봉에 만장술이 되어 있어

중국 전설의 높은 산 꼭대기 큰 쇠나무, 연군자장, 회자의 분신

바람 비 뿌린 소리 님의 귀에 들리거나

연교지정, 화자의 분신

윤희 만겹하여 금강산 학이 되어

오랜 세월 다시 태어나서 연교지정, 화자의 분신

일만 이천 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계절적 배경, 시골 본위기 역음함, 담담함, 그리움

님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이겠구나

체념, 순종적 태도, 운명론적 수용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삼아

님의 집 창 밖에 외나무 매화 되어

지조, 절개, 화자의 분신

설중에 혼자 피어 침변에 이루는 듯

계절적 배경, 시련 배갓머리에 시드는듯

[월중소영이 님의 옷에 비취거든] 염이 곁에 있고 싶은 화자의 소망

달빛에 안뜰안뜰 비치는 그림자

어여쁜 이 얼굴을 너로구나 반기실까

불평한 기대, 염려

동풍이 유정하여 압향을 불어 올려

동풍(봄바람)이 마음을 열아줌 그윽하게 풍기는 배회향기, 지조, 절개, 장강적

고결한 이내 생계 죽림에나 부치고저

고성하고 순결한, 결백 대나무 숲, 자연(대우범), 속세와 단절된 곳

빈 뉘싯대 비껴 들고 빈 배를 혼자 띄워

천자의 궁궐, 한양의 궁궐

백구(白溝) 건너 저어 건덕궁에 가고 지고

중국 상나라와 요나라의 경계의 강, 한강

그래도 한 마음은 위궐에 달려 있어

궁궐, 초정

내 물은 누역 속에 님 향한 꿈을 깨어

언기를 짚어 걷어낸 도롱이, 기는하고 누추한 상황, 유배상황

일편 장안을 일하에 바라보고

한양 하늘 아래 온 세상

[] 머뭇거리, 임금에 대한 그리움

[외로 머뭇거리며 울이 머뭇거리며] 이 몸의 탓이런가

그르께, 잘못되게 울까, 마르께

아득하여 알 수 없음

이 몸이 전혀 몰라 천도 딱딱하니

하늘의 이치, 임금의 생각

물을 길이 전혀 없다

방법

자연과 인간의 존재, 체계를 상징하는 64개의 괘

[복희씨 육십사괘 천지 만물 삼긴 뜻을

중국 전설의 재량

[] 자연과 인간의 이치를 연구한 이들에게 묻고 싶다

주공을 꿈에 보어 자세히 여쭙고저] → 역음함 호소

주나라 문왕의 아들, 인간의 길흉소사에 응응하는 후천 8괘를 만들었다고 함

하늘이 높고 높아 말없이 높은 뜻을

구름 위에 나는 새야 네 아니 알겠더냐

고전시 _ EBS 수능특강&수능완성

아아 이내 가슴

[산이 되고 돌이 되어 어디어디 쌓였으며

비가 되고 물이 되어 어디어디 울며 갈까] [] 화자의 억울함 심정을 자연물에 빗댄 대구
→ 산, 돌, 배, 물

아무나 이 내 뜻 알 이 곧 있으면
회자가 기다리는 대상

백세교유 만세상감하리라.
영원히 사귀고 공감함

작품 분석

▪ 주제: 결혼하는 여성이 지켜야 할 덕목과 경계해야 할 일

아들 형제 진사 급제 가문도 혁혁하다
 집안의 위세에 대한 자부심 시집가는 딸을 위해 준비한 혼수
 딸을 길러 출가하니 혼수법절 치행이야 다시 일러 어떠하리
 결혼 절차, 예법 집안의 위세에 걸맞게 혼수를 잘 준비함, 설의법
 춘하추동 사철 의복 너의 생전 유족하다
 낙낙하다
 바느질에 침선(針線)채며 대마구종(大馬驅從) 춘득이요 전갈(傳囑)하님 영
 바느질에 쓸 비단 마부(馬夫)의 우두머리 소식을 전해주는 개집종
 매로다
 남너노비 갖았으니 전답인들 아니 주라
 갖추었으니 논밭
 대한불갈(大旱不渴) 좋은 전답 삼백 석 받는 추수(秋收)
 큰 기쁨에도 빠르지 않는
 동도지(東賭地) 오천 냥은 요용소치(要用所致) 유여(有餘)하다
 동쪽의 도지(賭地)를 받고 빌려주는 논밭 필요가 있어서 행하다 낙낙하다
 [나의 신행(新行) 올 때가 도리어 생각난다] [] 회자가 시집을 때와 딸의 시집가는 모습이 비슷한
 어머니, 회자 혼인할 때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거나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감 ← 재산을 낙낙히 갖추
 저 건너 괴퐁어미 시집살이 하던 말을
 너도 들어 알거니와 대강 일러 경계하마
 '괴퐁어미'의 이야기 → 딸이 부녀자로서 경계해야 할 행동을 가르침
 ↓ 괴퐁어미의 시집살이, 내외(역자식 구성)
 제일 처음 시집을 제 가산(家産)이 만금(萬金)이라
 한 집안의 재산 재간이나 여러 물건을 넣어 두는 곳
 마당에 노적(露積)이요 너른 광에 금은이라
 곡식 따위를 한곳에 수북이 쌓아놓은 것
 신행하여 오는 날에 가마문을 나서면서
 눈을 들어 사방 살펴 기침을 크게 하니 신부 행실 바이없다
 예의범절,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거침없이 행동함 회자의 평가 ①
 다담상(茶啖床)의 허다 음식 생를 먹기 괴이하다
 손님 대접을 위해 내놓은 다과를 차린 상 생람 회자의 평가 ②
 무슨 배가 그리 고평 국 마시고 떡을 먹고
 본능적 욕구(食欲)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
 좌중부녀(座中婦女) 어이 알아 떡 조각을 집어 들고
 이도 주고 저도 주고 새덕 행실 전혀 없다
 회자의 평가 ③
 입구녁에 침이 흘러 연지분도 간데없고
 몸가짐이 단정하지 않은 모습

고전시 _ EBS 수능특강&수능완성

어려 가지 빛깔의 뚜렷한 집, 줄 따위가 고르지 않고 무늬를 이룬 모양

아까울사 대단(大緞)치마 얼룩덜룩 홍악하다
중국 비단으로 만든 치마 화자의 평가 ④

신부 행동 그러하니 뉘 아니 외면하리
화자의 평가 ⑤, 설악법

삼일을 지낸 후에 형용도 기괴하다
화자의 평가 ⑥

백주에 낮잠 자기 혼자 앉아 군소리며

둘이 앉아 홍보기와 문틈으로 손 보기며 담에 올라 시비 구경
손님

어른 말씀 토 달기와 금강산 어찌 알고 구경한 이 둘째로다
윗사람을 공경할 줄 모름, 무례한 태도 노는 것을 좋아함

기억니은 모르거든 어찌 책을 들고 앉노
지식, 교양이 없음 화자의 평가 ⑧

앉음앉음 용렬하고 걸음걸음 망측하다
화자의 평가 ⑦, 사람이 변변하지 못하고 졸렬하다

달음박질하는 때에 너털웃음 무슨 일고

치마꼬리 해어지고 비너 빠져 개가 문다
옷매무새가 단정하지 못한 모습

허리띠 얻다 두고 붉은 허리 드러내노

어른 걱정 하울 적에 쪽박 함박 드던지며

성내어 술 때 닭기 독살 부려 그릇 깨기
거칠고 새나운 행동

등간 뒤에 넘보기며 가만가만 말똥 세워
없음말로 가족의 갈등을 만들

아니 한 말 지어내어 일가 간에 이간질과

좋은 물건 잠깐 보면 도적(盜賊)하기 예사로다

그중에 행실 보소 악한 사람 부동(符同)하여 착한 사람 홍보기와
그른 일에 현혹되어 되어

제 처신 그러하니 남편인들 귀할쏘냐

[금슬 중자 살풀이며 무병(無病)하라 푸닥거리
미신에 빠진 모습

의복 주고 금전 주어 아들 낳고 부귀하기 [] 착한 일을 해서 복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집안의 재산을 낭비하면서 미신의 힘으로 복을 받으려고 함. 이리석음

정성껏 빌어 보소 산에 올라 산제(山祭)하고 절에 가서 공양(供養)한들]

제 인심이 그러하니 귀신인들 도울쏘냐

옛마련
우환이 연접하니 사망인들 없을쏘냐
집안의 걱정 괴롭어매가 시집온 후, 집안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음을 암시함, 설악법

↑ 괴롭어매의 시집살이

딸아 딸아 아기 딸아, 복선화음(福善禍淫) 하는 법이 이를 보니 분명하다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재앙을 내림 괴동어미의 시집살이 모습

저 건너 괴동어미 너도 흡연 안 보았나

지나치게 쓰고 먹음

허다 세간 포진천물(暴殄天物) 남용남식(濫用濫食) 하고 나서 그 모양이
물건을 함부로 쓰고 아까운 지를 모름

되었구나

딸아 딸아 고명딸아 괴동어미 경계하고
아들 많은 집의 외딸

너의 어미 살을 받아 세금 결시 이른 말은 부디 각골(刻骨) 명심하라
외자 본받아 마음 속에 깊이 새기다 명령형

[딸아 딸아 울지 말고 부디부디 잘 가거라

효봉구고(孝奉舅姑) 순승군자(順承君子) 동기우애(同氣友愛) 지친화목(至
사부모를 효성으로 섬김 남편을 순순히 따름 형제자매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함 가까운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냄

親和睦)

기쁜 소식 듣기오면 명년 삼월 화류시에 모녀상봉 하느니라
들리면 내년 화산놀이 할 때 [] 시집가는 말을 위로함

작품 분석

장풍(長風)에 돛을 달고, 육선(六船)이 함께 떠나

큰 바람 6척의 배, 동진사 일행의 규모

[삼현(三絃)과 군악 소리 해산(海山)을 진동하니] [동진사를 배웅(餞送)하는 모습, 정각적, 과장법
거목고, 가이금, 당비파 세 현악기

[물속의 어룡(魚龍)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과장법
물고기, 용 마땅히

해구(海口)를 열린 나서 오륙도(五六島) 뒤 지우고

부산항 부산 앞바다의 섬

고국(故國)을 돌아보니, 야색(夜色)이 창망(滄茫)하여

밤의 경치, 시간적 배경 아득하여

아무것도 아니 뵈고, 연해(沿海) 각진포(各鎭浦)에

바닷가에 있는 여러 포구들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뵈 만하다

역지에서 멀어짐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큰 바람

가득이 심란한데 [대풍(大風)이 일어나서

긴 여정에 대한 근심, 걱정

태산(泰山)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과장법

풍경에 흔들리는 배, 적유법

크나큰 만곡주(萬斛舟)가 나뭇잎 불리이듯

만 석의 곡식을 실을 수 있는 큰 배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地陷)에 내리지니> <과장법

지면에 움푹 지지 않은 곳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叉樞)처럼 굽어 있고

나무의 갈기자, 적유법

[] 심한 파도, 풍경에 격하게 흔들리는 배(의부)

선두 폭 초석(草席)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적유법, 과장법, 묘사

짚으로 만든 돛 적유법

굵은 우레 잔 벼락은 등[背] 아래서 진동하고

성난 고래 동(動)한 용(龍)은 물속에서 희롱하니

파도, 풍경, 은유법

[방 속의 요강 타구(唾具) 자빠지고 엎어지며

침 뱉는 그릇

[] 심한 파도, 풍경에 격하게 흔들리는 배(의부)

상하좌우 배 방 <넒은 잎잎이 우는구나>]

넒번지 하나하나 <활유법, 영탄법

이윽고 해 돋거늘 장관(壯觀)을 하여 보세

풍경이 가라앉음, 아침, 시간적 흐름(변-이침)

일어나 배 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사면(四面)을 돌아보니 [어와 장할시고

현대어 풀이

사나운 바람에 돛을 달고 여섯 척의 배가 모두 함께 떠나니,

각종 악기와 군악대 연주하는 소리가 온 세상을 진동 하니

물속의 고기들이 마땅히 놀람 직어나

부산진을 열린 떠나 오륙도를 뒤로 하고,

고국을 돌아보니 밤빛이 아득하여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바닷가 변방 각 포구의

불빛 두어 점만이 구름 밖에서 보일 듯 말 듯하구나.

선실에 누워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득이나 심란한데 큰 바람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가득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나뭇잎

하늘에 올랐다가 땅 밑으로 떨어지니

열두 발 쌍돛대는 나뭇가지처럼 굽어 있고,

선두 폭 짚으로 만든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굵은 우레 작은 벼락은 등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고,

성난 고래와 용이 물속에서 마구 뛰노는 것 같네.

방 안의 요강 타구가 자빠지고 엎어지고

상하 좌우에 있는 선실의 널빤지는 하나하나 소리를 내는구나.

이윽고 해가 돌아 장관을 구경하여 보자.

일어나 배문을 열고 문 양쪽 기둥을 잡고 서서

사면을 바라보니 아아 굉장하구나

▪ 주재: 동진사로 일본을 여행하면서 얻은 견문과 감상

현대어 풀이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 일출 장면에 대한 회자의 반응, 설악법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다

[등 뒤쪽을 돌아보니 동래(東萊) 산이 눈썹 같고
부산의 지명

동남(東南)을 바라보니 바다가 가이없어
형해 방향

위아래로 푸른빛이 하늘 밖에 닿아 있다] [] 폭풍이 지나고 뒤 바다의 모습

수평선 묘사 ①폭풍 속에서 배가 가이할 길 ②조선이 가이할 길 ← 중의법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건가
조국의 운명과 현실에 대한 염려, 우국지정, 영탄법

함께 떠난 다섯 배는 간 데를 모르겠다
폭풍으로 인해 일행들이 흩어진 상황

사면을 돌아보니 이따금 물결 속에

부채만 한 작은 돛이 들락날락하는구나
다른 배들과 멀리 떨어진 상황, 파도 때문에 배가 보일락말락, 영탄법

배 안을 돌아보니 저마다 수질(水疾)하야
뱃멀미

똥물을 다 토하고 혼절하여 죽게 않네
뱃멀미로 인해 기절해 있는 모습

다행할사 [중사상(從事相)은 태연히 앉았구나]
[] 중사상의 위엄있는 모습
동신사의 우두머리, 초임

배 방에 도로 들어 눈 감고 누웠더니

대마도(對馬島) 가깝다고 사공이 이르거늘
일본의 섬

다시 일어 나와 보니 십 리는 남았구나

배를 끌다

왜선 십여 척이 예선(曳船)차로 모두 왔네
사신 일행을 맞이하러 오는 배

(중략)

[이십팔 일 발행할 때 수백 필 금안 준마(金鞍駿馬)
길을 나서다 화려한 안장을 얹은 빠르게 달리는 말

중하관을 다 태우니 기구도 장하구나] 육로(陸路)를 통해 이동하기 시작함
중하급 관리 애함에 필요한 것이 물고루 갖추어져 있는 형제
지나치다

각방의 노자(奴子)들도 호사가 참람(僭濫)하다
사내종 호화롭고 사치스럽다

좌우에 쌍견마요 한 놈은 우산 받고
말 한 필에 고삐를 둘로 하여 두 마부가 이끄는 말

두 놈은 부축하고 담배 기구 한 놈 들고

한 놈은 등불 들고 한 놈은 그릇 메어

한 사람이 거느린 수 여덟씩 들었구나
한 사람이 거느리는 사내종의 수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어디 있겠느냐.
구만 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세.
등 뒤로 돌아보니 동래의 산이 눈썹만큼 작게 보이고
동남을 돌아보니 바다는 끝이 없네.
위아래 푸른빛이 하늘 밖에 닿아 있네.
슬프다, 우리 가는 길이 어디란 말인가?
함께 떠난 다섯 척의 배는 간 데를 모르겠구나.
사면을 뒤로 보니 이따금 물결 속에
부채만 한 작은 돛이 들락날락하는구나.
배 안을 돌아보니 사람마다 배멀미를 하고
똥물을 다 토하고 기절하여 죽을 지경이네.
다행이로다. 중사상은 태연히 앉아 계시는구나.
선실에 도로 들어와 눈 감고 누웠더니
대마도 가깝다고 사공이 말하거늘
다시 일어나 나와 보니 십 리는 남았구나.
왜선 십여 척이 우리 배를 인도할 배로 맞으러 나왔
네.

<중략>

이십팔 일에 길을 떠날 대 금으로 꾸민 안장을 얹은
수백 필의 좋은 말에
중하급 관리를 다 태우니 그 형세가 굉장하구나
각 방의 사내종들도 호사가 분수에 넘쳐 너무 지나치
다
좌우에 두 마부가 끄는 말 한 필씩이 있고, 한 놈은
우산을 받치고
두 놈은 부축하고 담배 기구를 한 놈이 들고
한 놈은 등불을 들고 한 놈은 그릇을 메어
한 사람이 거느리는 사내종의 숫자가 여덟 명씩이구나

나하고 삼 문사(文士)는 가마 타고 먼저 가니

작가 김연경, 화자 재술관 남옥, 상병시기 성대중, 부병시기 원중기

금안(金鞍) 지은 재고 큰 말 기(旗) 든 말이 앞에 섰다

금으로 꾸민 안장 등적이 빠르고

[여염도 왕왕 있고 혼할 손 대밭이다

백성들이 사는 마을

[] 여정에 따른 견문

토지가 기름져서 전답이 매우 좋네] - 당시 일본 사람처럼 사는 모습

새 사진

이십 리 실상사가 잠 사장 조복(朝服)할 때

사찰의 명칭, 여정 관원이 조정에 나갈 때, 예의를 갖추기 위해 입던 복장

나는 내리지 않고 왜성으로 바로 가니

여정

인민이 부려(富麗)하기 대관만은 못하여도

부유하고 화려함 오사카

서에서 동에 가기 삼십 리라 하는구나

큰 규모에 놀람, 영탄법

관사(館舍)는 본룡사(本龍寺)요 [오층 문루 위에

사신들의 숙소 사찰의 명칭,

[] 하늘에 닿을 듯한 구리기둥의 위용, 묘사, 과장법

여남은 구리 기둥 운소에 닿았구나]

구름 낀 하늘

[수석도 기절(奇絶)하고, 죽수(竹樹)도 유취 있네]

아주 신기하고 기이하다 대나무 그윽한 정취

[] 일본 자연환경에 놀림

왜황이 사는 곳이라 사치가 측량없다

왜성의 화려함에 대한 부정적 태도, 비판

[산형이 웅장하고 수세도 환포하여

산의 생김새 사방으로 둘러싸여

옥야천리 생겼으니 아깝고 애달플손

끝없이 넓은 기름진 들만 조선이 좋은 자연환경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리 좋은 천부 금탕 왜놈의 기물되어]

천혜의 요지 일본에 대한 비하, 적대적 태도

부러움

대대손손 전하니

칭제 칭왕하고 전자 전손하니

황제라 칭하고, 천왕이라 열컬으며

무리

개돼지 같은 비린 유를 다 모두 소탕하고

일본에 대한 비하, 적대적 태도, 일본인이 미개하다는 인식

사천 리 육십 주를 조선 땅 만들어서

일본의 국토, 행정구역

[]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 일본에 대한 문화적 우월의식

[왕화에 목욕(沐浴) 감겨 예의국 만들고자]

임금의 덕행에 의한 교화

현대어 풀이

나 하고 세 명의 문사는 가마를 타고 먼저 가니
금으로 장식한 안장을 지운 날래고 큰 말 두 마리가
앞에 섰다.

백성들의 살림집도 이따금씩 있고 혼한 것은 대나무
밭이다.

토지가 기름지고 걸어서 논밭이 매우 좋구나
이십 리 실상사에 가 세 명의 사신이 하례할 때
나는 내리지 않고 왜성으로 바로 가니,
"사람들이 부유하고 화려하기가 오사카만은 못하여도
서에서 동에 가기 삼십 리라."하는구나.

관사는 본룡사요. 오층 다락집 위에
열이 조금 넘는 수의 구리 기둥이 구름 낀 하늘에 닿
았구나.

물과 돌로 이루어진 자연의 경치도 신기하며 기이하
고, 대나무도 그윽한 정취가 있네.

일본 천황이 사는 곳이라 매우 사치스럽다.

산 모양이 웅장하고, 물의 흐름도 사방으로 둘러싸여
끝없이 넓고 기름진 들만이 생겼으니, (우리 민족이 갖
지 못한 것이) 아깝고 애달프다.

이렇게 좋은 천연의 요충지가 왜놈의 살림살이에 쓰이
는 그릇이 되어

황제라고 칭하고 군왕이라고 칭하며, 자식에게 전하고
손자에게 전하니,

개와 돼지 같은 더러운 이들을 모두 다 없애버리고,
일본의 사천 리 육십 개의 주를 조선 땅으로 만들어서
왕의 교화로 씻어 내어 예의 국민을 만들고 싶구나.

작품 분석

▪ 주제: 입에 대한 사랑

나에게 아름다운 비단 한 필이 있어
지조를 지키기를 바라는 요구

我有一端綺

[먼지를 털어 내면 맑은 윤이 났었죠.
경이체

拂拭光凌亂

봉황새 한 쌍이 마주 보게 수놓여 있어
금슬이 좋은 부분

對織雙鳳凰

['비단 한 필'의 아름다움, 묘사]
 반짝이는 그 무늬가 정말 눈부셨지요.]

文章何燦爛

여러 해 장롱 속에 간직하다가

幾年篋中藏

오늘 아침 입에게 정표로 드립니다.
남편, 청자

今朝持贈郎

입의 바지 짓는 거야 아깝지 않지만

不惜作君袴

다른 여인 치맛감으론 주지 마세요.

莫作他人裳

<제3수>

고전시 _ EBS 수능특강&수능완성

보배스러운 순금으로

값진 보물

精金凝寶氣

반달 모양 노리개를 만들었지요.

시부모님께 받은 예물, 혼인한 상대임을 잊지 않기를 바램, 요구

鏤作半月光

시집을 때 시부모님이 주신 거라서

嫁時舅姑贈

다홍 비단 치마에 차고 다녔죠.

새색시의 복장

繫在紅羅裳

오늘 길 떠나시는 임에게 드리오니

今日贈君行

서방님 정표로 차고 다니세요.

願君爲雜佩

길가에 버리셔도 아깝지는 않지만

不惜棄道上

새 여인 허리띠에만은 달아 주지 마세요.

莫結新人帶

<제4수>

작품 분석

[서방님 정(情) 떼고 정(正) 이별한대도 날 버리고 못 가리라.]

청자 → 회자 여성

[] 이별에 대한 거부 의지

금일 송군(送君) 임 가는 데 백년 소첩(百年小妾) 나도 가요.

날 다려 날 다려 날 다려가요. 한양 낭군님 날 다려가요.

나는 죽네 나는 죽네 입자로 하여 나는 죽네.

이별의 슬픔, a-a-b-a구조 반복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청자 → 회자 남성

[제일명당 터를 닦아 고대광실(高臺廣室) 높은 집에

고대 등 같은 기와집, 광장이 크고 좋은 집

거창하게

내외 분합(分閤) 물림되며 고불도리 선자(扇子)추녀 형뎡그렇게 지어나 주

내 쪽의 상문 본채 주변 공간 굴도리 시가례를 부채살 모양으로 만든 추녀

라.] [] 이별을 거부하는 여성에게 남성이 좋은 집을 지어주겠다는 제안, 나열&열거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구절의 반복, 집가의 특징

[연지분 주라. 면경 석경주라 옥지환(玉指環) 금봉차(金鳳釵) 화관주(花冠

화장품 거울 옥 가락지 봉황이 조각된 금비녀 구슬로 만든 화관

珠) 띠 머리 칠보(七寶) 족두리 하여나 주라.]

밑머리에 덧대어서 얹은 머리띠

[] 이별을 거부하는 여성에게 남성이 각종 병물을 주겠다는 제안, 나열&열거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세간치레를 하여나 주라.

집안 살림에 쓰는 온갖 물건들

용장(龍幟) 봉장(鳳幟) 컷도리 책상이며 자개 함룡(函籠) 반다지 삼층 각

용을 새긴 옷장, 봉황을 새긴 옷장 비단 책상 자개로 만든 옷장

계수리 이층 들미장에 원앙금침(鴛鴦衾枕) 잣베게

귀중품 낳는 가구 문을 들어 올려서 얹는 장롱

잣모양 베개

셋별 같은 쌍요강 발치 발치 던져나 주라.] [] 이별을 거부하는 여성에게 남성이 가제도구를 주겠다는 제안, 나열&열거

반짝이는 요강 발아래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의복 치레를 하여나 주라.

보라 항룡(亢綾) 속저고리 도리불수 걸저고리 남문대단 잔솔치마

보라색 비단으로 만든 속저고리

비단 걸저고리

중국산 비단과 모시치마

백방수화주 고장바지 물면주 단속곳에 고양이 속버선에 몽고삼승 걸버

비단 고쟁이(속옷)

남색 명주 속옷

무명 속버선

두꺼운 비단 걸버선

선에

자지 상직 수당혜(繡唐鞋)를 명례궁(明禮宮) 안에 맞추어 주라.] [] 이별을 거부하는 여성에게 남성이 각종 의복을 주겠다는 제안, 나열&열거

자주색 비단 가죽신

떡구멍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노리개 치레를 하여나 주

라.

현대어 풀이

[여성의 이별 거부]

서방님, 정을 떼고 진실로 이별을 한다고 해도 날 버리고 못 갈 것이다.

오늘 입을 보내는데, 백년 소첩(부인이 남편을 상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표현)인 나도 가요

날 데리고 날 데리고 가요. 한양 낭군님 날 데려가요 나는 죽네 나는 죽네 임으로 인해 나는 죽네

[남성이 회위]

너(여성)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소원을 다 말해보아라. 제일 좋은 자리에 터를 닦아 매우 크고 좋은 집에 안팎으로 대청 앞쪽에 난 네 쪽의 창문, 본채 앞뒤 좌우의 작은 공간, 굴도리(기둥의 머리와 머리 사이에 둘러 얹은 뼈대가 되는 나무), 부채살 모양의 추녀 거창하게 지어주랴?

너(여성)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소원을 다 말해보아라. 연지분(화장품)을 주랴? 면경과 석경(거울)을 주랴? 옥가락지, 금비녀, 구슬 화관, 띠머리(밑머리에 덧대어서 얹은 머리띠), 칠보(알금 가지 보배) 족두리를 하여 주랴?

너(여성)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소원을 다 말해보아라. 집안 살림에 쓰는 물건들을 하여 주랴?

용과 봉황을 새긴 옷장, 귀가 네모난 책상이며 자개로 만든 옷장, 반다이 삼층, 각계수리(귀중품을 넣어두는 가구) 이층, 들미장(문을 들어 올려서 여는 장롱)에 원앙을 수놓은 이불과 베개, 잣모양의 베개 셋별처럼 반짝이는 요강, 발아래 놓아주랴?

너(여성)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소원을 다 말해보아라. 옷을 하여 주랴?

보라색 비단으로 만든 속저고리, 비단 걸저고리, 남문대단 모시치마

비단 고쟁이(여성 속옷), 남색 명주 속옷에 고양이 지역에서 생산한 무명 속버선에 몽고삼승(두꺼운 비단) 걸버선에

자주색 비단 가죽신을 떡구멍 안에 맞추어 주랴?

너(여성)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소원을 다 말해보아라. 노리개를 하여 주랴?

▪ 주제: 이별을 앞둔 남녀의 갈등

은(銀)조로롱 금(金)조로롱 산호(珊瑚)가지 밀화불수(蜜花佛手)

은조롱 금조롱

부처의 손모양의 보석 노리개

밀화장도(蜜花粧刀) 결칼이며 삼천주 바둑실을 남산더미만큼 하여나 주

호박으로 만든 작은칼

정신구, 바둑돌 단추

과장

라.] [] 이별을 거부하는 여성에게 남성이 접회를 주겠다는 재안, **니열&열거**

나는 싫소 나는 싫소 아무것도 나는 싫소.

희자 여성

[고대광실도 나는 싫고 **금의옥식(錦衣玉食)**도 나는 싫소.

비단옷과 한말뼉, 사치스럽고 부유한 삶

위낭충충 걷는 말에 **마부담(馬負擔)**하여 날 다려가오.]

의태어, 음성 상징어

말에 얹다

[] 남성이 재안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임과 함께 가고 싶어하는 마음**

현대어 풀이

은조롱, 금조롱, 산호가자 부처 손모양의 보석 노리개 호박으로 만든 작은 칼이며, 삼천주(저고리 고름, 치마 허리에 차는 장신구) 바둑실을 남산더미만큼 하여주 라?

[여성의 이별 거부, 동행 요구]

나는 싫소 나는 싫소 아무것도 나는 싫소
크고 좋은 집도 나는 싫고 좋은 옷 좋은 음식도 나는 싫소
위낭충충(말이 걷는 모습) 걷는 말에 말에 물건을 얹고 나를 데려가오

작자미상, <어사용> [나무꾼 노래]

▪ 주제: 나무하는 일의 힘겨움과 신세 한탄

엄마 엄마 올 엄마요

나를 낳아 키울 적에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 골라 키워 놓고

북망산천 가지더니 오늘에도 소식 없네
돌아가심

어떤 사람 팔자 좋아
↔ 회자

고대광실 높은 집에 부귀영화로 지내건마는

이내 나는 어찌하여 팔공산 짙어지고 낮자리 품 팔아먹고
회자의 직업이 나무꾼임을 알 수 있는 단서 ①

산천초목으로 후려잡고 지계로 살려를 가노
회자의 직업이 나무꾼임을 알 수 있는 단서 ②

산천은 보니 청산이요 이내 머리는 백발이 되니
↔ 회자

불쌍하고 원통하네

가는 허리 바늘 같은 내 몸에 황소 같은 병이 드니
회자의 부정적 상황, 비유적, 대비

부르는 건 올 엄마요
회자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대상 ①

찾는 거는 냉수로구나
회자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대상 ②

대구법

기심 매리 갈 적에는 갈뿔을 따 가지고

김, 논쟁에 난 접붙 뿔음의 유사성(경)에 의한 언어유희

대구법

누에를 치기 위해 뿔뿔을 따

기심 매고 올 적에는 올뿔을 따 가지고

뿔음의 유사성(올)에 의한 언어유희

삼간방에 누어 놓고 청실홍실 뽑아내서

새 칸 방 누에

[강릉 가서 날아다가 서울 가서 매어다가

베틀에 날살을 걸어 날살에 풀을 먹이고 말리어 감아서

하늘에다 베틀 놓고 구름 속에 이때 걸어] [1 베 짜기의 과정을 환상적으로 표현.

영아, 날살을 끌어올리도록 맨 굵은 실

자신을 신녀(적녀)에 비유함

→ 힘든 노동에도 낭만적 여유를 잃지 않음.

대구법, 과정법, 은유법

실을 뽑아서 베를 짠

함경나무 바디집에 오리나무 북케다가

베틀의 배티를 끼우는 데 베틀의 북

짜궁짜궁 짜아 내어 가지있과 묶거워라.

의성어(베 짜는 소리), 장각

배꽃같이 바래워서 참외같이 올 짓고

하얗게 색을 빼서(표백) 실, 줄의 가닥

[외씨 같은 보선 지어 오빠님께 드리고

겉옷 짓고 솜옷 지어 우리 부모 드리겠네.] 부모에 대한 사랑, 유교적, 직유법

가족에게 옷을 지어 줌

<베를 노래>

김 매리 갈 적에는 갈뿔을 따 가지고
 김 매고 올 적에는 올뿔을 따 가지고
 세 칸 방에 누에를 놓고 청실 홍실 뽑아내서
 강릉 가서 베틀에 실을 걸어가다가 서울 가서 날살에 풀
 이 먹고 다듬어 말리어 감아다가
 하늘에다 베틀 놓고 구름 속에 굵은 실을 걸어
 함경나무 바디집(바디는 베의 날을 고르며 북의 통로
 를 만들어 주고 씨실을 쳐서 베를 짜는 구슬을 하는
 빗 모양의 기구)에 오리나무 북(베틀에서 날살의 틈으
 로 왔다갔다 하면서 씨실을 푸는 베 모양의 기구)에
 짜궁짜궁(베짜는 소리) 내어 가지있(명주실을 세는 단
 위)과 무거워라
 배꽃같이 표백해서 참외 같이 가작을 짓고
 오이씨 같은 보선 지어 오빠에게 드리고
 겉옷 짓고 솜옷을 지어 우리 부모님께 드리겠네

▪ 주제: 베를 짜며 갖는 낭만적 여유, 가족애

작품 분석

▪ 주제: 자연을 벗 삼는 방황 생활의 풍류

욕심없고 자유로운 나그네의 삶

정처없는 내 삿갓이 빈 배와 같은데
방랑 생활의 동반자

浮浮我筮等虛舟

사십 년 평생 내내 쓰고 다녔네

一着平生四十秋

[소 따라 들판으로 가는 목동의 가벼운 차림이요

[] 삿갓을 쓰는 경우, 대구법

牧豎輕裝隨野犢

백사장의 갈매기와 벗하는 어부의 본색이라네]

漁翁本色伴沙鷗

[술 취하면 벗어 걸고 꽃나무를 바라보고

[] 삿갓과 함께이는 풍류적 생활에 대한 애착

醉來脫掛看花樹

흥이 나면 손에 들고 누각에 올라 달구경 하네]

興到携登翫月樓

속인들의 의관은 모두 걸치레이니

사대부의 허위&위선에 대한 비판

俗子衣冠皆外飾

온 하늘에 비바람 가득해도 나는 걱정 없네.

삿갓의 의미, 비바람을 막아주고, 자유로움을 가져다 줌 → 자부심

滿天風雨獨無愁

김병연이 함경도 함흥 지방의 구천각(구개)을 구경하고 내려오다가 지방 유자로 보이는 노인 네 명이 기생과 어울려 시를 읊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마침 술 생각이 간절하여 술 한 잔을 요청했지만, 그의 행색을 꾸민답하였다. 이에 지방 유지들을 비난하는 마음을 담아 쓴 작품이다.

김삿갓, <원생원>

▪ 주제: 마땅치 마을 유지들에 대한 풍자

해 뜨자 원생이 언덕에 나타나고

원(元) 생원 → 원(猿, 원숭이) 생원, 동음이의어를 통한 언어유희, 희화화, 풍자

日出猿生原

고양이 지나가자 쥐가 다 죽네.

새(徐) 진사 → 새(鼠, 쥐) 진사, 동음이의어를 통한 언어유희, 희화화, 풍자

猫過鼠盡死

황혼이 되자 모기가 처마에 이르고

문(蚊) 침지 → 문(蚊, 모기) 침지, 동음이의어를 통한 언어유희, 희화화, 풍자

黃昏蚊簷至

밤 되자 벼룩이 자리에서 쏘아대네.

죄(蚤) 석사 → 죄(蚤, 벼룩) 석사, 동음이의어를 통한 언어유희, 희화화, 풍자

夜出蚤席射

황진이, <청산리 벽계수야~>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①푸른 사뭇물 ②왕실의 친족 벽계수 ← 중의법, 청자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①한번 넓은 바다에 이르면 ②한번 늑거나 죽으면 ← 중의법

빈산에 가득하니

명월이 만공산하디 쉬어 간들 어찌리

①밝은 달 ②황진이 ← 중의법

현대어 풀이

청산에 흐르는 푸른 사뭇물아, 빨리 흘러간다고 자랑하지 마라

한번 넓은 바다에 이르고 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니

밝은 달이 빈산에 가득히 찼을 때 쉬어가면 어찌리

▪ 주제: 풍류 생활의 낭만과 즐거움

작품 분석

▪ 주제: 평생 동안 자연에서 은거하는 삶에 대한 예찬

헛된 명예 이루려 조금하계 살지 않고

세속적 가치

不爲浮名役役忙

평생 동안 수운향을 좇으며 살아가네

호수가, 바닷가에 위치하여 풍경이 그윽한 지방, 자연 ↔ 헛된 명예

生涯追逐水雲鄉

넓은 호수에 봄은 따사로워 안개가 천리에 퍼지고

平湖春暖煙千里

예스런 언덕에 가을은 높아 달이 한 척의 배로구나

은유법, 영탄법

古岸秋高月一航

붉은 먼지, 속세

자줏빛 거리의 흥진엔 꿈자리에서도 가지 않으니

관리들이 자줏빛 의관을 한 채 대는 거리, 도성의 거리, 속세

紫陌紅塵無夢寐

초록빛 도롱이에 샷갓으로 함께 걷고 함께 사라지네

소박한 옷차림 ↔ 자줏빛 거리, 흥진

綠蓑青蓑共行藏

[뱃노래 한 가락이 흥취에 젖었으니

一聲欸乃歌中趣

어찌 인간 세상 옥당 벼슬 부러워하겠는가] [] 자연에서 사는 삶에 대한 만족, 예찬,

세속적 가치

상각적, 대조, 설악법

那羨人間有玉堂

작품 분석

현대어 풀이

[서사]

어떤 디날 손이 정산(星山)의 머물며서
전라도 상평에 있는 산
지나가는 손님, 외지 김정원
 서하당(棲霞堂) 식영정(息影亭) 주인(主人)아 내 말 들소
김정원이 지은 정자 김정원이 스승이자 정인인 안약경에게 지어준 정자
 인생(人生) 세간(世間)의 도흔 일 하건마는
속제
 엇디흔 강산(江山)을 가더록 나이 녀겨
자연
 적막(寂寞) 산중(山中)의 들고 아니 나시논고
적막한 산속, 성산, 자연
 [송근(松根)을 다시 쓸고 죽상(竹床)의 자리 보아
신나무 뿌리 대나무로 만든 평상
 저근덧 올라안자 엇던고 다시 보니
 천변(天邊)의 젧는 구름 서석(瑞石)을 집을 사마
하늘의 가장자리에 뜬 구름, 주인 서석대를 집으로 삼아, 주제: 구름, 익언법
 나는 듯 드는 양이 주인(主人)과 엇디흐고] [식영정에서 생활하는 주인의 모습을 구름에 빗댄
들락날락하는 모습, 자유로움, 유유자적 설어법
 창계(滄溪) 흰 물결이 정자(亭子) 알퐁 둘러시니
푸른 시내, 식영정 앞 작은 시내
 천손운금(天孫雲錦)을 뉘라서 버혀 내어
직녀(선녀)가 짜놓은 구름 같은 비단, 은하수, '자뻏말'을 비유
넛는 듯 퍼티는 듯 흰스도 흰스홀샤
엷는 듯 펼쳐는듯 아단스럽기도 아단스럽구나. 매우 아름답다, 영탄법
 산중(山中)의 책력(冊曆) 업서 사시(四時)를 모르더니
달력 사계절을 모르더니, 시간 가는줄 모르고 자연을 즐기다, 1번 내내 아름답다
 [눈 아래 헤틴 경(景)이 철철이 절노 나니] [사계절에 따른 경치 묘사 암시
돌아오는 계절마다
 듯거니 보거니 일마다 선간(仙間)이라
선선의 세계 ↔ 재간(속세), 비화법

[서사]

어떤 지나는 손이 성산에 머물면서
 서하당 식영정 주인(김성원)아 내 말 들소.
 인생 세간에 좋은 일 많건마는
 어떠한 강산을 갈수록 낮게 여겨
 적막 산중에 들고 아니 나오시논고.
 소나무뿌리를 다시 쓸고 대나무에 자리를 보아
 잠깐 올라앉아 어떤가 다시 보니
 하늘가에 떠 있는 구름이 서석대(또는 '상서로운 돌')를
 집을 삼아
 들락날락 하는 모양이 주인과 같지 않은가.
 시내의 흰 물결이 정자 앞에 둘러 있으니
 하늘의 은하수를 누가 베어 내어
 엷는 듯 펼쳐는 듯 아단스럽기도 아단스럽구나.
 산 속에 달력이 없어 사계절을 모르더니
 눈 아래 헤쳐 있는 경치가 철을 따라 저절로 나니
 듯거니 보거니 일마다 선간이라

■ 주제: 성산의 사계절의 정관과 식영정 주인의 풍류를 예찬함

[본사]

매창(梅窓) 아직 버티 향기(香氣)에 잠을 썬니

매화가 핀 창문 봄

산옹(山翁)의 희을 일이 곳 업도 아니하다

산촌에 있는 늙은이(김정원)가 해야 할 일

[을 밋 양지(陽地) 편]의 외씨를 쉼허 두고

울타리 밑 햇빛이 잘 드는 곳

딴거니 도도거니 빗김의 달화 내니

김을 빼거나 돌우거나 비온 김에 손질하니

청문고사(靑門故事)를 이제도 잇다 홀다 [] 신옹이 해야 할 일① : 오이농사

중국 한나라때 소평이 장안성의 청문 밖에 오이를 심은 고사연용

[망혜(芒鞋)를 피야 신고 죽장(竹杖)을 훑더디니

짚신 대나무 지팡이 이어져있구나. 영탄범

도화(桃花) 핀 시내 길히 방초주(芳草洲)에 디어제라.

복숭아꽃, 무릉도원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 꽃다운 풀이 우거진 물가의 적은섬

[닷붓근 명경중(明鏡中) 절로 그린 석병풍(石屏風)] [] 대구범

잘 닦아 깨끗한 거울 속, 시내 절벽이 병풍처럼 방 둘러있는 모습

그림재 벗을 삼고 새와로 함씩 가니

절벽의 그림자를 친구삼아, 자연친화 [] 신옹이 해야 할 일② : 자연친화적 삶

도원(桃源)은 여기로다 무릉(武陵)은 어디메오.]

성산의 봄 경치에 대한 예찬, 성산-무릉도원

[본사]

매화꽃 피어 있는 창문 아침 별의 향기에 잠을 깨니
 산촌 늙은이의 할 일이 아주 없지도 아니하다.
 울타리 밑 양지 편에 오이씨를 뿌려 두고
 (김을) 매고, (흙을) 뜯으면서 비온 김에 손질하니
 청문의 고사를 이제도 잇다 하겠다.
 짚신을 바베 신고 대나무 지팡이를 흠어 던지니
 도화 핀 시냇길이 방초주에 이어 이어졌구나.
 잘 닦은 거울(물) 속에 저절로 그린 병풍처럼
 (드리워진 절벽) 그림자를 벗을 삼아 서하로 함께 가
 니
 무릉도원이 어디인가, 여기가 바로 그곳이로다.

[본사기]

남풍(南風)이 건듯 부러 녹음(綠陰)을 헤쳐 내니
어름바람, 계절적 배경 우거진 나무의 그늘, 계절적 배경, 어름

절(節) 아는 괴소리(怪所)는 어드러서 오뎃던고
절, 계절 괴소리, 계절적 배경, 어름

희황(羲皇) 벼개 우회 꾀죽을 얼핏 썬니
북위황제를 새긴 벼개, 태평함 꾀죽, 한가하고 여유로운 삶

공중(空中) 저준 난간(欄干) 물 우회 썬 잇고야
공중의 젖은 난간이 물 위에 떠 있구나, 시원함, 한가하고 여유로운 삶

마의(麻衣)를 니미 촛고 갈건(葛巾)을 기우 쓰고
삼베옷, 계절적 배경, 어름 참베로 만든 두건

구부락 비기락 보는 거시 고기(渴)로다
몸을 구부렸다가 기렸다가 보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관심

하룻밤 비 띄운의 홍백련(紅白蓮)이 섰거 피니
붉은 연꽃과 흰 연꽃, 색채대배, 시각적

벼람의 업시서 만산(萬山)이 향기로다
바람이 불지 않아서 홍백련의 향기가 은은하게 온 산에 퍼짐, 영탄법, 후각적

[염계(廉溪)를 마조보와 태극(太極)을 못잡는 듯
승나라 주돈이의 호 우주의 근본원리

태을진인(太乙真人)이 옥자(玉字)를 헤헛는 듯] [] 신베로운 자연의 아름다움
도를 깨우친 신선 황제가 담긴 비결서

노자암(鷗鷺巖) 바라보며 자미탄(紫微灘) 거터 뒤고
석영정 아래에 있는 바위 석영정 아래에 있는 시내

장송(長松)을 차일(遮日) 사마 석경(石逕)의 안자(安)하니
햇빛 가리게 돌이 많은 좁은 길

인간(人間) 유월(六月)이 여기는 삼추(三秋)로다
인간 세상은 유월 한어름으로 매우 덥겠지만, 여기(자연)는 가을처럼 시원하다, 주관적 인식, 대배, 대조, 영탄법

[청강(淸江)의 썬는 울히 백사(白沙)의 울마 안자
맑은 강, 석영정 아래 시내 오리

백구(白鷗)를 벗을 삼고 줌 썰 줄 모르나니
흰갈매기

무심(無心)코 한가(閑暇)하미 주인(主人)과 엇디호고] [] 한가하게 짐을 지는 오리의 모습을 주인과 비교함, 오리=주인

현대어 풀이

[본사기]

남풍이 문득 불어 녹음을 헤쳐 내니
찰을 아는 괴소리는 어디에서 왔던가.
희황 벼개 위에서 꾀죽을 얼핏 썬니
공중의 젖은 난간이 물 위에 떠 있구나.
삼베옷을 여며 입고 갈건을 기우여 쓰고
몸을 구부렸다가 혹은 기대면서 보는 것이 물고기로
다.
하룻밤 비 온 뒤에 붉은 연꽃과 흰 연꽃이 섞여 피니
바람이 불지 않아도 온 산이 향기로다.
염계를 마주보며 태극의 이치를 묻는 듯
노자암을 바라보며 자미탄 곁에 두고
큰 소나무를 차일 삼아 돌길에 앉으니
인간 세상의 유월이 여기는 가을이로구나.
맑은 강에 떠 있는 오리가 흰 모래에 옮겨 앉아
흰 갈매기를 벗을 삼고 짐 썰 줄 모르니
무심하고 한가함이 주인과 비교하여 어떠한가.

현대어 풀이

[본사3]

오동(梧桐) 서리들이 사경(四更)의 도다 오니
 차게 느껴지는 달, 계절적 배경, 가을

천암만학(千巖萬壑)이 나진들 그리 홀가
 많은 바위와 계곡, 깊은 산 낮이라고 어려하겠는가,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답다. 대비, 설의법

호주(湖洲) 수정궁(水晶宮)을 뒤라서 옮겨 온고
 중국 사화에 있는 섬 수정으로 만든 화려한 궁전, 맑은 호수

은하(銀河)를 썬여 건너 광한전(廣寒殿)의 올랐는 듯
 달 속에 있다는 궁전

썩 마즌 늘근 솔란 조대(釣臺)에 세여 두고
 낚시터

그 아래 비를 썬워 갈 대로 더져 두니
 물결따라 배를 띄워두다, 유유자적

홍료화(紅蓼花) 백빈주(白蘋洲) 어느 스이 디나관터
 붉은 아귀꽃 흰 마음꽃이 핀 작은섬 공간의 이동

환벽당(環壁堂) 용(龍)이 소히 비압픽 다향나니
 석양장 맞은편의 집 환벽당 아래에 있는 용소(연못)

청강(淸江) 녹초변(綠草邊)의 쇼 머기는 아히들이
 푸른물이 우거진 강변

석양(夕陽)이 어위 계워 단적(短笛)을 빗기 부니
 석양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길이가 짧은 피리, 운치를 북돋움, 정각적

물 아래 잠긴 용(龍)이 잠 썬야 니러날 듯
 용소(연못)의 물

넋 썬예 나온 학(鶴)이 제 기술 버리고 반공(半空)의 소소 썬 듯
 안개 기운 집을 공중, 허공

[소선(蘇仙) 적벽(赤壁)은 추칠월(秋七月)이 도타 호덕
 신나라 문인 소동파 <적벽부>, 소동파가 적벽강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지은 글

팔월(八月) 십오야(十五夜)를 모다 었디 과호는고] [1 이 곳(자연의) 8월 보름밤이 소동파가 아름답다고 한 7월보다 아름답다

섬운(織雲)이 사권(四捲)호고 물결이 채 잔 적의
 얽고 고운 구름 사방으로 걷히고 완전히 잔잔할 때에

[하늘의 도든 들이 술 우히 올라시니

고사연용, 이태백이 물 속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가 빠져서 죽음.
 잡다가 싸딘 줄이 적선(謫仙)이 헌스 홀샤] [1 8월보름달의 아름다움을 애찬, 영탄법
 하늘에서 귀양온 신선, 이태백

[본사3]

오동나무 사이로 가을달이 사경에 돌아 오니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가 낮인들 이렇게 아름다울까
 호주 수정궁을 누가 옮겨 온 것인가.
 은하수를 뛰어 건너 광한전에 올라 있는 듯
 한 쌍의 늙은 소나무를 낚시터에 세워 두고
 그 아래에 배를 띄워 가는 대로 내버려두고
 홍료화 백빈주를 어느 사이에 지났기에
 환벽당 용의 연못에 뱃머리가 닿았구나.
 맑은 강 풀이 우거진 물가에서 소 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의 흥을 못 이겨 피리를 비껴 부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 깨어 일어날 듯
 안개 가운데 나온 학이 제 집을 던져두고 허공에 솟아
 뜰 듯하다.
 소동파의 <적벽부>에는 음력 추칠월이 좋다 하였으되
 팔월 십오야를 모두 어찌 칭찬하는가.
 고운 구름이 흩어지고 물결이 잔잔한 때에
 하늘에 돋은 달이 소나무 위에 걸렸으니
 달을 잡으려다가 물에 빠졌다는 이태백의 일이 아단스
 럽구나

[본사4]

공산(空山)의 싸한 낚흙 삭풍(朔風)이 거두 부러

있어 다 떨어진 산. 계절적 배경, 겨울 북풍, 계절적 배경, 겨울

세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모라오니

계절적 배경, 겨울

[천공(天公)이 호식로와 옥(玉)으로 고출 지어

조물주

옥으로 꽃을 만들어, 옥눈

만수천림(萬樹千林)을 꾸며곰 낼세이고] [] 눈 내린 경치의 아름다움

수많은 나무와 수풀

얇 여흙 그리 어러 독목교(獨木橋) 빗것는듯

외나무다리

막대 멘 늘근 중이 어너 덜로 간닷 말고

산옹(山翁)의 이 부귀(富貴)를 넘드려 현스 마오

아름다운 자연과 벗하며 즐기는 마음의 부귀

경요굴(瓊瑤窟) 은세계(隱世界)를 츠츄이 이실라

아름다운 구슬로 된 동굴같은 숨은 세계, 성신을 미화한 표현 찾아볼 사람이 있을까 두렵다. 속세와 단절된 상태에서 자연을 즐기고 있음, 도교적 자연관

현대어 풀이

[본사4]

공산에 쌓인 얇은 삭풍이 거두듯 불어

떼구름을 거느리고 눈까지 몰아오니

조물주가 호사스러워서 옥으로 꽃을 만들어

온갖 나무들을 잘도 꾸며 내었구나.

얇 여흙물 가리어 열고, 외나무다리 비스듬히 놓여 있

는데

막대를 멘 늘근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인가.

산옹의 이 부귀를 남에게 자랑 마오.

경요굴 은밀한 세계를 찾을 이 있을까 두렵다.

[결사]

산중(山中)의 벗이 업서 한기(漢紀)를 빠하 두고
역사책

[만고(萬古) 인물(人物)을 거스리 헤여 하니
 책 속의 많은 역사적 인물

성현(聖賢)은 카니와 호걸(豪傑)도 하도 할사

하늘 삼기실 제 곳 무심(無心) 홀가마는
하늘(조물주)가 사람을 만들때

엇디홀 시운(時運)이 알락배락 흐얏는고
시대의 운수가 일어났다 떨어졌다가. 흥망성쇠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들음도 그지업다

나이가 많은 사람. 하유
 [기산(箕山)의 늘근 고불 귀는 엇디 싯뎡고
옛날 요 임금 때 하유와 소부가 숨어 살았던 산

일표(一瓢)를 썰턴 후의 조장이 더욱 놉다
표주박 소리가 난다만 단재배림 지조행장(志操行狀). 지조를 지키는 몸가짐

[] 고사인용. 요임금이 왕위를 물려주려 하자.
기산으로 들어가 속채와 단절하고 싯애감.
기산으로 들어가서 강물에 귀를 씻음
사람들이 강물을 피하기 위해 달아놓은
표주박을 단재배림

인심(人心)이 놉 긱타야 보도록 새롭거늘
얼굴 자주 변함. 엄경세대(세력이 있을때는 아첨하고 없으면 꾸대잡)

세사(世事)는 구름이라 머흐도 머흘시고
세상일, 근심&시름의 원인

엇그제 비즌 술이 어도록 니건느니
시름을 잊기 위한 때개물

잡거니 밀거니 슬꺱장 거후로니

마음의 미친 시름 저그나 흐리는다
조금이나마 낫구나

시름을 잊기 위한 때개물 늑술
거문고 시윽 언저 풍입송(風入松) 이야고야
현, 줄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임금의 덕을 찬양하는 노래

손인동 주인(主人)인동 다 니저 브려세라
손님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다. 주인의 삶에 공감, 영탄법

장공(長空)의 썰는 학(鶴)이 이 골의 진선(眞仙)이라
빈 공중에 뜬 학 진정한 신선, 학

[요대(瑤臺) 월하(月下)의 힝혀 아니 만나산가
선선이 사는 달 아래

손이셔 주인(主人)드려 닐오디 그디 권가 흐노라
손님, 정찰 김성원 그대(김성원)가 그것(학, 진선인)가

[] 서사 '적막 산중의 들고 아니 나지느고'라는 물음이 해결됨.
 → 성산(자연)이 너무 아름다워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

[결사]

산중에 벗이 없어 책을 쌓아 두고
 만고의 인물을 거슬러 헤아려 보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많고 많다.
 하늘이 사람을 만들 때 어찌 무심하라마는
 어찌된 시운이 흥했다 망했다 하는가.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끝이 없다.
 기산의 늘은 고불, 귀는 어찌 싯었는가.
 박 소리 핑계하고 표주박 하나를 던져 버린 하유의 지
 조가 가장 높다.
 인심이 얼골 같아서 볼수록 새롭거늘
 세상 일은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엇그제 빛은 술이 얼마나 익었느냐?
 술잔을 잡거니 밀거니 싯켓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이나마 덜어지는구나.
 거문고 줄을 얹어 풍입송을 타자구나.
 손님(客)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구나.
 높고 먼 공중에 떠 있는 학이 이 골의 진선이라
 선선이 사는 달에서 힝혀 (나를) 만나지 아니하였는가?
 손님이 주인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곧 진선인가 하노
 라.

작품 분석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그르다. 잘못되다

내 몸의 해울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해 울. 임금에 대한 충성. 우국충정(憂國衷情)

그 बाट 여남은 일이야 분별(分別)할 줄 이시랴.
해울 일 생각, 근심 설이법

분수에 넘치거나 이겼다

내 일 망녕된 줄 내라 하여 모를 쓴가.
관신 이어짐의 형포를 고백하는 상소를 올린 일 설이법

이 마음 어리기도 넉 위한 탓이로세.
아리석다 임금 [] 결백 호소

[아] 아무리 일러도 임이 혜여 보소서.]
아무개가, 간신배 → 화자

경멸에 있는 누가 울면서 흐르는, 자신의 마음을 물려주는 임금에 대한 안타까움

추성(秋城) 진호루(鎭胡樓) बाट 올어 예든 저 시내야.
함경북도 경원, 유매지 감정이법

무음 호리라 주야(晝夜)에 흐르는다.
밤낮으로 흐르는구나. 임금께 계속 충성을 다하겠다는 다짐

님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화자와 아버이 사이 장애물

[되] 흔 길고 길고 풀은 멀고 멀고.] [] 강산(자연물의) 유정함을 통해 유매지에 있는 화자와 부모님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의 깊이를 표현함. 대구법

아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그리워 하는 마음

어디서 외기러기는 올고 올고 가느니.
감정이법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가까이에서 모시지 못하는 안타까움, 외로움

아버이 그릴 줄을 처업부터 알아마는
처음부터, 직언하다가 귀양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을 때

넉군 향한 뜻도 하날이 삼겨시니
연군의 정의 당위성, 절대성

진실로 넉군을 잊으면 그 불효(不孝)인가 여기노라.
충·효. 군시부양제(君師父一體)라는 당시 보편적 인식

현대어 풀이

<제1수>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하나 그르다 하나
 내 몸의 할 일만 닦고 닦을 뿐이로다.
 그 밖의 다른 일이야 생각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있으
 라.

<제2수>
 내 일이 잘못된 줄을 내라고 하여 모르겠는가
 이 마음 어리석은 것도 (모두) 임을 위하기 때문일세.
 누가 아무리 험뜯어도 임께서 헤아려 살피십시오.

<제3수>
 추성의 진호루 밖에서 울며 흐르는 저 시냇물아
 무엇을 하려고 밤낮으로 흐르느냐
 임 향한 내 뜻을 따라 (너도)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제4수>
 산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이 그리워하는 정은 많고 많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올고 올고 가느라

<제5수>
 아버이 그리워할 줄은 처음부터 알아마는
 임금을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셨으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것을 불효라 여기노라.

■ 주재: 유매지에서 느끼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

<제1수>

<제2수>

<제3수>

<제4수>

<제5수>

작품 분석

[내가 좋다 하고 남 싫은 일 하지 말며,] [1 이기심 경계

[남이 한다 하고 의 아니면 좇지 마라.] [1 부화뇌동(뜻대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경계
옳은 일

우리는 천성을 지키어 삼긴 대로 하리라.
타고난 착한 성품, 성선설에 바탕을 둔.

현대어 풀이

내가 하기 좋아하여 남한테 싫은 일을 하지 말며 남이 한다고 하여도 옳은 것이 아니면 따라하지 말라 우리는 타고난 성품을 지켜 저마다 타고난 성품 그대로 살아가리라.

▪ 주제: 의(義)에 따라 천성대로 살려는 의지

작품 분석

인간이별(人間離別) 만사 중(萬事中)의 독수공방(獨守空房) 더욱 쉽다
세상의 모든 일 회자의 처지 서럽다

상사불견(相思不見) 이내 진정(眞情) 그 뉘 알리
서로 그리워하지만 보지 못함 진실하여 애절한 마음 설이법

맺힌 설음 이렇저렇 헛튼 근심 다 후리쳐 던져두고

자나 깨나 깨나 자나 임 못 보니 가슴 답답

[] 임에 대한 그리움, 시각적, 청각적

[어린 양자(樣子) 고운 소리 눈에 암암 귀에 쟁쟁]
얼굴 모양 음성 상징어

듣고 지고 임의 소리 보고 지고 임의 얼굴
임을 만나고 싶은 마음, 대구법, 예스러운 표현(지고)

비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게 해 주소서
기원의 대상 기원의 내용, 기원적 어조

전생차생(前生此生) 무슨 죄로 우리 둘이 생겨나서
전생과 이생

그런 상사(相思) 한데 만나 잊지 말자 백년 기약(百年期約)
평생을 함께 하자는 약속

죽지 말고 한데 있어 이별 말자 처음 맹세(盟誓)
[]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보물, 세상사에 관심이 없음, 설이법

[천금 주옥(千金珠玉) 귀 밖이고 세상 일불 관계하랴]
천금의 금, 구슬, 옥 → 온갖 보물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근원(根源) 흘러 물이 되어 깊고 깊고 다시 깊고
임에 대한 사랑

임에 대한 사랑이 깊은 물, 높은 산처럼
충만한 상태임
← 대구법, a-a-b-a구조, 은유법

사랑 모여 뾰가 되어 높고 높고 다시 높고
임에 대한 사랑

무너질 줄 모르거든 끊어질 줄 게 뉘 알리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설이법

[화옹(化翁)조차 시샘하고 귀신(鬼神)조차 희짓는다]
조물주 남의 일에 방해가 되게 하다, 장난하다

일종 낭군(一朝郎君)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頓絶)하니
하루아침에, 짧은 시간 끊어지다 [] 이별을 '조물주', '귀신'의
탓으로 돌림

오늘이나 기별 올까 내일이나 사람 올까

기다린 지 오래더니 무정세월(無情歲月) 절로 간다
시간의 흐름 헛되이 늙는다, 한탄, 영탄법

소년 청춘(少年青春) 다 보내고 옥빈홍안(玉鬢紅顏) 공노(空老)로다
과거 젊은 시절 → 현재 늙음, 이별

오동 추야(梧桐秋夜) 밝은 달에 밝은 어이 수이 가며
오동잎이 떨어지는 가을밤, 쓸쓸함, 계절적 배경(가을)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부재하는 임을 느끼는 상황

녹음방초(綠陰芳草) 저문 날에 해는 어이 더디 가노
우거진 나무그늘과 향기나는 풀, 계절적 배경(아름), 시각적, 청각적

이내 상사 알으시면 임도 응당 느끼리라
마땅히, 당연히

현대어 풀이

인간의 많은 이별 중에서 홀로 빈 방을 지키는 일이 더욱 서럽다.
서로 그리워하지만 보지 못하는 나의 진심을 그 누가 알 것인가.
맺힌 서러움과 이렇저런 헛튼 근심을 다 제쳐두고 자나 깨나 깨나 자나 임을 못 보니 가슴이 답답.
어른거리는 임의 얼굴 고운 소리 눈에 어른거리고 귀에 쟁쟁하게 들리니,
듣고 싶구나 임의 소리 보고 싶구나 임의 모습.
비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게끔 해주소서. (임을 볼 수 있기를 청합니다)
전생과 차생에 무슨 죄로 우리 둘이 태어나서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함께 만나 서로 잊지 말자 백년의 약속(결혼)
죽지 말고 함께 있어 이별하지 말자던 처음의 맹세 많은 금과 구슬과 옥은 귀 밖이요(관심이 없고) 세상사의 일에 관심을 두라.
근원 흘러 물 되어 깊고 다시 깊고
사랑이 모여 산이 되어 높고 다시 높아
무너질 줄 모르거든 끊어질 줄 누가 알겠는가.
조물주조차 샘을 내고 귀신이 따라 방해한다.
하루아침에 낭군님과 이별한 후에 소식조차 뚝 끊어지니
오늘이나 소식 올까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기다린 지 오래더니 무정한 세월이 저절로 흘러간다.
어린 청춘 다 보내고 옥 같은 귀밑머리와 붉은 얼굴이 헛되게 늙었다.
오동추야(가을밤) 밝은 달에 밝은 어찌 흘러가며 녹음방초(여름의 자연 경관) 저문 날에 해는 어찌 더디 가는가.
나의 사랑하는 마음 아신다면 임도 당연히 느끼리라.

■ 주제: 독수공방의 외로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

현대어 풀이

독수공방 홀로 앉아 반야 잔등(半夜殘燈) 벗을 삼아

회자의 상황 깊은 밤의 까칠 듯한 불, 시간의 흐름

일촌간장(一寸肝腸) 썩은 물이 솟아나니 눈물이라

한 도벽의 간과 창자, 애달픈 마음 이별의 슬픔

가슴속에 물이 나서 피어나니 한숨이라

눈물이 바다 되면 배를 타고 아니 가라

과장법 설의법

한숨 끝에 불이 나면 임의 옷에 당기리라

뜨거운 사랑

교태(嬌態) 겨워 옷던 옷을 생각하니 목이 멘다

과거, 임과 함께 하던 행복한 시간 임과의 공간적 거리감, 과장법

지척(咫尺) 동방(洞房) 천리(千里) 되어 바라보니 암암(暗暗)하도다

산망, 신부가 짐을 지는 병

만첩 천희(萬妾千姬) 그러 낸들 한 붓으로 다 그리라

수많은 여자, 임을 기다리는 회자의 여러 모습 그리움, 설의법

날개 돋친 학이 되면 날아가다 아니 가라

임에게 가고 싶은 회자의 마음에 투영, 회자의 분신 설의법

산은 첩첩 고개 지고 물은 중중(重重) 흘러 근원 되니

임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 '산', '물'은 장애물

천지 인간(天地人間) 이별 중에 나 같은 이 또 있는가

꽃은 피어 절로 지고 해도 다 저물것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느끼는 인생무상

초로(草露) 같은 이내 인생(人生) 무슨 죄로 못 죽는가

풀잎에 맺힌 이슬같은 인생, 허무하고 덧없음, 직유법

바람 불어 굳은비 와 구름 끼어 저문 날에

회자의 암울한 상황, 회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소재

[오락가락 빈방으로 혼자 서서 바장이며

[] 행동묘사 부질없이 짧은 거리를 오락가락 가님다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이내 상사 허사(虛事)로다

공방 미인(空房美人) 독상사(獨相思)는 예로부터 있건마는

독수공방하며 임 생각에 몸부림치는 일

나 혼자 그리는가 임도 나를 그리는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노류장화(路柳牆花) 꺾어 들고 봄빛을 다니는가

길가의 매들가지와 담장 위의 꽃송이, 화류계의 아인, 질투의 대상

날 사랑하던 끝에 날 사랑하시는가

질투의 대상

산계야목(山鷄野鶩) 길을 들어 놓을 줄을 모르는가

산꿩과 들오리, 성질이 사납고 거칠어서 길들이기 어려운 사람 → 임

노류장화 꺾어 들고 봄빛을 다니는가

가는 길이 자취 나면 오는 길이 무디리라

임에게 가는 길 나에게 오는 길 기다리라

한번 죽어 돌아가면 다시 오기 쉬울런가

쉽지 않다, 설의법

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답답함, 애달픔
← 과장법, 불가능한 상황 설정 대구법

임의 변심에 대한 의구심

독수공방 홀로 앉아 깊은 밤 희미한 등불 벗을 삼아
일촌간장에서 썩은 물이 솟아나니 눈물이라
가슴 속에 물이 나서 피어나니 한숨이라
눈물이 바다를 이루면 배를 타고 아니 가겠는가.
한숨 끝에 불이 나면 임의 옷에 붙으리라.
교태를 이기지 못해 옷던 옷을 생각하니 목이 멘다.
가까웠던 동방이 천리가 되어 바라보니 아득하다.
만 명의 천과 천 명의 여인을 그려 낸들 한 붓으로 다
그릴 수 있겠는가.
날개 돋친 학이 되면 날아가다 아니 가겠는가.
산은 첩첩하여 고개 되고 물은 흘러 근원이 되니
천지 인간의 이별 중에 나 같은 이 또 있겠는가.
꽃은 피어 절로 지고 해도 다 저물것다.
풀잎의 이슬 같은 이내 인생 무슨 죄로 못 죽는가.
바람 불어 굳은비와 구름 끼어 저문 날에
오락가락 빈방으로 혼자 서서 오락가락하며
임 계신 곳 바라보니 이내 사랑하는 마음이 허탈하도
다.
빈방의 미인의 홀로 사랑하는 마음은 옛날부터 있건마
는
나 혼자 그리워하는가, 임도 나를 그리워하는가.
길가의 버드나무와 담 밑의 꽃 꺾어 들고 봄빛을 즐기
는가.
날 사랑하던 끝에 나를 사랑하시는가.
산 꿩과 들오리 길을 들어 놓을 줄 모르는가.(들아올
줄 모르는가) 길가의 버드나무와 담 밑의 꽃 꺾어 들
고 봄빛을 노니는가.
가는 길이 자취 없어 오는 길이 무디리라.
한번 죽어 돌아가면 다시 오기 쉬겠는가.

작품 분석

▪ 주제: 친정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천 리라 먼 고향 산은 만 겹 봉우리 고향의 심려겨 거리	고향에 갈 수 없게 하는 장애물	千里家山萬疊峯
꿈에도 안 잊히는 가고픈 마음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歸心長在夢魂中
한송정 위아래엔 외로운 둥근 달 감정이입] 고향의 정경 - 묘사, 대구	寒松亭畔孤輪月
경포대 앞을 부는 한 떼의 바람		鏡浦臺前一陣風
모래톱 갈매기는 피락 흩으락] 고향의 정경 - 묘사, 대구	沙上白鷗恒聚散
물결 위 고깃배는 동으로 서로		海門漁艇任西東
언제나 다시 강릉 길 밟아		何時重踏臨瀛路
색동옷 입고 어머니 슬하에서 바느질 할꼬. 어린 시절의 형수, 늙은 부모에 대한 그리움, 노년자의 고사활용 (나이 일흔에 어린아이 옷을 입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린 효자)		更着斑衣藤下縫

작품 분석

봄은 오고 또 오고 풀은 푸르고 또 푸르네

나도 이 봄 오고 이 풀 푸르기 같이

어느날 고향에 돌아가 노모께 뵈오려노

봄의 생동감, 묘사, 반복, 시각적
→ 화자의 처지(유배)

<제1수>

친년(親年)은 칠십오(七十五)요 영로(零露)는 수천 리오

부모님의 연세를 높여 이르는 말

고향

삼리씩 거리

돌아갈 기약은 갈수록 아득하다.

아마도 잠 없는 중야(中夜)의 눈물겨워 설웨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제2수>

길이 멀다하니 나면 아니 가라터나

말이 화려하다 타면 아니 네라터나.

허약하다

가고 난 후면 노모 귀령(歸寧) 할 일인데 천진우위(遷濔于衛)인마는 불하

맨다

위나라(고향)에 빨리 도착하다

유해(不暇有害)라 이를 저어 하노라.

어떤 해가 있을까 하다 → 유배지에서 이별하면 가족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제3수>

빛과 그림자, 세월

적리광음(謫裏光陰)은 사 년이 벌써 되고

유배지

유배 기간

천외가향(天外家鄉)은 만 리에 아득하니 몸이 못 가거든 기별(奇別)이나

천리 밖의 고향

삼리씩 거리

소식

들었으면

아무리 척홀첨망(陟屹瞻望)을 말라한들 얻을손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보다

얻을 수 있겠는가. 설의법

<제4수>

임행밀밀봉(臨行密密縫) 의공지귀귀(意恐遲遲歸) 난장춘초심(難將寸草心)

멀리 있는(유배) 자식을 걱정&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

보득삼춘晖(報得三春暉)

인정(人情)이 간절하니 귀신들 아니 올가.

지금의 이 시 이 뜻은 읊을수록 슬퍼이라.

<제5수>

현대어 풀이

<제1수>

봄은 오고 또 오고 풀은 푸르고 또 푸르네
나도 이 봄이 오고 이 풀이 푸른것과 같이
어느날 고향에 돌아가 노모를 뵈 수 있을까

<제2수>

어머님의 연세는 칠십 오세요, 영남길(고갯길, 고향으로 가는 길)은 수천 리니
돌아갈 기약은 갈수록 아득하다
아마도 잠 없는 한 밤에 눈물겨워 서럽구나.

<제3수>

길이 멀다해도 나하면 아니 갈 터인가
말이 화려하다 해도 타면 아니 갈 터인가
가고 난 후면 늙으신 어머니를 뵈 것인데, 빨리 위나라에 이를(도착) 수 있지마는 어떤 해가 있을까 하여 이를 두려워 하노라.

<제4수>

귀양 세월 사 년이 벌써 되고
천 리 밖에 있는 고향은 만 리로 아득하니 몸이 못 가거든 소식이나 듣고자
아무리 높은 곳이 올라 바라보아도 해도 소식을 알 수 있겠는가

<제5수>

나그넷길에 옷이 해지지 않도록 꼼꼼히 꿰매시는 것은 행여나 돌아올이 늦어질까 걱정한 탓이라네. 지극히 작은 자식의 마음으로 봄별 같은 부모의 은혜를 갚기 어렵구나.
인정이 간절하니 귀신인들 울지 않을까 지금 이 시 이 뜻은 읊을수록 슬프구나.

■ 주제: 고향의 늙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기러기 아니 나니 편지를 누 전하리

소식을 전달해주는 매개체 설악법

시름이 가득하니 꿈인들 이룰손가

설악법

날마다 노친(老親) 얼굴이 눈에 삼삼하여라.

<제6수>

동산(東山)을 올라보니 고국(故國)도 멀서이고

유배지, 고향이 보고 싶어서 올라간 곳 고향

태행(太行)이 어드메요 구름이 머물래

경상북도 청송의 태행산, 고향 정애를 **깊은 연못을 건너는 것과 같은 마음**

갈수록 애일촌심(愛日寸心)이 여림심연(如臨深淵)하여라

부모를 모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제7수>

[] 유배지

[천애(天涯) 절역(絶域)]의 새해를 네 번 보니

하늘의 끝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촌초심정(寸草心情)은 이르지도 말려니와

작은 풀잎에까지 깊이 든 정

아마도 학발의려(鶴髮倚閭)를 어이하어 위로할고

자식을 기다리는 늙은 부모님

<제8수>

[] 노수신의 <소재집>의 구절을 인용

충신이 되지 못하다

[유난사죄(有難赦罪) 난의질(難醫疾) 위불충신(爲不忠臣) 불효남(不孝男)]

죄를 용서하기 어렵다 악원이 병을 고치기 어렵다

소재(蘇齋)의 이 구(句)를 이제록 불작시면

조선 선조때 노수신의 책

남이 아니라 나를 이른 말이로세

<제9수>

내 죄를 아옵거니 유찬(流竄)이 박벌(薄罰)이라

유배를 보낸 것이 가벼운 벌이다.

도처(到處)에 성은(聖恩)을 어이 하여 값사울고

가는 곳마다 이들이 유배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역을&분노 하지 마세요

노친(老親)도 풀어 헤시고 하 그러 마오소서

임금의 은혜로 다행히 살아남아 유배를 왔다 → 널리 이해하시고

<제10수>

하늘이 높으시나 낮은 데를 들으시네

임금 백성들의 삶

일월(日月)이 가까우사 하토(下土)에 비추시네

임금 백성의 삶

아무튼 우리 모자지정(母子之情)을 살피실 제 없으오라

어머니와 아들의 정

<제11수>

현대어 풀이

<제6수>

기러기가 날지 않으니 편지를 누가 전하겠는가
걱정이 가득한데 꿈엔들 이룰수 있겠는가
매일 늙으신 어머니의 얼굴에 눈에 어른거린다.

<제7수>

동산에 올라보니 고국이 멀기도 하구나.
태행산은 어디인가 구름이 험하구나
갈수록 부모님을 모실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안타까워서
마치 깊은 연못을 건너는 것과 같이 조심스러운 마음
이구나.(부모님을 걱정함)

<제8수>

하늘가 외로운 곳(유배지)에 새해를 네 번 보니,
작은 풀잎에까지 든 깊은 정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
니
아마도 문설주에 기대어 자식을 기다리는 늙으신 부모
님을 어찌 위로할 수 있을까

<제9수>

죄를 사하기 어려우니 의원이 병을 고치기 어렵고, 충
신이 되지 못하니 효자가 되지도 못해
노수신(조선 명조때 신하, 유배생활을 많이 함)이 이
구절을 이제 본다면
남이 아니라 나를 두고 한 말이구나.

<제10수>

내 죄를 알거니 귀양이 가볍구나
가는 곳마다 성은을 어떻게 값을까
늙으신 어머니도 생각해 보시고 너무 그리(화자가 유
배간 것에 대한 어머니의 역을하고 분한 마음) 마소서.

<제11수>

하늘(임금)이 높으시나 낮은 데(백성들의 말과 삶, 화
자 포함)를 들으시네(듣고 있음)
해와 달이 가까우나 인간 세상을 비추시네(살펴보고
있음)
아무렴 우리 모자의 지극한 정을 살피실 때 없겠는가

현대어 풀이

가치울거나 거미 나리거나 등화(燈花) 열리거나

아마도 반가운 기별을 어느 때 들어려노
유배에서 풀려나 부모를 볼 수 있다는 소식

<제12수>

<제12수>

까치 울거나 거미 내려오거나 등화(등잔불(촛불)의 심지 끝이 타서 맺힌 불똥을 비유적으로 표현)가 열리거나

아마도 반가운 소식(유배에서 풀려 부모를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을 어느 때에 듣겠는가

작품 분석

▪ 주제: 풍년을 맞이한 풍요로운 추석 정경과 가난한 농민이 겪는 비참한 상황

서울이야 부귀한 사람들 모인 곳이라	京師富貴地
<u>철따라 명절을 챙기지만</u> 추석 말고도 즐길 수 있는 명절이 있음	四時多佳節
<u>시골은 빈천한 사람들</u> → 서울 가만하고 신분이 낮은	鄉里貧賤人
<u>추석 같은 명절 또 있으랴!</u> 추석 이외 다른 명절은 즐길 여력이 없음. 설악법, 영탄법	莫如仲秋日
[가을날 햇빛이 맑게 비치고 [] 농민이 느끼는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 ← 낮과 밤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	秋日有淸暉
가을밤 달이 밝게 떠서	秋宵有明月
풍경이 참으로 아름답지만	風景固自佳
<u>우리들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지.]</u> 화자 : 농민	非爲我輩設
보이나니 사방으로 트인 들판에	但見四野中
좋은 곡식 이삭을 드리우니	嘉穀正垂實
<u>올벼는 벌써 타작마당 올랐고</u> 재철보다 일찍 머무는 벼	早禾已登場
콩과 팥도 따로 거두고	豆菽亦採擷
마당가에 해바라기씨 털어 내고	中庭剝旅葵
뒤뜰에선 알밤을 간다네.	後園摘苞栗
둥그런 질화로에	團團土火爐
<u>고주배기</u> 별경계 타올라 빨간으로 사용한 나무 그루터기	吹扇紅櫛柚
밥 짓고 국 끓여서	煮飯作羹湯
온 가족 실컷 먹고 마시네	大家劇啗啜
한번 배가 부르매 기분이 늘어져서	一飽便意氣
떠들썩 이런저런 이야기꽃 피네.	散漫雜言說
지난해 큰 흉년 만났을 쯤	去年大凶年

아주 죽어 못 살 듯싶더니만	幾乎死不活
금년엔 대풍이 들었어	今年大豐年
하늘이 사람을 영영 죽이실 리 있겠나. <small>큰 흉년이 왔든 뒤 흉년이 와서 다행스러워 하는 마음, 흉년이 들면 하늘에 감사해 하는 농민의 순박한 마음</small>	天意固不殺
(중략)	
↑ ↓	회자 : 농민 회자 : 작품 뿜, 마음 전체를 조망
[앞마을엔 막걸리 거르고 <small>[] 흉년이 든 해의 추석을 즐기는 농민, 부락하고 흥성거리는 모습</small>	南里釀白酒
뒷마을엔 누렁소 잡는데]	北里宰黃犢
[홀로 서촌의 어느 집에 <small>[] 슬픔에 잠겨 있는 서촌의 어느 집 → 옆마을, 뒷마을, 같은 시간 다른 공간의 두 장면을 병치</small>	獨有西隣家
썰디썰게 밤새도록 곡을 하고고.]	哀哀終夜哭
곡하는 이 누군가 물어보니	借問哭者誰
유복자 안은 홀어미라네. <small>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읜 자식</small>	寡婦抱遺腹
↑ ↓	회자 : 작품 뿜, 마음 전체를 조망 회자 : 유복자 안은 홀어미
서방님이 살아 계실 적엔 <small>남편</small>	夫君在世日
두 식구가 이 한 집 지켜	兩口守一屋
문전의 멍석만 한 땅에서 <small>소유한 농토가 적은 가난한 농가</small>	門前一席地
매해 벌어서 근근이 풀칠은 하였는데	歲收僅糜粥
지난해 가을 서리 일찍 내려	去年秋早霜
비로 쓴 듯 콩 반쪽도 구경 못 했다오. <small>지난해, 큰 흉년으로 인한 피해 <small>쇠무의 속껍질</small></small>	掃地無半菽
겨와 밀기울에 송기를 섞어 먹어도 <small>빔을 뿜어 채로 치지 남은 찌꺼기</small>	糠麩雜松皮
겨울나기 부족하였지요. <small>큰 흉년으로 굶주리는 가족</small>	過冬猶不足
봄이 오자 부잣집에 가서	春來向富人
나락을 구걸하여 한 줌 얻어다가 <small>종자로 쓸 곡식을 얻어 옴</small>	乞禾得滿匊
[한 톨도 먹기 아까워 <small>[] 농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small>	一粒惜不嚙
고스란히 간직했다 종자로 쓰고 나니]	持爲種田穀

고전시 _ EBS 수능특강&수능완성

[근력은 날로 쇠약해지고 중자로 풀 곡식을 지키기 위해 굶주림을 견디고 농사를 짓다 쇠약해져 가는 남편의 모습 위와 창자 날로 오그라들고]	氣力日以微 腸胃日以縮
끓거나 먹거나 함께하였는데	同是一般飢
이 몸은 나무등치처럼 모진지.....	妾何頑如木
홀연히 서방님만 저세상으로 보내어 흉년 기근 때문에 남편이 죽음	却送夫君去
앞산 기슭에 내 손으로 묻었다오. 가난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함. 비극적 상황	去埋前山麓
[앞산에 묻힌 사람 썩어 갈 때에 죽은 남편 [] 논의 곡식은 남편이 목숨을 희생해서 심고 기른 것 → 비극성 강조. [조 눈에 심은 곡식은 익어 잤다오.]	埋人人骨朽 種穀穀頭熟
벼 이삭 익은들 무엇하리오? 남편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 억울함	穀頭熟何爲
차마 보지 못해 문 닫고 들어앉아	閉門不忍目
차라리 따라 죽자 해도	即欲決相隨
젓먹이 어린것 두고 어이하리 생을 포기하려는 마음을 어린 자식 때문에 억제하는 외자	奈此兒匍匐
이 아이 비록 아버를 모르지만	兒雖不識父
단 하나 서방님의 혈육이니	猶是君骨肉
아이를 품에 안고 영위 앞에 고하다가 죽은 이의 이름을 적은 종잇조각. 상가에서 제사를 지낼 때 씬	抱兒向靈語
말을 잇지 못하고 혼절하였는데	氣絕久不續
문득 문을 두들기는 소리	忽驚吏打門
아전이 세곡 바치라 외쳐 댈다. 백성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는 가혹한 정치. 가렴주구(苛斂誅求)	叫呼覓稅粟

작품 분석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유교적 깨달음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를쏘나

충 효 짐승 설익법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

충효를 다하고자 하여 마음이 급함

<제1수>

[] 학문에 정진해다보니 비를 하지 못함. 안타까움

[계교(計較)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남과 서로 견주어 살펴 봄 공을 세워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냄

부급동남(負笈東南)해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책 성자를 지고 스승을 찾아 이리저리 다님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세월이 빠르니 공명을 이루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안타까움

<제2수>

자연, 화자의 지향 공간. 대유법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비록 이루지 못해도 2수의 '못 이룰까 하여라'와 연관

무심어조(無心魚鳥)는 절로 한가하나니

욕심없는 물고기&새, 객관적 상관됨(유사성)

조만간 세사(世事)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세속의 일 물고기, 새. 익인법

<제3수>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자연, 즉 임천. 대유법

[] 내적 갈등. 자연 ↔ 비슬(임산양명)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비슬을 하려고 하니. 임산양명 자연즐김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갈림길. 자연 ↔ 비슬(속세)

<제4수>

어찌라 이러구러 이 몸이 어찌할꼬

이러저러 4수의 갈등과 연관

행도(行道)도 어렵고 은둔처도 정하지 않았네

도를 행하다. 임산양명 자연속에 숨어 사는 곳

[] 내적 갈등. 자연 ↔ 비슬(임산양명)

[언제나 이 뜻 결단하여 내 즐기는 바 좃을 것인가]

자연에 즐기자 하는 마음 자연 즐김

<제5수>

현대어 풀이

<제1수>

평생에 원하는 것은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

<제2수>

남과 (글재주만 서로) 견주어 보다 보니 공명이 늦었구나.
책을 지고 스승을 찾아 이리저리 다녀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노라.

<제3수>

비록 못 이뤄도 자연이 좋으니라.
공명에 욕심 없는 물고기와 새는 절로 한가하나니.
조만간 세속의 일을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제4수>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서 갈림길에 서서 갈 데를 몰라 하노라.

<제5수>

어찌라 이러구러 이 몸이 어찌할꼬?
도를 행하기도 어렵고 은둔처도 정하지 않았네.
언제나 이 뜻 결단하여 내 즐기는 바 좃을 것인가.

▪ 주해: 언변낙도의 즐거움과 입산양명에 대한 미련

하려 하려 하되 이 뜻을 못 하였네
 자연을 즐기는 것

이 뜻 하면 지락(至樂)이 있느니라
 지극한 즐거움

[우습다 옛그제 앓던 일을 뉘 옳다 하던고]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자연 생활을 하고자 하니
 자조적

<제6수>

그만두자 그만두자 하되 이 일 그만두기 어렵다
 벼슬길

이 일 그만두면 일신(一身)이 한가하다.

[어쩌랴 옛그제 하던 일이 다 그른 줄 알겠네.]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음
 벼슬길, 세속적 욕망

<제7수>

[출(出)하면 치군(致君)택민(澤民) 처(處)하면 조월(釣月)경운(耕雲)]
 벼슬길에 나가면 임금을 섬기며 백성을 윤택하게 함. 말을 닦고 구름을 걷다. 자연을 벗삼아 지내는 삶

[명철(明哲) 군자(君子)는 이럴수록 즐기느니라] 자연에 선택하게 된 것은 자신의 능력부족이나 자연에 대한 순수한 애착보다 위험한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한 것임. / 안락(안락)에 대한 의지
 현명하고 사리에 밝은 군자

하물며 부귀위기(富貴危機)라 빈천거(貧賤居) 하오리랴
 부를 추구하다가 위험이 닥칠 수 있다. 가난(한소박한) 삶을 누리다 ↔ 부귀

<제8수>

[청산이 벽계(壁溪) 임(臨)하고 계상(溪上)에 연촌(烟村)이라]
 푸른 산(자연) 시냇물 위에 연기 피는 마을, 풍요함

초당심사(草堂心事) 백구(白鷗)인들 제 알라

풀로 된 집에서 사는 마음, 소박함 환경에도 알지 못한다. 실의법

죽창정야(竹窓靜夜) 월명(月明)한데 일장금(一張琴)잇나니라
 남자방 창문의 고요한 밤에 달이 밝은데, 시간적 배경 거문고, 풍류

<제9수>

궁달(窮達) 부운(浮雲)같이 보아 세사(世事) 잊어 두고
 가난과 총재, 세속적 가치

호산(好山) 가수(佳水) 노는 뜻을

좋은 산과 아름다운 물(자연) [] 세상사를 잊고 자연친화적 삶, 만족

[원학(猿鶴)이 내 벗 아니어든 어느 분이 알으실고]
 원숭이, 학(자연)

<제10수>

바람은 절로 맑고 달은 절로 밝다

자연의 아름다움, 대구법 [] 자연의 깨끗함

[죽정송함(竹庭松檻)에 일점진(一點塵)도 없으니]
 대나무 정원과 쇠나무 난간(자연) 한 점의 티끌

일장금(一長琴) 만축서(萬軸書) 더욱 소쇄(灑灑)하여라
 거문고 하나, 풍류 만 권의 책 산뜻하고 깨끗함, 영탄법

<제11수>

현대어 풀이

<제6수>

하려 하려하되 이 뜻 못하였구나
 이 뜻을 하면 지극한 즐거움이 있나니라
 우습다, 옛그제 아니하던 일을 누가 옳다고 하던가

<제7수>

그만두자 그만두자 하지만 벼슬을 그만두기 어렵다
 이 일을 그만두면 내 몸이 한가롭다
 어쩌랴, 옛그제 하던 일(벼슬추구)이 다 잘못된 줄을 알겠구나.

<제8수>

벼슬길에 나아가면 임금을 섬기며 백성을 윤택하고
 (산림에) 은거하면 자연을 벗 삼아 지낸다.
 현명하고 사리에 밝은 군자는 이럴수록 (자연)을 벗 삼는 것을 즐기나니
 하물며 부귀는 위기가 있으니 가난한 삶을 누릴리라.

<제9수>

푸른산이 푸른 시냇물과 가깝고 시냇물 위에 연기가 피는 마을이구나
 풀로 된 집에서 사는 마음을 흰 갈매기인들 알겠는가
 죽창(남자의 방 창문) 고요한 밤에 달이 밝은데, 거문고가 있구나

<제10수>

빈궁과 영달을 뜬 구름 같이 보아서 세상일을 잊어 두고
 좋은 산 아름다운 물에서 즐기는 뜻을
 원숭이와 학(풍요와 부귀한 생활의 상징)이 내 벗이 아니거늘 어느 분이 아실까

<제11수>

바람은 절로 맑고, 달은 절로 밝다.
 대나무 정원과 소나무 난간에 한 점 티끌도 없으니
 거문고 하나, 만 권의 책이 더욱 산뜻하고 깨끗하구나.

현대어 풀이

제월(霽月)이 구름 뚫고 숲 끝에 날아올라

광풍제월(光風霽月, 비가 갠 뒤의 맑게 부는 바람과 밝은달의 줄임말)

십분청광(十分淸光)이 벽계(碧溪)중에 비졌거늘

한껏 밝은 달빛 푸른 시냇물

어디 있는 무리 잃은 갈매기는 나를 좇아오는가.

물아영채, 화자가 강등을 끝내고 자연과 하나가 된 모습

<제12수>

날이 저물거늘 도무지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다. 강호완정

소나무 문 걸어 닫고 달빛 아래에 누웠으니

세상에 티끌 같은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다

속세의 더러움

<제13수>

월색계성(月色溪聲) 어저겨 허정(虛亭)의 오나날

달빛과 시냇물 소리, 시각적, 청각적 빈 정자

[] 자연친화적 삶, 시각적, 청각적

[월색(月色)을 안속(眼屬)하고 계성(溪聲)을 이속(耳屬)해]

눈으로 보다 시냇물 소리 귀로 듣다

드르며 보며 하니 일체청명(一體淸明)하여라

모두가 맑고 깨끗하다. 영탄법

<제14수>

주색(酒色)을 좇자 하니 소인(騷人)의 일 아니고

술과 여자 선비

부귀(富貴) 구(求)차 하니 뜰디 아니가네

재속적 욕망 즉 주색 뜻(마음)이 가지 않네

두어라 어목(漁牧)이 되어야 적막빈(寂寞濱)에 놀자

어부와 목동, 욕심없이 사는 존재 적막한 물가

<제15수>

행장(行藏) 유도(有道)하니 바리면 구테 구하라

세상에 나아감과 물러남 속사에 대한 비련을 바리면 구테 구하겠다는, 실의법

산지남수지북(山之南水之北) 병들고 늙은 나를

시골생활, 재속적 삶

[] 배속에 나갈 생각도 없고

[뒤러서 회보미방(懷寶迷邦)하니 오라말라 하나뇨] 능력이 없어서 부르는 사람도 없다.

나라를 구할 보물

<제16수>

성현(聖賢)의 가신 길히 만고(萬古)에 한가지라

다르지 않다. 실의법

은(隱)커나 견(見)커나 도(道)가 어찌 다르리

자연에 숨기다, 배슬길에 보이거나(나가기나)

일도(一道)가 다르지 아니하니 아무텐들 어찌리

자연에 있거나 배슬길에 나가거나 도가 다르지 않으니 어디에 있던 상권였다. 자연을 선택, 실의법

<제17수>

<제12수>

비 갠 후 밝은 달이 구름을 뚫고 소나무 가지 끝에 날아오르니

한껏 밝은 달빛이 푸른 시냇물 중에 비치거늘 어디 있던 무리 잃은 갈매기가 나를 따라 노니는구나.

<제13수>

날이 저무니 도무지 할 일이 없어서 소나무 문을 걸어 닫고 달빛 아래 누웠으니 세상에 티끌 같은 마음 털끝만큼도 없다.

<제14수>

달빛과 시냇물 소리가 뒤섞여 빈 정자에 오거늘 달빛을 눈으로 보고, 시냇물 소리를 귀로 들어 들으며 보며 하니, 모두가 맑고 깨끗하구나.

<제15수>

술과 여자를 좇자하니, 선비의 일이 아니고 부귀를 좇고자 하니 마음이 가지 않네 두어라, 어부와 목동이 되어 고요한 물가에서 놀자

<제16수>

세상에 나아가고 물러남에도 도가 있으니 버리면 구태여 구하라 서울 생활에 병 들고 늙은 나를 누가 나라를 구할 보물을 가졌다고 오라말라 하겠는가 (나를 부르는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음)

<제17수>

성현이 가진 길이 아주 옛날부터 하나이다. 자연에 숨어지내거나, 배슬길에 나가거나 도가 어찌 다르겠는가 한 가지 도가 다르지 않으니 아무곳인들 어찌하겠는가

어기(漁磯)에 비 개거늘 녹태(綠苔)로 독글 삼아
낚시터 푸른 이끼 돛을 삼아

고기를 헤이고 낚글 뜻을 어이하리

고기를 잡을 마음이 없음, 자연친화적 태도, 실의범

푸른물

섬월(纖月)이 은구(銀鉤)가 되어 벽계심(壁溪心)에 잠겼다
초승달 은 낚시바늘, 초승달과 모양을 통해 연상

<제18수>

강간(江干)에 누어서 강수(江水) 보는 뜻은
강가

서자여사(逝者如斯)하니 백세(百歲)인들 길겠는가
강물이 쉰지 않고 흘러감.

[십년전(十年前) 진세일념(塵世一念)이 얼음 녹듯한다]
속세에 대한 집착(욕망)이 해소됨

[] 정치를 통한 도의 실현이 불가능함을 깨달은 화자가 강호(자연에서의) 삶을 통해 이념을 떨치고자 함.

<제19수>

현대어 풀이

<제18수>

낚시터에 비가 개거늘 푸른 이끼로 돛을 삼아
고기를 헤아리며 낚는 뜻을 어이하리
초승달이 은 낚시바늘이 되어 푸른물에 잠긴다.

<제19수>

강가에 누워서 강물을 바라보는 뜻은
가는 것이 이 물과 같으니 백 년 동안 그 얼마이겠는
가?(백 년인들 길겠는가?)
십 년 전 속세에 집착했던 마음이 얼음 녹듯 하는구
나.

작품 분석

① 1수 : 주자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결의

- ① 고산구곡담(高山九曲潭)을 사람이 몰으든지
중의법. ①고산 아홉 굽이의 아름다운 경관(경치). ②학문의 즐거움
- ② 주모복거(誅茅卜居)하니 벗님네 다 오신다
흙을 베어내고 집을 지어 살 곳을 정하다
- ③ 어즈버 무이(武夷)를 상상하고 학주자(學朱子)를 하리라.
궁궐 지형, 무이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학문에 정진하던 주자의 삶을 개승하겠다는 의지

[현대어 풀이]

- ① 고산 아홉 굽이의 경관을 사람들이 모르더니
- ② 띠풀을 베고 집터를 마련하여 살아가니 벗님들이 모두 오신다.
- ③ 아! 무이산(주희의 <무이구곡담>의 배경이 되는 산)을 상상하면서 주자의 학문을 배우리라.

② 2수 : 관암의 아침 경치

시간적 배경, 아침

- ① [일곡(一曲)은 어드매고 관암(冠岩)에 해 빛 친다] [] 때 꼭마다 '국은 어드매고 ~다' 반복
공간적 배경, 깃배위(봉우리 이름) → 통사구조 반복, 형식적 통일성
- ② [평무(平蕪)에 내 거든이] 원산(遠山)이 글림이로다
잡초가 무성한 들만 [] 시간의 흐름 → 시각적
- ③ 송간(松間)에 녹준(綠樽)을 녹고 벗 온 양 보노라.
좋은 술동아, 풍류

[현대어 풀이]

- ① 일곡은 어디인가? 바위 머리 위에 해가 비치는구나
- ② 잡초가 우거진 들만에 안개가 걷히니 원근의 풍경이 그림이로다.
- ③ 소나무 숲 사이로 술통을 놓고 벗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바라 보노라.

③ 3수 : 화암의 늦은 봄 경치

시간적/계절적 배경, 봄

- ① 이곡(二曲)은 어드매고 화암(花岩)에 춘만(春晩) 커다
공간적 배경, 꽃배위
- ② 벽파(碧波)에 꽃을 띄워 야외(野外)에 보내노라
탈속(학문의 세계)과 속세를 이어주는 매개체 속세, 학문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
- ③ 사람이 승지(勝地)를 몰온이 알게 한들 엇더리.
경치 좋기로 소문난 곳, 즐거운 학문의 세계

[현대어 풀이]

- ① 이곡은 어디인가? 화암(꽃바위)에 봄이 저물었도다.
- ② 푸른 물결 위에 꽃을 띄워 들판으로 보내노라.
- ③ 사람들이 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모르니 알게 하면 어떻게겠는가?

고전시 _ EBS 수능특강&수능완성

④ 4수 : 취병의 여름 경치

시간적/계절적 배경, 여름

- ① 삼곡(三曲)은 어드매고 취병(翠屏)에 넙 괴졌다
공간적 배경, 푸른 이끼가 낀 절벽, 푸른 병풍
- ② 녹수(綠水)에 산조(山鳥)는 하상기음(下上其音)하는 적의
오르내리락하면서 지저귀, 청각적
- ③ 반송(盤松)이 수청풍(受淸風)한이 너를 경(景)이 업세라.
여름의 무더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시원함, 영탄법

[현대어 풀이]

- ① 삼곡은 어디인가? 푸른 병풍인 듯 펼쳐져 있는 절벽에 나뭇잎들이 우거져 있다.
- ② 푸른 물 위로 산새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며 노래를 부를 때에,
- ③ 키가 작고 가로로 퍼진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으니 여름 풍경이 따로 없구나.

⑤ 5수 : 송애의 황혼녘 경치

시간적 배경, 저녁

- ① 사곡(四曲)은 어드매고 송애(松崖)에 해 넙거다
공간적 배경, 쇠나무가 있는 절벽
- ② 담심암영(潭心岩影)은 온갖 빗치 잠겼세라
물 위에 비친 송애의 그림자
- ③ 임천(林泉)이 깊도록 조호니 흥(興)을 계워 하노라.

[현대어 풀이]

- ① 네 번째 계곡은 어디인가? 소나무가 선 절벽 너머로 해가 지는구나.
- ② 물 위에 비친 바위 그림자는 온갖 빛으로 잠기었도다.
- ③ 숲속의 샘이 깊을수록 좋으니 흥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⑥ 6수 : 수변 정사에서의 강학과 영월음풍의 즐거움

- ① 오곡(五曲)은 어드매고 은병(隱屏)이 보기 조희
공간적 배경,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절벽
- ② 수변정사(水邊精舍)는 소쇄(瀟灑)할도 가이 업다.
맑고 깨끗하다
- ③ 이 중(中)에 강학(講學)도 호연이와 영월음풍(詠月吟風) 하올이라.
자연 즐김 학문을 가르치고 연구함 풍류적 태도

[현대어 풀이]

- ① 오곡은 어디인가?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절벽이 보기가 좋구나.
- ② 물가에 지어 놓은 정사가 맑고 깨끗한 것이 그지없다.
- ③ 이러한 배경에서 학문을 연구 하려니와 시를 읊으며 풍류도 즐기리라.

⑦ 7수 : 조합의 야경

날짜하다

- ① 육곡(六曲)은 어드매고 조합(鈞峽)에 물이 넙다
공간적 배경, 낚시질하기에 좋은 골짜기
- ② 나와 고기와 뉘야 더욱 즐이느고
물어일체
- ③ 황혼(黃昏)에 낙대를 메고 대월귀(帶月歸)를 하노라.
시간적 배경, 저녁 시간적 배경, 공간의 이동, 달빛을 반에 짐으로 돌아감, 저녁 → 밤

[현대어 풀이]

- ① 육곡은 어디인가? 낚시질하기에 좋은 골짜기에 물이 넓게 많이 고여 있다.
- ② 나와 물고기 중 누가 더욱 즐기고 있는가?
- ③ 황혼녘에 낚시대를 메고 달빛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오노라.

고전시 _ EBS 수능특강&수능완성

[핵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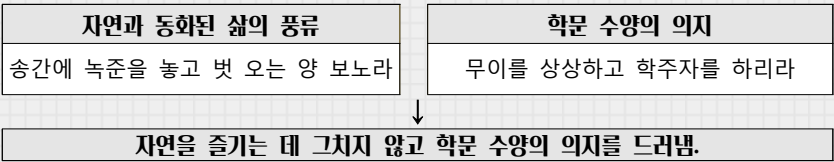
- 갈래 : 평시조, 연시조
- 성격 : 교훈적, 유교적, 관조적, 회고적, 예찬적
- 제재 : 석담 수양산의 풍경
- 주제 : ① 전 6곡: 자연에 동화된 생활 ② 후 6곡: 학문 수양에 힘쓰는 마음
- 특징 :
 - ① 학문에 대한 의지가 나타남.
 - ② 주자의 '무이구곡가'를 본떴다고 하지만 내용이 독창적임.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율곡 이이가 황해도 해주에서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을 때 주자의 「무이도가」를 모방해서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 10수로 이루어진 연시조로, 자연 풍경에 대한 묘사를 중시하여 관암, 화암, 취병, 송애, 은병 등 고산의 아홉 풍경을 한 수씩 노래하였다. 작품 전체에 중의적 의미를 깔아 두고 '자연에 대한 예찬'과 함께 '학문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다. 뛰어난 함축성과 형상성을 지닌 작품으로 교훈성과 문학성을 함께 인정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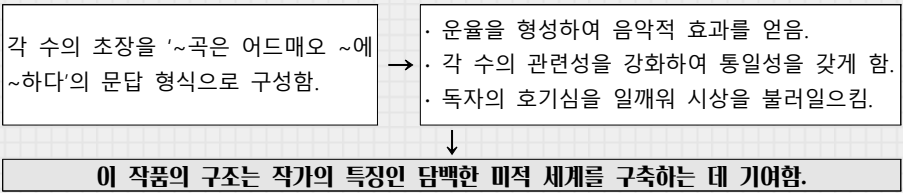
[<고산구곡가>에 드러난 '강호가도'의 미의식]

이 작품은 단순히 자연 속에서의 풍류를 노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과 일체된 삶 속에서 학문 수양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 다른 강호가도 시가들과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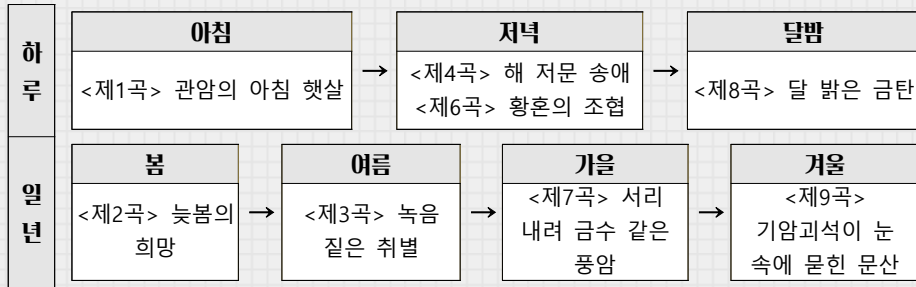
[표현상 특징]

-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계절의 변화가 드러난다.
- 공간의 속성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시조를 즉석에서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은 형식이 고정되어 있어서 가능했겠군.
-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중의적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다.
- 통사구조의 반복



[복합적 시간 구성]

이 작품은 하루와 일 년의 사계절을 복합하여 시간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순환성을 획득하고 있다. 즉, <서곡>과 <제5곡>을 제외한 나머지 여덟 곡의 중장과 종장에서 하루와 일 년 사계절의 시간이 교차되면서 우주의 원리에 의한 순환성을 획득하고 있다.



작품 분석

김매기, 정유형

어유와 계장님네 이 기음 매자꾸나

어와, 탄석 동네의 일을 도모하기 위한 개의 대표, 청자

기음노래 내 부르리

회자

천지 삼기실 제 사람이 같이 나니

너르나 너른 천하 많으나 많은 사람

현우가 다르거니 귀천이 같을손가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함

성인이 법을 지어 사민을 나누시니

사, 농, 공, 상 네 가지 신분이나 계급

행실 닦고 글 읽기는 선비님네 할 일이오

만들기는 장인이오 바꾸기는 장사로다

치치한 우리들은 할 일이 무어신고

하찮은 농민

[속미와 포루는 고금의 한 법이니]

[] 종말과 폐와 실을 세금으로 나귀에 바치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같다

좁쌀 배, 실

복전 역색이 이 아니 근본인가

힘겨 농사일을 함

종년 작고 수곤 줄도 알건마는

종년 : 한 해가 다 갈 동인의 시간 / 작고 : 농사일로 인해 농민이 고생하게 됨

양사부육이 이 아니면 어이하리

부모를 섬기고 치자식을 보살핌 설의법

----- 사민을 구분하고 농민이 해야할 일을 제시함

창경이 처음 울고 뺨잎이 푸를 적에

뺨피리

동풍은 습습하고 세우는 몽몽한데

남바람 가랑바람에 주위가 흐릿함

밭으로 가자꾸나 행여 이 때 잃을세라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할 때

송아지 먹거나 남은 벌써 가는구나

자네 거름 다 가져갔나 우리 씨앗 나눠 가소

앞집 보습 뒷집 쟁기 선후를 다툰손가

사로 돕는 협력의 자세, 명령형, 설의법

높은 언덕 낮은 이랑 차례로 일군 후에

골고루 씨 뿌려라 행여 빈 데 있을세라

이삭이 비록 난들 가꾸어야 아니 되랴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작자와 창작 연대를 알 수 없는 가사 작품이다. '기음'은 논밭에 난 잡종을 뜻하는 '김'의 옛 표현으로, 「기음노래」는 곧 논이나 밭에서 잡종을 제거하는 김매기를 할 때 부르는 노래인 것이다. 농사를 지으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점에서 「농부가」 종류에 속한다. 그러나 고단한 농민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현실비판 가사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대체로 작품의 내용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생활을 제시하고 그럼에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생활에 대한 고달픔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농가월령가」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며 농민들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작품은 전체적으로 3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농민들의 생활상과 수탈 과정이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핵심 정리

- 성격 : 현실적, 비판적
- 주제 : 수확기를 맞은 농촌의 풍경
- 주제 : 수확기를 맞이한 농촌의 풍경과 추수 후의 흥겨운 잔치
- 특징
 - 현실감 있는 사실적인 묘사가 두드러진다.
 - 색채 대비가 드러나며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된다.
 -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농사일의 고충을 드러낸다.

옛그제 갖 맨 기음 어느 사이 벌써 기네

김태기의 필요성

가을을 바라거니 세벌 수고 꺼릴손가

세 번에 걸쳐 김을 매는 것

----- **농민들이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 애씀**

(중략)

추풍이 건듯 불어 백로에 위상하니

사리가 내리니, 기음

들 가운데 누런 구름 네덕으로 한 빛이라

곡식이 익은 것을 비유함

온 여름 주린 뱃속 먹지 않아도 절로 부르네

비가 익어 가는 것을 보나,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처럼 느껴짐

이른 논의 참새 무리 늦은 논의 기러기 떼

남의 속 모르기는 알미울손 짐승이라

행여 다 익은 배를 먹을까 알뜰하게 느껴지는 새들

내일은 들 거두세 새벽밥 일찍 하소

가을걷이(추수)를 하겠다는 계획

낮 갈아 손에 들고 지게 꾸며 등에 걸고

베거니 묶거니 이거니 지거니

[] 젊은 사람들과 노인들의 공동 작업

[젊으신네 도리깨질 늙으신네 그네질]

날이 추운 농기구로 보양을 타는 것

섬 우기네 새끼 꼬네 어즈러이 구는지고

자네 발에 몇 묶음인가 내 눈 소출 이뿐일세

공사채 다 갚으면 남은 것이 얼마일까

빛 갚기에 대한 걱정

----- **가을걷이를 끝낸 후 빛 갚을 일을 걱정함**

어유와 계장님네 이내 말씀 들어보소

신세타령, 계장님은 청자

중년토록 수고타가 하루 겨울 못 얻을까

마을 잔치

건넌 동네 떡을 하고 너머 마을 술을 빚소

다른 마을

울 뒤에 밤이 벌고 마당가에 대추 떨어지네

계 찌니 닭 삶으니 가지가지 향미로다

잔치 음식을 준비함

룡복기 봉탕인들 이에서 나올손가

양뉘이

어린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나이가 많거나 으뜸가는 사람

김풍헌 이약정을 좌장으로 모신 후에

마을의 자치 조직인 향약의 임원

헌 패랭이 베 무지렁이 차례로 앉은 후에

헌 패랭이를 걸치고 베로 만든 옷을 입은 농민들

고전시 _ EBS 수능특강&수능완성

질동이 내어놓고 쪽박 잔 가득 부어

잡거니 밀거니 사양하며 추천할까

술을 권하며 따시는 모습

물장구 초급 피리 곡조도 좋을시고

물이 가득한 절그릇을 장구섬이 연주하고 그에 맞춰 풀매리를 부는 것

술김에 흥이 나니 되춤이 절로 난다

막춤

----- 기을견이를 끝낸 후 마을 잔치를 열고 춤김

불쌍객 초청하지 않았음에도 찾아온 손님

[어디에서 편주인은 풀죽객이 오단 말고] [] 반갑지 않은 사람이 등장함

관아에서 문서 심부름을 하던 사람

잔기침 붉은 호령 반절은 무슨 일인가

어서 나소 자로 나소 반객인들 내몰손가

반갑지 않은 손님

환자 배자 부세 전령 응당 구실 말라 할까

춘궁기에 곡식을 대어하고 추수기에 돌려받는 제도

향청 분부 작청 구청 원님인들 어이 알리

기혹한 세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아마도 원님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 → 지방관의 선정을 기대

한 집에 세네 군포 체구실도 못하거든

3~4명 몫의 군포

사돈일지 권당일지 일즉 무리 더욱 설위

저 너머 십여 호가 어젯밤에 닳단 말가

가혹한 세금으로 아반도주 함

뉘라서 우리 정상 그려다가 구중궁궐의 님 계신 데 드리리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임금에게 알리고 싶음

----- 농민들이 처한 가혹한 현실을 임금에게 알리고 싶어 함

작품 분석

영산홍록(映山紅綠)에 봄바람 넘노나니 황봉백접(黃蜂白蝶)

붉은 꽃과 푸른 잎이 무성하여 산을 붉고 푸르게 덮음, 색채대비 노란 벌과 하얀 나비가 날아다닌다, 색채대비

붉은 꽃 푸른 잎은 산양산기(山陽山氣)를 자랑하고

봄날의 산기운 의인법

대구,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가는 새 오는 나비 춘기춘흥(春氣春興)을 조롱한다

회자가 느끼는 봄의 흥겨움

[죽장(竹杖)을 짚고 망혜(芒鞋) 신어라] [] 간단한 보행, 여행을 위한 차림새

대나무 지팡이 짚신

천리강산 들어가니 만장폭포도 좋거니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폭포

여산(廬山)이 여기로다 비류직하삼천척(飛流直下三千尺)

중국의 명산 높은 곳에서 날 듯이 곧게 떨어지는 폭포, 이태백의 시에서 인용

[의시은하낙구천(疑是銀河落九天)은 옛글에도 일러 있고

높은 하늘에서 은하수가 떨어지는 듯하다, 이태백의 시에서 인용 중국 한시 인용, 상류층의 언어를 모방한 잡가의 특징

지배층의 언어사용

타기황앵(打起黃鶯) 아이들은 막교지상(莫教枝上)에 한을 마라

나무를 치자 꾀꼬리를 날아가게 함 꾀꼬리가 나뭇가지 위에 앉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한탄하지 말라

피꼬리 탓이 아니더냐 황금 같은 저 피꼬리

봄을 상징

황금 갑옷 펼쳐입고 세류영(細柳營)에 넘노는 듯

한라산의 주아부가 흉노를 막기 위해 세류에 친 진영, 두묘의 한시에 나오는 시어

벽력같이 우는 소리 깊이 든 잠 다 깨운다] 꾀꼬리가 잠 깨우니 쫓아버려야겠는데

아이들은 또 그걸 보고 시운하다고 난리임 → 분주하고 아름다운 소풍의 풍경

산 절로 수 절로 하니 산수 간에 나도 나도 절로

당시 유행하던 시조의 표현을 모방한 부분

이 중에 절로 난 몸이 늙도 절로 하리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즐거움

화류 장대(章臺) 고운 여자

중국 장안 변화기의 누대

너희 얼굴 곱다 하고 자랑하지 말려무나

유한한 존재로 인생기는 죽기 때문에

뒷동산 피는 꽃은 명춘 삼월 피려니와

자연의 영원성

나와 같은 초로인생(草露人生) 한번 끄떡 죽어지면

물임 위에 내린 이슬이 아침 해가 뜨면 바로 사라지는 것과 같은 허무한 삶을 의미함, 인간사의 유한성 → 자연의 영원성

다시 갱생 어려워라

다시 살어나다

[낙양성 십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대가인이 몇몇이나]

[] 민요 <성주풀이>의 표현을 모방한 부분 → 인생무상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인생은 덧없는 것이니 살아생전 마음껏 놀아 볼 것을 권유하는 조선 후기 십이 잡가의 하나이다. 후렴구 없이 인생무상과 삶의 유희를 노래하는 비교적 일관된 내용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자연을 유희와 풍류의 공간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기존 시대부 가사와의 차이가 드러난다. 한자어나 고시의 활용과 같은 당대 양반층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당시 유행하던 시조를 인용하거나, 민요의 내용을 인용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언어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핵심 정리

- 성격: 감상적, 풍류적
- 주제: 인생무상의 토로와 삶의 유희에 대한 권유
- 특징:
 - ① 선경후정의 구조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
 - ② 고시를 인용하여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 ③ 자연과 인간사의 대비를 통해 인생무상을 부각함.
 - ④ 계절적 배경인 봄의 기운과 모습을 드러냄.

고전시 _ EBS 수능특강&수능완성

[통일천하 진시황은 아방궁(阿房宮)을 사랑 삼고

삼천궁녀를 시위하여 몇만 년을 살자 하고

만리장성 굳게 쌓고 기천만 년 살았더니

수천만 년

[] 진시황과 관련된 중국 고시를 언급

사구평대(沙丘塚臺) 저문 날에 여산청초(驪山靑草) 속절없다]

진시황이 죽은 곳 → 인생무상

진시황이 묻힌 곳 → 인생무상

이러한 영웅들은 사후유명 되려니와

죽은 후에 이름을 남기다

나와 같은 초로인생 한번 끄쩍 죽어지면

이름을 남기지 못함 ↔ 영웅들

칠성포로 질끈 묶어 소방상 댕돌 위에

삼배

작은 상어

두렷이 메고 갈 때 한 모퉁이 돌아가니

곳은비는 세우 섞어 함박으로 퍼붓는데

무주공산 터를 닦아 청송(靑松)으로 울을 삼고

주인없이 텅 빈 산에 무덤을 만들어

올다리

두견새로 벼슬 삼아 주야장천 누웠으니

산은 요요 물은 황황 이것이 나이로다

이러한 일 생각하면 아니 놀고 무엇하리

허무주의, 향락, 쾌락의 추구
피지배계층의 정치

노류장화(路柳牆花)를 꺾어서 들고 마음대로만 놀아 보세

길가의 버들과 담 밑의 꽃 → 기생

작품 분석

벼슬을 저마다 흐면 농부(農夫) 흐 리 누 이시며

모든 사람이 벼슬을 할 수는 없다

의원(醫員)이 병(病) 고치면 북망산(北邙山)이 저려 흐라

사람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다. → 인생무상(살의 유한성)에 대한 깨달음, 설악법

아히야 잔(盞) 그릇 부어라 내 뜻대로 흐리라

술을 통해 삶의 유한성과 관련된 시름을 잊으려고 함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명문가의 후손이지만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전원 속에서 풍류를 즐기던 김창업의 평소조이다. 초장에서는 벼슬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말로 출세에 관심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중장과 종장에서는 사람의 죽음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 방식대로 풍류를 즐기며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밝히고 있다.

핵심 정리

- 성격: 풍류적
- 주제: 풍류를 즐기며 살아가는 삶의 추구
- 특징:
 - ① 초장과 중장에서 가정법을 활용함.
 - ② 돈호법을 활용해 시상을 집약하고 주의를 환기함.
 - ③ '술'을 통해 시름을 잊고 남은 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 가려는 자세를 드러냄.

술 먹고 빛둑 뷔척 뷔거러 가며 먹지 마자 크게 맹서(盟誓) | 흐엿더니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

금주의 맹세

춘하추동(春夏秋冬) 호시절(好時節)의 남린(南隣) 북촌(北村) 다 청(請) 흐

술을 마시는 행위가 사계절 내내 지속됨

남쪽 이웃, 남쪽 마을

여 희호동락(熙熙同樂) 흐을 머데 어허 맹서(盟誓) | 가소(笑) | 로다

여러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함께 즐기는 상황

금주의 맹세를 어김

[인생(人生)이 일장춘몽(一場春夢)인니 먹고 놀여 흐노라]

헛된 영하나 덧없는 일

[] 금주의 맹세를 어긴 것에 대한 변명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금주를 맹세한 화자가 놀기 좋은 시절을 맞아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자, 인생은 일장춘몽이라며 맹세를 어기고 유희를 즐기려는 태도를 노래한 사설시조이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술을 먹지 말자고 맹세한 화자가 맹세를 대며 자신이 했던 맹세를 가소롭다고 말하는 상황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핵심 정리

- 성격: 풍류적
- 주제: 술을 마시며 유희를 즐기는 삶의 추구
- 특징:
 - ①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는 화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냄.
 - ② 화자의 상황 변화를 통해 웃음을 유발함.

작품 분석

① 1수(춘) : 봄날의 자연현상과 농사의 준비

시간의 흐름, 결과

- ① 봄날이 점점 기니 잔설(殘雪)이 다 녹거다
봄의 낮이 점점 길어짐, 시간의 흐름, 원인
- ② [매화(梅花)]는 벌써 지고 버들가지 누르렀다] 꽃이 지기 전까지는 것, 자연의 변화, 시간의 흐름, 봄이라는 계절 속 변화 초봄
- ③ 아히야 울 잘 고티고 채진(菜田) 갈게 하야라
청차 농사에 대비함, 실제로 노동을 하지 않는 회자의 전원생활(일생)

[현대어 풀이]

- ① 봄날이 점점 길어 가니 남은 눈이 다 녹는구나.
- ② 매화는 벌써 지고 버들가지는 누렇게 되었다.
- ③ 아이야 울타리 잘 고치고 채소밭 갈게 준비해라.

② 2수(춘) : 봄날의 자연현상과 농사의 준비

- ① [양파(陽坡)]의 풀이 기니 봄빛치 느껴 있다 □ 시선의 이동
양지쪽 언덕 평탄 근거, 감각적 평탄 결과, 이성적
- ② [소원(小園) 도화(桃花)]는 밤비에 다 피거다
뜰, 공간적 배경 하강적 상승적
- ③ 아히야 쇼 도히 머겨 논밭 갈게 하야라
농사에 대비함, 실제로 노동을 하지 않는 회자의 전원생활(일생)

[현대어 풀이]

- ① 양지에 풀이 자라니 봄빛이 깊어간다.
- ② 뜰에 복숭아꽃은 밤비에 다 피겠었구나
- ③ 아이야 소 잘 먹여서 논밭 갈게 하야라

③ 3수(하) : 깊어가는 여름에 노래를 듣는 한가로움

시간의 흐름, 여름, 푸른색/녹색

- ① 잔화(殘花) 다 딛 후의 녹음이 기피 간다
시간의 흐름, 하강적, '녹음'으로 이어지는 계기, 계절 변화의 경계 [] 청각적, 영단법
- ② 백일(白日) 고촌(孤村)에 [낮뜸의 소리]로다
대낮, 시간적 배경 사람들이 농사일을 하러 나가 마을이 비어 있는 상황, 공간적 배경
- ③ 아히야 [계면도 불리]라 긴 조름 씨오자] 한기하고 여유로운 삶
계면도 가락의 노래 명경형 청유형

[현대어 풀이]

- ① 남아 있던 꽃이 다 떨어진 후에 녹음이 깊어 간다.
- ② 대낮 외로운 마을에 낮에 우는 닭의 소리로구나.
- ③ 아이야 계면조의 노래를 불러라 자꾸 오는 졸음을 깨도록 하자.

④ 4수(하) : 북창에 기대어 거문고로 낮잠을 쫓음

북쪽으로 난 창 → 선비의 병, 화자의 신분 / 북창삼우: 거문고, 시, 술

- ① 원림(園林) 적막흔던 북창을 빗겨시니
정원, 공간적 배경 고요하다 O, 외로움 X
- ② 거문고 노라라 [낮잠을 쉰과괴야] [] 한가하고 여유로운 삶, 시간적 배경
잠을 깨우는 수단, 북창삼우, 풍류, 여유로움
- ③ 종장 누락

[현대어 풀이]

- ① 뜰의 숲은 적막한데 북창에 기대니
- ② 거문고 소리가 낮잠을 깨우는구나
- ③ 누락

⑤ 5수(추) : 곡식이 익은 늦가을에 술 마시며 느끼는 흥

- ① 흰 이슬 서리 되니 가을이 느껴 있다
이슬→가을, 시간의 흐름 미래의 상황 추수, 상상
- ② 긴 들 황운(黃雲)이 한 빗치 피거고야
누런 구름, 누렇게 익은 곡식, 풍요로움, 색채이미지, 은유
- ③ 아히야 비즌 술 걸러라 추흥(秋興) 계워 하노라
풍류, 가을의 흥을 고조시키는 수단

[현대어 풀이]

- ① 흰 이슬 서리 되니 가을이 깊어간다
- ② 넓은 들에 노란 벼가 한 빗으로 피겠구나
- ③ 아이야, 빗은 술 걸러라. 가을 흥에 겨워 하노라.

⑥ 6수(추) : 가을에 느끼는 흥취

- ① 동리(東籬)에 국화 피니 중양(重陽)이 거예로다
기름, 판단 근거 중양절(음력 9월 9일), 판단 결과, 영탄법, 시간의 흐름
- ② 자채(自糝)로 비즌 술이 흥마 아니 니것느냐
음배, 잘 이르게 익은 배 흥취 강조 ← 익문형
- ③ 아히야 자해(紫蟹) 황계(黃鷄)로 안주(酒) 장만 하야라
붉은게, 빛 달빛이 누린 닭

[현대어 풀이]

- ① 동쪽 울타리 밑에 국화가 피니 중양절이 거의 다 되었구나.
- ② 울벼로 빗은 술이 이미 아니 익었겠느냐.
- ③ 아이야 게와 황계로 안주를 장만하야라.

⑦ 7수(동) : 겨울에 한가롭게 지내는 모습

- ① 북풍이 노피 부니 압 퇴해 눈이 던다
겨울 겨울, 허강적, 원경
- ② 모침(茅簷) 촌 빗치 석양이 거예로다
근경 시각의 축적화 저녁
- ③ 아히야 두죽(頭粥) 니것느냐 먹고 자라 호로라
저녁 식사에 대한 기대감 ← 익문형

[현대어 풀이]

- ① 찬바람이 높이 부니 앞산에 눈이 내린다
- ② 초가집 처마 찬 빛이 저녁 무렵이구나
- ③ 아이야, 콩죽 익었느냐 먹고 잘까 하노라

고전시 _ EBS 수능특강&수능완성

⑧ 8수(동) : 겨울에 한가롭게 지내는 모습

- ① [어제 쇼 친 구들 오늘이야 채 덤거니] [] 시간의 흐름, 어제-오늘
 쇼를 먹이기 위해 불을 대 구들, 겨울
 ② 긴 줄 계우 썬니 아적 날이 놀과 있다
 따뜻한 구들에서 숙면 시간의 흐름
 ③ 아히야 서리 녹았느냐 닐고자도 흐노라
 상황 확인 ← 의문형

[현대어 풀이]

- ① 어제 쇼를 먹이기 위해 불을 대 구들이 오늘에야 겨우 더우니
 ② 깊이 든 잠을 겨우 깨니 아침 해가 높이 떠 있다.
 ③ 아이야 서리 녹았느냐 일어나 고자 하노라.

⑨ 9수(제석際夕) : 세월의 흐름에 대한 안타까움

- ① 이바 아히들아 새히 온다 즐겨 마라
 현재 상황을 즐겨라
 ② 현스흔 세월이 소년(少年) 아사 가느니라
 덧없는 세월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의인법
 ③ 우리도 새히 즐겨 흐다가 이 백발이 되었노라
 세월의 흐름에 대한 탄식, → 소년, 영탄법

[현대어 풀이]

- ① 이봐라 아이들아 새해가 온다고 즐거워하지 마라.
 ② 시끌시끌한 세월이 젊음을 빼앗아 가느니라.
 ③ 우리도 새해를 즐거워하다가 이처럼 백발이 되었노라.

⑩ 10수(제석際夕) : 세월의 흐름에 대한 안타까움

- ① 이바 아히들아 날 신다 깃거 마라
 새해(살날)가 된다
 ② 자고 새고 자고 새니 세월이 몇춧 가리
 시간의 흐름, 순환 짧고 유한한 인생, 의문형, 설이법
 ③ 백 년(百年)이 하 초초(草草)히니 나는 굿버흐노라
 일생, 평생 너무 빨리 가니 서운해하노라, 아쉬움

[현대어 풀이]

- ① 이봐라 아이들아 날이 샌다고 기뻐하지 마라.
 ② 자고 새우고 자고 새우니 세월이 얼마나 가겠느냐.
 ③ 백 년이 너무 빨리 가니 나는 서운해 하노라.

[핵심정리]

- 갈래 : 평시조, 연시조
- 성격 :
- 주제 : 사계절과 관련된 전원 속에서의 삶
- 특징 :
 - ①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됨.
 - ②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을 취함
 - ③ 각 계절의 정취(5수 제외)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함
 - ④ 각 수의 종장에 '아희야'를 반복해서 형식적 통일감과 운율감을 형성함
 - ⑤ 세월을 의인화하여 젊음을 빼앗아간 세월에 대한 원망을 함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총 10수의 연시조로, 사계절의 순서에 따라 눈이 녹고 매화가 지는 봄을 맞이하는 모습, 녹음이 우거진 한적한 여름의 모습, 가을을 맞아 흥겨움을 즐기는 모습, 눈 쌓인 겨울의 모습, 한 해를 보내며 세월의 흐름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심정 등을 노래하고 있다. 전원예 문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노래한 후, 이러한 기쁨을 지속하는 데 장애가 되는 세월의 흐름에 대한 안타까움을 제석(除夕)에 덧붙이며 전체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작품 분석

현대어 풀이

EBS수록 앞부분

어와 남즈(男子)들아 녀즈(女子)를 기롱(譏弄) 마오

칭사, 말을 건네는 방식 <조화전가>에 해당하는 의도

남즈 일 가쇠로다 우리 보매 우습스의

작성적 평가 우리가, 어자들, 집단의 문제의식 표출 [] <조화전가>의 내용을 비판함

[몇 돌을 경영(經營)하며 허송광음(虛送光陰) 마이업네]

허송세월, 세월을 헛되이 보냄

적으나 쾌남즈(快男子)면 기 아니 쉬웁손가

쾌남자가 아니라 일처리가 어려움을 강조함, 설의법

헛먹음 다 달히며 일번(一番) 용의(用意) 못 하여서

'허송광음'의 구체적 내용, 쾌남자가 아니라 허황하고 소심한 남자에 대한 비판

부녀(婦女) 일행(一行)의 삼암(暗暗)히 불워 하니

화전놀이를 하는 집단 은근히

[] 남자들의 유차함에 대한 비판, 설의법

[잔폐(殘廢)코 쉼산기야 이 밧기 쯔 이시라]

썩단하다, 쇠잔하다 시련다, 시원찮다

[] 어자들의 화전놀이를 비난하는 남자들의 행위

[모다 안자 디저귀며 두문불출(杜門不出) 하얏고야]

문을 닫고 나가지 않는다, 외부 접촉 X

즈가너 못흔 일을 용심(用心) 내어 무엇하리

화전놀이 설의법

[] 남자(사대부)의 허위의식 비판

[백사(百事)를 동가디라 과공(科工)은 무스 일고]

모든 일 중요하다 공을 내세우다

출하리 겁히 드러 농업(農業)이나 힘빨디니

희자의 현실인식, 추상적, 이상적 <구체적, 현실적 삶

남당(臨場)호 선빅들이 글 덧느라 운동내고

모든 일 당한 움직이고, 힘쓰고

문귀초칙(文句抄冊) 썰쳐내어 흥흥이며 그덕이니

죄를 묻고 책 잡기, 정공법이 아니라 편법의 수단으로

상하촌(上下村) 일이가(一一家)의 그 멧치 모헛는디

영변 행세하는 멧

곳고랑 의심(疑心)줄과 곤것 궂흔 부귀(浮鬼)들에

남성들을 비유

무단(無斷)호 열병(熱病) 토설(吐舌) 이 아니 구경인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열을 올리며 말하기 대상을 희화화

[] 공부보다 만짓에 빠진 결과

[열흘의 흥 마디도 탈초성편(脫草成篇) 못 하고서]

글 한 편을 짓다

종일(終日)토록 하는 말이 광언패설(狂言悖說)뿐이로다

이치에 맞지 않고 도덕에 어긋나는 말, 학문과 무관한 말, 어지들을 조롱하는 말

그러도 무슴 경(景)의 밋친 므음 내닷관디

경향 국단적 비판

어와 남자들이, 여자를 조롱마오
남자 일 가소롭다 우리 보면 우습구나
몇 달을 경영하여 허송세월 끝이 없네
더구나 쾌남자면 그 아니 쉬웁까
헛마음 다독이며 한번 먹은 마음 못하여서
부녀 일행을 암암리에 부러워하니
쇠잔하고 서럽기야 이 밖에 또 있으랴
모여 앉아 지저귀며 두문불출하는구나
자기네 못한 일을 마음 내어 무엇하리
온갖 일 중요하다 공을 내세움은 무슨 일인가
차라리 깊이 들어 농업이나 힘쓸지니
일 당한 선비들이 글 짓느라 움직이고
죄를 묻고 책 잡기 펼쳐 내어 흥흥거리며 고덕이니
위아래 마음 한두 집에 그 멧이 모였는데
피꼬리의 힘줄과 곤것 같은 귀신들에
무단한 열 올려 말하기 이 아니 구경거리인가
열흘에 한마디도 글 한 편을 짓지 못하고서
종일토록 하는 말이 광언과 패설뿐이로구나
그래도 무슨 경황에 미친 마음 내닷길래

현대어 풀이

시시(時時)로 두루 모혀 곤당(棍杖)을 타둔(打臀)하니

남자들의 나쁜행동

욕 짓다 부모 유체(遺體) 저 무슨 일이런고

회자의 유교적 윤리관, 남성에 대한 비판, 안타까움, 설악법

내암 느는 좀글지는 삼 년의서 더물었네

공부의 진도가 3년 동안 나아가지 않음

문장(文章)이 녹녹(碌碌)하니 건도성녀(乾道成女) 하였던가

평범하고 보잘 것 없다 하늘의 도로 어지를 만들었던가 ← (주역에 '하늘의 도로서 남성을 만들고 땅의 도로서 여성을 만든다'는 표현을 비교해서 표현)

어와 애들을사 녀즈(女子) 되미 애들을사

우리 일신(一身) 남즈런들 이 아니 쾌(快)홀넌가

설악법

느즌 봄 곤(困)흔 날의 빈 독을 글디 말고

시간적 배경

어지들이 할 일

춘당덕(春塘臺) 알성시(謁聖試)에 일필명작(一筆名作) 하여 내어

상경궁 안 누각, 과거시험장 비정규적인 과거 시험 한 편이 훌륭한 작품

계화청삼(桂花靑衫) 빗난 둥(中)의 열친광녀(悅親光余) 하였단은

과거 급제한 사람이 머리에 쓰는 붓과 곁에 있는 남색 도포 대유법 부모를 기쁘게 하고 나를 빛나게 함, 유교적 사교행식

하늘히 무디(無知)하여 녀신(女身)으로 마련하니

남녀의 성별은 천부적인 것

아무리 애들은들 궂쳐 다시 되일손가

때때로 두루 모여 곤장을 때리니
 옥보이네 부모가 남긴 몸 저 무슨 일인가
 냄새 나는 좀먹은 글자는 삼 년 동안 저물었네
 문장이 비루하니 건도성녀 하였던가
 어와 애달파라 여자 됴이 애달파라
 우리 한 몸 남자인들 이 아니 즐거울까
 늦은 봄 피곤한 날에 빈 독을 글지 말고
 춘당대 알성시에 일필로 명작을 지어서
 계화 청삼 빛난 중에 부모님 기쁘고 내가 빛나기 하련
 마는
 하늘이 무지하여 여자 몸으로 마련하니
 아무리 애달픈들 고쳐 다시 될 것인가

[삼규에 드리안자 옥매로 벗을 삼아

여자가 가치는 병, 집 매하

여행을 맑게 닳고 방적을 힘쓰더니]

[1 여성들이 집안에서 행실을 조심하고 가사노동에 힘씀

여자의 행실 길쌈

동군이 유정하여 삼사월을 모라오니

봄을 밟고 있는 동쪽의 산

원근 벼랑에는 홍급당을 둘러 있고

원경 붉은 비단

촌변의 도리화는 가지마다 색을 띠어

마을 주변, 근경 현색, 봄

사창 안 부녀 흥을 제 혼자 돌우는데

회자의 신분

도로혀 생각하니 인생이 이만이라

좌절감, 실망감

여자의 달라짐도 예부터 이십으로

인식, 정서변화의 계기

한 길을 둘러서 완풍경 하려 하고

절망 → 희망 화전놀이를 하며 봄날의 풍경을 감상하려 함. 사창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 밖으로 나가야 가능한 일

지심하는 우생들과 일인의 구일하니

김매는 친구들 날을 정하

[맛바위 사미당에 대회를 여러 내어]

[1 구체적 공간 설정으로 사실성과 현장성 강화

남자들의 전유 공간으로 설정하여 남녀 차별의 문제점 부각

맛바위 경복 봉화군에 있는 정자

금차 옥잡은 용모의 광채 되고

금매나, 옥매나 / 장산구

화전놀이를 위한 여인들의 치장

대구법, 통사구초의 반박

녹의홍상은 도로의 문명하다

나들이옷, 차려입은 옷

춘풍이 다시 부러 새봄을 더하는 듯

여자들이 꾸미고 나선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

일시에 모인 부녀 삼십 여인 열좌하네

화전놀이에 참여한 사람들 숫자

규리 한담으로 차차로 수작하고

일상(여성)과 관련된 이야기

[청유 분] 모아 내어 소담히 장만하여

기름 밀가루 [1 화전의 재료 열차게

옥녀 선동들을 먼저 엮어 내어노코

①부녀자들이 화전놀이에 대려온 아이들 ②화전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꽃을 피화한 것

조용히 모여 안자 정결히 요기한 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

그제야 일어서서 곳곳을 완상하니

화전놀이의 궁극적 목적, 화전을 만들어 먹은 후 봄을 즐김

동풍 어제 비에 봄경이 새로왔네

깊은 규방에 들어앉아 옥매(매화)로 벗을 삼아
여자 행실 맑게 닳고 길쌈에 힘쓰더니
봄의 신이 유정하여 삼사월을 몰아오니
원근의 벼랑에는 붉은 비단을 둘러 있고
마을 가의 복숭아꽃과 자두꽃은 가지마다 색을 띠어
사창(사불이나 김으로 만든 창) 안 부녀 흥을 제 혼자
돌우는데
돌이켜 생각하니 인생이 이러하다
여자의 달라짐이 예부터 있으므로
한 길을 둘러서 풍경 구경하려 하고
김매는 친구들과 한마디로 날을 정하니
맛바위 사미당에 큰 모임을 열어 내어
금매나 옥매나 용모에 빛을 내고
연두저고리와 다홍치마(곱게 차려입은 옷)는 도리어
분명하다
춘풍이 다시 불어 새봄을 더하는 듯
일시에 모인 부녀 삼십여 명 자리에 죽 벌어서 앉네
규방 안 한담으로 차차 말을 주고받고
기름과 밀가루 모아서 알차게 장만하여
옥녀 선동들을 먼저 먹인 후에
조용히 모여 앉아 정결히 요기한 후
그제야 일어서서 곳곳을 완상하니
동풍 어제 비에 봄 풍경이 새롭네

현대어 풀이

대상의 벽도화는 날 위하여 웃어 있고

누대 위 벽도나무 꽃, 봄 주객전도

경치의 비유적 묘사, 약인법, 통사구조의 반복

강두의 양류지는 의연한 춤이로다

동작, 시각적

오색운 깊은 골의 척촉이 만발하니

현실적 공간, 원경, 시각적 봄, 시각적

무릉도원인들 이에서 더하오며

누대 위

전계에 맑은 징답 한가도 한가할사

현실적 공간, 근경, 시각적

[] 현실의 공간이 아름답기 때문에, 별세계를 볼 필요가 없다

[청승별계를 다시 보와 무엇하리]

가상적 공간, 이상향 현실 세계에 대한 강한 반추감, 설이법

[] 물아일체, 청각적, 설이법

[귀가의 도흔 소리 조수 호읍 아닐손가]

새와 짐승의 좋은 소리

노선생 사시움에 무권춘산 금수명이

이항의 한시, <산거사시>를 가리킴 인개가 휘감은 봄산이 배단을 수놓은 듯 뾰다, 봄 아침 풍경

형용도 도홀시고 진실로 이경이라

예찬, 영탄법 시에서 그린 풍경과 같구나. 이항과 심리적 동류의식, 영탄법

정전의 푸른 풀은 한 가지로 띄어 있다

시미당 앞, 화자의 현재 위치 평범하지만 그 속에서 찾는 맑고 의미 있는 것

주렴계 얻은 마음 내 또한 깨달으니

중국 상나라에 철학자 주돈이(엽계)

형형색색을 조화음이 비저 내니

은갖 모양과 색깔을 가진 시물들

모으면 하나 되고 흠으면 만 개로다

같은 대상을 보기에 따라 달라짐. 화자의 세심하고 뛰어난 통찰력, 통사구조의 반복, 영탄법

도라안자 바라보니 성인의 술(術) 아닌가

상황에 맞는 성인의 기술, 표현

노래하며 취하여 주야를 모르거니

아는가 모르는가 이 보소 남자들아

도치법

[<조화전가>의 내용에 대한 반응]

춘시 호광음의 여자 조롱뿐이다

봄날 좋은 시절

너무들 조롱 마오 남자 수치 또 있나니

앞에는 사서삼경 곁에는 제자백가

남자들이 여자를 조롱하는 대신 읽어야 할 책

위인도 경계술이 다 주어 버렸거늘

사서삼경과 제자백가에 담긴 내용, 위인의 도리, 세상살이의 경계술

보고 읽고 못 행하니 단청 구경 아닐소나

남자의 수치 눈만 형사가 단청을 구경한다 → 시물의 참된 모습을 깨닫지 못함

인근에 너른 집을 구태여 마다하고

일상적 삶에 편리한 공간, 남자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

누대 위의 벽도나무 꽃은 날 위하여 웃어 주고
강가의 벼들가지는 의연한 춤이로다
오색구름 깊은 골에 철쭉이 만발하니
무릉도원인들 이보다 더하며
앞 개울에 맑은 연못 한가롭기도 한가롭구나
맑고 뛰어난 별세계를 다시 보아 무엇하리
귓가의 좋은 소리 새와 동물 소리 아닐런가
노선생 사시움에 안개 갠 봄 산은 비단처럼 빛나고
형용도 좋구나 진실로 특별한 풍경이라
뜰 앞의 푸른 풀은 한 가지로 띄어 있다
주돈이가 얻은 마음 내 또한 깨달으니
형형색색을 조화음이 비저 내니
모으면 하나 되고 흠으면 만 개로다
돌아앉아 바라보니 성인의 기술이 아닌가
노래를 부르며 술에 취하여 밤낮을 모르거니
아는가 모르는가 이 보소 남자들아
봄날 세월 좋아 여자 조롱뿐이로다
너무들 조롱 마오 남자 수치 또 있나니
앞에는 사서삼경 곁에는 제자백가
위인의 도리와 세상살이의 경계술이 다 주어 벌여 놓
았거늘
보고 읽고 못 행하니 단청 구경 아닐까
인근에 너른 집을 구태여 마다하고

산길 좁은 길로 구차하게 찾아가니

현실 도파적 공간, 남자들만의 세계를 고집하는 공간 ↔ 인연에 너른 집

산금 야수가 벗하러 하는고야

여자 대신 짐승들과 벗하려는 남자들의 사고방식 ← 비판

영대에 거친 띠를 뉘 능히 베어 내리

남자들의 마음에 자란 거친 띠풀, 여자들에 대한 차별의식

그래도 명리상에 헛욕심 자아내야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 탁상공론

[] 여자들을 조롱하는 소리를 싫어하니

단양 화월리에 [저 소리 흠염하니]

단오절에 꽃을 피우는 달이 떠오르는 좋은 시절, 좋은 시간과 장소

저러한 남자들은 불취반치 되는구나

비판의 대상 취하지 않아 도리어 부끄러움

우뚝한 대장부는 더욱 아니 본받으라

↔ 저러한 남자들

어와 저 남자야 아마도 옥창 부녀는 신선인가 하노라

화전놀이에 참여한 여성

화전놀이에 대한 만족감, 자부심

현대어 풀이

산길 좁은 길로 구차하게 찾아가니
산새와 들짐승이 벗하러 하는구나
영대(남자들의 마음)에 거친 띠풀을 누가 능히 베어 내리
그래도 명예와 이익 위에 헛욕심 자아내어
단양 화월리에 저 소리 싫어하니
저러한 남자들은 취하지 않아 도리어 부끄럽게 되는구나
나
우뚝한 대장부는 더욱 아니 본받으라(올바른 대장부는 모범적으로 행동했을 것이라는 의미임)
어와 저 남자야 아마도 옥창의 부녀는 신선인가 하노라

[핵심정리]

- 갈래 : 가사, 내방가사, 규방가사
- 성격 : 비판적, 예찬적, 감각적
- 제재 : 화전놀이
- 주제 : 화전놀이의 즐거움과 조롱하는 남성들에 대한 반박
- 특징 :
 - ① 남성 중심 사회의 문제점을 적절한 근거를 들어 비판함으로써 여성의 권익을 요구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전고(典故)를 인용함으로써 지적 수준을 드러내고 설득력을 강화하고 있다.
 - ③ 의문형 종결 표현을 다양하게 구사하여 화자의 의도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반복이나 대구, 비유 등의 방법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필사본 잡록에 「조화전가」 등의 가사와 함께 수록되어 있으며, 작자인 안동 권씨는 18세기에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화전놀이를 하는 여성들을 보고 「조화전가」를 지어 희롱하자, 여성들의 입장에서 「반조화전가」를 지어 그에 대해 화답한 작품이다. 「반조화전가」는 「조화전가」에 대해 반대로 답하다라는 의미인데, 「조화전가」에 대한 반론과 남성들의 입장에 대해 재차 조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여성들의 화전놀이를 조롱하는 「조화전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남자와 달리 평소에 규방에 머무는 여자들은 오직 봄날의 화전놀이에서 주변의 경치를 즐길 수 있기에 소중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화전놀이를 가서 아름다운 봄 풍경을 만끽하며, 단 하루일지라도 봄철의 승경(勝景)을 즐기는 여성들의 자족적인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고 하겠다

작품 분석

[1연]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당, 돌 : ①금석 악기인 정경(正磬) ②사랑하는 사람(임금) ③악기소리(악성어)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선왕성덕(先王聖代)에 노니으와지이다.

태평성대, 회자가 소망하는 세계 ~싶습니다. 경어체

[현대어 풀이]

징이여, 돌이여, (임금님이) 지금에 계십니다.

징이여, 돌이여, (임금님이) 지금에 계십니다.

태평성대에 노닐고 싶습니다.

[2연]

삭삭기 세몰에 별헤 나는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악성어 여음, 의미X, 음악성O

삭삭기 세몰에 별헤 나는

구운 밤 닷 되를 심고이다.

그 밤이 우미 도다 삭나겨시아

그 밤이 우미 도다 삭나겨시아

유덕(有德)하신 님을 여히으와지이다.

임금, 사랑하는 임 댜어뵈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한 역설적 표현①
← 구운 밤에 짝이 날 리가 없음

[현대어 풀이]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에 /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에

구운 밤 다섯 되를 심습니다. / 그 밤이 움이 돌아 싹이 나야만

그 밤이 움이 돌아 싹이 나야만 / 유덕하신 임을 이별하고 싶습니다.

[3연]

옥(玉)으로 련(蓮)스고즐 사교이다.

옥(玉)으로 련(蓮)스고즐 사교이다.

바회 우회 접두(接柱)호요이다.

그 고지 삼동(三洞)이 뛰거시아
세 묶음

그 고지 삼동(三洞)이 뛰거시아

유덕(有德)호신 님 여희오와지이다.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한 역설적 표현 ②
← 옥으로 새긴 연꽃이 바위 위에서 피어날 리가 없음

[현대어 풀이]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바위에 접을 붙입니다. / 그 꽃이 세 묶음이(또는 추운 겨울에) 피어야만

그 꽃이 세 묶음이(또는 추운 겨울에) 피어야만 / 유덕하신 입을 이별하고 싶습니다.

[4연]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는
공복 재단하여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는

털스(鐵絲)로 주름 바고이다.
철사

그 오시 다 헐어시아

그 오시 다 헐어시아

유덕(有德)호신 님 여희오와지이다.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한 역설적 표현 ③
← 무쇠로 만든 옷이 헐 리가 없음

[현대어 풀이]

무쇠로 공복을 재단하여 / 무쇠로 공복을 재단하여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 그 옷이 다 헐어야만

그 옷이 다 헐어야만 / 유덕하신 입을 이별하고 싶습니다.

고전시 _ EBS 수능특강&수능완성

[5연]

무쇠로 한 소를 디어다가
큰 소 형소

무쇠로 한 소를 디어다가

털슈산(鐵樹山)에 노호이다.
쇠로 된 나무가 있는 산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쇠로 된 풀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유덕(有德)하신 님 여히오와지이다.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한 역설적 표현④
← 무쇠로 된 소가 쇠로 된 풀을 먹을 리가 없음

[현대어 풀이]

무쇠로 큰 소를 만들어서 / 무쇠로 큰 소를 만들어서
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 놓습니다. / 그 소가 쇠로 된 풀을 먹어야
그 소가 쇠로 된 풀을 먹어야 / 유덕하신 임을 이별하고 싶습니다.

[6연]

이별하게 된다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사랑 시련, 장애물

구스리 바회예 디신들

긴히든 그츠리잇가.
믿음

즈믄 히를 외오곰 녀신들
괴장범

즈믄 히를 외오곰 녀신들

신(信)잇든 그츠리잇가.
'간'의 원관념

[현대어 풀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 /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 천 년을 외로이 살아간들
천 년을 외로이 살아간들 /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해와 감상]

<악장가사>에 수록되어 있는 이 작품은 고려 속요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창작자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출전 문헌의 성격으로 보아 고려 후기부터 조선 전기까지 궁중에서 연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유덕(有德)한 임과의 현실적 사랑의 욕망을 추구하면서도, 그러한 사랑을 영구화 내지 극대화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제1장의 해석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노래를 시작하는 전주곡으로서 기능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제2~5장은 사랑의 영원 불변성을 추구하고 있다. 제6장은 제2~5장과 서사 구조가 다른데, 또 다른 고려 속요 작품인 <서경별곡>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로 보아 제6장의 내용이 고려시대에 널리 애용된 가사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핵심정리]

- 갈래 : 고려 가요
- 성격 : 서정적, 민요적
- 제재 : 임에 대한 사랑
- 주제 : 태평성대 기원,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 특징
 - ① 대부분의 고려 가요가 이별이나 향락의 정서를 노래한 데 반해, 이 작품은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함
 - ②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하는 역설적 표현으로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소망하는 시적 화자의 정서가 효과적으로 드러남
 - ③ 역설과 반복적 시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리면서 상황과 정서를 강조함

[시상전개]

	1연	2연	3연	4연	5연	6연
핵심 소재	징, 돌	구운밤	옥 연꽃	무쇠 철릭	무쇠소	구슬, 끈
내용	태평성대 희구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임과의 이별을 부정				임에 대한 영원한 믿음
주제	송축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의지				

고전시 _ EBS 수능특강&수능완성

[역설적 상황과 표현 효과]

	제재	내용 (불가능한 상황)	행위 (표면적 의미)	표현 효과
2연	구운 밤	구운 밤에 움이 돌아 싹이 나면	임과 이별하겠다.	⇒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
3연	옥 연꽃	옥 연꽃에 꽃이 피면		
4연	무쇠 옷	무쇠로 된 철릭이 혈면		
5연	무쇠 소	무쇠로 된 황소가 쇠풀을 먹으면		



03

현대소설

| 줄거리

극심한 가뭄으로 눈에 물을 대지 못하자 성동리 주민들은 어떻게든 물을 대기 위해 노력하고, 고 서방은 물을 넉넉히 끌어 쓴 보광리 주민과 마찰을 빚다가 결국 주재소에 끌려간다. 가뭄이 지속되자 보광사에서는 기우제를 지내는데, 성동리 주민들은 빗 값을 돈을 시주로 보태기도 하지만 여전히 비가 올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성동리의 상한이라는 아이는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보광사의 산에 가는데 산지기에게 쫓기다 목숨을 잃는다. 그해 가을 흉작이 들었는데도 보광사 간평 위원들은 성동리 주민들의 눈에 높은 소작료를 매기고, 조합 이사는 밀린 대금의 지불 기한을 연기해 달라는 주민들의 청을 무시한다. 이윽고 벼를 압류당하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성동리 남정들은 압류 취소와 소작료 면제를 탄원하기 위해 모여들어 보광사로 향한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1930년대 농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소설이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사하촌'은 보광사라는 절의 세력하에 놓인 마을로, 절 소작인의 마을인 성동리와 중의 식솔들이 거주하는 보광리를 일컫는다. 보광사는 변질된 종교 세력으로 일제와 결탁하여 성동리 농민들을 수탈한다. 작품에서 주인공이라고 특정할 만한 인물을 찾기 어렵는데,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함께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 내고자 하는 성동리 농민 전체가 서사 전개 중심이 되고 있다. 이들은 고통이 극에 달하자 현실의 모순을 자각하고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집단행동에 나서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에는 지식인의 계몽이나 소수의 영웅적 행동보다 농민 스스로의 자각과 연대가 모순 극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작가 의식이 담겨 있다.

| 주제

일제 강점기의 부조리한 농촌 현실과 농민들의 저항

| 줄거리

안 초시와 박희완은 서 참의가 운영하는 복덕방에 와 소일하곤 한다. 안 초시는 무용가로 이름을 떨치는 안경화를 딸로 두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안경화는 그런 아버지에게 안경 다리를 고칠 돈조차 넉넉히 주지 않는다. 안 초시는 박희완으로부터 개발 예정인 땅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안경화에게 그 땅에 투자하면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안경화가 삼천 원을 투자하지만 땅에 대한 정보가 거짓이었음이 밝혀지고, 안 초시는 딸의 냉대에 전전긍긍하다가 죽음을 택한다. 안경화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안 초시가 죽은 이유를 감추려 하며,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서 참의의 지시에 따라 장례식을 성대히 치른다. 서 참의와 박희완은 장례식에 참석한 이들의 위선적인 행태를 보며 울분을 느낀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193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하여 급변하는 사회 질서에서 소외된 세대의 좌절과 몰락, 젊은 세대의 위선적인 행태 등을 형상화한 소설이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복덕방'은 안 초시와 서 참의, 박희완 등 급변하는 세대에 적응하지 못한 노인들이 모여드는 공간이다. 안 초시는 부동산 투기로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몰락하는데, 이 과정에서 식민지 자본주의의 실태가 사실적으로 드러난다. 한편 무용가로 성공했으면서도 아버지를 홀대하는 안경화의 모습을 통해서도 당시 신세대들의 이해타산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결말에서 친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박희완과 서 참의의 모습은, 이러한 안경화의 모습과 대비를 이룬다.

| 주제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의 좌절과 비애

| 줄거리

옥화는 떠돌이 중과 만나 성기를 낳았는데, 성기의 할머니는 성기에게 붙었다는 역마살을 떼고자 그를 절에 보내 중을 시킨다. 옥화는 그러고도 못다 푼 살을 풀고자 성기가 장날에 절에서 내려와 이야기책 장사를 하도록 허락한다. 하루는 체 장수 영감이 옥화가 운영하는 화개 장터의 주막에 계연이라는 소녀를 데려와, 그녀를 옥화에게 잠시 맡기고 장사를 하러 떠난다. 책 장사를 하러 온 성기는 계연을 만나 강렬한 호감을 느끼고, 둘의 관계는 점차 깊어져 간다. 그러던 어느 날 체 장수 영감이 돌아와 계연을 데리고 떠나 버리는데, 이에 충격을 받은 성기는 크게 앓는다. 이후 옥화는 계연이 자신의 이복동생이었다는 사실을 성기에게 밝힌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성기는 차차 기운을 회복하고 떠돌이 장수가 되어 길을 떠난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역마살로 표상되는 한국적 운명관을 바탕으로 생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형상화한 소설이다. 성기는 역마살을 타고난 인물로, 역마살을 떼려는 할머니나 어머니(옥화)가 시키는 대로 중을 하거나 이야기책 장사를 하며 살아간다. 그런 그가 항구적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연과의 사랑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녀와의 혈연 때문임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이야기 구성에서 운명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순리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난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확인하고 이에 순응함으로써 비로소 삶의 생기를 되찾는 성기의 모습을 통해, 생의 본질과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 서로 맞닿아 있다고 여기는 작가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 주제

운명의 수용과 이를 통한 생의 의지 회복

| 줄거리

학교 앞에서 문방구점을 꾸려 나가는 정례 모친은 집 문서를 은행에 잡혀 얻은 30만 원으로 가게를 시작했으나 운영이 여의치 않자, 동창인 김옥임의 동업 조건으로 10만 원 밀전을 빌리게 된다. 게다가 정례 아버지가 물려받은 마지막 땅을 팔아서 부리던 택시가 가게의 돈을 술술 빼가다가 결국 거덜을 내자 경제적 상황은 더욱 웅색해진다. 일제 강점기 때에 고관으로 행세하다 광복과 함께 반민법(反民法)으로 몰락할 처지에 놓이고 중풍마저 앓게 된 남편을 둔 옥임은 고리대금업자로서 친구인 정례 모친에게까지 마수를 뻗힌다. 옥임은 가게 보증금 영수증을 담보로 출자금을 1할 5푼의 이자 돈으로 돌려 제 살 궁리만 한다. 정례 모친은 옥임을 통해 알게 된 교장 선생이라는 영감에게서 5만 원을 더 빌려 가게의 형편을 수습하려 하지만, 옥임은 자신이 빌려준 돈을 교장 영감에게 일임하여 정례 모친이 이를 갚도록 만든다. 은행에 30만 원, 옥임에게 20만 원, 교장 영감에게 5만 원, 도합 55만 원의 빚을 걸머진 정례 모친은 어느 날 황토현 정류장에서 만난 옥임에게 망신을 당한다. 두 달에 걸쳐 억지로 얼마간의 빚은 갚았으나, 급기야 석 달째에는 보증금 8만 원마저 되찾지 못한 채 빚으로 메우고 구멍가게를 교장 영감의 딸 내외에게 넘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몸살감기에 율화로 누운 정례 모친을 위로한답시고 정례 아버지는 옥임을 골릴 궁리를 하며 껄껄 웃는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해방 직후의 물질적으로 파산해 가는 인간과, 정신적으로 파산해 가는 인간의 유형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해방 이후의 사회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소설이다. 정례 모친의 물질적 파산 과정이라든지 옥임의 정신적인 파산의 심리적 추이와 그 사이에서 교묘하게 중간이득을 획득하는 교장의 간악한 행위 등은 당대의 사회적 현실이며 실제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은 해방 이후 우리 사회가 겪은 물질적, 정신적 가치의 파멸을 잘 보여 주고 있다.

| 주제

물질적·정신적 파산에 이르는 인간을 통한 혼란한 사회상에 대한 비판

| 줄거리

주인공 '그'는 수색대를 이끌고 적의 배후 깊숙이 침투했다가 본대와 연락이 끊어지면서 소대원을 이끌고 남하한다. 적을 피해 산을 타고 남하하지만 잦은 전투와 굶주림으로 대부분의 소대원을 잃어버린다. 배고픔, 추위와의 싸움은 계속되고 결국 선임 하사와 그 만 남게 된다. 군대 생활이 무엇보다도 재미있던, 일본군에 소집되어 남양 전투에도 종군하는 등 많은 전쟁에 참전했던 선임 하사도 결국 총에 맞아 죽는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그는 몸을 숨긴 어느 민가에서 적에게 붙잡혀 죽게 된 한 포로를 구하다 부상당한 채 적들에게 사로잡힌다. 그가 구하려던 포로는 포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기계나 도구가 아닌 생명체인 인간임을 느꼈다면서 남쪽을 향해 걷다가 피살된다. 그 역시 그 포로가 그랬듯 사수가 뒤에서 겨누고 있는, 남쪽으로 난 길을 걸으며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다.

| 이해와 감상

6·25 전쟁 당시를 배경으로 전투에서 낙오된 '그'가 포로가 되어 심문을 받고 총살형을 당하기까지의 과정을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쓴 소설이다. 짧은 문장과 현재형의 서술을 통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겪는 인간의 내면적인 고뇌와 전쟁의 참상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비인간적 살상과 폭력이 난무하는 전쟁의 무의미성과 참혹함, 전후 세대가 겪는 실존과 불안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주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의 인간의 고뇌와 죽음

| 줄거리

'나'가 사는 동네는 어느 정도 지식과 교양을 갖춘 젊은 샐러리맨 부부들이 많이 사는 곳이지만 가끔 낯선 소리가 들려온다. 첫눈이 내린 어느 날 아침, '나'와 아내는 흰 남자 고무신 한 짝이 마당에 떨어진 것을 보고 웬지 모르는 공포감을 느끼며 불안해한다. '나'는 고무신짝을 보면서 어린 시절 이복에 살 때 밭에 떨어진 '지까다비' 한 짝을 보고 공포를 느꼈던 기억을 떠올린다. 아내는 밤에 남몰래 고무신을 남의 집 담장 너머로 던져 버리고 비로소 마음을 놓는다. 열흘 정도가 지나고, 눈이 내린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다른 집 담 너머로 던져 버렸던 고무신짝이 다시 마당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내와 '나'는 공포감에 휩싸인다. 그러다 '나'는 삶의 균형을 잡아 주었던 고향의 '큰 산'을 떠올린다. 아내는 다시 고무신을 버리러 나가고, '나'는 그런 아내의 행동을 묵인한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고무신짝에 얽힌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이기적 속성을 비판하고 있다. 작품 속 주인공이 사는 동네는 현대적 교육을 받고, 교양 있고 합리적인 사람을 자처하는 현대인들이 사는 곳이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미신을 떨쳐 내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 '나'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 공동체를 아우르는 근원적인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큰 산'은 현대인이 상실한 근원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작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인들에게 '큰 산'과 같은 근원적 가치가 회복되어야 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 주제

이기주의로 가득 찬 소시민들의 의식 비판

| 줄거리

김승두가 살고 있는 천동면 놀미 마을은 지대가 높아 지하수를 구하기 어려운데, 계속 되는 가뭄에 김승두는 양수기와 호스를 동원하여 천북면 장승골 저수지 물이 흐르는 길에서부터 자신의 논으로 물을 퍼 올리기로 한다. 그것을 본 유순봉과 장재원은 남의 저수지 물을 훔치는 것이라며 트집을 잡고, 김승두가 그들에게 술을 권하며 달래려는 사이 중년 사내가 나타나 양수기를 돌리며 전기를 훔치고 있다며 문제 삼는다. 그러던 중 민방위 교육 시간이 되어 모두 학교로 모이게 되는데, 부면장이 등장하여 퇴비를 바르게 쌓으라는 잔소리를 늘어놓는다. 이에 불만스러워하던 김승두가 푸념을 하다가 부면장과 시비가 붙는데, 모인 마을 사람들이 모두 김승두를 응원하고 결국 부면장이 사과하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친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우리 동네' 연작의 일부로, '우리 동네' 연작은 1970년대 국가 주도 근대화가 진행되던 농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다룬 소설집이다. 각 작품은 정부와 관청에서 주도하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농촌의 공동체가 변화하고 와해되어 가는 과정을 여러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보여 주고 있다. 작가는 이를 통해 근대화의 부정적 이면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면서도 서술에 있어 방언의 사실적 사용, 토속적 문체와 풍자와 해학을 통해 농촌적 정서를 보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 주제

가뭄으로 인한 농민의 삶과 산업화 시대 농촌의 현실

| 줄거리

늦가을 어느 저녁 무렵 탐진강가 주변의 천씨 사내의 주막에 한 사내가 찾아와 주막집의 눈먼 여인에게 소리를 청한다. 사내는 단가를 부르는 눈먼 여인에게 진짜 소리인 판소리를 제대로 해 달라고 청한다. 사내는 소리를 좋아하게 된 내력을 묻는 여인의 질문에 자신의 내력을 털어놓는다. 어린 시절 떠돌이 소리꾼이 찾아와 사내의 홀어머니와 살게 되고, 어머니가 딸을 낳고 세상을 떠나자 사내는 소리꾼에 대한 증오를 품게 된다. 이후 사내는 소리꾼과 여기저기 떠돌다 도망치지만, 세월이 흘러도 소리를 버리고 살 수가 없어 소리를 찾아 해매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한다. 여인은 사내의 복장단에 맞춰 밤새 소리를 하고, 사내가 자신의 오라비임을 알게 되지만 서로 내색하지 않는다. 이튿날 사내는 주막을 떠나고, 여인은 자신의 사연을 천씨 사내에게 털어놓으며 십 년 넘게 머물던 주막을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서편제>, <선학동 나그네>와 더불어 이청준의 '남도 사람' 연작 중 한 편으로 '한(恨)'이 소리를 통해 깊어지고 예술적으로 승화하는 과정을 한 소리꾼 여인의 기구한 삶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작가는 작가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추리 소설적 기법과 액자 구성의 형식을 통해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소리꾼 여인과 그 아비, 그리고 아버지가 다른 오라비 사이의 관계와 사연을 흥미롭게 전개하고 있다.

| 주제

한(恨)의 예술적 승화

| 줄거리

전쟁 중 1951년 1·4 후퇴 때 피란길에서 사람들의 물결로 붐비는 때를 틈타 일곱 살 수지는 다섯 살 동생 오목(수인)을 은표주박 노리개로 한눈팔게 하여 손을 일부러 놓아 버리고 혼자서 가족에게로 돌아온다. 가족들은 오목을 찾기를 포기하고 피란을 떠나고, 세월이 흘러 전쟁이 끝난 후 성인이 된 수지와 오빠 수철은 부모가 남긴 유산의 덕택으로 유복하게 살아간다. 오목을 찾으려고 고아원 봉사를 지속해 오던 수지는 오목을 만나고 결국은 그녀가 자신의 동생임을 확인하지만, 오목이 자신을 언니로 알고 둘의 관계가 밝혀지면 지난날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여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 수철 역시 겉으로는 수소문하며 동생을 찾으려 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 오목의 행방을 알게 되었을 때 이름 없는 독지가로 잠시 취직을 도울 뿐 그녀를 가족으로 맞아들이기를 꺼린다. 우연히 오목은 수지의 옛 애인인 인재와 인연이 닿아 짝사랑하게 되는데, 수지는 이를 알게 되자 질투를 느껴 둘을 갈라놓고, 그 후 오목은 같은 고아원 출신인 일환과 살게 되는데, 일환은 오목이 낳은 첫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짐작하면서 오목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불행한 가정생활이 이어진다. 이후 자선 사업을 하며 사는 수지와 가난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오목이 다시 만나, 수지는 일환의 중동행을 주선해 주며 그것으로 마음의 빚을 갚으려 하지만 오목은 결핵으로 쓰러지고, 죽음을 앞둔 오목은 수지에게 은표주박을 감사의 표시로 건넨다. 수지는 그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이 언니임을 고백하며 참회하지만 오목은 이미 죽은 뒤였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삼 남매 '수지', '수철'과 '오목'의 이야기를 통해 근대화, 산업화 바람이 불던 1960~70년대 사회의 눈부신 발전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는 전쟁의 아픔을 다룬 소설이다. 전쟁 후 고아원에서 자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오목', 그를 동생인 줄 알면서도 외면하고 부유한 중산층의 삶을 영위하는 '수지'와 '수철'의 엇갈리는 모습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아픔과 계층 문제, 중산층의 위선과 허위의식까지도 아우르고 있다.

| 주제

전쟁의 비극과 이산가족의 아픔, 중산층의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

| 줄거리

이인국은 일제 강점기에 제국 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에서 개업한 의사이다. 그는 의술 실력과 함께 가정과 직장에서 철저하게 일본어만을 사용하는 등 친일적인 행동으로 일제 강점기 내내 안정된 삶을 누린다. 하지만 해방과 함께 소련군이 평양에 진군하면서 이인국은 친일의 죄목으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다. 하지만 이인국은 러시아어를 익히고 소련군 장교의 혹을 수술하면서 그의 환심을 얻고 풀려나며 그의 배려로 아들을 소련으로 유학까지 보내게 된다. 이후 14 후퇴를 계기로 월남하면서 친미파로 거듭난 이인국은 의사로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자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하며 이를 위해 미국 대사관의 브라운에게 값비싼 고려청자를 선물하며 환심을 얻고자 한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한국 전쟁에 이르기까지 일신의 안위만을 위해 시류에 편승한 의사 이인국의 삶을 그리고 있다. 이인국은 일제 강점기에는 철저하게 친일파(親日派)로 살고 해방 직후에는 재빨리 소련에 빌붙어 친소파(親蘇派)로 변모하며 한국 전쟁의 14 후퇴 이후에는 월남하여 친미파(親美派)로 돌변한다. 작가는 이인국의 삶을 통해 권력에 빌붙어 출세에 연연하며 개인적 영화에만 몰두한 기회주의자의 속물성과 노예근성을 폭로하면서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일면을 고발한다.

| 주제

시류에 타협하며 출세 지향적 삶을 사는 영악한 기회주의자에 대한 비판

| 줄거리

'나'는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 대한 원고를 써 달라는 청탁을 받지만 어린 시절의 고향에서의 기억으로 씩 내키지 않는다. 어린 시절 '나'는 '은별'이라는 이름의 노새를 끄는 당숙의 양자가 된다. 자식이 없는 당숙과 당숙모는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성을 기울이지만 '나'는 노새를 끄는 당숙이 부끄러워 양자가 되길 거부한다. '나'의 완강한 저항에 당숙은 집을 나가고 '나'는 봉평까지 찾아가 당숙을 만나 '아부제'라고 부르기로 약속한다. 함께 노새를 끌고 메밀꽃이 핀 밤길을 걸어 돌아오면서 당숙과 많은 대화를 나눈 '나'는 이후 당숙의 집에서 양자로 살게 되지만 '은별'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나'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은별'은 다리를 다쳐 죽게 되고, 그때 울고 있는 당숙을 보게 된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주인공인 이수호라는 인물의 유년 시절을 통해 자아 성장의 과정을 보여 준다. 중학생 시절 수호는 집안 어른들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당숙네 양자가 되지만 노새를 끄는 당숙이 몹시 부끄러워 양자가 되길 거부한다. 결국 당숙을 '아부제'라 부르게 되고 양자로 들어가지만 근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이 작품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과 상호 텍스트 관계에 있는 소설로, 「메밀꽃 필 무렵」의 공간적 배경과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그와는 달리 인위적으로 양부와 양자를 맺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을 통해 끈끈하고 애달픈 사랑을 보여 주고 있다.

| 주제

양부와 의 갈등과 화해를 통한 내면의 성장

| 줄거리

북에서 부유하게 살던 철호 가족은 북한의 공산주의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하자 월남하여 남한의 해방촌에 살게 된다. 철호는 계리사 사무실에서 일하며 힘겹게 가족을 부양하지만, 그들 가족은 고향에서와 달리 매우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남한에서의 비참한 삶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만을 꿈꾸던 어머니는 전쟁 중에 정신 이상이 된 후로 계속 '가자'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외쳐댄다. 한편 제대 후에 취직하지 못한 동생 영호는 사회에 불만을 품은 채 방황하며, 양심대로 살려는 철호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결국 영호는 권총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붙잡히고,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죽고 만다. 철호는 이러한 비극적 상황에서 정신적 혼란을 느끼며 택시 행선지를 이리저리 바꾼다. 이런 철호를 보며 운전사는 '오발탄'과 같은 손님이 났다고 투덜거린다.

| 이해와 감상

이 소설은 월남한 철호 가족의 비극적 삶을 통해서 6.25 전쟁 직후 우리 사회의 혼란상을 그린 작품이다. 작가는 곤궁하게 살아가는 가족의 가장이자 사무직 노동자인 철호, 정신 이상으로 '가자'만 외쳐대는 어머니, 가난으로 인해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된 아내, 일확천금을 꿈꾸며 강도 행각을 벌이다 잡히는 영호 등의 모습을 통해 당대 사회의 비극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처참한 사건이 중첩된 위기 상황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며 자신이 '오발탄'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고 생각하는 철호는 혼란스러웠던 당대의 사회상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 주제

6.25 전쟁 후의 황폐한 사회에서 양심적 삶을 살려다 좌절하는 인간의 비극

| 줄거리

'나'의 아버지는 부면장네 머슴으로 '나'는 아버지를 따르고 존경한다. 이후 6.25 전쟁이 발발하고 아버지는 이념 대립의 와중에 부면장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한다. '나'는 아버지의 시신을 묻은 후 쫓기듯 고향을 떠난다. 오랜 세월이 흘러 성공한 '나'는 아버지의 무덤 이장을 위해 고향인 월곡리로 돌아온다. '나'는 장돌식을 만나 마을의 근황을 전해 들으며 '나'가 떠나고 5년 뒤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졌음을 알게 된다. 이장 당일, 마을 사람들은 한데 모여 '나'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신나게 판을 벌인다. 이장이 끝나고, '나'는 아버지의 이름과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후 마을 사람들의 당황하는 표정을 기대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별로 놀라지 않았다. 외려 처음부터 왜 밝히지 않았는지 묻거나, 돈 벌어서 효도 한번 푸짐하게 잘했다는 등의 덕담을 건넬 뿐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한을 풀어 주기는커녕 되레 아버지를 욕보이고 말았다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30년 전 아버지의 무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올려 두었던, 커다란 돌만을 챙긴 채 버스를 타고 고향을 떠난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전쟁 중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해 애쓰는 '나'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귀향한 '나'는 아버지의 묘지 이장 과정에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을 동원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억울함은 이미 소명된 후였으며, 또한 세월의 흐름 앞에 기억과 상처 등이 무디어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복수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아버지를 욕되게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는 상처의 치유가 복수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는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 주제

인간성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분열되는 전쟁의 참담함

| 줄거리

올해로 일곱 살인 '나'는 집안 사정과 동네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조숙한 아이이다. '나'는, 선옥이 언니를 흠모하여 '나'에게 잘 대해 주는 형제 슈퍼 주인인 김 반장과 동네에서 모자란 사람 취급받는 몽달 씨와 친구로 지내고 있다. 어느 날 '나'는 부모님의 부부 싸움을 피해 형제 슈퍼 앞에 앉아 있다가 불량배들에게 쫓겨 김 반장의 슈퍼에 들어온 몽달 씨를 보게 된다. 몽달 씨는 김반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외면당한다. 불량배들에게 폭행을 당한 몽달 씨는 지물포 주씨 아저씨의 도움을 받는다. 불량배가 도망간 뒤에야 몽달 씨를 부축하며 불량배들을 성토했던 김 반장이 싫어진 '나'는, 이후 아무렇지도 않게 가게에 나와 김 반장을 돕는 몽달씨를 바보 같다고 생각한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작가의 『원미동 사람들』 연작 중 하나로, 일상인들의 소시민적 근성과 세태를 고발하는 동시에 그들을 향한 작가의 연민과 애정의 시선을 보여 주고 있는 단편 소설이다. 사건의 핵심 인물은 두 사람인데, '김 반장'은 소시민적 근성을 보여 주는 전형적 인물로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는 친구도 외면할 수 있는 이기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다른 한 사람은 동네에서 바보 취급을 받는 '원미동 시인' 몽달 씨로 그런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보듬어 주는 존재이다. 한편 이 작품은 '나'라는 어린아이 서술자를 설정함으로써 어린아이의 순수한 시선을 통해 어른들의 부정적 세계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주제

소시민적 근성에 대한 비판과 인간다운 삶에 대한 향수

| 줄거리

새 학기에 임시 반장이 된 '나'는 메스껍게 굴었다는 이유로 재수파에게 끔찍한 폭행을 당하게 된다. 얼마 후 가정 방문을 온 새 담임은 자신의 뜻을 숨기고 '나'에게 반장직을 맡길 테니 학급의 정보를 자신에게 자주 알려 달라고 부탁하지만 '나'는 1학년 때의 첩자 노릇에 대해 회의를 느낀 데다가 담임의 의도를 파악한 상태여서 제안을 거절하고 대신 임형우를 추천한다. 이후 반장이 된 형우와 담임은 재수파를 해체시키고 기표를 몰락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형우는 기표를 무력화하려는 목적 아래, 표면적으로는 기표를 돕는다는 명목을 내세워 커닝을 주도하지만 그로 인해 기표의 심기를 거스르게 되어 재수파들에게 폭행을 당한다. 그러나 형우는 기표를 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부각하고 그 과정에서 기표는 점점 소외된다. 재수파는 임형우를 폭행한 이후 와해되고, 형우와 담임은 기표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밝힌 후 모금 운동까지 벌인다. 기표의 이야기는 퍼지고 퍼져 신문에 실리고 영화 제작까지 이뤄지게 된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기표는 여동생에게 편지를 남긴 후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된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고등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하여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양상의 폭력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의 서술자인 '나'는 합리적이고 날카롭지만 다소 냉소적인 태도의 소유자로, 기표의 폭력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표를 제압하려는 담임과 형우의 태도에서 위선을 감지하고 불만을 느낀다. 작가는 이러한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함으로써 기표가 일으키는 물리적 폭력과 기표를 제압하기 위한 담임과 형우의 주도면밀하고 위선적인 술책 중 무엇이 더 폭력적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 주제

호의를 가장한 위선의 폭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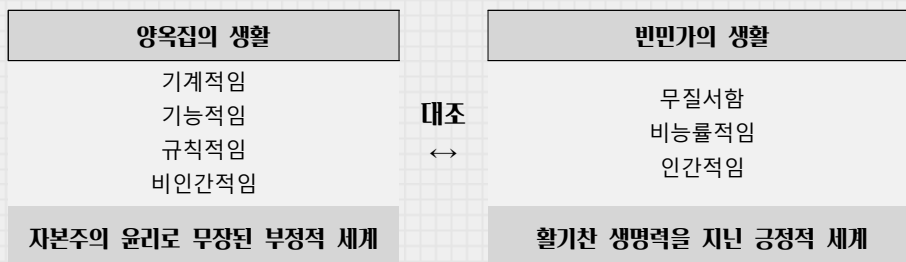
| 줄거리

'나'는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젊은이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야기 속의 '나'는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 유학 와서 희곡을 공부하는 대학생이다. 창신동 빈민가에서 생활하다가 친구의 권유로 이사 간 양옥은 규칙적인 생활 제일주의를 가풍으로 하고 있다. 양옥의 생활이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답답하다고 느낀 '나'는 삶의 생기가 느껴졌던 창신동 집을 떠올린다. 창신동 빈민가에서 '나'는 창녀 영자, 깡마른 절름발이 사내와 영양실조인 그의 딸, 사십대 막노동자 서 씨와 생활하였다. 서 씨는 '나'에게 동대문에서 성벽의 돌덩이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나'는 이런 서 씨의 모습을 떠올리며 양옥의 생활에 대해 견딜 수 없는 권태를 느껴 양옥의 식구들이 마시는 물에 흥분제를 타고 사건이 터지기를 기다린다. 이야기를 끝낸 젊은이가 '어느 쪽이 틀렸을까요?'라고 묻지만 '나'도 알지 못한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현대인의 꼭 짜인 기계적인 일상 생활을 풍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한 일상 생활은 능률과 효율을 우선시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는 새 하숙집의 빈틈없는 규칙적인 생활로 대변된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는 본래 생겨난 목적을 잊어버린 질서라는데 문제가 있다. 좀더 나은 삶이라든가, 행복을 위해 생겨났을 질서가 이제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규칙으로 변질된 것이다. 즉, 양옥으로 대변되는 하숙집의 생활은 작위적이고 비인간적인 세계 - 전통의 이름으로 인간을 억압하는 비인간적인, 인간을 기능적인 대중으로 여기는 자본주의 윤리로 무장된 부정적인 세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인공은 빈민가의 무질서하고 비능률적인 생활을 도리어 그리워하게 된다. 그곳의 불결함이나 부도덕함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있던 활기찬 생명력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그러한 생명력은 역사인 서씨의 비능률적인 행위 속에서 극적으로 표현된다.



| 주제

현대인의 기계적인 일상 생활에 대한 풍자

| 줄거리

난쟁이인 아버지, 어머니, 영수, 영호, 영희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도시 빈민으로서 낙원구 행복동에서 유리창 닦기, 수도 고치기 등의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날 재개발 사업으로 집이 철거될 상황에 처하는데 행복동 주민들은 대부분 다른 곳에 들어갈 입주비가 없어서 입주권을 투기 회사에 팔고 행복동을 떠나는 상황이다. 난쟁이 가족도 입주권을 팔지만 전세금을 내준 후에는 남은 돈이 거의 없어 집도 빼앗기고 거리에 나왔을 판이다. 영희는 가족으로부터 입주권을 구입한 투기업자를 따라갔다가 순결을 빼앗긴다. 영희는 투기업자의 금고에서 돈과 입주권을 들고 나와 동사무소에서 입주 절차를 마치고 신애 아주머니를 찾아간다. 아버지가 벽돌 공장에서 자살했음을 알고 영희는 오빠에게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죽이라고 말한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부터 내몰리게 된 도시 빈민의 생활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가 지닌 모순을 파헤치고 있는 1970년대를 대표하는 소설이다. 난장이 아버지는 언제나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을 면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가난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으로 가야만 했던 난장이 가족의 비극을 통해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가 겪었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소외의 문제를 그리고 있다. 출제된 부분은 소설의 앞부분으로 어렵게 마련한 집을 철거하라는 철거 계고장을 받은 가족들의 반응들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다. 어머니와 영수는 현실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알루미늄 표찰을 떼려고 하는 반면 영호와 영희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 난장이 아버지는 지섭과 교류하면서 사랑은 없고 물신주의적 욕망만 남아 있는 이 세상을 버리고 달나라로 갈 결심을 한다.

| 주제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게 된 도시 빈민들의 비참한 삶

| 줄거리

병일은 성 밖 빈민굴에 살면서 맞은편 성 밖에 있는 공장에 사환 겸 사서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의 집에서 공장에 이르는 길을 왕복한다. 그 왕복하는 길에 누군가가 있다고 해도 병일은 그들이 늘 노방의 타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비오는 어느날 비를 피하려고 사진관 앞에서 있다가 사진관 주인과 사귀게 된다. 사진사는 병일에게 술을 권하면서 큰 사진관을 열겠다는 그의 꿈, 사람사는 재미를 추구하는 그의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사진사의 이야기에 조소하지만 다음날 또 다시 사진관을 찾아가게 된다. 병일은 희망과 목표를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만이 지향 없이 고독을 느낀다는 생각을 한다. 공장에서 오면 늘 책을 보던 버릇도 그만 두고 병일은 신문사의 생활인으로서의 면모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평양에 장질부사가 돌 때 이칠성이라는 그 사진사가 죽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병일은 노방의 타인은 언제까지나 노방의 타인이기를 원하게 되고, 이제부터는 더욱 독서에 강행군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 이해와 감상

이 소설은 병일이라는 한 인물의 눈에 비친 1930년대 말의 조선의 현실과 그의 내면을 그리고 있다. 병일은 매일 자신의 셋방과 출근지인 공장을 왕복한다. 이때 병일이 왕복하는 길은 생활의 공간이기보다는 자의식이 흐르는 길이라고 볼 수 있다. 병일은 이 길에서 사진사 이칠성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칠성은 소시민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공장에 다니면서도 독서에 몰두하는 병일은 이러한 삶의 방식을 경멸하면서도 또한 동경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이칠성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된다. 그러자 병일은 다시 원래의 삶으로 되돌아간다.

| 주제

지식인의 고뇌와 자아에 대한 생각

| 인물 간의 갈등

병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의식 과잉의 지식인 • 소시민적 삶을 거부함. • 뚜렷한 삶의 목표가 없음. • 삶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임

사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범한 사진사 • 소시민적 삶을 추구함. •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음. • 삶에 대한 단일한 태도를 보임.

| 줄거리

고향을 등지고 도시 변두리에 자리 잡은 우리 가족은 노새를 운송 수단으로 하여 배달을 하며 근근이 살아간다. 노새 배달이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자 많은 주문이 들어온다. 그러나 연탄 배달을 하던 마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노새는 달아난다. 노새가 달아나자 도시에 정착하고자 했던 가족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아버지와 나는 밤이 되도록 노새를 찾아 헤매지만 찾지 못한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노새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가게의 물건을 박살 내, 순경이 다녀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집을 나선다. 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노새의 모습을 본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산업화로 인한 변화와 그 소외를 '노새'라는 소재를 통해 풀어내고 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 하는 노새는 산업화로 인해 정신적 뿌리를 상실했지만 가장의 책임을 다하려는 아버지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즉 '노새'는 이 시대를 힘겹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아버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노새'가 소설 속에 등장하는 배경에는 도시화로 인해 고향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워 하는 도시민들의 고달픔과 소외감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 주제

소외된 가족의 삶

| 줄거리

수택은 가족과 함께 농촌인 고향으로 귀향을 한다. 그런데 수택에 대한 고향 집 아버지의 시선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타지에서 생활하던 수택이 설을 쇠고 고향에 왔을 때, 고향 집에 도둑이 든 일이 있었다. 수택이 유도 실력으로 도둑을 잡았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몰인정하다며 수택을 책망한 적이 있다. 수택은 그런 아버지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러던 수택이 동경으로 유학을 다녀온 뒤 신문사 기자 생활을 하다가 생활에 회의를 느껴 귀향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농촌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자 수택은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게 될 뿐이다. 또한 스스로 패배자라고 자학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농사일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흄냄새의 의미를 알아 나간다. 수택은 가을 추수를 마친 후 농사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만, 정작 소작료와 비료대와 지세(地稅)를 제하자 허망함을 느낀다. 이에 아버지가 거친 목소리로 지계를 지라고 호통을 친다. 아버지의 호통에 수택은 눈과 콧속이 화끈해지며 넘어진다. 그리고 수택은 일어나 코피를 흘리며 걸어간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1939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이다. 지식인이자 신문 기자였던 수택이 농촌으로 귀향하여 진정한 농민이 되어 가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불분명한 귀향 동기, 다소 낭만적인 농촌 현실에 대한 묘사 등으로 인해 당대의 농촌 현실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지만, 한국 농촌의 전통적 윤리관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갖는다.

| 주제

농촌 생활에 대한 향수와 애정(도시 지식인의 귀농과 흄에 대한 예찬)

| ‘흄내’의 의미와 수택의 변화

허영에 찬 도시인	→	진정한 농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흄내에 대한 반감 • 경치에 대한 불만 	조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 제일과를 마침

| 줄거리

'나'의 가족은 전쟁이 멈춘 한두 해 전 '나'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시골 마을을 떠나 도시로 이사를 갔다. 도시에 닿아 첫 저녁을 먹었는데 '나'는 그 밥을 먹고 배탈이 나 밤중에 세 차례나 공동변소를 들락거렸다. 전학을 간 학교에서는 덩치 큰 녀석들에게 아무런 저항 없이 두들겨 맞았다. 먹고사는 문제를 풀지 못한 아버지는 풀빵과 냉차를 팔기 시작했으나 오래 가지 못한다. 형편상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음을 알게 된 '나'는 백화점에서 점원으로 일한다. 한편 아버지는 장물인 줄도 모르고 짐을 운반하다가 징역살이를 하게 되고, '나'는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일요일이면 교회나 성당을 드나든다. 그해 가을 어머니는 국물 없는 국수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운명한다. 아버지가 출옥했지만 사정은 금방 나아지지 않고, '나'는 구두닦이를 하다가 천막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다. 장난감 같은 도시의 고단한 삶 속에서 '나'는 떠나온 시골 학교의 정경을 떠올리면서 그 곳 책상에 남긴 낙서들을 기억하려고 애쓴다.

| 이해와 감상

이 소설은 '장난감 도시', '굶주린 혼', '유다의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작 소설이다. 한국 전쟁 후 시골에서 이사를 나가 장난감 같은 도시 속에서 무능한 아버지와 병약한 어머니, 그리고 누이와 소년으로 이루어진 네 식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소년이 험난한 삶을 어떻게 배우는지를 보여준다. 판자촌을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의 일상이 묘사되기도 하는데, 지문에 제시된 부분은 이웃집에 사는 주 씨 가족의 생활상이 나타난 대목으로, '장난감 방'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 주제

판자촌 주민 주 씨 가족의 애환

| 줄거리

조의관은 개인의 이익을 피하고 집안의 위신을 높이는 일에 최대의 가치를 두는 인물로서, 을사조약을 전후해서 사회가 혼란해지자 큰돈을 투자해 족보를 만든다. 기독교에 물든 아들 상훈이 제사도 지내지 않으리라는 판단 때문에 조의관은 아들을 불신하여 별거하고 있으며, 며느리보다 더 젊은 부인을 후취로 얻어 산다. 상훈은 아버지 조의관의 가문 치장이나 족보 사업을 쓸데없는 일이라고 반대한다. 손자인 덕기는 일본에 유학하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틈바구니에서 많은 정신적 갈등을 경험하고, 가난한 하숙집 딸 필순에게 사랑을 느낀다. 조부의 죽음 이후 덕기의 집안은 점점 몰락하게 되고, 사회는 3·1 운동의 실패로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 사회주의자들 간에 불신과 반발이 고조되고 테러 행위가 자행되는 가운데 필순의 아버지도 여기에 희생되면서 그의 가족을 덕기에게 부탁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덕기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한다.

| 이해와 감상

이 소설은 삼대에 걸친 가계의 전개를 통하여 식민지 시대인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대지주이며 재산가인 할아버지 조의관은 양반 행세를 하기 위해서는 족보까지도 사들일 정도로 명분과 형식에 얽매인 봉건적 인물이며, 구세대의 전형으로 묘사되어 있다. 아들 상훈은 교육과 교회 사업에 힘쓰는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봉사를 피하려고는 하지만, 그의 아버지 조의관의 거대한 재산을 이용하여 애욕에 사로잡힌 이중인격적 생활에 빠져 있는 과도기적 인물이다. 손자 덕기는 사회의식에 있어서 공평성과 정의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용기가 없고 소극적이며 도피적 반응밖에는 나타내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인물이다. 즉 삼대로 상징되는 유교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현실을 그린 이 작품은 당대 사회의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 주제

삼대의 삶과 가치관의 갈등

| 줄거리

동경 유학 중인 '나'(이인화)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한다. 귀국하는 배 안에서 '나'는 일본인이 조선인을 멸시하는 것을 보면서 분개하게 되고, 조선 민족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조선에 도착해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가는 과정과 고향에서 지내는 중에 '나'는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인 사고 및 습관에 갇혀 생활하는 조선인의 모습을 보고 답답해한다. '나'는 아내의 죽음 또한 구태의연한 인습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더기가 들끓는 공동묘지와 같은 조선의 현실에서 도망치듯 동경으로 떠난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주인공 '나'가 동경과 서울을 오가는 과정에서 목격한 3.1 운동 직전의 우리 민족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피폐해진 상황 속에서도 전근대적 가치관에 얽매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조선 민족이 처한 암담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민족적 현실을 마주한 주인공 '나'는 고뇌에 빠지지만 마땅한 현실 대응 방식을 보여 주지 못하고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만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 작품은 동경에서 출발하여 부산과 김천 등을 거쳐 서울에 도착하고, 다시 동경으로 떠나는 원점 회귀형의 여로 구조를 통해 주인공이 사회 현실을 인식하면서 내면적 의식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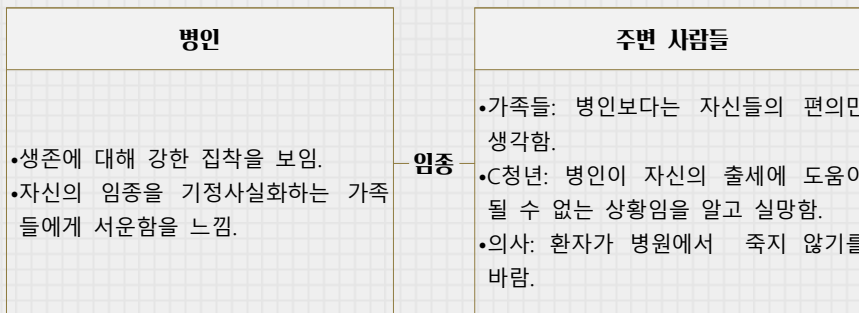
지식인의 눈으로 본 조선의 암담한 현실과 지식인의 나약한 모습

| 줄거리

환갑을 바라보는 한 가장이 어느 날 뇌내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다. 병세가 날로 심각해지자 환자는 유언을 남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으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랜 병구완으로 지친 그의 가족들은 장례식을 치를 방법만 생각한다. 병인(病人)은 그런 가족들의 태도에 서운해한다. 그러던 어느 날 병인이 퇴원을 원하자 가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퇴원시키지만 병인은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죽고 만다. 그는 퇴원하기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빈소에 안치되고, 가족들은 그의 유언과 종교에 상관없이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고는 제각기 소임을 다했다는 만족감을 느낀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1949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인물과 인물의 대립, 한 개인의 내면적 갈등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는 서사 갈래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죽음을 앞두고 생존에 집착을 보이는 환자의 심리와 겉으로는 그를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가족들의 태도를 냉정하게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작가는 이를 통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타인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만을 중시하여 이기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씁쓸한 진실을 전달하고 있다.



| 주제

죽음을 대하는 인간의 이기적 본능

| 줄거리

'나'는 화가이다. 형 친구의 소개로 한때 화실에 나왔던 '나'의 애인인 '혜인'에게서 청첩장을 받는다. '나'는 무기력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림은 진전이 없다. 형은 의사인데, 6·25 전쟁 때 패잔병으로 낙오되었다가 동료를 죽이고 탈출했다는 아픈 과거를 지니고 있다. 형은 달포 전 수술을 받던 어린 소녀가 죽자 병원문을 닫고 6·25 전쟁 체험담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나'는 형의 방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형이 쓴 소설을 보게 된다. 그림에 진전이 없던 '나'는 형 대신 소설의 결말을 써 나간다. 형은 내가 쓴 결말을 읽고는 병신, 머저리라고 '나'를 욕한다. 그런데 '혜인'의 결혼식에서 돌아온 형은 자신의 소설을 태워 버린다. 결혼식장에서 오관모를 만났다는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 형은 건강한 생활인으로 돌아가 다시 병원문을 연다.

| 이해와 감상

6·25 전쟁에 참전한 형과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동생이 '소설'이라는 매개 장치를 통해, 서로 다른 정신적 고통과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즉, 전쟁을 겪으면서 직접적인 상처를 받은 형과, 다만 관념으로서의 아픔을 지니고 있는 동생 간의 갈등과 대립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과 대립은 그들이 겪은 경험의 차이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환자의 죽음으로 인해 받은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소설적으로 변형시키는 형과는 달리, 동생은 자신이 지닌 상처의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할 방법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의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여건이 되는 '경험'과 '관념'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 주제

두 형제의 서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인한 아픔과 그 극복 과정

| 제목의 의미

죄책감에 시달려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다가 자신의 정신적 상처를 알고 이를 극복하는 형을 '병신'이라 한다면, 자신이 지닌 상처의 근원조차 알지 못하며 무기력하게 자신을 포기하며 살고 있는 동생을 '병신이자 머저리'로 볼 수 있음.

| 줄거리

서울에서 일상적인 삶을 무력하게 살아가던 '나(남 기자)'는 '승천(昇天)한 줄광대'에 대한 기사를 취재하라는 부장의 지시에 따라 고향인 C읍으로 내려간다. 그곳에서 '나'는 예전에 '승천한 줄광대'와 함께 서커스단에서 트럼펫을 불었다는 거의 폐인이 된 '사내'로부터 승천한 줄광대 '운'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운'은 장인(匠人)이 된 아버지 '허 노인'에게서 줄을 배웠다. '허 노인'이 만족할 만큼 '운'은 줄타기에 있어 장인의 경지에 올랐지만, 함께 줄에 오른 날 밤 '허 노인'은 줄에서 떨어져 죽고 만다. 그런 어느 날, 사랑하는 여인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운'은 줄타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 여인이 사랑한 것은 '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줄 타는 모습이라는 사실에 '운'은 마지막으로 줄을 탄 뒤 스스로 떨어져 죽는다.

| 이해와 감상

1966년 "사상계"에 발표된 작품으로, 액자식 구성 속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모색하고 있다. '허 노인'과 아들 '운'이라는 2대에 걸친 줄광대의 삶에 기자인 '나'의 생활을 비추어 봄으로써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지성적인 방법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 작품이다. 일생을 오직 줄타기에 바친 '허 노인'과 아버지의 뒤를 이어 줄타기 장인의 경지에 이르지만 결국 운명의 힘 앞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아들 '운', 그리고 이들의 삶을 취재하는 '나'의 냉소적인 태도를 통해 작가는 가치가 상실되어 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1984년 "황홀한 실종"에는 '줄광대'로 이름이 바뀌어 수록되었다.

|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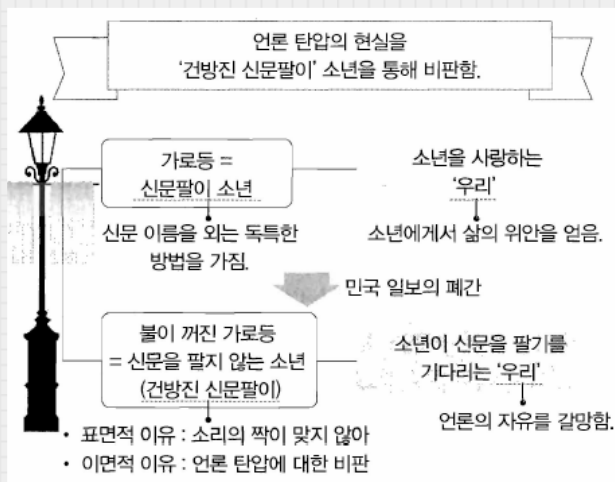
사라지는 전통적 장인 정신에 대한 안타까움과 현대인의 가치 상실

| 줄거리

저녁 9시 버스로 서대문 정류소를 지날 때면 으레 신문팔이 소년을 만날 수 있다. 웃음기 머금은 소년은 독특한 억양으로 순서를 바꾸거나 생략하는 일 없이 여덟 가지 신문의 이름을 외운다. 녀석은 흔히 보는 신문팔이들과는 달리 신문을 파는 일보다 신문 목록 외우는 것을 즐기는 것 같다. '우리'는 소년을 가로등과 같은 존재로 생각한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소년은 보이지 않았다. 신문을 팔지 않게 된 것이다. 이유인즉 소년은 민국일보가 폐간되는 바람에 신문 목록 외우는 대사의 억양과 호흡이 맞지 않아서 신문을 팔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연습이 끝나면 신문을 팔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소년은 신문을 팔지 않는다. 녀석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 건방진 신문팔이로 남아 있을 것이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신문팔이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1970년대 정부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고 언론의 자유를 갈망하는 내용을 우회적 수법으로 표현했다. 대개의 경우 불쌍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신문팔이 소년이, 이 작품에서는 여유 있고 웃음기 있는 모습이다. 신문 파는 것보다 신문의 이름을 한 번씩 외치는 것을 즐기는 소년의 모습은 독자의 호기심과 애정을 유발하고 있다. 소년의 외침은 당시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언론의 자유에 대한 외침으로 들렸을 것이다. 또한 민국일보의 폐간으로 신문팔이를 그만둔 것은 언론 탄압에 대한 저항의 의미이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리들의 갈망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 주제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갈망

| 줄거리

나환자들의 섬 소록도에 군의관 출신의 조백헌 대령이 병원장으로 부임하지만, 첫날부터 원생의 탈출 사고가 일어난다. 조 원장은 불신과 패배감에 젖어 있는 원생들을 격려하여 섬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지만, 원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다. 일제 강점기에 주정수를 비롯한 역대 원장들이 명예와 권력욕을 채우느라 원생들을 혹사시켰기 때문이다. 원생들은 주 원장의 동상을 세우고 매달 참배하는 가운데, 보은(報恩) 감사일에 주 원장은 나환자의 손에 살해당한다.

병원 보건과장 이상욱은 조 원장의 본심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환자 대표 황 장로는 조 원장과 사사건건 대립한다. 이 와중에 원생들은 조 원장에게서 목숨까지 건 맹세를 받아 내고 나서야 비로소 바다를 매립하여 농토를 만들려는 간척 사업 계획에 동참한다. 그러던 중도청의 작업 조사반이 간척장을 당국에서 인수하겠다고 통보하고, 이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조 원장은 전임 발령을 받는다. 전임 발령을 받고 떠나려 하던 중, 황 장로의 진심어린 말을 듣게 되고, 황 장로가 추구하는 것이 사랑이 충만한 공간임을 알게 된다.

강제로 섬을 떠난 지 5년 만에 조 원장은 한 사람의 일상인으로 소록도에 다시 돌아오고, 2년 뒤 감염되지 않은 원생 자녀의 결혼 주례를 맡는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소록도(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라는 특수한 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곳으로 내몰린 나환자들과 이를 관리, 감독하는 원장들에 의한 억압과 착취를 다루면서도, 조 원장의 노력과 사랑, 나환자들의 조 원장에 대한 협력을 통해 행복한 사회의 건설이 한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짐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에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동상'인데, 이러한 동상을 통해 명예와 권력욕을 앞세운 지배 계층의 허상과 지배 권력욕을 상징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진정한 의미의 동상이란 타인을 위한 헌신과 노력을 통한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마음속 동상임을 드러내 주고 있다. 특히, 지식인이면서 비판 의식을 지닌 황 장로가 조 원장의 동상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동상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주제

개발 독재의 허상에 대한 비판과 진정한 이상향에 대한 탐구

| 줄거리

달동네인 '마삿등'의 황거칠 씨는 마을에 수도가 들어오지 않자 직접 산의 물을 끌어다 마을의 물 문제를 해결한다. 이때 호동팔이 나타나 산에 대한 형 호동수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수도 시설의 철거를 요구하지만 황거칠 씨 등 마을 주민들은 이에 불복한다. 호동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서 진 황거칠 씨는 결국 물 사용권을 빼앗긴다. 강제 철거가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저항하던 황거칠 씨와 동네 청년들이 경찰에 연행된다. 풀려난 황거칠 씨는 새로운 산 수도를 설치하기로 하고 국유지 산에다 새로운 우물을 따 수도를 연결하지만 국유지를 불하받았다는 산 주인의 하수인이 나타나 다시 수도 시설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다. 황거칠 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단결력이 강한 T촌 사람들과 함께 불하 취소 투쟁을 하면서, 이번 일이 끝날 때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독립 유공 감사장을 조상들의 무덤에 묻을 것을 다짐한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판자촌인 '마삿등'에 사는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인 황거칠 씨가 마을의 식수권을 쟁취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수도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곤란을 겪는 빈민촌에서 황거칠 씨는 앞장서 산에 우물을 파고 수도 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나 산 수도는 불법 시설이라는 이유로 두 번씩이나 철거될 위기에 처하고, 그 과정에서 황거칠 씨를 비롯한 주민들은 권력을 등에 업은 이들의 횡포에 맞서 나간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작가는,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가난한 민중이 처한 부조리한 현실을 폭로하고, 그러한 현실을 극복할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 주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고발과 소외당한 사람들의 저항

| 줄거리

자신의 친구이자 고등보통학교 조선어 교사인 '박'으로부터 조선어 시간 축소 정책으로 인해 학교에서 설 자리를 잃어 간다는 편지를 받고 십여 년 만에 평양에 오게 된 작가 '현'은 슬퍼 보이는 자연 풍경을 보며 쓸쓸함을 느낀다. '현'은 몰라보게 달라진 평양 시가지의 모습과, 아름다워 보이던 풍속인 여인들의 머릿수건이 사라진 현실을 보며 서글픔을 느낀다. 그는 동일관에서 친구 '박'과 또 다른 친구 '김'을 만나고 오래전에 인연이 있던 기생 '영월'도 만나게 된다. 실업가인 '김'은 여인들의 머릿수건에 대한 금지령을 내리고 한 부회의 의원으로 있는 친구이다. '현'과 '김'은 평양 여인들의 머릿수건에 대해 언쟁을 벌이고, '박'은 '영월'의 노래에 눈물을 글썽이며 이어받아 부른다. '김'은 기생들과 서양 댄스를 추고 '현'은 이를 못마땅하게 바라본다. 실속을 차리라는 '김'의 충고에 '현'은 컵을 던지며 분노를 표출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겠느냐며 싸움을 말리는 '박'에게 '현'은 '김'이 미워서 그렇게 화를 낸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차고 고요한 대동강의 밤 강물을 바라보던 '현'은 '이상견빙지'라는 말을 되뇌면서 비감에 젖는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의 내용은 1937년 중일 전쟁을 계기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전시 체제로의 질서 재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일 전쟁을 계기로 식민지 조선 사회의 전 부문을 전시 동원 체제로 정비해 나가던 일제는 한반도를 일본화하여 내선일체를 구현하는 것을 통치의 최고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이 작품에서 문제시하고자 한 것은 조선 고유의 문화와 민족정신을 말살하고 조선인들의 저항 의지를 말살시키려 했던 부분이다. 민족혼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조선어 시간의 축소와 평양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여인들의 머릿수건의 상실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상당히 암시적인 수준에서이긴 하지만 당시에 민족문화를 말살하려는 일제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그러한 현실에 안주하려는 당시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담고 있는 소설이다.

| 주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느끼는 비감(悲感)

| 줄거리

'나'는 성북동으로 이사를 와 '황수건'을 만난다. 그는 못난이지만 천진하고 순박한 사람이다. 아내와 함께 형님 집에 얹혀살면서 학교 급사로 일하던 중 쫓겨나 신문 배달 보조원 일을 한다. 그의 희망은 정식 배달원이 되는 것이나 못난이라는 이유로 그 꿈은 번번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나'는 그가 배달원 자리마저 잃자, 그가 급사로 있었던 삼산 학교 앞에서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돈 삼 원을 준다. 그러나 참외 장사마저 실패하고 아내는 달아난다. 달포 만에 찾아온 황수건은 포도를 대여섯 송이 사왔다며 '나'에게 주지만, 곧 사람이 쫓아와 그 포도는 훔쳐온 것임이 들통난다. '나'는 포돛값을 물어주고, 그의 마음을 알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어느 날 밤, 서툰 노래를 부르며 황수건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만 '나'는 그가 무안해할까 봐 나무 그늘에 얼른 몸을 숨긴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성북동으로 이사 온 후 처음 만난 황수건이라는 못난이의 아둔한 세상살이를 서술자'나'가 곁에서 지켜보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작가 이태준은 우둔하지만 순박한 품성을 지닌 황수건이 세상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실패를 거듭하는 인생담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적인 정이 사라져 가는 각박한 세태를 넉넉히 꼬집고 있다. 1930년대 어느 여름철의 성북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주인공의 직접적 행동이나 이념적 진술보다는 관찰자의 주관성에 의해 해설되고 있다. 황수건의 좀 모자라는 행동이나 생각은 관찰자가 갖고 있는 동정적 해설에 의해 순수한 것으로 또는 인간미로 바뀌며 연민을 자아낸다. 인물의 비극적인 삶과 희극적인 일화를 달밤의 정취 속에 응축하여 표현하였다.

| 주제

순박한 주인공의 안타까운 삶에 대한 연민

| 줄거리

일제 시대의 지주이자 고리대금업자인 윤 직원 영감은 일본인이 들어와 불한당을 막아 주고 '천하태평'을 보장해 주었다고 믿고 진심으로 일본인들을 고맙게 생각한다. 출처가 불확실한 돈을 모았던 그의 아버지가 구한말 시절에 화적들의 습격을 받아서 죽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권력과의 결탁을 통해 돈을 벌고 지키기 위해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 데 아낌없이 기부도 한다. 또 양반 족보를 사서 도금도 한다. 그는 손자 종수와 종학이 군수와 경찰서장이 되어 가문을 빛낼 것을 기대하지만, 아들 창식은 집을 돌보지 않고 노름으로 밤을 새며 가산만 탕진하고 있고, 군수를 시키려던 손자 종수는 아버지의 첩 옥화와 정을 통하는 불륜을 저지른다. 며느리나 손자며느리도 고분고분하지 않고 딸마저 시댁에서 소박맞고 와서 함께 살고 있다. 이에 윤 직원 영감은 고압적으로 집안 분위기를 억누르고 있던 차에,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고 있던 손자 종학이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피검되었다는 전보를 받고 충격을 받는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를 배경으로 지주이자 고리대금업자인 윤 직원 영감을 통해 사회의 모순과 중산 계층의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모습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 서술자는 반어적 수법으로 부정적인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으며, 독특한 어투를 사용하여 독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부정적 인물을 조롱하고 있다. 제목인 '태평천하'는 윤 직원 영감이 일제 강점기를 지칭하는 단어로써, 그의 왜곡된 현실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야기를 구연하는 듯한 문체가 특징적이다.

| 주제

일제 강점기 한 지주 집안의 세대 간 갈등과 가족의 붕괴

| 줄거리

‘나’는 대학교까지 나와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감옥살이를 하고 폐병에 걸려서 지금은 앓아누워 있는 오촌 고모부인 아저씨가 못마땅하다. ‘나’는 한심한 아저씨를 아주머니가 온갖 고생을 하며 수발하고 있다는 것과 ‘나’가 어떻게 해서 아주머니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를 밝힌다. ‘나’는 일본인 상점의 종업원인데 곧 자립하여 일본 여자와 결혼하고 일본에 가서 살기를 바라는 꿈이 있다. 그런데 아저씨 같은 사회주의 운동가들로 인해 세상이 망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자신의 꿈이 깨어진다고 생각하여 아저씨 같은 사회주의자들을 못마땅해 한다. 또한 ‘나’는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며 아저씨를 대놓고 비난하면서 아저씨와 갈등을 일으키는데, ‘나’와 아저씨는 서로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말다툼을 벌인다. ‘나’는 아저씨에게 아주머니에게 은공을 갚으라고 말하고 아저씨는 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하는데, 이런 아저씨를 보며 ‘나’는 아저씨가 어서 죽어야 하는데 자꾸 살아나 걱정이라고 생각한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1930년대의 시대상을 풍자하는 내용으로 당대를 인식하는 작가의 시각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점과 문체의 영역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는다. 이 작품은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옥살이를 하고 나온 아저씨의 좌절을 어리석은 ‘나’(조카)의 눈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소설은 정교한 묘사나 치밀한 구성 대신 대화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문체는 대체로 풍자적이고 반어적인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나’의 시선을 통해 아저씨의 비현실적인 사고방식을 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나’의 생활 방식을 은근히 비판하면서 오히려 아저씨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칭찬과 비난을 서로 역전시키는 방법에 의해 식민 통치에 협력하는 현실 순응형 인물을 은근히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자인 아저씨를 적극적으로 긍정하지는 않음으로써 아저씨의 한계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주제

식민 통치에 순응하려는 어리석은 ‘나’와 당대 지식인인 아저씨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통한 사회 현실 비판

| 줄거리

광복이 되면서 일본인들이 토지와 재산을 두고 쫓겨 갔다는 소식을 듣고 한 생원은 일본인에게 판 땅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뜬다. 그것은 자신이 땅을 팔면서 큰소리쳤던 일이기도 했다. 그의 아버지는 동학 농민 운동과 관련하여 무고하게 옥살이를 하고 눈 열세 마지기를 빼앗겼다. 한 생원은 그나마 남은 논과 땅도 술과 노름으로 빚이 늘어나자 일본인들에게 팔아넘겼다. 그러나 해방 후 발표된 정부의 토지 정책은 그가 땅을 되찾을 수 없는 정책이었다. 분노에 찬 한 생원은 해방이 되던 날 만세를 부르지 않기를 잘 했다고 자조한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1946년『해방 문학 선집』에 실린 단편 소설로 광복 직후 과도기적 사회 모습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광복 전이나 광복 후나 가난한 소작농의 삶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한 생원의 말을 통해 나라의 정책을 은근히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다.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해서 살림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하면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한 생원도 풍자의 대상으로 이중 풍자의 묘미를 주고 있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무지함과 해방이 된 후 개인적 이익에 집착하는 한 생원의 소아(小我)적 사고를 풍자함으로써 역사적 전환기에 선 우리 민족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게 한다.

| 주제

광복 직후 농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소아(小我)적 인물에 대한 비판

| 줄거리

고향에서 군산으로 이사를 한 정 주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살림이 줄어들어 집마저 팔게 된 후 미두장의 하바꾼(밑천 없이 투기하는 이)으로 전락한다. 정 주사에게는 두 딸(초봉과 계봉)이 있는데, 초봉은 아버지 친구인 제호의 약방에서 점원으로 일한다. 그녀는 미모와 다소곳한 행동으로 제호와 승재, 태수의 마음을 끈다. 초봉은 승재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부자인 태수의 청혼을 받아들인 아버지의 결정을 따른다. 한편 형보는 태수를 죽게 하고 자신이 초봉을 차지하려 한다. 형보에게 추행당한 초봉은 살림을 부모에게 맡기고 제호를 찾아가서 그의 여자가 되지만, 마음속에 늘 승재를 품고 있다. 형보는 돈을 번 후 제호에게서 초봉을 데려간다. 초봉은 지옥 같은 형보와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형보를 죽이고 자결할 결심까지 한다. 승재는 의사 시험에 합격하고 계봉과 사랑하리라 생각하고, 계봉에게 청혼하나 계봉은 확답을 피하고 초봉의 이야기를 꺼낸다. 승재는 계봉으로부터 초봉의 기구한 사정을 전해 듣는다. 승재는 초봉을 형보의 굴레에서 빼내려고 초봉을 찾아 나서지만, 초봉은 이미 형보를 죽인 후였다. 계봉은 초봉에게 자수를 권하고 초봉은 승재에게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말을 한다.

| 이해와 감상

1937년부터 이듬해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된 채만식의 풍자적인 장편 소설이다. 금강을 서사의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탁류'란 이것을 일차적으로 연상하게 하지만 사실상 좁게는 개인의 일생을, 넓게는 당대 식민지의 역사의 흐름을 빚댄 것이다. 이 작품은 국가의 주권은 물론이고 삶의 터전마저 잃어버린 채 혼탁한 물결에 휩쓸려 살아가던 식민지하의 우리 민족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정 주사와 딸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사의 중심을 이루지만 이를 확대해 보면 당대의 시대상과 우리 민족의 삶을 담아내었다고 할 수 있다.

| 주제

혼탁한 식민지하의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군상과 비극적인 개인의 일생

[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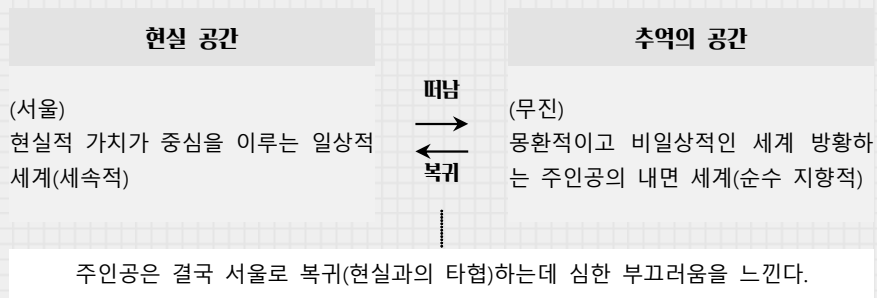
'나'는 처가에서 운영하는 제약 회사의 주주 총회에서 전무로 선철되기 전에 잠시 머리를 식히려고 고향인 무진으로 내려간다. 그곳에서 '나'는 '조'와 '박'을 만나고, 밤에 '박'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하 선생까지 해서 넷이 함께 술자리를 가진다. 술자리를 끝내고 나오는 길에 '박'은 하 선생을 좋아하고 하 선생은 출세한 세무서장인 '조'를 좋아한다는 점을 감지한다. 하 선생과 단둘이 귀가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나'에게 자신을 서울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다.

다음날 '나'는 하 선생과 약속한 바닷가 방죽으로 나가, 옛날 살던 방에서 그녀와 관계를 맺는다. 그녀도 다시 한번 서울로 데려가 달라고 애원하고 '나'는 그러겠다고 약속한다. 이튿날 아침 '나'는 '급상경 바람'이라는 아내의 전보를 받는다. '나'는 하 선생에게 남기는 편지를 썼다가 찢어 버리고 무진을 떠나 서울로 돌아간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4·19 이후 우리 문학이 1950년대의 전후 문학에서 벗어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 주는 소설이다. '바람, 햇빛, 안개' 등의 환경적인 요소인 자연물을 인간의 의식을 드러내는 장치로 사용하면서 개성 있고 새로운 현대적 감수성을 보여 준다.

작가는 1960년대의 허무와 회의 의식을 주인공인 '나'가 서울을 떠나 무진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떠남-추억의 공간-복귀'의 순환 구조를 통해 드러낸다. '나'는 고달픈 현실 속에서 재충전을 위해 무진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젊은 시절의 고뇌를 느끼는 한편, 자신의 과거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하인숙이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그러나 그 의식의 다른 끝에는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이라는 현실적인 가치가 놓여 있다. 아내의 전보로 이를 깨닫게 된 '나'는 안개처럼 축축이 배어드는 감상에서 서서히 벗어나 현실과 타협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며 현실에 복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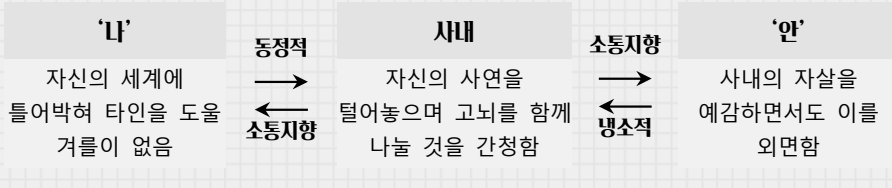
[줄거리]

구청 병사계에서 근무하는 '나'는 선술집에서 대학원생인 '안'과 만나 대화를 나눈다. 새까맣게 구운 참새를 입에 넣고 씹으며 날개를 연상했던지, 날지 못하고 잡혀서 죽는 파리에 자신들을 비유한다. '나'는 이미 삶의 현실에서 좌절을 맛본 후였기 때문에 감각이 다소 둔해진 상태다. 부잣집 아들인 '안' 역시 밤거리에 나온 이유는 '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저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미소를 짓는 예쁜 여자가 아니면 명멸하는 네온사인들에 도취해보기 위해서이다.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섰을 때, 기운 없어 보이는 삼십대 사내가 동행을 간청한다. 그는 중국집에 들어가 음식을 사면서, 자신은 가난한 서적 판매원이며 오늘 아내가 죽었다는 것, 그 시체를 병원에 해부용으로 팔았다는 것, 그리고 아무래도 그 돈을 오늘 안으로 다 써 버려야 하겠는데 같이 있어 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셋은 음식점을 나온다. 그때 소방차가 지나간다. 셋은 택시를 타고 그 뒤를 따라 불구경에 나선다. 사내는 불길을 보더니 불 속에서 아내가 타고 있는 듯한 환각에 사로잡힌다. 갑자기 '아내'라고 소리치며 쓰다 남은 돈을 손수건에 싸서 불 속에 던져 버린다. '나'와 '안'은 돌아가려 했지만 사내는 혼자 있기가 무섭다고 애걸한다. 셋은 여관에 들기로 한다. 사내는 같은 방에 들자고 했지만 '안'의 고집으로 각기 다른 방에 투숙한다. 다음날 아침 사내는 죽어 있었고, '안'과 '나'는 서둘러 여관을 나온다. '안'은 사내가 죽을 것이라 짐작했지만 도리가 없었노라고, 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혼자 두는 것이라 생각했었다고 말한다. '나'와 '안'은 우리는 스물다섯 살짜리지만 이제 너무 많이 늙었다'는 말을 나누며 헤어진다. '나'는 '안'과 헤어져 버스에 오른다.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차창 밖으로 보인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서로 알지 못하는 세 남자가 우연히 만나 하룻밤을 함께 보내면서 발생한 일을 그리고 있다.

그들은 선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는데, '나'와 '안'은 자신들의 진심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심각하고 진지한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하나 가치 지향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삼십 대의 외판원 사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고뇌와 비애를 공유할 것을 간청한다. 그러나 자신만의 세계에 틀어박힌 '나'와 '안'에게 그 사내는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다. 사내가 화재가 난 곳을 찾아가 아내의 시체를 판 돈을 버리는 행위는 허위적이고 비인간적인 삶에 대한 분노와 절망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세 사람이 여관으로 와서도 각각 다른 방을 쓰게 되고, '안'의 경우 외판원 사내가 자살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은(못하는) 사실에서 인간적 유대가 없는 현대 사회의 소외는 극대화되고 결국에는 인간관계의 단절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줄거리]

누이는 이 년 전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갔으나 정착하는 데 실패하여 귀향하게 된다. 그 후 누이는 침묵을 지키며 어머니와 '나'를 답답하게 한다. 오빠인 '나'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도시로 간다. 거기서 한 인물을 만나는데, 그는 시골을 떠나 작가인 척하는 위선적인 인물로, 도시 속에서 파탄되어 가는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누이가 침묵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즉 누이는 도시에 만연한 개인주의와 군중 속에서 느낀 고독에 의해 침묵하게 된 것이다. 얼마 후, 누이가 시골 청년과 결혼하고 출산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축전을 띄운다.

[이해와 감상]

1963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서, 누이가 도시로 가서 적응하려다 실패한 이유를 '나'의 입장에서 추적해 가는 독백적 문체의 작품이다. '나'가 발견한 누이의 비밀은, 그녀가 도시에 가서 느낀 것이 고독뿐이었으며, 침묵하는 방법을 배우고 왔다는 것이다. '나'는 그러한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상경하지만, '나'가 배운 것은 도시적 개인주의뿐이었다. 도시로 떠난 누이가 배워 온 침묵을 통해 개별화된 도시적 삶과 고독을 표출하고 있다. 1960년대 한국 사회의 산업화로 인한 이촌향도 현상을 배경으로, 도시적 삶의 문제,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겪는 문화적 충격 등을 상세하게 포착하고 있다.

[줄거리]

얇은뱅이와 곱추, 몸도 성하지 않고 생활도 어려운 그들의 집이 무너져 버린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그들은 살 집을 빼앗겨 버린 것이다.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지만, 입주금이 없어 시에서 주는 이주보조금보다 약간 많은 돈을 받고 입주권을 팔고는 자신들의 집에 세든 사람들의 전세금을 계산해 주고 무일푼이 되버린 채,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었다.

동네의 다른 사람들은 집을 잃을 때 쇠망치를 든 사나이들과 한바탕 다툼을 벌였지만, 곱추네 식구들은 가만히 있다.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집마저 잃어버린 그들은 복수를 결심한다. 기름통까지 준비하고 마음도 굳게 먹는다.

그러나 얇은뱅이는 적극적으로 반해 곱추는 겁을 낸다. 얇은뱅이는 살이 피동피동한 부동산업자를 만나 그와 집의 가격에 대해 이야기한다. 부동산업자의 거짓말에 화가 난 얇은뱅이는 그를 차에 태운 후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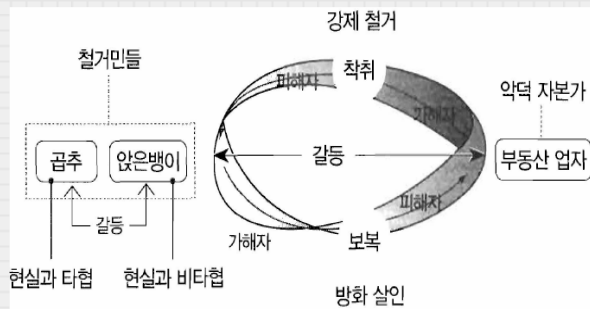
잔인한 살인을 하게 된 얇은뱅이. 그와 함께 복수를 음모한 곱추이지만, 그는 그런 얇은뱅이가 무서워진다. 얇은뱅이는 강냉이 기계를 사서 생활할 계획을 세우고 곱추는 약장수를 따라가겠다고 나선다. 그는 얇은뱅이의 복수심이 무서워 떠나겠다고 한다. 둘은 헤어지고 혼자 남은 얇은뱅이는 눈물을 흘린다.

[이해와 감상]

1970년대 도시 빈민 계층의 삶을 날카롭게 그려 놓은 연작 소설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수록된 작품으로, 산업화 사회의 부정적인 여러 증상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안쪽과 바깥쪽이 구별되지 않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이 우리가 진실이라 여기는 것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음이 제시되어 있으며, 명확히 흑백이 구분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작가의 세계 인식이 담겨 있다. 또한 사물과 세계를 이해하려 할 경우 현실 비판의 안목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앞부분은 수업 상황 속에서 수학 교사가 학생들에게 우화적 질문과 뫼비우스의 띠라는 수학적 개념을 제시하는 부분이고, 이어 곱추와 얇은뱅이를 통해 부동산업자에게 판 입주권의 정당한 대가를 되찾아오는 이야기가 그려지며, 마지막으로 다시 수업 상황으로 돌아와 작품을 마무리하는 액자 구성을 취하고 있다.

앞부분은 독자들에게 대한 작가의 문제 제기이며, 중간 부분은 현실에 적용하는 일화, 마지막 부분은 주제 의식의 정리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우화적 기법을 통해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04

고전소설



| 줄거리

성균관 진사이자 풍류랑인 김생은 어느 날 왕자 회산군의 궁녀인 영영을 목격한 뒤 그녀를 깊이 연모하게 된다. 하인 막동의 도움을 받아 영영이 종종 출입하는 이모네 집에서 만나 연정을 고백한 후 후일에 회산군 댁에서 다시 만나 깊은 인연을 맺지만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헤어지게 된다. 몇 년 후 과거에 급제한 김생은 유가 행차에서 회산군 댁을 지나던 중 꾀를 써서 그 집에 들어가 영영을 만나 변하지 않은 연정을 확인한다. 이후 친구의 도움으로 회산군 댁 부인의 허락을 받아 영영과 인연을 맺고 공명을 버린 채 해로한다.

| 이해와 감상

여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일명 「영영전」으로도 불리는 작품으로서, 조선 후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애정 소설이다. 뛰어난 재주를 가진 남자 주인공 김생과 사랑이 금지된 궁녀 영영이 맺는 애정 관계의 곡절을 그려 내고 있다. 제목에 있는 '상사동'은 김생을 돕는 노파이자 영영의 이모인 노파가 사는 집이 위치해 있는 동네의 지명이다. 서울 종묘 근처에 있었는데, 이 지명은 발정이 난 상사마가 암내를 맡고 날뛰면 이 동네의 좁은 골목으로 몰아넣고 붙잡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 주제

신부들 뛰어넘는 남녀의 절절한 사랑

| 줄거리

송나라 때 김전은 명산에 지성을 들여 어렵게 얻은 딸 숙향을 피난길에 잃는다. 부모와 헤어진 숙향은 장 승상의 수양딸이 되어 큰 사랑을 받으며 지내지만 이를 시기한 악한 여종 사향의 모함으로 장 승상 댁에서 쫓겨나게 된다. 숙향은 죽으려고 포진강 물에 몸을 던지기도 하고,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지만 초월적 존재들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이화정에서 술을 파는 할미를 우연히 만나 그녀와 함께 살게 된다. 한편, 숙향과 마찬가지로 지상으로 적강한 이선은 천상의 운명에 따라 노력 끝에 숙향과 만나고 부모 몰래 성례를 치른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이선의 아버지 이 상서는 노하여 낙양 수령 김전에게 숙향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김전은 숙향이 자신의 딸인 줄도 모르고 숙향을 문초한다. 그러나 이화정 할미와 청삼사리의 도움으로 숙향은 이 상서 부부로부터 며느리로 인정받는다. 이선은 과거에 장원 급제하고 숙향과 재회하여 화목하게 지내게 되고 숙향은 친부모인 김전 부부와 만난다. 이후 이선은 선약을 구해 병들어 죽게 된 황태후를 살린 공으로 초나라 왕이 되고 숙향과 행복하게 살다가 천상으로 돌아간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국문본과 한문본이 모두 전하는 조선 시대의 소설로 '이화정기(梨花亭記)'라고도 한다. 소설 속 남녀 주인공은 원래 선인들이었지만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인해 지상으로 적강(謫降)하여 인간으로 환생한 뒤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된다. 하지만 위기를 겪을 때마다 천상계의 도움으로 시련을 모두 극복하고 천생연분으로 부부의 연을 맺은 후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상계로 복귀한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면 애정 소설로 분류할 수 있으나, 서사의 구성을 보면 주인공 숙향이 고귀한 혈통을 타고 태어나고, 고아가 되어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지만 이를 극복한 뒤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따른다는 특징을 지닌다. 「춘향전」을 비롯한 다른 고전 소설 작품에 「숙향전」의 인물과 내용이 빈번하게 언급되는데, 이를 통해 「숙향전」의 인기가 상당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주제

고난과 시련의 극복을 통한 운명적 사랑의 성취

| 줄거리

명나라 태학사 총렬공 효유의 후예인 방씨 부부에게 자식이 없다가 노년에 일몽을 얻고 관주가 태어난다.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주를 보였던 방관주는 스스로 남북하기를 청하고, 이에 방씨 부부는 딸이 바라는 대로 남장을 하게 하여 기른다. 일찍 부모를 여읜 뒤 방관주는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다. 영 공(영혜빙의 아버지)의 강권으로 영혜빙과 혼인하게 되는데 영혜빙이 영민하여 방관주가 여성임을 먼저 알고 평생지기(平生知己)가 되어 함께 지내기로 한다. 이후 형주 안찰사가 된 방관주는 우연히 낙성을 얻어 양자로 삼는다.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 적에게 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등赫赫한 공을 세우고 돌아와 부귀와 명예를 누리게 된다. 방관주가 마흔이 될 무렵, 도인이 나타나 그의 죽음을 예언하고 예언대로 병이 들어 죽음을 앞두게 되자 방관주는 자신이 여성임을 천자에게 밝히고 생을 마감한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여성인 주인공 방관주가 남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 적을 무찌르기도 하고, 가문의 원수에게 복수를 하기도 하는 등 여성 영웅 소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여성끼리 혼인을 한다는 모티프가 삽입되어 다른 작품들과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방관주는 자신이 여성임을 감추기 위해, 영혜빙은 여성에게 억압적인 당시의 남녀 부부 관계에 대한 거부감에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 부부로 살아가게 되는데, 특히 영혜빙의 내면 의식을 통해 당대 남녀 관계의 불합리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 주제

남성으로 살았던 여성 영웅 방관주의 일대기

| 줄거리

화옥은 심 씨, 요 씨, 정 씨 세 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심 씨는 아들 화춘을 낳고, 요 씨는 딸 화빙선을 낳고 일찍 죽으며, 정 씨는 아들 화진을 낳는다. 화옥은 맏아들인 화춘이 변변치 못하다고 생각하며 화진을 편애하는데, 이러한 화옥의 처사로 인해 심 씨와 화춘은 불만을 갖고 화진을 미워한다. 화옥이 죽자 심 씨와 화춘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화진과 그의 아내들을 학대한다. 화진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게 되지만 화춘의 무고로 인해 귀양을 가게 되고, 화진의 아내들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나게 된다. 귀양을 간 화진은 병법을 배운 후 백의종군하여 해적을 토벌하고, 남쪽 지방의 어지러움도 모두 평정한다. 이에 황제가 화진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심 씨와 화춘은 개과천산하게 된다. 이후 쫓겨났던 화진의 아내들도 돌아와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

| 이해와 감상

작품의 제목인 '창선감의록'은 '착한 행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의로운 일에 감동받는 이야기'라는 뜻으로, 이 작품은 조선 시대에 널리 읽혔던 가문 소설이다. 사대부 가문에서 일어나는 가족들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의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며, 이들이 겪는 갈등은 유교적 이념인 '효'와 '열'의 실천을 중심으로 인물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된다. 한편 이 글에서는 진채경이 겪는 고난과 극복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진채경과 혼인을 약속한 윤여옥은 훗날 화진의 부인이 되는 윤 소저의 동생이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인 화진과 관련된 인물이 겪는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통해서도 유교적 이념을 드러내고 있다.

| 주제

권선징악과 충효 사상의 고취

| 줄거리

광해군 때 명나라의 요청으로 후금과의 싸움에 동원된 김영철은 후금에 패하고 포로로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다. 이때 후금 장수 아라나가 영철을 살려 자신의 집이 있는 건주로 데려간다. 영철은 아라나의 주선으로 혼인도 하고 두 아들도 얻게 된다. 고향을 그리워하던 영철은 전유년 등 명나라 사람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등주를 향하게 되는데, 다시 이곳에서 전유년의 여동생과 결혼하여 자식 둘을 얻는다. 이후 조선의 외교 사절의 일원을 만나 14년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된다. 고향의 가족들과 재회한 김영철은 조선의 여인과 결혼하여 아들 넷을 두고 살아가지만 후금의 구원병으로 명과의 전쟁에 세 번이나 참전하게 된다. 영철은 네 아들과 함께 산성을 지키며 살다가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조선 광해군 때의 인물인 김영철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드러내며 전쟁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제시한 한문 소설이다. 17세기 동아시아 삼국, 즉 조선 - 명나라 - 후금(훗날의 청나라)의 관계가 잘 드러나는 작품으로 전쟁 속에서 하층민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다루고 있다

| 주제

전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민중의 고초와 애환

| 줄거리

광문은 종루 저잣거리의 거지이다. 그는 거지 패거리의 우두머리로 추대되지만 모두 구걸하러 나간 사이 소굴을 지키다가 병든 아이가 죽은 일로 의심을 받아 소굴에서 쫓겨난다. 광문은 어느 집으로 들어가다가 도둑으로 오해받아 집주인에게 붙잡히는데 집주인이 도적이 아님을 알고 새벽에 광문을 풀어 주자 그는 곧장 거지들이 버린 죽은 아이의 시체를 수습하여 장사를 지내 준다. 이를 목격한 집주인은 그를 의롭게 여겨 후하게 대우하다가 부자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일할 수 있게 추천한다. 그러던 중 약국에서 돈이 없어지는 사건이 벌어지자 광문은 또 의심을 받게 된다.

광문의 결백이 밝혀지자 부자는 광문의 정직함을 널리 알리고, 이 일로 광문은 서울 안에서 유명해진다. 광문이 빚보증을 서 주면 담보 없이도 돈을 빌릴 수 있을 만큼 광문은 사람들로부터 신의를 얻었으며, 마흔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않았고 가진 재산도 없었지만, 욕심 없이 살았다. 그럼에도 사대부들에게는 도도하기만 한 기생 운심을 춤추게 할 만큼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었기에 사대부들마저 광문과 벗을 맺었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연암 박지원이 지은 한문 단편 소설로 『연암집』 ‘방경각의전’에 실려 있다. 작품에서 주인공 광문은 비천한 거지이지만 순수하고 인정이 있으며, 정직하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인물로 그려진다. 연암은 광문을 통해 당시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권모술수를 행하기에 여념이 없는 양반 사회를 은근히 풍자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시대에는 신분이나 지위보다는 인간적이면서 성실하고 신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작가의 의식을 부각,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이 소설은 사실주의적 면모가 강한 작품으로도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

| 주제

하층민 광문의 인품을 통해 바라본 조선 후기의 세태

| 줄거리

병이 든 동해 용왕은 토끼의 생간이 신효하다는 고명한 세 의원의 말을 듣고 자라에게 토끼의 간을 구해 오라고 명한다. 육지에서 토끼를 만난 자라는 온갖 감언이설로 토끼를 속여 용궁으로 데려온다. 용왕이 토끼를 죽이라고 명령하자, 토끼는 피를 내어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며 위기에서 벗어난다. 이후 자라와 함께 육지에 도착한 토끼는 용왕의 미련함을 지적하고 자라는 하릴없이 돌아간다. 한참 살아 돌아온 기쁨을 누리던 토끼는 독수리에게 잡혀 또다시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토끼는 다시 한번 피를 내어 독수리로부터 벗어난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삼국사기』의 「구토지설」 등을 근원 설화로 삼아 판소리 사설로 연행되다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이다. 「토공전」, 「토생전」, 「별주부전」 등 120여 종의 이본이 존재하는 이 작품은 동물들을 내세워 당대 사회를 우의적 기법으로 풍자한 우화 소설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서는 개인의 욕망을 위해 토끼의 희생을 강요하다가 토끼의 피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용왕의 모습을 통해 부패하고 무능한 지배층을, 용왕의 인정을 받기 위해 토끼를 속이는 자라의 모습을 통해 그릇된 충성심을 지닌 관리를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허욕으로 인해 위기를 겪다가 피로 이를 극복해 내는 토끼를 통해 허욕에 대한 경계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지배층의 횡포를 극복해 내는 서민층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인물들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주제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위기와 이를 극복해 내는 기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 한자어와 비속어, 고사성어와 속담, 과장된 표현과 비유적 표현 등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주제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의 중요성, 허욕에 대한 경계
무능하고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풍자
임금에 대한 충성

| 줄거리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윈 심청은 맹인 아버지 심학규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으로 자라난다. 어려서부터 동냥을 하며 아버지를 모시던 심청은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스님의 말에 시주를 약속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몸을 팔아 공양미를 바치고 인당수에 몸을 던진다.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사해용왕은 출천대 효 심청을 용궁으로 모셔 가 정성스럽게 대접한다. 옥황은 심청을 꽃봉오리에 태워 현실 세계로 돌려보내고, 남경 선인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꽃봉오리를 송 천자에게 바친다. 송 천자는 꽃봉오리 속에서 나온 심청을 황후로 삼고, 황후가 된 심청은 맹인 잔치를 열어 심 봉사를 황궁으로 초청한다. 심봉사는 황궁에서 심청을 만난 후 두 눈을 뜨게 되며 행복한 결말로 사건이 마무리된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현재까지 전해지는 판소리 다섯 마당 가운데 하나로, 효녀 심청이 맹인 아버지 심학규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가 돌아와 황후가 되어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청의 탄생과 성장 과정, 심 봉사의 사고와 시주 약속,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남경 선인들에게 팔려 가는 심청의 이야기, 인당수에 빠져 용궁에 간 이야기, 황후가 되고 맹인 잔치를 열어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이야기 등으로 구성된다. '효녀 지은 설화' 등을 바탕으로 삼고 있으며, 「심청전」이라는 고전소설로도 변용된다.

| 주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 심청의 효심

| 줄거리

조선 세종 때 홍 판서와 그의 시비 춘섬 사이에서 서자로 태어난 길동은 총명하면서 도술을 익혀 장부로서의 남다른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천생(賤生)이기에 호부호형(呼父呼兄)하지 못하는 것을 한으로 품고 살아가다가 가출한 후 도적 무리의 두목으로 추대된다. 길동은 기발한 계책과 도술로써 팔도의 탐관오리들이 부정하게 모은 재물을 탈취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임금이 전국에 길동을 잡으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길동은 뛰어난 도술로 신출귀몰하며 조정을 농락한다. 이에 조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길동의 소원대로 길동에게 병조 판서를 제수한다. 소원을 이룬 길동은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조선을 떠난다. 길동은 산수 경관이 매우 수려한 울도국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조선 광해군 때에 허균이 쓴 것으로 알려진 한글소설이다. 적서 차별과 같은 사회의 제도적 결함이나 탐관오리의 부패와 같은 권력층의 부정에 대한 비판 등 사회·정치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었다. 이에 이 소설은 당대 사회의 현실적 문제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주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적서 차별 등의 신분적 불평등을 비롯한 사회 모순을 안고 있는 사회는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주제 의식을 가지고 울도국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사회 소설로서 문학사적인 의의가 매우 큰 작품이다.

| 주제

불합리한 사회 제도에 저항하는 홍길동의 영웅적 활약

| 줄거리

폐허가 된 수성궁에 놀러 갔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유영'은 깨어나면서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나고, 두 사람에게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수성궁의 궁녀인 운영은 안평 대군을 찾아온 김 진사라는 선비를 보고 연정을 느끼고, 두 사람은 시를 전하며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두 사람의 만남은 김 진사의 하인인 특과 운영의 동료인 궁녀들의 도움을 받아 위태롭게 이어지고 그들의 사랑은 깊어진다. 하지만 안평 대군이 운영과 김 진사의 시에서 연정의 마음을 알아채고 특이 김 진사를 배신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은 탄로가 난다. 이에 운영은 죽음의 길을 택하고 김 진사 또한 같은 길을 간다. 이야기가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고,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유영은 운영과 김 진사의 일을 기록한 책만을 발견한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수성궁의 궁녀인 운영과 선비인 김 진사의 비극적 사랑을 형상화한 소설로, '수성궁 몽유록'으로도 불린다. 유영이라는 인물이 수성궁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면서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설정으로, 몽유록의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때 외화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전지적 서술자가 들려주지만, 내화는 이야기의 당사자인 운영과 김 진사가 서술하는 점은 이 소설의 특징 중 하나이다. 학문의 장이면서 억압의 공간인 수성궁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남녀의 사랑과 비극적 결말을 통해 제도와 관습이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고 감정을 억압하는 당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 주제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비극적 사랑

| 줄거리

선조 25년(1592, 임진년),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략한다. 왜란을 경고한 우의정 최일경의 진언을 무시한 조선 조정은, 아무런 방비 없이 왜군을 맞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만다. 부산을 시작으로 삼시간에 도성까지 쳐들어오는 왜군에 위기를 느낀 임금과 조정 대신들은 도성을 버리고 평양성을 거쳐 의주까지 달아난다. 다행히 이순신과 곽재우, 김덕령, 김응서 등의 활약으로 왜장을 물리치고 조선 땅을 서서히 되찾아 간다. 그리고 좌의정 유성룡의 구원 요청에 의해 이여송이 이끄는 명군이 조선에 들어오면서부터 전세는 역전된다. 조선군은 명군과 연합하여 평양성을 탈환하고 왜군을 남쪽 끝까지 몰아낸다. 그사이 히데요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왜군은 일본 땅으로 돌아가려 하고, 이러한 왜군을 이순신이 크게 물리침으로써 비로소 전쟁은 끝난다. 그 뒤 이여송은 왜군을 물리친 조선이 혹여 명나라를 넘볼까 걱정하여 조선의 혈맥을 끊으려 조선 산천을 돌아다니지만 도리어 혼쭐이 나서 명나라로 돌아간다. 전쟁이 끝난 후, 김응서와 강홍립이 군사 수만을 이끌고 일본으로 쳐들어가지만, 강홍립의 고집으로 인해 일본 정벌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두 장수는 항복한다. 그 후 김응서는 왜왕에 대한 복수를 꿈꾸지만 실패한 후 자결한다. 일본 정벌 실패 후, 서산 대사의 제자 사명당이 일본에 사신으로 건너가 왜왕을 혼쭐낸 후 항복 문서를 받아 돌아온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영웅 군담 소설로,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설화가 여러 담당층을 거쳐 전승되다가 후일 소설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다른 고전 소설처럼 특정 인물의 생애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구성을 취하지 않고,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뼈대로 하면서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많은 인물의 활약상을 파노라마처럼 전개하고 있다. 여러 인물이 등장하지만 인물과 인물 간의 관련성이 적은 편이며, 인물의 활약상에 허구적인 내용이 많기도 해서 설화적 측면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 일제 강점기에는 금서로 지목받아 불태워지는 수난을 겪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 가치가 더 높아져 은밀히 전파되어, 현전하는 이본이 100종이 넘는다.

| 주제

임진왜란에 대한 정신적 위안 및 민족의식 고취

| 줄거리

명나라 홍무 연간에, 남경에 사는 유태종은 벼슬이 삼공이고 충효의 가문 사람이다. 조정의 간신이 해하려 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한가히 지내는데, 자식이 없어 부인 진 씨와 후원에 단을 모으고 기도하던 중, 부인 꿈에 선동이 나타나 '천상에서 죄를 지어 당신의 자식이 되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잉태, '이 아이의 배필은 서남에 있다'는 선녀의 말을 들으며 아들을 순산한다. 이름은 유백로로 용기 있고 풍채가 좋았다. 유백로는 자라서 성남의 운수 선생에게 배우고자 길을 떠난다. 한편 이부상서 조경노와 순 씨 사이에도 자식이 없어 절에 빌어 '천상의 시녀'가 딸로 태어나게 되니, 이름을 은하라 하였다. 운수 선생에게 가던 백로는 길가에서 열 살의 은하를 만나, 집안 대대의 보물인 백학선에 '요조숙녀 군자호구'라는 글귀를 써서 주고는 훗날을 기약한다. 병부상서 문 상서가 유백로를 사위로 청혼하나, 벼슬을 얻은 뒤에 하자고 거절하자 앙심을 품는다. 최국양도 은하를 며느리로 맞고자 하나, 백로를 생각하여 거절하자 앙심을 품는다. 유백로가 과거에 급제하여 남방 순무어사로 부임하며 은하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병이 들어 벼슬을 버린다. 이때 오랑캐 가달이 쳐들어오자, 최국양이 입궐하여 출전하며 백로의 외숙 전홍뢰에게 은하를 죽이도록 한다. 은하의 신세가 딱함을 알고 전홍뢰는 은하를 놓아 준다. 방황하는 은하에게서 유태종이 백학선을 뺏으려고 옥에 가두나 실패하자 일 년 만에 풀어 준다. 유백로가 최국양에게 원하여 대원수가 되어 가달을 막으려 하나, 최국양이 군수를 해 주지 않아 군사들은 몰살당하고 백로는 가달에게 잡히고 만다. 방황하던 은하가 주막에서 점괘를 보고 백로가 위험함을 알고는 임금에게 자원한다. 이때는 최국양의 모함으로 백로의 가족이 옥에 갇힌 때다. 병법과 무술에 신통력이 있음을 본 임금은 조은하가 원수 가달을 치게 허락한다. 조은하는 선녀의 도움으로 오랑캐를 물리치고 가달을 잡으며 백로를 구해 돌아온다. 최국양은 처벌을 받고, 유백로, 조은하는 연왕, 연왕비가 되며 팔순에 하늘로 올라간다.

| 이해와 감상

봉이 작품은 애정 소설이자 영웅 소설로서 천상 세계에서 죄를 지은 두 남녀(선관, 선녀)가 지상의 인간계로 쫓겨와 역경을 겪은 다음에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는 내용이다. 서사 구성면에서 남자와 여자가 모두 혼사 장애를 겪고 있는데 이를 병립적인 구조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다. 특히 남자 주인공을 여자 주인공이 구출해 오는 등 남자보다는 여자 주인공의 적극적인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 주제

남녀 간의 사랑

| 줄거리

서울 남산 밑 목적골에 사는 가난한 선비 허생은 글공부에만 매진하던 중, 아내의 질책을 받고 십 년을 작성했던 공부를 포기하고 집을 나선다. 허생은 장안에서 제일 부자라는 변 씨를 찾아가 만 냥을 꾸어 과일과 말총을 매점하여 10배의 이익을 취한다. 그 뒤 허생은 도적 떼의 소굴로 들어가 도적들을 설득하여 각기 여자와 소 한 마리씩을 데리고 오게 하여 그들을 무인도에서 정착시켜 농사를 짓게 한다. 얼마 후 일본의 속주인 장기도에 흉년이 들자 비축해 놓은 곡식을 팔아 은 백만 냥을 번다. 빈 섬에서 자신의 시험을 끝낸 허생은 백만 냥이란 돈이 너무 많아 쓸 데가 없다고 생각하며 오십만 냥을 바닷속에 버린 후 섬을 떠난다. 육지로 돌아온 허생은 나머지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 뒤, 십만 냥을 변 씨에게 갚는다. 변 씨에게서 허생의 이야기를 들은 이완 대장이 허생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자 허생은 복벌을 위한 세 가지 계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완은 모두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고, 허생은 이완을 크게 꾸짖은 후 자취를 감추고 사라진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시대를 앞서 가는 주인공 허생을 통해 조선 후기의 사회 문화적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작가는 매점매석이라는 허생의 상행위를 통해 당시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비판하는 한편, 도둑과 빈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배 계층의 무능함과 그로 인해 피폐해진 사회 현실을 그리고 있다. 또한 위정자를 대표하는 이완 대장과 허생의 대담을 통해 지배층의 허위의식과 모순적 행동을 통렬하게 풍자하고 있다.

| 주제

부정적 사회 상황에 대한 비판과 이상 세계의 방향 제시

| 줄거리

김원은 등근 원(圓)으로 태어나 10년 만에 원을 깨고 아름다운 남자로 변신한다. 이때 머리 아홉 달린 아귀가 세 공주를 납치해가자 대원수가 되어 공주를 구하러 간다. 철마 산에 이르러 동우리를 타고 동굴을 통해 아귀가 사는 지하국으로 내려간다. 김원은 수박으로 변신하여 아귀를 죽이고 납치되어 온 세 공주와 부녀자들을 구한다. 그러나 김원의 공을 시기한 부하 강문추는 동굴을 막아 김원을 지하국에 가둔다. 김원은 지하국에서 용왕의 아들을 구해 준 보답으로 용궁에서 용왕의 딸과 결혼한다. 그 후 고향으로 돌아와 공주와 결혼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하늘로 승천한다.

| 이해와 감상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를 근간으로 17세기 말경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설로, 주인공 김원의 영웅적 일대기를 다룬 흥미 위주의 괴담(怪談)소설이다. 수박 형상의 기이한 모습으로 태어난 출생담, 구두(九頭) 아귀의 등장과 그 퇴치 과정에서의 비현실적인 전기성을 발견할 수 있다. '탈각(脫殼) 설화', '재생설화' 등 여러 가지 화소(話素)가 섞여 있고 영우이 거쳐야 할 통과 의례적 공간으로 '지하세계'를 설정하여 사건을 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김원전>은 <금령전>과 함께 '전기소설'의 유형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중국의 '전기'가 비현실적이며 비인간적이며 괴기하고도 몽환적인 내용과 신선의 세계, 천상의 세계, 용궁 세계 등을 그리고 있는데 <김원전> 역시 이런 세계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김원전>은 또한 영웅의 일대기를 충실히 그리면서 '김원'이라는 인물의 영웅성을 부각시키는 영웅소설이기도 하다.

또한 이 작품은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와 매우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우리나라의 전래 설화로부터 파생된 작품이 아닌가 추론되기도 한다.

| 주제

아귀를 퇴치하고 공주를 구한 김원의 활약상

| 변신 모티프

변신 모티프	
·단순히 외형이 바뀔 수도 있고, 내면까지 완전히 변신하는 경우도 있음	
·① 변신 행위의 결정 주체, ② 변신의 지속성 여부, ③ 변신 주체의 욕망실현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통합형	두 세계의 통합을 이루어 변신한 상태가 지속되는 유형 <단군신화>, <김현감호>
경쟁형	상대와의 경쟁 과정에서 변신 주체가 힘을 과시하고, 일시적 변신을 거쳐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유형 <주몽신화>, <홍길동전>
좌절형	변신 주체가 욕망을 이루지 못해 좌절하고, 본래 돌아가고 싶은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유형 <나무꾼과 선녀>

| 줄거리

강직한 선비 원자허는 고금의 흥망에 관한 책들을 읽다 비분강개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날 책을 읽다 잠이 들어, 꿈속에서 긴 강 언덕을 배회하다 복건자의 안내로 정자에서 왕과 다섯 신하를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부당하게 권력을 찬탈당한 인물들이다. 원자허는 이들과 함께 고금 국가의 흥망을 논하다 각기 원통한 마음을 시로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한 무인이 뛰어들어 자신의 비분강개한 마음을 시로 토로한다. 갑자기 벼락 치는 소리에 꿈에서 깨어나고, 원자허는 벗인 해월 거사에게 이 일을 이야기한다. 해월 거사가 원자허의 꿈에 대해 논평하고 시를 읊는다.

| 이해와 감상

조선 중기 임제의 작품으로 알려진 한문 소설로 '원자허전'이라고도 한다. 원자허라는 인물이 꿈속에서 단종과 사육신을 만나 비분한 마음을 드러내며 흥망의 도를 토로한다는 내용이다. 세조의 왕위 찬탈을 소재로 정치권력의 모순을 폭로한 작품으로 구성인 '현실 - 꿈 - 현실'의 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몽유록 소설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다.

|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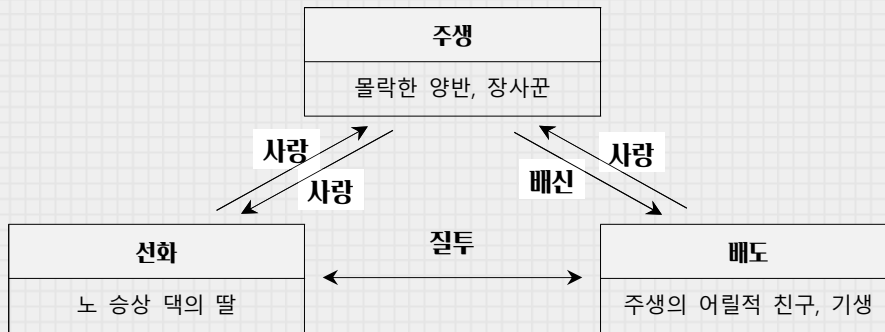
모순된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 부조리한 인간사에 대한 회의

| 등장인물의 특징

원자허	·생육신의 한 사람인 원호를 의미하며, 현실계에서 몽중 세계를 다녀오는 몽유자 ·강개한 선비로 기개가 씩씩하고 도량이 큼 ·꿈속에서 임금, 다섯 신하와 이야기를 나누며 시대 현실에 대해 한탄함.
복건 쓴 호남아	·생육신의 한 사람인 남효온 ·요순탕무 네 임금이 만고의 죄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가 사과함.
임금	·단종 ·다섯 신하들과 현실에 대해 울분을 토함.
다섯 신하	·사육신 중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등 ·원자허와 함께 현실에 대한 울분과 한탄을 담은 시를 읊음.
범 같은 한 신비	·사육신 중 유응부 ·문신들의 실천력 없는 행태를 비판함.
해월거사	원자허의 벗으로 원자허가 꿈속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듣고, 부조리한 세태에 대해 비판함.

| 줄거리

명나라 때 촉 땅에 살고 있던 주생은 어려서부터 총기가 있어 열여덟에 태학생이 되었으나, 번번이 과거에 떨어지자 작은 배를 타고 장사를 하며 강호 유람으로 살아간다. 술에 취해 옛 고향 전당에서 노닐던 중, 옛 여자 친구 비도를 만난다. 기생이 된 비도에게 호감을 느낀 주생은 그녀와 사랑을 나누고 동거하게 된다. 어느 날 노 승상 댁에 갔다가 딸 선화를 본 주생은 선화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녀의 남동생 국영에게 글을 가르친다는 핑계로 노 승상 댁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선화와 정을 통하게 된다. 주생이 선화와 주고받은 시를 본 비도는 질투를 하고, 승상 부인 또한 주생과 선화의 관계를 알게 된다. 이에 선화는 병이 나고, 약한 국영이 병으로 죽으며, 비도도 병들어 자신을 주생이 다니는 길가에 묻어 달라며 죽는다. 실의에 빠진 주생은 비도를 묻고 정처 없이 배로 방랑하다가 친척의 도움으로 선화와 결혼한다. 이때 조선에 왜적이 쳐들어와 원군으로 참전하였다가 병이 나서 누워 있던 중, '나'는 송경의 역관에서 그를 만나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주인공 주생과 비도, 선화라는 두 여인 간의 삼각관계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남성의 애욕과 이기주의, 여성의 질투와 자기희생적 인고 그리고 애정 성취를 위한 주변 인물의 이해와 협조 등의 세부 정황을 비교적 실감 있게 그리고 있는 고전 소설이다. 또한 임진왜란 이후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중세 체제의 모순과, 소외 양반층 및 하층민의 억압된 의지를 비판적 지식인의 시각에서 형상화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심층적 의미 또한 아울러 지니고 있기도 하다.

| 주제

운명에 대한 인간의 나약성과 비극적인 사랑

| 줄거리

까치가 나무 끝에 높이 보금자리를 짓고 낙성연을 베풀어 즐길 적에 두루미, 까마귀, 꿩, 꼬리 등 온갖 우족들을 초청한다. 그런데 초청을 받지 못한 비둘기가 불만을 품고, 까치를 찾아가 다투다가 까치를 죽이게 된다. 이에 과부가 된 암까치가 군수에게 고변하여 낙성연에 모였던 날짐승들의 증언을 듣게 되나 비둘기가 두려워 아무도 올바른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에 마을의 원로인 두꺼비가 관가로 소환되나, 비둘기의 뇌물을 받은 두꺼비는 까치가 다투다가 저절로 떨어져 죽었다고 위증을 하여, 비둘기는 혐의가 풀려 석방된다. 까치의 장례를 치르고 삼년상을 지낸 뒤, 할미새가 키운 난춘(닭과 비슷한 상상의 새)이 암행어사가 되어 이 사실을 바로잡아, 뇌물을 먹고 거짓 증언한 두꺼비를 정배시키고, 암까치로 하여금 살해자인 비둘기에게 보복을 하게 한다. 그 뒤 암까치는 남편의 영혼과 교접하여 1남 1녀를 얻고 많은 자손들을 거느리며, 부귀를 누리고 살게 된다.

| 이해와 감상

비명횡사한 까치의 억울한 죽음을 중심으로 뇌물과 청탁으로 부정부패한 송사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다. 비둘기는 까치의 집들이 잔치에 가서 횡포를 부리고 결국 까치를 비명횡사하게 만든다. 비둘기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뇌물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는 부정적 행위를 일삼는다. 이러한 비둘기는 서민을 괴롭혔던 지배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비둘기의 부정 행위는 결국 단죄 받고 있는데, 이는 서민의 관점에서 뇌물이 성행했던 당대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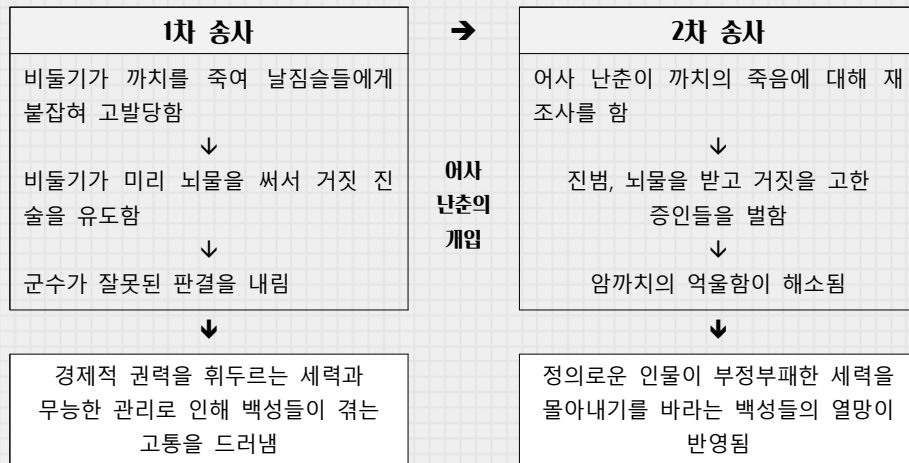
| 주제

무능한 관리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상 비판

| 등장인물의 특징

등장인물	특징
비둘기	낙성연에 자신을 초대하지 않은 까치를 죽이고, 이후 뇌물을 써서 사건을 해결하려 함
암까치	억울하게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송사에서 패배했다가 어사의 도움으로 비둘기에게 원수를 갚음
할미새	어사 난춘에게 암까치에 관한 사연을 이야기하며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함
어사 난춘	도량이 넓고 군자의 품성을 갖고 있으며, 암행어사를 자칭하여 민정을 살피다가 암까치의 억울함을 풀어줌
두꺼비	동네의 우두머리이면서도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이 내려지도록 함
책방구진, 기생 앵무새	뇌물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하여 국정을 흐리게 함

| 송사를 통한 사건 해결



| 송사소설의 유형

① 송사의 원인과 갈등 유형에 따른 분류

송사의 원인, 갈등유형	작품
신분 갈등	<양반전>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장화홍련전>, <옹고집전>
향촌 사회의 계층 갈등	<까치전>, <황새결승>, <서대주전>
권력의 횡포로 인한 갈등	<유연전>

② 결말에 따른 분류

결말 유형	작품
원역형	억울하게 핍박받는 자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패소하는 유형 <황새결승>, <서대주전>
신원형	피해자가 처음에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는 유형 <까치전>, <장화홍련전>
화해형	윤리적 타락의 상태를 올바로 일깨우기 위해 화해로 끝이 나는 유형 <옹고집전>

| 줄거리

강남 안평국 왕의 맏아들 향의는 쾌심하고 영금한 마음을 가졌고, 둘째 아들 성의는 남다른 기풍이 있으며 재덕을 겸비하여 사랑을 받았다. 왕비가 병이 들어 수많은 약이 효험이 없자 도사의 말에 따라 성의는 격군 10여 명을 데리고 일영주(日映珠)를 구하러 서역으로 떠난다. 선관의 도움으로 서역에 이른 성의는 천성금불보탑존사(금강경천불도사)를 만나 일영주를 얻어, 동방삭의 도움으로 파초선을 타고 약수(弱水: 신선이 살았다는 중국 서쪽의 전설 속의 강)를 건너온다. 한편, 향의는 사공과 무사 10여 명을 데리고 나가 일영주를 빼앗고, 성의의 두 눈을 칼로 찢러 바다에 빠뜨린 뒤 돌아와 일영주로 어머니의 병을 고친다. 맹인이 되어 표류하던 성의는 안남국에 사신으로 갔다 오던 호승상에게 구출되어 천자의 후원에 머물게 되고, 채란 공주와 만난다. 어머니가 기러기 발에 매어 보낸 편지를 공주가 읽는 순간 성의는 두 눈이 뜨이고, 장원급제하여 공주와 가약을 맺는다. 성의를 죽이려던 향의는 죽임을 당하고 성의는 안평국 왕이 되어 요순(堯舜)의 정치를 한다.

| 이해와 감상

<적성의전> 다음 세 가지의 서사적 구조가 함께 아우러져 있다. 우선, 서천 서역으로 가서 약을 구해 오는 구약(求藥) 여행 모티프가 나타나 있다. 이는 주인공이 집을 떠나 모험과 고난 끝에 무엇인가를 찾고 돌아와서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찾는다는 점에서 탐색적 서사 구조라 칭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소설은 「바리데기」설화와 닮아 있다.

또 '성의'가 개안(開眼)하는 장면은 많은 점에서 「심청전」과 닮아 있다. 주인공이 희생을 감내하고 시련을 극복한 연후에 인연이 있는 인물을 만나게 되어 결국 결혼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이 전개된다는 점이 그렇다. 물론 '개안 모티프'가 나타나는 점도 두 작품의 유사성 가운데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대립 구조를 주목해 볼 수 있다. '성의'와 '향의'로 대변되는 '선'과 '악'의 대결 구도이다. 선악 대립을 통해 이 이야기는 악의 패배라는 결과를 이끌어 냄으로써 효도와 우애를 강조하려는 의도를 성취해 내고 있다.

| 주제

부모에 대한 효성과 고난 극복의 의지, 불교적인 인과응보(因果應報)

| 줄거리

한양의 이득춘은 흥명하고 비범한 그의 아들 이시백을 금강산의 도사 박 처사의 딸과 결혼시키나 시백은 신부의 얼굴이 박색임에 실망하여 부인을 돌보지 않아 박 씨는 후원에 피화정(避禍亭)을 짓고 홀로 지낸다. 박 씨는 부덕(婦德)과 신묘한 도술의 힘으로 가정을 풍족하게 하고 남편을 장원 급제하게 한다. 어느 날 박 처사가 와서 액운이 끝났다며 딸의 허물을 벗겨 주니 박 씨는 절세미인으로 변하고 시백을 비롯한 가족들이 박 씨를 사랑하게 된다. 시백은 병조 판서가 되어 남경에 사신으로 갔다가 임경업과 함께 가달의 난을 평정하고 귀국한다. 호왕이 조선 침공에 앞서 시백과 경업을 죽이려고 첩자를 보내지만, 박 씨가 이 첩자를 쫓아 버리고 시백을 통해 호왕의 침입에 대비하도록 조정에 청한다. 그러나 김자점의 반대로 청은 거절되고, 이후 호국이 침입하자 왕은 남한산성으로 피란했다가 항복하고 많은 사람이 화를 당한다. 적장 용골대의 아우가 피화당에 침입했다가 박 씨에게 죽음을 당하고, 복수하러 온 용골대 역시 박 씨의 도술에 혼이 난다. 용골대가 인질들을 데리고 회군하다가 의중에서 임경업에게 대패하고, 왕은 박 씨를 절충 부인에 봉한다.

| 이해와 감상

병자호란은 배경으로 한 작자, 연대 미상의 역사 군담 영웅 소설이다. 여타의 영웅 소설과는 달리 여성을 영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영성 영웅 소설이라 할 만하며 변신 모티프를 중심으로 하는 우부현녀(愚夫賢女) 설화와 전쟁 이야기를 적절히 조합하여 흥미롭게 구성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청나라에 대한 치욕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영웅의 활약상을 부각함으로써 훼손된 민족의 자존심을 위로하고 있으며, 여성 영웅의 등장을 통해 남성들의 무능함을 폭로하고 가부장적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 주제

박 씨 부인의 영웅적 기상과 재주

| 줄거리

중국 명나라 형주 지방의 홍 시랑과 양씨 부인 사이에 무남독녀로 태어난 계월은 다섯 살 때 난리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수적 맹길에 의해 물에 던져진다. 물에 빠진 계월은 여공에게 구조되어 그의 집에서 여공의 아들 보국과 함께 곱 도사에게 맡겨져 글과 무예, 술법을 배운다. 과거에서 계월은 장원으로, 보국은 부장원으로 급제하고, 서관과 철통골 등이 연합하여 중원을 침범하자 계월은 원수, 보국은 중군장이 되어 출정한다. 전쟁에서 계월은 적을 섬멸하고 잃었던 부모와 상봉한다. 이후 병이 난 계월을 위해 천자가 어의를 보내는데 진맥하는 과정에서 계월이 여자임이 탄로 난다. 계월은 천자에게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천자는 계월이 벼슬을 유지하고 보국과 혼인하도록 주선한다. 혼인 후 계월이 보국의 애첩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고 부부간의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오랑캐의 침범으로 인해 둘은 다시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계월은 천자와 보국의 목숨을 구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 이후 계월은 대사마 대장군의 작위를 받게 되며, 보국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오, 초의 태자가 되고 세상이 태평해진다.

| 이해와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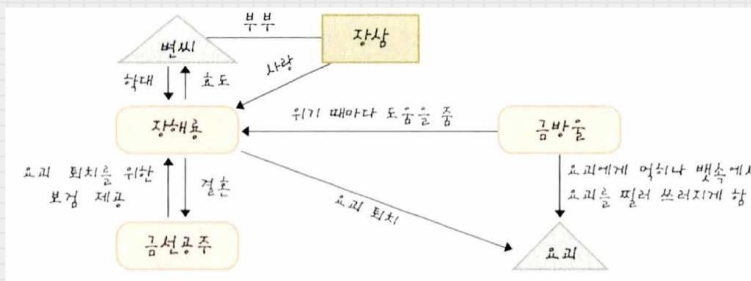
이 작품은 남장을 한 주인공인 홍계월의 고행과 무용담을 그린 여성 영웅 소설이자 군담 소설이다. 남장을 한 여성 주인공의 신분이 밝혀진 후에는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성 영웅 소설의 일반적인 줄거리인데, 이 작품은 여성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며 오히려 남성을 압도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인다.

| 주제

홍계월의 뛰어난 능력과 활약

| 줄거리

동해 용왕의 아들 용자와 남해 용왕의 딸 용녀는 혼인 후 신항길에서 요괴의 공격을 받는다. 용녀는 죽고 용자는 장원 부인 몸속으로 숨었다. 이후 용자는 장원의 아들 해룡이, 용녀는 과부 막씨의 금방울이 되어 태어난다. 금방울은 재주가 뛰어나 장원 부인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장원 부부와 막씨가 연을 맺고 금방울은 사랑을 받는다. 한편 해룡 역시 금방울의 도움으로 여러 고비를 넘기는데, 지하국 요괴에게서 금선 공주를 구할 때도 도움을 받아 해룡은 황제의 사위 자리에 오른다. 그 뒤 금방울은 절세미인으로 허물을 벗고, 황제는 금방울을 해룡과 결혼하게 하여, 해룡은 두 부인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작자·연대 미상의 전기 소설이다. 금방울의 탈을 쓴 용녀가 남자 주인공(主人公)을 도와 괴수를 퇴치하고, 액운을 다한 뒤 탈을 벗고 둘이 부부가 된다는 설화적인 요소가 짙은 전기 소설이다. 남녀 주인공은 전생에 동해 용왕의 아들인 장해룡(張海龍)과 하늘에서 죄를 지어 금방울의 탈을 쓰고 태어난 용녀(龍女)이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초지일관 금방울은 해룡을 도와 큰 공을 세우게 하고, 해룡을 마침내 국왕의 사위가 되게 한다. 그 후 금방울은 인간의 액운이 다하여 탈을 벗고 절세미인이 되는데 이에 국왕이 주선하여 금방울은 장해룡과 인연을 맺게 된다. 해룡은 공주와 금방울을 거느리고 부귀공명을 누리다가 공주는 인간의 수명이 다하여 죽고, 해룡과 금방울은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된다. 중국을 무대로 하였으며, 줄거리가 복잡하면서도 비교적 짜임새 있게 전개되는 낭만적 소설이다.

| 주제

금방울이 고난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는 과정

| 줄거리

명나라의 명신 유희의 아들 유연수는 15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를 제수 받는다. 유 한림은 재덕을 갖춘 사 씨와 결혼하지만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한다. 결국 사 씨는 유 한림에게 교 씨를 후실로 들이도록 권하여 교 씨를 첩으로 들인다. 교 씨는 아들을 낳게 되고, 이후 사 씨도 아들을 낳게 된다. 교 씨는 사 씨의 자리를 탐내어 사 씨를 모함하고, 유 한림은 교 씨의 간계에 속아 사 씨를 내쫓고, 이후 교 씨와 간통한 동청에게 모함을 받아 귀양을 간다. 조정에서는 동청의 참소로 유 한림이 귀양 가게 되었음을 알게 되어 유 한림을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인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유한림은 교 씨를 처형하고 사 씨를 찾아 다시 정실로 받아들인다. 또 사 씨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 씨를 도와주고 사 씨의 아들을 길러준 임 씨를 첩으로 들인다.

| 이해와 감상

사대부가의 처첩 갈등을 중심축으로 하여 당쟁과 같은 정치적 갈등도 함께 문제 삼고 있는 소설이다. 치밀한 구성과 섬세한 심리 묘사로 당대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으며, 사대부들로부터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처첩 갈등형 가정 소설이라는 하나의 유형을 형성시키는 바탕이 된 작품이기도 하다.

| 주제

처첩 갈등으로 인한 사 씨의 고난과 현모양처(賢母良妻)로서의 삶

| 줄거리

이 작품은 송나라 태종 시절 8대 독자였던 처사 소광이 등장한 후, 그의 자식인 월영과 교영 그리고 소현성을 시작으로 하여 3대에 걸친 소씨 가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편 가문 소설이다. 월영, 교영, 소현성 등의 제1대를 시작으로 하여, 운경, 운성, 운명, 수빙, 소황후 등의 제2대, 세명, 세광 등의 제3대로 이어지게 된다. 3대에 걸친 이야기 중 두 번째 세대의 이야기가 양적·질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등장인물도 가장 많다.

방대한 분량의 이 작품을, 대표적 인물과 주요 사건을 통해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작품의 제1대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소현성은 화 소저, 석 소저, 여 소저와 차례로 혼인하고 많은 자식을 두게 된다. 이들 부부는 서로 갈등을 빚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기도 하는데, 작품에 그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제2대 인물들 중에서는 운경, 운성, 운명, 수빙이 비중 있게 등장한다. 운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위 소저와의 혼인 이후에 야기되는 고난과 그것의 극복 과정이, 운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형 소저, 명현 공주, 소영 등과의 혼인 과정에서 겪는 고난 및 혼인 이후의 부인 간 갈등이 주로 제시된다. 그리고 임 소저, 이 소저를 비롯한 많은 부인을 둔 운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혼인 과정에서 겪는 고난 및 혼인 이후의 부인 간 갈등이 주로 제시된다. 수빙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혼인 이후의 시련이 등장한다. 이러한 혼인 과정에서의 문제, 혼인 이후의 문제 등은 부부간의 문제를 넘어 가문 간의 문제와도 연관되며, 이를 통해 이야기가 확장된다. 작품은 제3대 인물들의 행적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 이해와 감상

17세기에 창작되어 조선 후기에 널리 읽힌 작품으로, 한 가문의 3대에 걸친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다. 주요 등장인물은 제1대인 현성, 월영, 제2대인 운경, 운성, 운명, 수빙, 소황후, 제3대인 세명, 세광 등이다. 장편 가문 소설은 가문 간 혹은 가문 내의 사건들을 누대에 걸쳐 전개시키는 고전 소설 작품을 지칭하는데, '소현성록'은 이러한 장편 가문 소설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는 작품이다.

| 주제

가문의 명예와 부모에 대한 효도, 부부의 예절 등을 중시하는 가문의 이야기

| 줄거리

철산 땅에 사는 좌수 배무룡은 후사가 없어 걱정하던 차에 부인 장 씨가 선녀로부터 꽃송이를 받는 꿈을 꾸고 큰딸 장화를 얻고, 이태 뒤 작은딸 홍련까지 얻게 된다. 그러나 홍련이 5세 때 부인 장 씨가 세상을 떠나자 후처로 허 씨를 맞아들인다. 허 씨는 용모도 흉악하지만 마음씨마저 간악하여 두 딸을 학대하였다. 이러한 계모의 구박과 모해로 인해 큰딸 장화가 연못에 빠져 죽게 되고, 홍련 역시 죽은 언니를 그리다 못해 같은 연못에 빠져 죽는다. 원혼이 된 장화와 홍련은 고을 부사를 찾아가나 부임하는 부사마다 겁에 질려 죽고 만다. 그러던 중 정동우라는 사람이 부사로 부임하여, 장화와 홍련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계모를 처형하여 사건을 해결한다. 연못에서 두 자매의 시신을 건져 내어 무덤을 만들어 주고, 배 좌수는 다시 장가들어 두 딸의 현신인 쌍둥이를 낳는다. 이들은 자라서 평양의 거부 이연호의 쌍둥이 윤필, 윤석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게 된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작자 미상의 고전 소설로, 한 가정이 파멸되는 비극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 계모와 전처 자식 간의 갈등으로 인해 전처의 자식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에서 빚어진 윤리적인 문제를 다룬다. 효종 대 전동홀(全東屹)이 평안도 철산 부사로 재직할 당시 실제로 처리한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공쥐팔쥐전」과 함께 대표적인 계모형(繼母型) 소설로 손꼽힌다.

| 주제

가족 간의 갈등과 권선징악(勸善懲惡)

| 줄거리

평양에 사는 김 진사가 과천 현감 자리를 구하려고 서울에 간 사이 그의 딸 채봉은 장필성을 만나 결혼을 약속한다. 김 진사는 벼슬자리를 사는 도중 채봉에 대한 욕심을 드러낸 허 판서에게 자신의 딸을 첩으로 주기로 약속한다. 김 진사 일가가 평양의 재산을 처분하고 서울로 가던 도중, 장필성과의 약속을 잊지 못한 채봉은 도망을 가고 김 진사는 도둑을 만나 전 재산을 털린다. 허 판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김 진사를 가두고 부인에게 채봉을 찾아올 것을 요구한다. 채봉은 자신의 몸을 팔아 허 판서에게 약속한 돈을 만들어 어미에게 주고 '송이'라는 기생으로 살기로 한다. 이때 새로 온 평안 감사는 송이의 서화가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몸값을 지불하여 비서로 삼는다. 장필성은 채봉의 소문을 듣고 송이를 만나러 이방을 자원한다. 두 사람의 사연을 알게 된 평안 감사는 둘을 결혼시키기로 결정하고, 허 판서도 파국을 맞이하면서 채봉의 가족은 재회하게 된다.

| 이해와 감상

작자 미상, 연대 미상의 애정 소설로 주인공 채봉과 장필성이 주어진 역경에 굴하지 않고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제재와 배경이 모두 현실적 성격이 강해서 고전 소설의 우연성을 탈피하였다고 평가받는다. 조선 말기의 타락한 세태를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사건의 구성이나 전개에 있어서도 인과 관계를 중시하고 필연성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근대 소설에 근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노력하는 주인공 채봉을 통해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다.

| 주제

세속적 욕망이나 가부장적 질서에 굴하지 않는 진실하고 순결한 사랑

| 줄거리

김진희와 이혈룡이 한 글방에서 공부하였는데 모두 총명한 재주로서 옛사람들을 능가하였다. 두 사람은 부모님들의 남다른 우의를 생각하여 출세하면 서로 도와주기로 맹세한다. 과거에 급제한 진희는 평양 감사가 되었으나 혈룡은 곤궁한 처지가 되었다. 어느 날 혈룡은 진희를 찾아갔으나 진희는 혈룡을 외면하고 그를 죽이려 한다. 이때 기생 옥단춘이 혈룡의 비범함을 보고 그를 구출한 다음 가연을 맺고 행복하게 지낸다. 이어 혈룡은 과거에 급제하고 암행어사가 되어 걸인 행색으로 옥단춘을 찾아갔는데, 그녀는 변함없이 혈룡을 반긴다. 혈룡은 연광정에서 잔치를 벌이고 놀던 진희를 다시 찾아간다. 김진희는 이혈룡이 나타나자 그를 다시 죽이려 하지만, 혈룡은 어사출두를 알린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친구 간의 우정과 배신, 선비에 대한 기녀의 애정과 신의를 다루고 있다. 순정과 절개, 의리를 지닌 사람이라면 신분의 해방은 물론이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와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당대 민중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춘향전」과 유사한 면을 보인다. 「춘향전」과 「옥단춘전」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신분 관계가 같은 점이나 어사 출도나 봉고파직 등 결말 부분의 줄거리도 유사하며, 두 작품 모두가 판소리계 소설로 율문체이다. 「옥단춘전」은 의기 설화의 구조와 「춘향전」의 구성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주제

신의를 저버린 삶에 대한 경계

| 줄거리

춘향은 과거 기생이었던 월매의 외동딸이다. 남원부사(南原府使)의 아들 이몽룡과 사랑에 빠지지만 이 도령의 아버지가 임기를 끝내고 서울로 돌아가게 됨에 따라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된다. 이때 새로 부임한 남원 부사 변학도는 수청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춘향을 옥에 가두고 고초를 받게 하여 사경에 빠뜨린다. 서울로 간 이몽룡은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어 내려온다. 변학도의 생일 잔치날 각 읍의 수령들이 모인 자리에서 통쾌하게 어사출도 하여 부사를 파직시키고 춘향을 구해 내어 백년해로한다.

| 이해와 감상

봉건 사회에서 전라도 남원을 배경으로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판소리계 소설로, 이본이 무려 120여 종에 이를 정도로 조선 후기에 인기를 누렸던 작품이다. 표면적 주제는 이몽룡과 퇴기의 딸 춘향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이지만, 그 이면적 주제는 신분적 제약을 벗어난 인간 해방과 불의한 지배 계층에 대한 서민들의 항거이다. 춘향과 몽룡의 신분적 격차는 두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서로를 강인하게 만들기도 한다. 변학도의 수청 강요에도 자신의 정절을 지켜 가는 춘향이 이몽룡과 극적으로 재회하여 독자에게 쾌감을 선사한다. 여기에 해학적 표현, 토속적 어조 등이 흥미를 더해 준다.

| 주제

춘향의 굳은 절개와 신분을 넘어선 사랑,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 줄거리

유비는 삼고초려 끝에 제갈공명을 참모로 초빙하는 데 성공한다. 조조는 강남을 평정하기 위해 백만 대군을 이끌고 남정길에 오르고, 조조의 군사들이 제각기 설움을 늘어놓는다. 조조의 선봉 부대가 신야에 이르자 공명은 불과 삼천 명의 군사로 하후돈이 거느린 십만 대군을 크게 무찔러 패주시킨다. 뒤이어 벌어진 장판교 싸움에서 조자룡이 유비의 장자 아두를 품에 안고 조조의 백만 대군 속을 뚫고 나왔으며, 장비는 장판교에서 홀로 버티고 서서 천둥 같은 호령 소리로 조조의 대군을 물리친다. 한편 공명은 오나라로 건너가 손권과 주유의 마음을 움직이고 드디어 벌어진 적벽 대전에서 주유는 공명이 동남풍을 빌어 준 덕택에 조조의 백만 대군을 거의 전멸시키는 전과를 올린다. 백만 대군을 한꺼번에 잃고 불과 몇천의 군사로 도망하던 조조는 화용도로 가는 길에 군사 점고를 하여 못 군사들의 원성을 듣는다. 조조는 화용도에서 관우를 만나 목숨을 구걸한 끝에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돌아간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중국의 소설 '삼국지연의'에 바탕을 두고 적벽 대전 사건을 중심으로 재창조한 판소리 사설이다. 원작을 새롭게 해석하고 변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독특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원작의 영웅 조조를 소심하고 비겁한 인물로 그리는가 하면, 원작에는 없던 무명의 군사들을 등장시켜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설움, 삶의 애환을 절절하게 표현함으로써, 기존의 영웅 서사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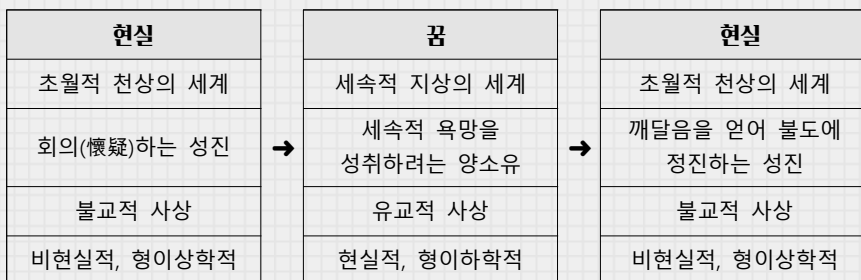
전쟁으로 인한 병사들의 애환과 조조에 대한 풍자

[줄거리]

중국 당나라 때 연화봉에는 서역 천축국에서 온 육관 대사가 법당을 짓고 설법하고 있었다. 하루는 성진이 스승인 육관 대사의 명을 받아 용왕에게 사례하고 돌아오다가 석교 위에서 팔 선녀를 만나 서로 희롱한다. 성진은 선방에 돌아와 불도의 적막함에 회의를 느끼고 속세의 부귀공명을 바라게 된다. 이로 인하여 성진은 육관대사에 의해 인간 세계로 쫓겨나 양소유라는 인물로 태어나고, 팔선녀도 인간으로 태어난다. 양소유는 과거에 급제하고 입신양명하면서 인간으로 태어난 여덟 남자와 차례로 인연을 맺어 2차 6첩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간다. 그러던 중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양소유는 갑자기 나타난 호승에 의해 꿈에서 깨어나 다시 현실의 성진으로 되돌아온다. 성진은 급히 육관 대사에게 나아가 잘못을 빌고 팔 선녀도 모두 불도에 귀의하게 된다. 성진은 육관 대사의 정법을 물려받고 팔 선녀와 함께 큰 도를 얻게 된다.

[이해와 감상]

<구운몽>은 흔히 '인생무상, 일장춘몽' 혹은 '참.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선 진리의 추구'와 같은 주제로 설명이 되는데, 이렇듯 주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작품의 주제 의식을 담고 있는 대목이 이본마다 상이한 데 따른 결과이다. 따라서 <구운몽>의 주제를 단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나, 김만중의 원작에 가까운 이본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참.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선 진리의 추구'와 같은 주제를 담고 있다. <구운몽>은 환몽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현실의 주인공 성진은 불가의 삶에 회의를 느끼고 꿈속(속세)에서 양소유가 되어 부귀공명을 누리다가, 꿈속(속세)의 부귀공명이 덧없음을 깨닫고 현실로 돌아와 불도에 정진할 것을 맹세한다. 그런데 육관 대사는 성진의 이러한 깨달음에 대하여 장자의 호접지몽을 예로 들며, 옳고 그름에 의한 이분법적 판단은 잘못된 것임을 일깨워 준다. <구운몽>은 오랫동안 인기를 누린 것으로 보인다. 작품의 이본이 많고, 그에 따라 작품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구운몽>은 조선을 넘어 중국이나 일본에도 건너가 향유되었다. 이를 통해 <구운몽>이 소설로서 동아시아에서 보편적인 공감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줄거리

천상계에서 문창성이 취중에 지상계를 그리워하는 시를 읊고 선녀들을 희롱한다. 이를 안 옥황상제가 크게 노하여 문창성은 양창곡, 선녀들은 각각 윤 소저, 황 소저, 강남홍, 벽성선, 일지련으로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한다. 인간 세상으로 하강한 양창곡은 과거를 보러 가던 중 기생 강남홍과 가연을 맺고, 강남홍의 천거로 윤 소저와도 인연을 맺는다. 이 무렵, 소주 자사 황 공이 강남홍을 탐하자 강남홍은 강물에 투신하지만 윤 소저에 의해 구출되어 남쪽 탈탈국의 절에 몸을 의탁한다. 양창곡은 장원 급제하여 대원수가 되어 남만을 치는데, 만국의 원수가 되어 있던 강남홍은 명의 원수가 양창곡임을 알고 그에게 온다. 연왕으로 책봉된 양창곡은 처첩들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천상계로 돌아가 다시 선관이 된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몽자 소설의 계보를 잇고 있는 장편 소설이다. 양창곡을 주인공으로 한 군담계의 영웅 소설이면서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룬 가정 소설, 양창곡과 여러 여인의 사랑을 다룬 애정 소설 등의 다채로운 성격을 갖는다. 구성이 치밀하고 대중적 재미와 문학적 완성도가 높아 고전 소설의 백미로 평가받고 있으며, 뛰어난 능력과 개성적 면모를 지닌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동시에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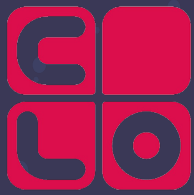
양창곡의 영웅적 일생과 현실 비판

[줄거리]

현실 세계에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던 문인 심의가 꿈속 세계에 들어가 천자 최치원의 총애를 받고 관직을 제수받는다. 천자는 최치원, 수상은 을지문덕, 좌우상은 이규보와 이제현, 국가의 요직은 이인로, 정몽주 등이 맡고 있으며 이색은 대제학을 맡고 있다. 심의는 자신의 시론을 인정받고, 김시습의 난을 격퇴하는 등 공을 세워 높은 지위에 오르지만, 탄핵을 받아 결국 인간 세계로 돌아온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조선 중종 때 심의가 지은 한문 소설로, '대관재기몽' 또는 '몽기'라고도 불린다. 희필(戲筆, 장난삼아 지은 시문)의 성격이 강한 몽유록으로, 정치 현실에 대한 작가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가 심의가 주인공 '심 아무개'로 등장하며, 꿈속 세계에 들어가 높은 벼슬에 올랐다가 탄핵을 받아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이 그려진다. 최치원, 이색, 이규보, 김시습 등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을 등장시켜 문인이 주도하는 왕국의 모습을 보여 준다. 성스러운 공간에서의 삶을 형상화하여 현실을 초월하려는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현대시, 고전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더나은 국어전문학원